

arts change the world

예술지원

사업 개선을 위한

장르 분류체계

재설정 연구

2019. 5.

## 예술지원 사업 개선을 위한 장르 분류체계 재설정 연구

2019년 5월 인쇄

2019년 5월 발행

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편 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빛가람동 352)

전화 061-900-2100, 2200

팩스 061-900-2362

홈페이지 [www.arko.or.kr](http://www.arko.or.kr)

이메일 [arko@arko.or.kr](mailto:arko@arko.or.kr)

본 보고서는 무단전재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 예술지원 사업 개선을 위한 장르 분류체계 재설정 연구

/ 2019. 5.



## 제 출 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하

본 보고서를 예술지원 사업 개선을 위한 장르 분류체계 재설정 연구의 최종보고서  
로 제출합니다.

2019년 5월 7일

주관기관 : (재)희망제작소

연구책임자 : 손정혁 연구위원

연구원 : 박지호 연구원

방연주 선임연구원

오지은 센터장

유다인 연구원

유진 연구원

황현숙 연구원

# 목 차

## 제1장 연구개요

### 제1절 : 연구 배경 및 목적, 범위

1. 연구 배경	2
2. 연구 목적	2
3. 연구 방향	3
4. 연구 범위	3

### 제2절 : 연구 수행 방법

1. 문헌연구	4
2. 법, 제도 및 기관 분석	4
3. 분류체계 및 통계자료 분석	6
4. 전문가 자문 및 실무자 심층면접	7

## 제2장 문화예술 장르별 정의

### 제1절 : 문화예술의 정의

1. 문화예술의 정의	10
2. 예술 정의의 형성	12

### 제2절 : 문학예술

1. 문학예술의 정의	17
2. 문학예술 장르의 형성	19
3. 문학예술 장르별 정의	24

### 제3절 : 시각예술

1. 시각예술의 정의	34
2. 시각예술 장르별 정의	36

제4절 : 공연예술	
1. 공연예술의 정의	71
2. 공연예술 장르별 정의	73
제5절 : 전통예술	
1. 전통예술의 정의 및 구분	93
2. 전통공연예술	96
제6절 : 다원예술 및 융·복합예술	
1. 다원예술	103
2. 융·복합예술	108
제7절 : 예술비평	
1. 예술비평	111
2. 문학비평	113
제3장   문화예술 장르 분류 현황	
제1절 : 2019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현황	
1. 2019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분류	118
2. 세부 사업별 장르 제시 및 분류 현황	120
제2절 : 해외 문화예술 자원 현황	
1. 미국의 문화예술 지원체계	124
2. 영국의 문화예술 지원체계	165
3. 프랑스의 문화예술 지원체계	184

제3절 : 법·조례 분석

1. 예술에 대한 법적 정의	199
2. 문화예술 관련 주요 법	200
3. 문화예술 관련 주요 조례	211
4. 문화예술 관련 법·조례와 장르 분류	237

제4절 : 문화예술 기관 분석

1. 문화예술 관련 기관 현황	239
2. 공공기관: 중앙부처 및 소속 기관, 유관 기관	241
3. 공공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	293
4. 민간기관	329
5. 기관별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현황	341

제5절 : 타 분류체계 분석

1. 국가승인통계 분류	357
2. 산업분류 및 특수분류, 일반분류	374
3. 한국십진분류 6판(KDC 6)	395
4. 포털사이트 및 예매사이트	399

제4장 문화예술활동 및 산업, 향유자 분석

제1절 : 문예연감(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현황

1. 조사분야	414
2. 분야별 현황	416



제2절 : 문화예술산업 및 종사자	
1. 예술인 실태조사	424
2. 경제총조사	428
3.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	431
4. 전국사업체조사	432
5. 미술시장실태조사	433
6. 전문예술법인·단체백서	434
7. 문예회관 운영현황 조사	435
8. 전통공연예술실태조사	438
9. 음악산업백서	439
10. 공연예술실태조사	441
제3절 : 문화예술 향유자	
1. 국민여가활동조사	444
2. 문화향수실태조사	445
제5장 장르 분류체계 재설정(안)	
제1절 : 장르 분류체계 재설정(안)	
1. 장르 분류체계의 기본 방향	448
2. 장르 분류체계(안)	450
3. 기타 사업 분류체계	464
제2절 : 정책 제언	
1. 시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470
2. 후속 연구	475
참고문헌	476



# 제1장

---

## 연구 개요

제1절 : 연구 배경 및 목적, 범위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방향
4. 연구 범위

제2절 : 연구 수행 방법

1. 문헌연구
2. 법, 제도 및 기관 분석
3. 분류체계 및 통계자료 분석
4. 전문가 자문 및 실무자 심층면접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범위

## 1. 연구 배경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목적인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체계가 문화예술의 장르 구분임.
- 사회를 구성하는 다른 여러 분야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장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생성 및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
- 문화예술진흥법에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법 적용 대상인 문화예술 각 장르를 규정하고 있으며, 1972년 최초 제정 후 총 3회에 걸쳐 장르 구분을 개정하였음.
- 가장 최근 개정(13.7.16.) 조항에 따르면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함.
- 그러나 현재의 문화예술 장르 분류체계는 지속해서 변화하는 예술창작 환경에서 예술가들이 자유롭고 원활하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또한 다양한 융합 및 혼합 문화예술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문화예술 장르 구분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현실과 분류체계가 근접하도록 해야 함.

## 2. 연구 목적

-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원사업 체계를 설계하기 위해 장르 분류체계를 재설정하는 것.
- 현재 문화예술 분야의 현실을 반영하고, 현실에 적용가능한 분류체계(안)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문화예술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것.

### 3. 연구 방향

- 기존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장르 검토를 진행함.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융·복합 분야에 대해 검토함.
-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디자인 등 별도의 공공 지원기관이 존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세부 분류를 검토하지 않음. 다만 해당 분야와 융복합에 대한 것은 검토 분야에 포함함.
- 법적<sup>1)</sup>으로 별도의 규정 및 지원이 이루어지는 대중문화는 본 연구의 분류 검토에서 제외함. 단, 대중문화 관련 현황 및 통계자료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 분야가 있는 경우 검토함.

### 4. 연구 범위

- 장르 분류 사례 취합 및 분석
  - 문화예술진흥법 등 문화예술 유관 법률 상 장르 분석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문화예술 분야 타 공공기관, 지역문화재단 지원사업 장르 분류체계 분석
  - 조사·통계상 장르 분류체계 분석(예: 문예연감, 문화향수실태조사, 미술시장실태조사 등)
  - 국내에서 논의되는 예술장르 분류체계 분석(정부보고서, 논문, 비평지 등)
- 해외 사례 분석
  - 해외 주요 기관 지원사업 장르 분류체계 분석
- 지원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장르 분류체계 개편 방향성 정책 제언
  - 2020년 이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분류체계 개편 방향 제시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제2절 연구 수행 방법

### 1. 문헌연구

#### □ 예술에 대한 정의와 변화

- 새로운 장르가 예술의 정의에 추가되는 변화 과정

#### □ 문화예술 장르 구분 관련 기존 연구자료(정부보고서, 논문, 비평지 등) 분석

- 장르별 및 기관별 분류체계 관련 논문 및 연구보고서

### 2. 법, 제도 및 기관 분석

#### □ 문화예술 관련 법, 조례 등 분석

- 문화예술 관련 법, 조례의 정의 및 분류 분석

#### □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현황, 조직, 정관, 규정, 사업분야, 지원제도, 홈페이지 구성 등 분석

- 공공(중앙부처 및 소속 기관, 유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한민국예술원, 정동극장, 아시아문화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의 전당,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립극단, 국립오페라단, 서울예술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국립현대무용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등
- 공공(광역자치단체 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광주문화재단, 대구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세종시문화재단, 울산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충남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등
- 민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국악협회, 한국무용협회, 한국문인협회, 한국미술협회, 한국연극협회, 한국음악협회, 지역문화진흥원 등.

#### □ 해외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의 지원체계 및 분류체계 수집·분석

##### - 미국

-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ational Assembly of State Arts Agencies, New York State Council on the Arts, Florida Division of Cultural Affairs, North Dakota Council on the Arts, South Dakota Arts Council, Missouri Arts Council, Louisiana Division of the Arts, Wisconsin Arts Board, Indiana Arts Commission, Tennessee Arts Commission, Mississippi Arts Commission, North Carolina Arts Council, New Jersey State Council on the Arts, Connecticut Office of the Arts, Rhode Island State Council on the Arts, Massachusetts Cultural Council, Vermont Arts Council, Maine Arts Commission, Guam Council on the Arts & Humanities Agency

##### - 영국

-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s, Arts Council England, Creative Scotland, Art Council of Wales, Art Council of Northern Island

##### - 프랑스

- Minist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Directions Regionales des Affaires Culturelles

### 3. 분류체계 및 통계자료 분석

#### 가. 분류체계 분석

##### □ 국가승인통계 및 기타통계의 분류체계 분석

-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공연예술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 문화향수실태조사, 예술인실태조사 등의 분류체계 분석
- 문화예술산업분류, 저작권산업특수분류, 전문·기술인적자원분류, 콘텐츠산업특수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한국재화및서비스분류, 한국표준교육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 등 분류체계 분석

##### □ 한국십진분류 6판(KDC 6) 분석

##### □ 포털사이트, 예매사이트,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문화예술 관련 사이트의 분류체계 분석

#### 나. 통계자료 분석

##### □ 문화예술 관련 국가승인통계 수집 및 분석

- 경제총조사, 예술인 실태조사, 경제총조사,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 국민여가활동조사, 전국사업체조사, 문화향수 실태조사, 공연예술실태조사,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 □ 문화예술 관련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 미술시장 실태조사



#### 4. 전문가 자문 및 실무자 심층면접

##### 가. 전문가 자문

##### □ 자문회의 개요

- 일시: 2019년 2월 12일(화) 14시
- 장소: 희망제작소 3층 회의실
- 참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연구실 양OO,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정OO
- 진행: 희망제작소 손정혁 연구위원, 방연주 선임연구원, 황현숙 연구원
- 목적: 장르 분류체계 개선안 도출 과정에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에 자문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 주요 자문 내용

- 예술 분야에 대한 포괄적 인식과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함.
- 심층면접을 통해 각 장르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관점)을 확인하고, 지원사업 개선에 적합한 장르별 조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연구진이 도출한 개선방안에 대해 점검하고, 추가 개선 사항 및 예상되는 문제점을 확인함.
- 전문가 자문 의견은 연구진의 판단에 따라 보고서 방향 설정과 본문의 관련 내용에 반영함.

##### 나. 실무자 심층면접(FGI)

##### □ 심층면접 개요

- 시각예술 및 공연예술
  - 일시: 2019년 1월 24일(목) 14시
  - 장소: 서울시 종로구 예술가의집
  - 참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 이OO, 시각예술부 서OO
  - 진행: 희망제작소 손정혁 연구위원, 유다인 연구원

- 문학예술
  - 일시: 2019년 1월 25일(금) 14시
  - 장소: 전남 나주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참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 신OO
  - 진행: 희망제작소 손정혁 연구위원, 황현숙 연구원
- 목적: 각 장르별 실무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현황 파악,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함

#### □ 주요 심층면접 내용

- 사업지원체계 및 조직체계에 따라 문학예술, 공연예술, 시각예술 분야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함.
- FGI를 통해 각 분야별 지원체계 현황 및 문제점 파악,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 연구진의 초기 연구방향 및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실무자 심층 면접 결과는 연구진의 판단에 따라 보고서 방향 설정과 본문의 관련 내용에 반영함.

## 제2장

### 문화예술 장르별 정의

제1절 : 문화예술의 정의

1. 문화예술의 정의
2. 예술 정의의 형성

제2절 : 문학예술

1. 문학예술의 정의
2. 문학예술 장르의 형성
3. 문학예술 장르별 정의

제3절 : 시각예술

1. 시각예술의 정의
2. 시각예술 장르별 정의

제4절 : 공연예술

1. 공연예술의 정의
2. 공연예술 장르별 정의

제5절 : 전통예술

1. 전통예술의 정의 및 구분
2. 전통공연예술

제6절 : 다원예술 및 융·복합예술

1. 다원예술
2. 융·복합예술

제7절 : 예술비평

1. 예술비평
2. 문학비평

## 제1절 문화예술의 정의

## 1. 문화예술의 정의

-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문화예술을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음.
  - 그러나 문화예술, 특히 예술에 대해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음. 광범위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행위의 결과물을 모두 포괄하면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융·복합 장르에 대한 고려까지 포함하는 예술의 정의는 광의적 개념임. 또한 사회 변화에 따라 예술로 인정되는 대상도 바뀌어 왔으며, 현재도 여러 장르(대상)에 대해 예술의 범주에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논쟁이 있음. 그 외에도 예술의 생산 주체에 대한 정의<sup>2)</sup>와 같이 세부적인 정의에 대해서 논의를 지속하고 있음.
- 오늘날 ‘문화’라는 단어는 무척이나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음. 인간 예술활동의 소산들(연극, 영화, 미술, 음악, 건축, 문학 등)을 가리키는 좁은 의미를 넘어 문화는 과학, 의술, 교통, 통신기술 등 소위 문명사회를 이루는 모든 기술적 성과들을 지칭하기도 하고, ‘아시아 문화’, ‘유럽 문화’, ‘청소년 문화’, ‘음식 문화’ 등의 말에서처럼 특정 지역, 계층, 혹은 특정 분야의 삶의 방식을 지시하는 데 쓰이기도 하며, 폐쇄적/개방적 문화, 남성적/여성적 문화, 고급/저질 문화 등의 단어에서처럼 평가적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음. ‘문화’ 개념의 이러한 복합성은 오늘날 문화에 대한 이론적 작업들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음(미학대계간행회, 2007c: 225).
- 문화는 포괄적 의미로 삶의 총체적인 양식을 의미하지만, 정책의 영역에서 살펴보면, 문화 활동과 관련한 공공문제로 좀 더 구체화한 일부분임. 정책 대상으로서 문화는 구체적인 유·무형의 문화 활동과 관련된 공공문제이며, 여기서 문화 활동은 창작자의 활동과 향유자의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현재 한국의 문화를 이루는 다양한 양식 중에서 정부가 정책적 대상으로 삼는 문화 현상이 정책 대상으로서의 문화가 되는 것임(김민주, 2015: 134).
- 예술<sup>3)</sup>은 원래 기술과 같은 의미를 가진 어휘로, 어떤 물건을 제작하는 기술능력을 가리켰으나,

2) 예술을 생산하는 주체는 모두 예술가인지, 예술의 생산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예술가인지에 대한 정의

\* 「예술인 복지법」에는 예술인을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함.

오늘날에는 미적작품(회화, 조각, 음악, 문예 등)을 형성시키는 인간의 창조활동을 지칭함. 기술로서 예술의 의미가 예술활동의 특수성 때문에 미적의미로 한정하여 기술일반과 예술을 구별해서 미적기술(fine art)이라는 뜻을 지니게 된 것은 18세기에 이르러서임.

- 사전적 의미로의 예술은 어떤 일정한 재료(材料)와 양식(樣式), 기교(技巧) 등에 의해 미(美)를 창조하고 표현하는 인간의 창조활동(創造活動) 및 그 산물(產物)이라고 정의 내려지고 있으나 예술이란 감각적 지각(感覺的 知覺)에 의한 형식상의 여러 관계의 통일이 라는 것으로, 크로체(B. Croce)는 ‘예술은 직관(直觀)이라 하였고, 랭거(S. K. Langer)는 예술로서 형식은 “감정이 참여하는 추상적인 작용에 의해 성취된다”고 강조함. 다시 말해서 예술은 객관적(客觀的)이거나 명확한 개념은 아님. 시대에 따라서 혹은 사람에 따라서 예술의 개념을 정의하지만 그것은 가변적인 것임(서명애·이상복, 2007: 67-68).
- 예술의 한자어를 보면 예(藝)는 본래 ‘심는다’는 뜻으로 기능과 기술을 의미하며, 술(術)은 본래 ‘나라 안의 길’을 의미하며, 이 길은 어떤 곤란한 과제를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실행방도로서 역시 기술을 의미하는 말이라 할 수 있음. 역사 가운데서 문무(文武)의 기예나 학술, 재능 등을 의미하는 말이 되고, 이것이 그대로 우리 땅에 이식되었음(동아원 색대백과사전, 1989; 민주식, 2014: 440).

〈표 1〉 예술에 대한 정의

학자	정의 내용
Platon	미의 이데아, 즉 절대미를 내세우면서 그것이 이성적인 선과 결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함으로써 도덕에 의거한 미와 예술을 주장함
Aristoteless	도덕적, 정치적 맥락으로부터 분리해 관객에게 이성의 힘을 고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포와 연민과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것으로 봄
Kant	미적인 영역 또는 예술 영역이 도덕이나 학문을 떠나서 그 어떤 것에도 봉사하지 않는 보편성을 띤 독자적인 영역임을 입증함
Hegel	‘미학’을 통해 예술미를 자연미보다 우월한 것으로 정립하고, 예술의 목적이 결코 자연의 모방이 아니라고 정의함

자료: 서명애·이상복, 2007: 69

3) 1950년대 와이츠(M. Weitz)는 ‘예술’은 열린 개념이므로, 필요충분조건에 의해 정의될 수 없고 가족유사성에 의해 파악되어야 한다는 예술 정의 불가론을 주장했음. 이러한 예술 정의 불가론과 정의 가능론이 대립하는 가운데 예술을 정의하려는 기능주의적 정의 시도, 제도적 정의 시도, 역사적 정의 시도 등이 있었음. 또한 거트(B. Gaut)는 이에 대한 비판으로 클러스터 설명을 시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비판도 존재함(김희정, 2015: 112).

## 2. 예술 정의의 형성

### 가. 인문학적 정의의 형성

- 전통적으로 예술이란 무엇인가의 최초의 답변으로 간주되어 온 것은 모방이었지만, 현대에 이르러 예술은 직관(크로체 Benedetto Croce), 표현(크로체-콜링우드 R. G. Collingwood), 감정의 전달(톨스토이 Leo Tolstoy), 감정의 형식(랭어 Susan Langer), 의미있는 형식(벨 Clive Bell) 등으로 주장되기 시작하였음. 많은 사람들은 이것들을 예술의 본질에 관한 주장이라고 받아들였으며, 따라서 나름대로 예술의 정의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였음. 하지만 이들은 실패한 예술 정의로 간주됨. 물론 이들이 제시한 표현이나 형식과 같은 개념들은 예술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특징들을 설명해 주는 미학의 기본 개념들임. 그렇더라도, 이들 중 어느 것도 예술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제시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음(미학대계 간행회, 2007b: 130-131).
- 예술이 무엇인가는 철학적인 범주에 속하는 질문이며, 이것에 대해서는 일치되는 명확한 답변이 제시되지 않았음(주강원, 2011:561).
  - 예술사학자 고펜리치(E. H. Gombrich)는 예술(Art)은 없으며 예술가(Artist)만이 존재한다고 선언했음.<sup>4)</sup>
  - 미술사학자 잔슨(H. W. Janson) 역시 예술(Art)에 대해 궁극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어쨌든 예술 작품은 '미적인 물체(aesthetic object)'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 또 그 고유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만들어지는 점에서 여타의 물체와는 구별된다고 설명함.<sup>5)</sup>
  - 예술은 특정한 나라 또는 특정한 시대에 한정되지 않고,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으며, 오지에 사는 종족이나 종교 관념이 전혀 없는 부족들도 어떤 형태로든 예술적 표현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이며,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임은 부정할 수 없음.<sup>6)</sup>
- 그럼에도 다양한 의미와 형태, 대상으로 예술을 정의해 왔으며, 그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4) E. H. Gombrich, The Story of Art, 15<sup>th</sup> ed(Phaidon Press Inc., 1996), p.15(주강원, 2011: 562에서 재인용)

5) H. W. Janson, A. F. Janson, 최기득 옮김, 『서양미술사』(미진사, 2001), 13면(주강원, 2011: 562에서 재인용)

6) Hendrick Willem van Loon, 남경태 옮김, 『반론의 예술사』(들녘, 2008), 13면(주강원, 2011: 562에서 재인용)

사회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역사성을 가지고 새롭게 정의해 왔음.

- 조선 후기에는 ‘예술(fine art)’과 같이 시, 회화, 서예 등을 총괄하는 명칭이 존재하지 않았음. 당연히 이들 장르가 아름다움을 공통적으로 추구한다는 사고도 존재할 수 없었음. 그렇다고 조선 후기에 ‘예술’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미학대계간행회, 2007a: 623)은 아니며, ‘예술’과 상당히 근접해 보이는 ‘시서화 일체(혹은 일률)’라는 명제는 다른 관념을 담고(미학대계간행회, 2007a: 623) 있지 않음.
- 개념의 변화는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계관으로 전환을 전제하는 것임. 과거에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서화(書畵)에서 새로운 속화(續畵) 개념으로 전환한 예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러한 변화들은 단지 장르 형식의 변화를 넘어서는 것들임. 예컨대, 사대부들에 의한 종래의 전통 화(畵) 중심의 수묵화와 계층적으로 저급한 화공들에 의한 속(續) 중심의 민화, 탕화 등 채색화가 회화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 아래 통합되는 것은 장르 상의 계급적 차별을 없애는 일이었음. 따라서 이러한 형식상의 변화를 지칭하는 용어의 문제는 미학적 차원이나 언어학적인 문제영역을 넘어 사회 정치적 차원의 격변을 의미하는 것이었음(이인범, 2004: 12).
- 개념의 변화는 명칭의 변화 측면에서도 나타나는데, ‘한국화’라는 명칭은 1981년 국가가 주도했던 이른바 <국전>이 폐지되고 난 이후 민간으로 이양된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됨. 그전까지 한국 전통회화는 종래의 화조화, 인물화, 산수화를 통칭하는 ‘동양화’라는 용어로 관용되어 왔음(이인범, 2004: 15-16).
- 문학의 경우에도 동서양 모두 19세기 이전의 문학은 ‘시’로 여겨졌음. 서양의 ‘literature’란 말, 글로 쓰인 것, 문헌을 가리키는 말이었음. 19세기 이전에는 포에시아(poesia), ‘시’라는 말을 현재의 ‘문학’에 해당하는 말로 썼음. 동양에서는 오늘날 ‘문학’에 해당하는 말로 시, 시문으로 썼음(이상섭, 2001: 98).
- 과거에 문학이라는 단어는 ‘학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학문의 발달과 함께 자연과학, 정치·경제·법률 등과 같은 학문 이외에 순수문학·철학·역사학·사회학·언어학 등을 총칭하는 단어가 됨. 오늘날에는 더욱 한정적인 의미에서 순수문학만을 가리키며, 문예(文藝)의 의미로 쓰임(두산백과).
- 동양에서 정철, 윤선도 등 선비들이 지은 시조, 가사, 한시 작품과 무명인이 지은 『춘향전』, 『임진록』 등 대중문학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음. 서양에서도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가 모두 문학에 속한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은 산문 문학이 발전하고 민주주의적 개념이 사회적으로 확산한 19세기의 일이었음(이상섭, 2001: 98).

- 또한 장르 구분에 있어서 수잔 레이시(2010)는 1960년대 후반부터 매체의 전통적 경계 구분을 개입하지 않는 예술을 설명하기 위해 '새장르'라는 말을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으며, 새장르가 회화나 조각 또는 필름뿐 아니라, 서로 다른 매체의 결합을 포함한다고 말함. 여기에 설치, 퍼포먼스, 개념미술 그리고 혼합매체 미술이 포함되며, 내용과 형식 면에서 실험적인 것에 대한 포괄적 수용이 새장르의 의미라고 함(김동규, 2015: 213에서 재인용).
- 아서 단토(2004: 241-242)에 따르면 매체의 평면성과 물감이 근대 회화를 규정해주는 최종 보루였다면, 이 보루는 앤디 워홀의 작업 〈브릴로 박스〉<sup>7)</sup>에 이르러 격파되었음. 회화를 회화로 만들어주던 '매체'의 특성이 더 이상 회화의 정체성을 보증하지 못하는 이상, 회화로 대표되는 시각예술은 이제 다양한 종류의 '예술 활동'만을 남겨놓았음(김동규, 2015: 215에서 재인용).

#### 나. 예술과 자연과학, 그리고 개념의 변화

□ '예술'을 의미하는 'art'의 어원은 라틴어의 'ars'임. 그리고 'ars'는 희랍어인 'techne'에서 온 단어임. 이렇게 어원적으로 보면, 예술과 기술은 어떤 식으로든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음. 적어도 예술과 기술은 '숨씨'나 '술(術)'을 적극적으로 요구받는다는 점에서 그러함. 희랍어 'techne'처럼 '숨씨'나 '술(術)'을 뜻하던 라틴어 'ars'는 오늘날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예술과 많은 점에서 다름. 그러나 중세의 학교나 12세기 들어 나타났던 대학에서 라틴어 'ars'는 단순히 '숨씨'나 '술(術)'이 아닌 지적인 작업을 요구받는 '학문(學問)'이나 '학과(學科)'를 의미하게 되었음. 중세의 대학에서 가장 기초적인 일련의 과목은 이른바 '7자유학예(自由學藝, septem artes liberales)'<sup>8)</sup>로 불렸음. 물론 이 용어에는 오늘날 예술에 속하는 그 어느 것도 속하지 않았음. 예술과 과학의 차이에 대한 논의는 18세기 중반 무렵 본격적으로 나타났

7) "앤디 워홀의 〈브릴로 상자〉와 슈퍼마켓에 있는 브릴로 상자 사이에 외적으로 어떠한 차이도 없다. (...)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더 이상 실례를 들어서 예술의 의미를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외관에 관련한 어떠한 것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것은 당신이 예술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자 한다면 각각 경험으로부터 사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단히 말해서, 당신은 철학으로 향해야 한다." (아서 단토, 2005; 정낙림, 2016: 68에서 재인용)

8) '7自由學藝'는 '3學(trivium)'과 '4科(quadrivium)'로 나뉜다. 인간의 정신과 관련있는 말과 논리에 관한 '3학'에는 문법, 수사학, 변증술이, 자연과 세계의 사물에 대해 논의하는 '4과'에는 산술, 기하, 음악, 천문학이 속한다. 단 여기서 말하는 음악의 경우, 화성학만을 가리킨다(미학대개간학회, 2007b: 487).



음. ‘ars’가 예술을 가리키는 ‘art’의 어원이라고 할 때, ‘ars’는 원래 지녔던 것보다도 그 후에 나타났던 의미와 훨씬 밀접함. 특히 ‘순수 예술’ 또는 ‘미감적 예술(beaus-arts, fine arts)’이 확립되면서, 예술은 과학과 완전히 다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었음. 또한 예술이 ‘미’를 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순수 예술은 이제 기능술과 구분될 수 있었음. 이제 예술은 기능술인 공예와 완전히 구분되며, 과학 또는 학문과도 다른 것으로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음(미학대계간행회, 2007b: 487-488).

- 19세기 들어 자연과학이 급속하게 발전되면서, 근대 이후 이루어졌던 산업화와 더불어 과학기술의 발전도 동시에 진행되었음. 이런 예술 외적인 상황은 20세기 이후의 예술에 그 어느 때보다도 과학과 과학기술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났음. 심지어 과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예술에 직접 영향을 끼치기에 이르렀음. 이제는 예술과 과학 또는 과학기술은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고 있음. 즉 전자매체의 발전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술 영역에서 자연과학과 현대의 과학기술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음. 심지어 이질적인 예술과 과학 또는 과학기술이라는 두 영역의 접목은 아주 빨리 진행되고 있음. 특히 최근에 보게 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예술의 디지털화를 가능케 했음. 이는 그동안 이루어진 예술과 기술의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과학기술과 예술 사이에 화학적 결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미학대계간행회, 2007b: 488-489).

- 〈브릴로 상자〉는 각 시대마다 각각 다른 ‘예술’ 개념 혹은 예술에 대한 믿음의 체계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만들었음. 만약 1860년대에 어떤 작가가 〈브릴로 상자〉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예술작품이 될 수 없었을 것임. 1960년대에 〈브릴로 상자〉가 예술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의 예술 상황과 연결하여 설명될 수 있음. 1950년대 전후 물감들의 향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추상표현주의가 미국의 예술을 지배하게 됨으로써 미국의 예술 시장은 그 뒤에 팝 아트, 즉 상품 이미지든 스타 이미지든 익숙한 이미지들을 물감의 흔적처럼 화려하게 배열하고 있는 팝 아트의 등장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었음. 팝 아트 이후, 워홀의 〈브릴로 상자〉처럼 일상의 사물의 이미지와 구분할 수 없는 다양한 작품들이 등장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무엇이든지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음(미학대계간행회, 2007c: 271).

- 뎀토는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예술계(artworld)”, 즉 “한 대상을 예술작품으로 식별하기 위해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무엇, 곧 예술사의 지식과 이론에 해당하는, 예술계”라는 개념을 도입함. 한 대상이 예술작품인지 알기 위해서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그 당시의

예술 제작 상황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당시의 예술에 대한 믿음 체계와 관련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임. 예컨대 이 〈브릴로 상자〉가 예술작품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작품이 워홀이 일상적인 것을 찬양하기 위해 일상에서 친숙하게 사용한 브릴로 상자를 이용한 것이라는 지식과 더불어 그 당시가 일상적인 것과 유사하게 보이는 대상도 예술로서 허용할 수 있는 분위기 혹은 예술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던 시기라는 지식도 지니고 있어야 함.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상자〉가 17세기나 18세기에 나타났다면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임. 다시 말하면 댄토는 〈브릴로 상자〉의 등장이 시대마다 상이한 예술에 대한 믿음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예술에 대한 믿음 체계를 갖도록 만든 사건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임. 이 사건이 기존의 예술에 대한 믿음 체계의 변화를 야기하여 새로운 예술 개념을 가지도록 만들었음(미학대계간행회, 2007c: 271-272).

## 제2절 문학예술

## 1. 문학예술의 정의

- 문학예술은 “언어를 통해 인간의 삶, 사상, 감정을 의도적으로 특수한 양식에 따라 표현한 것”임(김종희 외, 2007: 13).
- 문학예술에 대한 넓은 정의는 “언어로 된 예술”이라는 것. 그러나 문학예술 이외에도 언어를 사용하는 예술이 있으며, 글자로 기록된 모든 것이 문학예술에 포함되지도 않음. 일기, 편지, 논문 등과 구별되는 시, 소설, 희곡은 작가에 의해 의도적이며 심미적으로 창작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구별됨. 의도적이란 것은 문학예술만의 보편적이고 특수한 양식을 따른다는 의미임(김종희 외, 2007: 10-13).
- 동서양 모두 19세기 이전의 문학예술은 ‘시’로 여겨졌음. 서양의 ‘literature’란 말, 글로 쓰인 것, 문헌을 가리키는 말이었음. 19세기 이전에는 포에시아(poesia), ‘시’라는 말을 현재의 ‘문학’에 해당하는 말로 썼음. 동양에서는 오늘날 ‘문학’에 해당 되는 말로 시, 시문으로 썼음(이상섭, 2001: 98).
  - 과거에 문학이라는 단어는 ‘학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학문의 발달과 함께 자연과학, 정치·경제·법률 등과 같은 학문 이외에 순수문학·철학·역사학·사회학·언어학 등을 총칭하는 단어가 됨. 오늘날에는 더욱 한정적인 의미에서 순수문학만을 가리키며, 문예(文藝)의 의미로 쓰임(두산백과).<sup>9)</sup>
- 문학예술 작품의 창작자인 작가에 중점을 둔 정의가 있음(김종희 외, 2007: 11-13).
  - 헨(I. Hearn)은 문학예술은 정서적 표현의 예술이라 말함.
  - 허든슨(W. H. Hudson)은 문학예술이란 근본적으로 언어의 매개물을 통한 인생의 표현이라 정의함.
- 문학예술 작품의 독자를 중점에 둔 정의는 다음과 같음.
  - 헉슬리(A. I. huxley)는 문학예술은 정화된 쾌락의 모든 근원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정의하였음.
  - 포스넷(H. Posnet)은 문학예술이란 산문이건 운문이건 반성보다는 상상의 결과요, 교훈

9)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95588&cid=40942&categoryId=32859>

이나 실제적 효과보다는 될 수 있는 많은 국민에게 쾌락을 줌을 목적으로 하고, 특수한 지식이 아니라 일반적 지식에 호소하는 저술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의하였음.

〈표 2〉 문학예술 정의

연구자	내용
헨(I. Hearn)	문학예술은 정서적 표현의 예술
허든슨(W. H. Hudson)	문학예술이란 근본적으로 언어의 매개물을 통한 인생의 표현
학슬리(A. I. huxley)	문학예술은 정화된 쾌락의 모든 근원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
포스넷(H. Posnet)	문학예술이란 산문이건 운문이건 반성보다는 상상의 결과요, 교훈이나 실제적 효과보다는 될 수 있는 많은 국민에게 쾌락을 줌을 목적으로 하고, 특수한 지식이 아니라 일반적 지식에 호소하는 저술로 이루어진 것

자료: 김종희 외, (2007)

□ 르네 웰렉((René Wellek)과 오스틴 워렌(Austin Warren)은 『문학의 이론』에서 세 가지 정의를 제시함. 형식적인 측면에서, ‘문학은 인쇄된 모든 것’이라는 광의의 정의가 있음. 두 번째는 ‘위대한 책(great book), 그 제재를 불문하고 문학의 형식과 표현을 취한 유명한 책’으로 인쇄라는 형식적 조건에 질적 평가를 더한 정의가 있음. 세 번째는 ‘상상으로 해서 된 문학’, ‘예술적인 언어에 의한 ‘인생의 모방’으로서의 문학이라는 정의가 있음(웰렉·워렌, 2002: 21-24). “문예의 중심은 서정시, 서사시, 희곡 등의 전통적인 장르”이며, 이 세 개의 장르 모두의 공통점은 허구의 세계, 상상의 세계라는 것임(웰렉·워렌, 2002: 28-29).

## 2. 문학예술 장르의 형성

- 문학예술 장르는 창작의 규범이자, 문학연구 체계 수립의 근간이 됨. 문학예술의 갈래를 각 나라, 시대, 작가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나 이는 양식(style)에 따른 분류임. 문학예술의 형식(form)에 따른 분류, 작품의 형성원리 또는 공통의 특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가 예술로서의 문학예술의 본질에 적합한 방법임(김종희 외, 2007: 48).
- 문학예술은 그 시초에 율기 위해, 노래하기 위해 지어졌고 거기에 춤이 더해졌음. 원시 문학예술은 노래와 율동에 어울리는 운문의 형태로 지어졌음. 서양에서 운문문학은 그 길이, 소재, 제시 방법, 운율의 종류에 따라 극시, 서사시, 노래시(melic poetry, 서정시)로 구분됨(이상섭, 2001: 171).
- 서양에서 문학예술 장르 분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론이 통용되어옴. 아리스토텔레스는 작품의 제시 방법, 독자(청중)에 대한 작가의 입장을 기준으로 서정시, 서사시, 극을 구분함.
  -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론에서 서정시는 1인칭 화자가 이야기하는 경우, 서사시는 서술자는 1인칭이되 등장인물 스스로가 말하는 경우, 극은 등장인물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경우를 가리킴(김종희 외, 2007: 49).
- 아리스토텔레스의 구분은 르네상스 시대까지 이어져 희곡(비극, 희극, 희비극), 서사시(산문소설), 서정시로 굳어지고 문학의 틀로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범으로 자리 잡았음(김종희 외, 2007: 49).
- 18세기에 이르러 시와 소설, 희곡 등이 명확히 구별되기 시작했음. 델포(G. Delfau)에 따르면 18세기 말 역사, 철학, 웅변, 극예술, 시, 소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문예(belles-lettres)라는 개념이 무너지고 근대적 의미의 문학예술이 확립되었다고 설명하며, 문헌학자 로베르 에스카르피(Robert Escarpit)의 연구를 빌어 서구 유럽에서 문학이라는 단어가 1770년과 1800년 사이에 출현했다고 밝힘(김종희, 2001: 142-143).
  - 근대 문학예술의 특징 중 하나는 산문 문학의 발달임. 18세기 영국에서는 소설은 근대적 의미의 서사시라고 주장하면서 심각한 주제를 다루는 장편 이야기라는 의미의 서사시는 실상 소설에 의해 계승된 것으로 여겨짐(이상섭, 2001: 165).
  - 개인적 감정 표현으로서의 짧은 서정시는 인간에 대한 보편적 진리를 다루지 못하는 하급의 작품으로 여겨졌으나, 18세기 이후 시를 정서의 표현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주류로

자리 잡았고 오늘날 좁은 의미의 시는 서정시를 가리킴. 이러한 변화는 문학 사상이 모방론에서 표현론으로 옮겨온 것을 반영함(이상섭, 2001: 192-193).

□ 19세기 후반의 장르론은 자연과학적 관점을 차용하여 전개됨. 장르(genre)는 프랑스어로 본래 생물학 또는 박물학에서 동식물의 분류와 체계를 세울 때 사용하던 단어임. 이 시기의 장르 구분도 대체로 서정시, 서사시, 극의 3분법을 따르되 각 장르의 내용이나 성격에 대한 관점이나 해석의 차이가 두드러짐. 이전 시기와 달리 장르를 고정 불변의 원칙이라기 보다는 변화, 발전, 성장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함.

- 프랑스의 문학평론가이자 문학사가인 브뤼티에르(Brunetière, Ferdinand. 1849~1906)는 다윈의 진화론을 차용, 장르는 생물의 종(種)처럼 진화한다는 이론을 전개하였음. 장르에는 정착성과 영구성이 없고 발생, 성장, 사멸, 또는 완성 및 성취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임(윤병로 외, 2002: 46).

- 에르네스트 보베(E. Bovet)는 하나의 장르는 시간적 반복을 통해 반복, 전개 된다고 보았고, 작가의 의도를 장르 구분의 기준으로 삼음. 서정시의 주 대상은 신·연애·자연이고 감정이 충만한 젊음, 청년기의 장르임. 서사시는 인간 또는 집단이 다른 인간 또는 집단과의 투쟁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으로, 행위와 정열을 포함한 장년기 장르에 해당함. 극(화곡)은 자기 자신과의 투쟁, 개별적이고 무상한 존재와 보편적이고 영원한 법칙 간의 갈등을 다루며 긴장에서 이완으로 이행하는 노년기의 장르라고 구분함. 이 3단계는 개인에 의해서 체험되는 동시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경과되는 것이라고 설명함(윤병로 외, 2002: 47; 김종희 외, 2007: 51).

□ 독일이 미학자 헤르만 코헨(Hermann Cohen, 1842~1918)은 3대 장르론에 소설을 더함. 시적 표현의 한 형식으로서 소설에 독립적 지위를 부여함. 사건 서술의 관점에서 소설은 외형상 서사시에 가까우나, 내면은 서정시에서 발전된 형태로 볼 수 있음(윤병로 외, 2002: 47).

□ 프라이(N. Frye)는 문학예술 장르를 화극, 로맨스, 비극, 아이러니와 풍자로 구분함. 프라이는 작가가 스스로 새로운 문학예술을 만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미 인류가 해온 이야기의 틀 속에서 원형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보았음. 이런 관점에서 4계절에 관련된 신화를 기준으로 4개 장르를 제시하였음. 그러나 신화를 문학예술의 원형으로 보지 않을 때는 성립하기 어려운 논의라는 비판이 있음(김종희 외, 2007: 51-52).

- 댄지거(M. K. Danziger)와 존슨(W. S. Johnson)은 『문학비평입문』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문학예술 장르 구분의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음. 첫 번째, 작품의 매체 및 형태를 기준으로 운문/산문, 기록문학/구비문학으로 구분됨. 둘째, 제재와 성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농촌소설/연애소설/역사소설/풍속소설 등으로 나눌 수 있음. 셋째, 창작 목적에 따라 순수문학/참여문학/계몽문학으로 구분이 가능함. 넷째, 독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순수문학/대중문학 등으로 나뉨(김종희 외, 2007: 52-53).
- 리처드 몰턴(Richard Green Moulton, 1848~1924)은 『문학형태론』에서 문학에는 서정시, 서사시, 극시와 같은 시문학(창작문학)이 있고, 철학, 역사, 웅변과 같은 산문문학이 있다고 설명함.
  - 몰턴은 “문학 형태의 근본적 요소는 발라드 댄스다. 이것은 운문과 음악의 반주와 무용의 결합인 것이다. 문학이 처음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를 취한다”고 주장함. 몰턴은 소리의 요소는 서정시로, 말의 요소는 서사시로, 몸짓의 요소는 극시로 분화되어 발전했다고 설명하였음. 여기서 구전에서 기록으로, 구전문학(부동浮動문학)과 기록문학(고정문학)이 생김.
  - 시문학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고, 서정시, 서사시, 극시는 오늘날의 시, 소설, 희곡으로 변화된 창작문학이라고 봄. 산문문학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토의하는 문학이며, 역사, 철학, 웅변은 각각 전문적인 산문으로 이어지고 그 외에 학문 또는 과학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산문은 창작적 변화가 용인된 산문으로 그 대표 사례가 수필이라고 함(윤병로 외, 2002: 261-262).
- 우리나라에서 문학예술 장르 논의는 국문 고전문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현대문학은 서양의 장르 개념을 수용한 것으로 보임. 국문 고전문학, 구비문학, 한문학, 현대문학을 두루 포괄하는 체계적인 장르 수립은 남겨진 과제임. 고전 문학을 중심으로 우리 문학의 장르 구분을 시도한 예는 다음과 같음(민족문화대백과<sup>10)</sup>; 김종희 외, 2007: 54-55).
  - 이병기는 『국문학개론』에서 시가는 표현으로, 산문은 서술이라는 특징으로 구분함.
  - 조운제는 『국문학개설』에서 문필을 소설과 희곡으로 구분하고, 가사와 시가를 별도의 장르로 독립시킴. 수필, 일기 등은 포함하지 않음.
  - 장덕순은 『국문학통론』에서 서정적 양식, 서사적 양식, 극적 양식으로 구분하였음. 수필을

10)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54838&cid=46645&categoryId=46645#TABLE\\_OF\\_CONTENT3](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54838&cid=46645&categoryId=46645#TABLE_OF_CONTENT3)

소설과 같은 서사 양식에 포함시켰다는 한계가 있음.

- 조동일은 고전문학에서 현대문학까지 우리 문학예술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장르 구분을 시도하였음. 『판소리의 장르 규정』에서 조운제, 장덕순의 이론에 기초 서정, 교술, 서사, 극곡의 4분법을 제시함. 서사에 판소리를 포함시킴. 교술에는 경기체가, 가전체, 가사, 악장, 몽유록, 창가, 수필 등이 포함되었으나 교술이라는 용어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있음.

〈표 3〉 문학예술 장르의 구분

연구자	내용
아리스토텔레스	작품의 제시방법, 독자(청중)에 대한 작가의 입장 - 서정시: 1인칭 화자가 이야기하는 경우 - 서사시: 서술자는 1인칭이되 등장인물 스스로가 말하는 경우 - 극: 등장인물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경우
브론티에르	다윈의 진화론을 문학에 적용, 장르 이론을 전개 장르에는 정착성과 연구성이 없고 발생, 성장, 사멸, 또는 완성 및 성취되는 과정이 있음
보베	작가의 의도, 정신세계를 기준으로 삼음. 3단계는 개인의 생애에서, 시대의 변천에 따라 전개됨 - 서정시: 청년기의 문학 장르로 기대와 절망의 극단 사이에서 발생 - 서사시: 행위와 정열을 포함한 장년기의 장르 - 극: 긴장에서 이완으로 이행하는 노년기의 장르
헤르만 코헨	서정시, 서사시, 극, 소설
프라이	사계절에 관련된 신화를 통해 4대 장르 주장 - 희곡, 로맨스, 비극, 아이러니와 풍자
몰턴	- 서사시, 서정시, 희곡, 역사, 철학, 웅변
덴지거·존슨	장르 구분의 네 가지 기준 제시 - 작품의 매체 및 형태 - 제재와 성격, 창작 목적, 독자와의 관계
이병기	- 시가: 잡가(雜歌), 향가, 시조, 별곡체, 가사(歌辭), 극시(劇詩) - 산문: 설화, 소설, 내간(內簡), 일기, 기행, 잡문(雜問)
조운제	- 시가: 향가, 장가(長歌), 경기체가, 시조 - 가사: 가사(歌辭) - 소설: 신화, 전설, 설화, 소설 - 희곡: 가면극, 인형극, 창극(唱劇)
장덕순	- 서정적 양식(抒情的 樣式): 고전시가, 향가, 고려가요, 시조, 가사(主觀的 抒情的 歌辭), 잡가 - 서사적 양식(敘事的 樣式): 설화, 소설, 수필(일기, 내간, 기행, 잡필, 객관적·서사적 가사) - 극적 양식(劇的 樣式): 가면극, 인형극, 창극



연구자	내용
조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정(抒情): 서정민요 · 서정무가 · 한시일반 · 사(詞) · 고대가요 · 향가 · 고려속요 · 시조 · 잡가 · 신체시 · 현대시</li> <li>- 서사(敘事): 서사민요 · 서사무가 · 판소리 · 서사시 · 설화 · 소설</li> <li>- 극곡(劇曲): 탈춤 · 꼭두각시놀음 · 무당굿놀이 · 창극 · 신파극 · 현대극</li> <li>- 교술(敎述): 교술민요, 수수께끼, 사(辭) · 부(賦) · 한문일반 · 가전(假傳) · 몽유록(夢遊) · 시화(詩話) · 만록 · 경기체가 · 가사 · 창가 · 수필 · 서간 · 기행 · 일기 · 비평</li> </ul>

자료: 윤병로 외, 2002: 46-47; 김종희 외, 2007: 49-56.

□ 여러 논쟁에도 불구하고 문학예술 장르는 서정, 서사, 극, 교술이라는 4분법에 따른 구분이 가장 일반적이며, 이 기준의 구체적인 역사태로 존재하는 현대문학의 시, 소설, 수필, 희곡이 대표적인 장르로 다뤄짐(김상욱, 2009: 12-13). 근대 이전에는 현대문학의 하위 장르로서의 시가 문학 그 자체로 다뤄졌음. 이후 운문과 산문이 구별되고, 산문 문학이 발전함에 따라 소설과 희곡 등이 시와 독립된 장르로 자리 잡음. 형식상 소설은 서사시, 희곡은 극시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현대문학의 대표적인 장르인 시, 소설, 수필, 희곡과 더불어 비평, 아동 · 청소년문학을 다룰 것임.

### 3. 문학예술 장르별 정의

#### 가. 시

- 자연이나 인생에 대하여 일어나는 감흥과 사상 따위를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로 표현한 글임. 형식에 따라 정형시·자유시·산문시로 나누며, 내용에 따라 서정시·서사시·극시로 나눌 수 있음(표준국어대사전).
- 정조(情操)와 감동을 간직한 계율적 언어로서 사람의 마음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문학의 형식으로 서정시, 서사시, 극시 등으로 분류함(김종희 외, 2007: 58).
  - 계율적 언어, 예술적 표현이라는 말이 추상적임(김종희 외, 2007: 58).
- 시에 대한 가장 간단한 정의는 ‘소설, 희곡, 일반 산문이 아닌 글’임. 이 정의도 서양에서는 18세기까지 성립되지 않았음. 근대 이전의 ‘시’는 희곡과 서사시, 고양된 말과 운문으로 쓴 이야기 문학을 의미했음. 셰익스피어는 오늘날 극작가로 불리지만, 당대에는 시인으로 불렸음(이상섭, 2001: 192).
- 반면 동양에서는 일찍이 시가 개인의 감정 표현이라는 논의가 있었음. 공자의 『시경』에는 서정시가 수록되어 있고, 운문으로 형이상학이나 역사를 말하는 글은 『역경』과 『서경』으로 편찬하였음. 주자학의 창시자 주희는 사물에 대한 느낌에서 일상적인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분은 리듬이 있는 율음이 된다는 시론을 펼쳤음(이상섭, 2001: 192).
-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방론적 관점에서 “시는 율어(律語)에 의한 모방”이라고 정의함. 모방의 대상은 사람의 행위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염두에 둔 시는 서정시가 아니라 운문으로 된 희곡과 서사시였음(김종희 외, 2007: 58-59; 이상섭, 2001: 192).
- 영국의 시인 시드니(Sir Philip Sidney, 1554~1586)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호라티우스의 시론을 따라 시는 모방예술이라고 규정하고, 시의 교훈성이나 즐거움 등 효용성의 관점에서 “시는 가르치고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말하는 그림(speaking picture)”이라고 정의함(구본철, 2014: 33).
- 표현론적 관점에서 정의로 미국의 시인 에드가 앨런 포(E. A. Poe, 1809~1849)는 “시는 미의 운율적 창조”라고 하였음. 포는 도덕적 교훈이나 정서적 만족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목적으로 창조되어야 한다면 ‘시를 위한 시’를 주장했음.

- 19세기 초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의 ‘시는 강한 느낌의 상상적인 표현으로서 리듬이 있는 것이 상례이다’, ‘시는 강한 느낌이 저절로 넘쳐나온 것이다’라는 말은 시에 대한 새로운 선언으로 간주됨. 문예비평사에서 시를 정서의 표현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문학 사상이 모방론에서 표현론으로 옮겨온 것을 반영함. 동시에 모방적 성격이 강한 소설, 희곡 등과 시, 특히 서정시가 명확히 구별되기 시작했음 (이상섭, 2001: 193).

〈표 4〉 시의 정의

학자	정의 내용
아리스토텔레스(Aristoreless)	시는 율어(律語)에 의한 모방
시드니(Sir Philip Sidney)	시는 가르치고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말하는 그림
포(E. A. Poe)	시는 미의 운율적 창조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	강한 느낌의 상상적인 표현으로서 리듬이 있는 것이 상례

자료: 김중희 외, 2007: 58-59; 구본철, 2014: 33; 이상섭, 2001: 192-193.

- 현대문학의 하위 장르로서 시는 좁은 의미에서 서정시를 가리킴. 18세기까지 개인적 감정 표현으로서의 짧은 서정시는 문학에서 하급의 작품으로 여겨졌으나, 오늘날에는 문학의 정수로 일컬어짐. 문예비평사에서 시를 정서의 표현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문학 사상이 모방론에서 표현론으로 옮겨온 것을 반영함. 동시에 모방적 성격이 강한 소설, 희곡 등과 시, 특히 서정시가 명확히 구별되기 시작했음(이상섭, 2001: 192-193).
- 서정시는 서양에서는 19세기 이후, 한국에서는 현대문학 이래 창작되는 모든 시의 질과 양에 있어서 압도적임. 서정시의 압도적 지위 때문에 극시, 서사시는 시의 영역에서 벗어나 산문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상황임(이상섭, 2001: 174).
- 서정시는 노래 부를 수 있는 시가(詩歌)를 의미함. 포(Poe)의 ‘시는 미의 운율적 창조’라는 정의는 시의 음악성을 가리킨 것. 서정시에 대한 보다 일반적 정의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너무 길지 않게 행이나 연 속에 표현하는 시’라는 것(김중희 외, 2007: 140).
- 서사시는 객관적 사실을 노래한 것임. 서사시의 어원인 희랍어 epos가 ‘이야기’를 의미함. 영웅이나 역사적 사실을 시인 자신의 주관의 개인 없이 객관적으로 서술해 놓은 시임. 호머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밀턴의 『실낙원』, 우리나라의 이규보의 『동명왕편』, 조선 세종의 『용비어천가』와 같은 예가 있음. 특별한 영웅이 존재하지 않는 오늘날에는 서사시가 많이

쓰이지 않음(김종희 외, 2007: 143-144).

- 극시는 극의 형식을 따오거나 극적인 수법을 사용하여 만든 시를 말함. 극시는 희곡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극시의 연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찾아볼 수 있음. 아리스토텔레스는 극시를 비극, 희극, 희비극으로 구분하였는데, 고대에 운문으로 쓴 극은 모두 극시에 포함된다 고 할 수 있음. 오늘날에도 극을 위한 시, 시극 형태가 시도되고 있지만 실험적인 형태이고, 근대 산문문학의 발전에 따라 극시는 희곡의 형태로 발전했음(윤병로 외, 2006: 82-83).

#### 나. 소설

- 소설은 “허구적인 이야기와 서술적인 산문으로 인생을 표현하는 창작문학”(윤병로 외, 2002: 148)이며, “인생에 대하여 꾸며진 환상적이며 사실적인 이야기로서 창작문학의 한 장르”(김종희 외, 2007: 147)임.
- 사실 또는 작가의 상상력에 바탕을 두고 허구적으로 이야기를 꾸며 나간 산문체의 문학 양식임. 일정한 구조 속에서 배경과 등장인물의 행동, 사상, 심리 따위를 통하여 인간의 모습이나 사회상을 드러냄. 분량에 따라 장편·중편·단편으로, 내용에 따라 과학 소설·역사 소설·추리 소설 따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옛날의 설화나 서사시 따위의 전통을 이어받아 근대에 와서 발달한 문학 양식임(표준국어대사전).
- 소설의 기원은 이야기와 설화, 즉 고대의 서사시 또는 중세의 로맨스에서 찾을 수 있지만, 인간성을 탐구하고 인생을 표현하는 창작문학으로서 소설은 근대 산업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성립되었음(김종희 외, 2007: 152).
- 서양에서는 소설을 가리키는 용어는 로맨스(romance), 스토리(story, short story), 노블(novel)이 있음.
  - 유럽 대륙에서는 소설을 로만이라고 부름. 로만은 로마말(라틴어)의 방이라는 뜻이고, 로만으로 기록된 오락을 위한 시와 이야기 등을 로망스라고 불렀음. 중세 시대 남유럽에서 연애, 도술, 무용 등을 소재로 로만스말(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등)로 쓰인 환상적인 이야기를 가리키는 말에서 옴.
  - 영어의 ‘노블’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이야기, 새 소문, 뉴스란 뜻에서 왔으며, 단편소설과 구별되는 장편소설을 가리킴(이상섭, 2001: 182).

- 동양의 소설(小說)은 문자 그대로 철학, 역사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자질구레한, 하찮은 이야기들을 가리켰음.
- 근대적 의미의 소설은 단순히 재미있게 꾸민 이야기와는 다름. 사람의 본성과 행동이 인과 관계를 가짐을 설득력 있게 확인시키기 시작하면서 성립됨. 사람의 본성에 대한 사실주의적 태도가 근대소설의 가장 중요한 토대임(이상섭, 2001: 183).
  - 근대소설은 이전의 서사 형식인 로망스가 귀족, 궁정, 기사를 다뤘다면, 근대소설은 로망스에서 배제됐던 소시민, 하층민 등 보통 사람들의 현실적 일상 세계를 다뤘음. 이 점에서 사실성, 개연성, 내면성 등이 소설의 문법으로 성립되었음(도정일, 2007: 37-38).
- 근대소설은 희곡의 대화에 의한 이야기 전개방식, 서정시의 정서적 분위기 등을 수용하였음. 희곡이나 시는 능동, 말하기로 전달되는 전통이 있어 운율적 형식이 있으나 소설은 상대적으로 형식적 요소가 적음. 이런 점에서 소설 관련 논의는 소설의 전개 방식이나 서술 형태보다 소설이 다루는 이야기, 내용에 관한 것이 더 많음(이상섭, 2001: 185).

#### 다. 희곡

- “등장인물들의 행동이나 대화를 기본 수단으로 하여 표현하는 예술 작품”을 말함(표준국어대사전).
-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연극의 대본”으로 정의되기도 하나, 대본은 연출이 개입된 결과물임. 희곡은 연출이 개입되기 이전의 작품으로, 희곡이 곧 대본은 아님(김종희 외, 2007: 224).
- 희곡은 활자화된 문학작품으로, 구두 전승 또는 행위 전승 방법에 의존해온 우리나라의 전통극인 굿, 탈춤, 가면극 등은 희곡에 포괄되지는 않음(김준선 외, 2012: 80).
- 중국 원어는 놀이(play), 서양 원어는 행동(action)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두 개념 모두 희곡에서 중요함. 희곡은 사실이 아니라 꾸며낸 짓, 흉내 낸 것이라는 의미에서 놀이임. 문학은 모방이라고 정의한 이들은 희곡을 염두에 둔 것이었음(이상섭, 2001: 386).
- 희곡의 운율적 성격 때문에 시와 희곡이 오랫동안 동일시되어 옴. 희곡은 말을 주고받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말과 행동을 잘 흉내 내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과 형식화가 이루어짐. 말은 노래에 가까워지고 행동은 춤에 가까워짐. 희곡이 운율적인 시의 언어와 수사적

방법을 동원하면서 시극(poetic drama)이 형성되었음. 근대에는 산문 희곡이 발달하였으나, 시적 정취가 여전히 남아 있음(이상섭, 2001: 386-387).

- 희곡은 무대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상연되어야 한다는 제약에 따라 형식을 갖게 됨. 인간의 삶이 잡다한 행동의 무질서한 연속이라면, 희곡은 인간의 행동을 형식화하여 다룸. 희곡의 막과 장의 구분은 이 전체적 행동의 형식화를 위한 장치임(이상섭, 2001: 387).

#### 라. 수필

- 수필은 “인생의 경험이나 사상, 판단, 체험을 형식적인 구애 없이 산문 양식으로 쓰는 글”(한국 문학평론가협회 편, 2006a: 266) 또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수법으로 인생과 자연을 성찰한 특수하고 개인적인 주제를 산문형식으로 쓴 적당한 길이의 작품”으로 정의됨(윤병로 외, 2002: 261).

- 리처드 몰턴은 철학, 역사, 웅변과 같은 산문문학 중에서 학문이나 과학에 포함되지 않은 산문, 예를 들면 일기, 전기, 서간 등은 창작적 변화가 허용될 수 있는 산문인데 그 대표가 수필이라고 설명함(윤병로 외, 2002: 262).
- 조연현은 몰턴의 문학형태 이론을 따라 수필은 전문적 산문 이외에 창작적 요소를 지닌 모든 산문문학의 총칭이라고 정의함(윤병로 외, 2002: 262).

- 수필은 동양어로는 수필이고, 서양어로는 에세이임. 수필가 윤오영은 ‘수필은 동양적인 에세이요, 에세이는 서구적 수필’이라고 했음. 오늘날의 수필 개념은 서구의 에세이 개념이 유입되면서 문학적 의미를 갖게 되었고, 그 형식에 있어서 뚜렷한 구분점을 찾기 어려움(윤모춘, 1989: 13).

- 동양의 수필 개념은 한국·중국·일본이 공유하고 있는데, 한문 시대의 고전 작품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음. 한국에서는 이인로의 파한집(破閑集, 1260), 한글로 쓰인 궁중비화, 최초로 국한문 혼용으로 쓰인 유길준의 서유견문(西遊見聞)을 수필 작품으로 분류함. 용어상으로 수필이 처음 쓰인 건 조성건의 한거수필(閑居隨筆, 1688), 연암 박지원의 일신수필(駢沚隨筆, 1737)이 꼽힘. 중국에서는 남송(南宋)시대의 홍매(洪邁, 1123-1202)의 용재수필(容齋隨筆), 일본은 무로마치(室町時代, 1338-1573) 시대의 동제수필(東齋隨筆)이 용어의 기원이라고 함(윤모춘, 1989: 11).

- 서양의 수필을 가리키는 에세(essai)는 프랑스의 몽테뉴가 1580년 인생과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의 입장이 아니라 한 명의 교양인으로서 '시험적으로 말하여 본다'는 뜻으로 자신의 글모음에 붙인 이름이었음. 프랜시스 베이컨은 1597년 로마 시대의 도덕적 사색록을 따라 지은 짧은 글모음을 출간하면서 몽테뉴의 저서 제목을 차용하여 에세이(essay)라고 제목을 붙임. 이렇게 에세이라는 이름이 붙은 산문이 나오기 시작함(이상섭, 2001: 189).
  - 현대 에세이 문학의 특징으로 해악과 기지를 꾀음. 18세기 초 영국의 애디슨과 스틸이 『스펙테이터』라는 잡지를 내면서 사회 현상에 대해 유머와 위트를 더한 짧은 글을 썼고,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유머, 개인적인 공상과 애상, 시적 정취가 넘치는 에세이들이 신문과 잡지를 통해 발표되었음(이상섭, 2001: 190).
  - 동시에 사상적 내용을 담은 산문도 발전하여 윤리, 문학, 종교에 대한 비평적 에세이가 많이 쓰임. 현대에는 사사로운 신변적 수필보다 문화, 사회, 정치 등을 비평적으로 다루는 에세이가 더 우세한 경향을 보임(이상섭, 2001: 190).
- 수필의 양식은 다양하여 산문체 문장, 편지 형식의 글, 일기 형식의 글, 감상문, 기행문, 수상문 등과 같은 양식으로 기술되기도 하고 이러한 문장도 수필의 범주에 포함시킴(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2006b: 267).
- 좁은 의미에서 수필과 에세이를 구분하는 견해도 있음. 표현 내용과 기술 방법에 따라 사회적 관점, 논리적 체계, 지적 요소, 객관적 진술, 비판적 문제에 접근하는 글을 에세이라 함. 개인적 문제, 정서적 세계, 감성적 감각, 주관적 판단, 비비판적(非批判的) 문제 등 신변잡기에 근접하는 좁은 의미의 수필을 미셀러니(miscellany)로 구분하기도 함(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2006b: 267).
- 중수필(formal essay, 重隨筆)은 소평론 형식의 글, 무거운 사회적, 도덕적, 비판적 문제를 다루며 지적이고 사색적임. 베이컨적인 수필이라고도 설명함. 경수필(informal, personal essay, 輕隨筆)은 가벼운 유머와 풍자를 담은 만필 형식, 정서적이고 신변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몽테뉴적 수필이라고도 함(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2006b: 267). 중수필은 주제의 강도 정도에 따라 논문에 가까워질 수 있음. 지식을 전달하는 설명문은 에세이가 아님. 에세이의 특징은 글을 통해 저자의 독특한 관점, 체험, 사건이나 경험에 대한 작가의 고유한 태도와 해석 등이 표출되어야 함(이상섭, 2001: 190).

### 마. 아동·청소년 문학

- 아동이나 동심적 성인에게 읽힐 것을 목적으로 창작된 모든 문예작품, 즉 동요(童謠)·동시(童詩)·동화(童話)·아동소설(兒童小說)·아동극(兒童劇) 등의 총칭임.<sup>11)</sup>
- 아동문학은 아동을 독자로 하는 문학으로 내용면이나 형식면에서 아동에게 읽히는 문학이며, 아동이 읽어야 할 문학임. 그러나 성인도 영원한 영혼의 고향인 동심의 세계를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아동만이 독자가 아니므로 아동문학의 독자는 협의로는 아동이나, 광의로는 동심적 성인도 포함됨.<sup>12)</sup>
- 아동문학이 문학의 4대 장르로부터 구분되는 장르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음. 몰튼의 형태적 분류에 따르면, 동요와 동시는 창조적 명상(冥想)인 시가(詩歌)에, 동화와 아동소설은 창조적 서술인 담창작(譚創作)에, 아동극은 창조적 표출인 희곡(戲曲)에 각각 대입시켜 구분할 수 있으므로, 굳이 특수문학이라고만 할 수는 없음.<sup>13)</sup> 따라서 아동문학이란 명칭은 성인문학과의 구분을 위한 편의적 명칭이라는 관점이 있음.
- 아동문학은 ‘장르를 보는 다른 관점’을 전제로 할 때, 독자적인 장르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음. 근래에 장르는 정태적인 범주이거나 텍스트의 형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며 변화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함. 코헨(Cohen)은 장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장르와 경쟁이나 보완을 통해 명명되고 설정한다고 주장했고, 니콜라예바는 개별 작품이 장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존 장르를 변형하고 재창조한다고 설명함(김상욱, 2009: 10-12)
- 세계적으로 아동문학이 독자적인 영역을 굳힌 것은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서이지만, ‘아동문학’이라는 총칭이 유럽에서 정착된 것은 20세기부터임. 우리나라에서는 최남선(崔南善)에 의하여 1908년 『소년』지와 1914년 『아이들보이』가 간행되면서 ‘소년문학’ 또는 아동문학이라는 호칭이 사용된 이래, 방정환(方定煥)이 1923년 『어린이』를 내면서 점차 그 개념이 형성되어 오다가 그 내용과 형식의 특수성으로 성인문학과 대립개념이 아닌 일반문학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편의상 아동문학이라

11) [네이버 지식백과] 아동문학 [兒童文學] (국어국문학자료사전, 1998., 이응백, 김원경, 김선풍)

12) [네이버 지식백과] 아동문학 [兒童文學] (국어국문학자료사전, 1998., 이응백, 김원경, 김선풍)

13) [네이버 지식백과] 아동문학 [兒童文學] (국어국문학자료사전, 1998., 이응백, 김원경, 김선풍)



는 용어로 통일, 정착된 것임. 이러한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근대적 아동문학은 이 땅의 근대적 개화·계몽사상 속에서 발아, 성숙한 산물이었음.<sup>14)</sup>

□ 청소년 문학(young adult literature, Jugend literatur)이란 청소년들이 읽게끔 하는 전략을 내포한 일체의 텍스트를 가리킴. 좁은 의미에서는 청소년을 의식하여 청소년의 시선이나 언어로 쓴 작품으로 규정함(유성호, 2009: 48).

- 청소년은 아동에서 성인으로 변화되어가는 과도기의 상태로 규정함. 오늘날 청소년은 10대 중후반, 중·고등학교 학생 연령 또는 과거 ‘청년’이라 칭했던 20대 초반의 대학생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쓰임(유성호, 2009: 49).
- 청소년이라는 수식어의 해석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음. 청소년을 창작 주체로서 본다면 ‘청소년이 생산한 작품’, 독서 주체 또는 수용자로서 청소년을 강조하면 ‘청소년을 위해 창작된 작품, 소재 및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청소년의 삶을 다룬 문학’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김성진, 2011: 72).

□ 청소년 문학은 청소년의 시선과 언어로 발견되는 정체감이 담겨 있어야 함. 문학에서 청소년의 정체감 형성의 역할은 전통적으로 교양소설, 성장소설, 이니시에이션 소설(initiation story)이 맡아왔으며, 우리 청소년 문학은 이 세 가지의 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성장 소설로 통칭할 수 있음(유성호, 2009: 49).

- 교양소설은 주인공이 어떤 환경에서 유년부터 청년에 이르는 어느 시기에 자신을 발견하고 정신적으로 혹은 내면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묘사한 작품임. 성장소설은 주인공의 내면적 성장 과정을 계기적, 인과적으로 짜 놓은 소설을 말함. 이니시에이션 소설은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겪는 일련의 시련을 통해 사회에 진입하는 과정을 담은 소설을 가리킴(유성호, 2009: 49).

바. 기타

1) 시나리오

□ 시나리오(scenario)는 영화 대본, “스크린에 영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영화형식에 따라서

14) [네이버 지식백과] 아동문학 [兒童文學] (국어국문학자료사전, 1998., 이응백, 김원경, 김선풍)

문장으로 작성한 각본”을 가리킴(두산백과)<sup>15)</sup>. 영어권에서는 스크린 라이팅(screen writing), 필름 스크립트라는 말로 불리기도 함(김종희 외, 2007: 273).

- 시나리오의 역할은 “영화 스토리의 뼈대를 만들어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정서를 영상을 통해 전달하여 관객과 소통하는 것”임. 등장인물의 연기를 위한 기본 지침서이며,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여 영화 제작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안내서의 역할을 함(민경원, 2014: 63).
- 시나리오라는 단어는 16세기 이탈리아의 즉흥극 양식인 코메디아 델라르테(commedia dell'arte)에서 극의 내용과 연기자의 역할 등을 표시한 메모를 가리키는 말이었음. 초기 영화 각본도 간단한 메모 형식이었기에 시나리오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쓰게 됐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영화의 표현기법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상세한 각본이 필요하게 되었고, 무성영화 말기이자 유성영화 등장 시기인 1920년대 후반부터 시나리오와 그 작가의 중요성이 높아졌음(두산백과)<sup>16)</sup>.
- 시나리오는 희곡과 달리 텍스트로 독자에게 읽히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문학의 독립 장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시나리오 문학’이라는 용어로 문학의 한 장르로 포섭하는 관점도 있음. 이런 관점에서 시나리오는 소설, 시와 다른 독자적 양식이 있으며 작법 기술을 필요로 하는 창작 작업의 결과물임.
  - 시나리오 창작은 아이디어-시놉시스-트리트먼트-시나리오 과정을 거치며 완성됨. 시나리오는 3막 구조를 가지며, 각 막은 비트-시퀀스로 구성됨. 비트(beat)는 시나리오에서 스토리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 요소이며, 목적을 가진 행동의 단위를 가리킴. 비트의 지속과 변화 과정에서 장면이 구성되는데 3개에서 6개의 비트가 한 장면을 구성함. 장면은 이야기적 사건이라는 성격을 가지며, 장면이 모여 보다 특정 상황의 시작과 끝이 있는 시퀀스(sequence)를 형성함. 시퀀스가 모여 막(act)이 되고 막이 모여 영화가 됨(민경원, 2014: 64-66).
  - 시나리오의 묘사는 단순히 영상이 펼쳐지는 것처럼 써져야 함. 소설은 과거형으로 쓰이지만, 시나리오는 현재형으로 써야 함. 시나리오는 이야기가 벌어지는 시공간을 알려주는 헤드라인, 신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해 주는 대지문, 등장인물,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심리상태를 표현하는 소지문, 등장인물의 대사, 신과 신을 연결하는 장면전환을 표시함(민경원, 2014: 67).

15)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17864&cid=40942&categoryId=33091> <검색일: 2019년 2월 21일>

16)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40942&docId=1117864&categoryId=33091> <검색일: 2019년 2월 21일>

## 2) 하이퍼텍스트 문학

- 하이퍼텍스트라는 글쓰기 환경 혹은 기술을 문학과 접목시킨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문학 형태임. 여기서 작가는 데이터 제공자로 등장하며, 독자는 마우스로 원하는 곳을 누르면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텍스트를 읽을 수 있음. 하이퍼텍스트 문학은 발달된 컴퓨터의 네트워크 기능에 기반해서 인간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무한히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문학 형태로서의 가능성을 지님. 작가들이 하이퍼텍스트 기능을 문학에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이며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익숙한 개념으로 퍼져나감. 최근에는 전자책(e-book)의 확대에 따라 하이퍼텍스트 문학은 더욱 본격화되었음.<sup>17)</sup>
- 하이퍼텍스트 상에서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며, 이 글쓰기는 문자, 영상, 소리, 행위 등 모든 것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 독자(네티즌)에 따라 읽는 방식이 다르고, 다양한 플롯의 창조도 가능하기에 작품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감상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여겨짐(최혜실, 2012: 122-123).
- 한편, 애니메이션, 컴퓨터 게임 중 롤플레이어나 어드벤처게임에서 새롭고 독특한 서사구조가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작품의 재미는 '서사에서 비롯되고, 기술은 그 표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함. 디지털은 그 속성상 소리와 영상, 문자가 혼합되기 쉽기 때문에 통합매체적 성향이 나타남. 소설 연구에서 발전한 서사학은 영화 등 영상언어 문법으로 확산이 되었고, 이제 디지털 매체에도 적용될 때임. 디지털 매체의 양방향성, 비선형성, 통합성의 특성을 지녔으므로 그에 맞는 서사문법이 개발되어야 함(최혜실, 2012: 95-96).

17) [네이버 지식백과] 하이퍼텍스트 문학 [Hypertext literature] (문학비평용어사전, 2006. 1. 30., 국학자료원)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31098&cid=60657&categoryId=60657>

## 제3절 시각예술

## 1. 시각예술의 정의

- 시각예술(Visual Arts)이란 미술이란 단어를 확장하여 사용하는 용어로, 회화, 조각, 판화, 소묘, 사진, 미디어 아트 등을 포함한 시각적 감각에 기반한 예술을 통칭하는 용어임(황진현·임진희, 2012: 163).
- 미술이란 단어는 원래 일본이 서양의 근대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영어의 Fine arts, 불어의 Beaux-Arts, 독어의 Schöne Kunst를 번역한 말로,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순수한 시각예술, 공간예술, 조형예술을 의미함(정공주·박주석, 2014: 64).
- 조형예술(the plastic art / l'art plastique)이란 용어 역시, 시각예술과 같이 물질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유형적인 작품을 만드는 예술, 회화, 조각, 설치, 건축, 디자인 등 모든 장르를 통틀어 지칭하기도 함(김혜진, 2002: 181).
- 예술의 표상이 시각적 계기 형식을 나타내는지,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공간적 병렬 형식으로 나타나는가에 따라 시간 예술과 공간 예술로 구분하기도 하며, 회화, 조각, 건축과 같이 제작이 끝나도 오랜 시간 작품이 보존된다고 하여 시각예술을 공간 예술로 부르기도 함(김혜진, 2002: 180).

〈표 5〉 시간예술과 공간예술의 구분

구분	예술 표상 방식	예술 종류
시간예술 (공연예술)	- 시간적 계기형식으로 드러남 - 연속적, 계기적이며, 음악연주와 같이 시작해서 그것이 끝나면 없어져 버리는 예술	문학, 연극, 음악 등
공간예술 (시각예술)	-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공간적 병렬 형식으로 나타남 - 제작이 끝나도 오랜 시간 작품이 보존되며,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며 물질적인 특성을 가짐	회화, 조각, 건축 등

자료: 김혜진, 2002: 180에서 재구성

- 미술이 회화나 조각 같은 전통적 영역에 머물러 있을 때는 이 단어의 사용에 문제가 없었으나, 사진이 등장한 이후 기존의 미술과는 다른 방법론과 철학이 등장하고 다양한 시각에 감응하는

예술이 등장하면서 이를 포괄할 용어가 필요성이 대두함(황진현·임진희, 2012: 163).

- 회화, 조각, 판화 등 전통적 영역 뿐 아니라, 사진, 디자인, 비디오 아트 등 오늘날의 다양한 응용예술의 영역을 포괄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각예술이란 용어를 사용함(정공주·박주석, 2014: 65).

## 2. 시각예술 장르별 정의

### 가. 회화

□ 회화는 선·형태·색채·명암·재질감 등의 구성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색(色)과 선(線)이 양대 요소임. 곧, 회화(繪畵)는 평면 위에 색과 선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형상을 표현하는 조형예술로 정의될 수 있음(김운규, 2015: 6).

- 한자어를 분석하면, ‘회(繪)’는 곧 자수(刺繡)로 풀이할 수 있는데, 이는 ‘여러 가지 색깔의 실을 합하다’는 의미이며, ‘화(畵)’는 구획하다는 의미로, ‘윤곽을 그리다’가 어의에 따른 원래의 뜻이 될 수 있음(김운규, 2015: 6).
- 반면, 영어단어 ‘painting’이 말해주듯, 서구에서 회화는 ‘색을 칠하다’의 의미가 지배적임. 그러나 이 서구적 관점은 협의의 회화이며, 일반적으로 회화는 색채를 사용하지 않은 선묘화, 동양의 수묵화, 판화 등을 포함함. 문인화와 같이 서(書), 화(畵)가 결합된 형태 역시 회화로 볼 수 있음(김운규, 2015: 6).
- 오늘날 동아시아에서 사용하는 ‘회화’라는 단어는 비록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서구의 ‘painting’이라는 용어를 일본에서 번안한 근대적 용어임. 근대 이전만 하더라도 회화라는 용어보다 ‘서화’라는 용어를 즐겨 쓰거나 ‘도화’라고 부르거나 ‘도(圖)’나 ‘화’라고 불렀으며 ‘회화’라고 쓰는 경우는 드물었음. ‘화’의 원시적 의미는 장언원의 『역대명화기』에 나타나 있음. 장언원은 그림이 대상의 시각적인 형상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주목하며, “그림이란 비슷하게 그리는 것이다”, “그림은 형체를 그리는 것이다”, “그림이란 경계를 나누는 것이다” 등의 언급을 근거로 그림이란 대상의 외형을 드러내고, 다른 대상과 형상을 비교하는 것이라고 그림의 형식에 대해 정의함. 이에 따르면 그림이란 시각적 형태를 통해 다른 사물과 구별해서 작용을 하는 것이며, 즉 그가 이해하는 그림이란 동아시아 회화의 오랜 전통적인 관점인 물상의 구획이라는 해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윤기연, 2017: 10).

□ 전통 회화의 역사는 선사시대 동굴벽화에서부터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으며,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던 염원을 담아 기록하고 싶었으나 문자가 없던 당시에는 자연물에서 얻을 수 있는 염료와 동굴의 벽에 동물을 표현하는 것이 기원이 되어 회화의 역사가 시작되었음. BC 15,000~BC 10,000에 그려진 알타미라와 라스코 벽화에서 원시미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으며, 회화의 기법은 계속 발전이 되어 서양에서는 패널에 오일로 그림을 그리고, 나아가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게 됨. 동양에서도 안료를 사용하여 벽에 그림을 그린 고분벽화를 통하여 역사의 깊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뿐 아니라 동아시아권에서는 동식물을 태우고 난 그을음으로 얻어지는 먹을 재료 삼아 종이와 천 위에 그림을 그리게 되는 등, 이러한 역사를 기반으로 동서양의 회화가 발전하여 지금의 형태를 유지하게 되었음(나정조, 2010: 11).

□ 알짜이 전통적 예술에 있어서 대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재현하는 것이 중요하였음. 이러한 재현 방법은 좀 더 완전하고 아름다운 수학적 질서를 바탕으로 하여 정당화할 수 있는 것임.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재현적인 모습을 바탕으로 작가의 주관이 반영된 이상적인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이 현대미술에서의 재현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오승희, 1994; 박경진, 2009: 14에서 재인용).

- 고전주의 시대의 무거운 주제와 명확한 형태, 르네상스식의 원근법에 충실한 웅장함과 공간감은 이제 가벼운 감성적 주제와 현란한 색, 인간 개인의 시각으로 소화할 수 있는 프레임으로 대체되었음(이영화, 2001; 박경진, 2009: 9에서 재인용).
- 19세기 이후, 자연 속에서 지각되는 색에 변화를 주면서 작가만의 독특한 표현방식으로 형태와 선을 변화시키며 자신의 느낌과 진실에 충실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됨. 이 시기부터 예술에 있어서 표현은 인간이 자신의 주관적인 심상과 내면세계의 강렬한 충동으로 인해 다시 재탄생하여 보여지게 된 것임 (GuilaBallas, 2002: 178; 박경진, 2009: 9-10에서 재인용).
- 르네상스 시대까지의 화가의 작품은 의뢰자의 생각에 의해서만 존재하였다면 현대미술 이후의 작품은 화가의 자유로운 감정이나 사물에 대한 느낌을 중요하게 나타내기 시작하였음. 이러한 움직임은 아카데미 풍의 마지막 거장인 앵그르를 끝으로 하여 등장한 19세기 말에 인상주의 미술과 야수주의를 시작으로 하는 현대 미술의 20세기 초 서구의 화가들이 과학 기술과 민주 사회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시각과 또 다른 표현의 회화로 탄생시킨 이후부터임. 이 시기 이전에 과거의 미술에서 재현(再現)이라는 방식은 모방의 개념과 동일하게 여겨졌지만 현대미술이라는 흐름 안에서는 재현의 의미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으로 한정지을 수 없게 되었음. 현대미술에서의 재현은 이제 작가의 시각적인 능력과 내면의 감성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음. 20세기를 전후로 하여 이러한 방식의 전환은 회화양식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박경진, 2009: 1).

□ 전통적 회화에서 회화 이미지는 ‘자연의 거울’이었고, 실재(實在)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환영’이었음. 회화에서 대상의 객관적인 사실적 표현은 재현이 추구하는 최고의 이상이었으며, 회화는 닮음을 통해 실재와 굳게 연결되어 있음. 재현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이성과 주체를 의식적이고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근대철학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현대철학과 현대미술에 와서는 전통적 회화의 철학적 배경 즉, 주체를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실제로 20세기에 들어와 고전회화의 원리는 하나씩 무너지게 됨(정지혜, 2010: 3).

- “회화란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을 재현한 표면”이라는 정의가 현대미술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보편적으로 알려진 정의임(줄리언 벨, 2002: 59).
- 고전주의 시대는 ‘외형’에 대한 것을, 낭만주의 시대에는 인간의 ‘내재적’인 것에 대한 재현이었지만, 인상주의 시대부터는 ‘형식’에 대한 재현임. 이와 같은 형식은 작업에 있어서 조형 요소와 원리를 말하는 것인데 점, 선, 면, 형, 색, 변화, 균형, 강조 등 그 자체를 중요시함(박경진, 2009: 14).
- 화폭 안의 이미지들은 대상의 사실적인 재현이 아니라 회화 작가들의 작품들은 꽤 많은 요소들이 비재현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며 ‘재현예술(representational art)’에 대한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임. 다시 말해서 재현된 이미지의 형태들은 작품 안에서 실제 대상과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김진숙, 2003; 박경진, 2009: 14-15에서 재인용).

□ 한국미술사에서 대표적인 장르인 한국회화를 지칭하는 용어는 ‘한국화’와 ‘동양화’이며, 이 둘은 통용되어 사용되어 옴.

- 동양화라는 용어는 서양화와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탄생함. 일본에서 먼저 사용되었던 ‘동양화’라는 명칭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1920년 7월 7일 동아일보에 기고한 변영로의 “동양화론”이며,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22년 조선총독부주최 제1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부터였음. 일제 강점기에 사용되기 시작한 ‘동양화’라는 개념은 일제의 대륙침략을 위한 ‘대동아 공영권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서양과의 상대성 속에서 동양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새로운 신조어였음. 말하자면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화가들과 식민지 조선화가들이 제작한 전통회화를 통합한 명칭이었던 것임(김백균, 2010: 115).



- 일본에서는 ‘동양화’라는 명칭을 명치(明治) 초년부터 사용하였는데, 일본은 ‘동양화’ 안에 서도 일본의 그림은 ‘일본화’라고 따로 구분함.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화’라는 용어는 1957년 창립하여 수묵채색화의 현대화를 주장하던 <백양회> 일원이었던 김영기 선생에 의해 60년대 처음 거론되었음. 전통적 방법론에 의지하여 그린 그림을 중국에서는 ‘국화(國畵)’라는 말을 쓰고, 일본에서는 ‘일본화’라고 말하며, 북한에서는 ‘조선화’라고 부르니 우리도 주체적인 입장에서 ‘한국화’라고 부르자는 동양화단 일부에서 주창한 운동의 결과로 탄생하였음. 그러나 서양을 상대화하여 주체적인 입장을 반영한 ‘한국화’ 개념은 상대적으로 ‘서양화’라는 주체를 상징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주체적일 수밖에 없으며, 정의와 범주에 있어 사용에 논란을 불러 일으켰음(김백균, 2010).
  - ‘한국화’의 공식적인 명칭은 1982년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한국화부’라는 명칭이 사용되면서 미술계에서 확산되었으며, 1982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정된 미술교과서에 ‘한국화’(수묵화, 담채화)로 표기됨(김현숙, 2008: 205).
  - 김백균(2010)은 ‘한국화’ 개념이 주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현하였다고 말함. 하나는 전통의 문제로서 전통을 습득하고 연마하여 종국에는 전통을 넘어 재해석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둘째는 근대에 출현한 민족국가로서의 ‘한국’의 정체성 문제로, 근대 이후 서구의 합리주의, 자본주의의 물결 속에서 한국만의 색을 어떻게 확보하는지의 문제임. 전자가 현대미술에서 전통을 넘어서야 한다는 통시적(通時的)으로 진행되는 예술적 과제를 안고 있다면, 정체성의 문제는 공시적(共時的)인 속성을 지닌 타자와 구별되는 속성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라는 문제로 정의됨(김백균, 2010: 118).
- 목수현(2012)은 한국 근현대미술에 대한 연구에서 대부분 수묵채색화 및 유화, 조각, 공예 등 장르별 내용에 대해 작가나 작품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다 보니, 미술을 둘러싼 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함. 한국근현대의 역사가 전통사회에서 식민지 사회로, 다시 독립 국가로서의 사회로 바뀔 때 따라 미술제도와 교육 또한 역사의 부침에 상당한 영향을 받아왔으며, 이로 인해 미술가들의 활동 역시 제한을 받음(목수현, 2012: 94).
- 이승현(2013)은 한국미술사 연구의 학제에서 조선시대까지의 고미술과 근대미술 연구가 나누어져서 이 두시기를 잇는 통사저술의 시도는 아주 최근에 와서야 가능했다고 말함. 국가의 미술품 관리가 조선시대까지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제시대 이후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관장하는 업무분장에 따라 조선시대와 근대 이후의 미술의 연결고리는 제도적으

로 차단되어 왔다고 문제를 지적하였음(이승현, 2013: 44).

#### 나. 조각

- 조각이란 회화와 더불어 미술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장르 중의 하나로서 '3차원의 공간 속에서 구체적인 물질로 구분된 입체로 볼륨(volume)의 구성체'임(김희양·하영준, 2018: 29).
- 사전적인 의미로는 '나무·돌·금속 등에 서화를 새기거나 사람의 형상·자연물의 형상·추상 형태·불상 등을 입체적으로 새기는 조형 미술(造形美術)'(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라고 정의함. 조각(sculpture)이란 용어는 라틴어 '스쿨페레(sculpere)'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이 말은 정, 톱, 망치, 끌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단단한 재료를 깎거나 쪼는 것(두산백과)을 의미함.
  - 그러나, 현대 조각가들은 더 이상 돌, 나무, 철과 같은 전통적 재료에 한정하지 않고, 유리, 천, 비닐 등의 전통적 조각의 재료가 되지 않는 물질은 물론, 바람, 소리, 빛, 영상 같은 비물질적인 요소를 도입한 바, 조각 작품이란 덩어리로 이루어지며 중력의 법칙에 따라 공간을 점유한다는 장르 개념에 저항함으로써 조각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현대 작가들은 평면과 입체, 영상과 설치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작업하고 있으며, 실제로 화가(painter/화백), 조각가(sculptor/각백) 같은 호칭보다는 작가(artist)라는 호칭을 일반적으로 사용함(김이순, 2011: 36).
- 조각 이외에도 조형예술, 조소는 조각과 함께 조각이라는 미술장르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사용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음(김이순, 2011: 38).
  - 조형예술이란 용어는 넓게 '각종 재료를 사용하여 형태를 만드는 예술로서 일정한 공간이나 평면에 예술적 형상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광의적으로는 시각예술 전반을 아우르지만, 협의의 의미로 조각을 뜻함(김장용, 2011: 84).
  - '조소'라는 단어는 1984년에 동경미술학교 출신 조각가 오무라 세이카이(大村西崖, 1868~1927)가 만들어낸 합성어로서, 입체적인 미술품을 만드는 기법 중에서 나무나 돌, 금속과 같이 단단한 재료를 정, 망치, 끌 같은 도구로 깎거나 쪼아서 만드는 조각(彫刻, carving)기법과, 흙 또는 유토, 밀납(蜜蠟)과 같이 부드러운 가소성이 있는 재료로 살을 붙여 형상을 만드는 소조(塑彫, modeling)기법의 두 가지 의미의 첫 글자를 합성한 용어임(김이순, 2011: 37).

- 오무라 세이가이는『동경미술협회잡지(東京美術協會雜誌)』(1894년 10월)에 ‘조소론(彫塑論)’을 발표했고, 이후 그의 동문들이 ‘청년조소회(靑年彫塑會)’를 결성하면서 이 합성어가 실용화됨. ‘조소’라는 단어가 파급될 수 있었던 것은, 동경미술학교의 조각교육이 조각(carving)과 소조(modeling)기법만을 가르쳤고, 동경미술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조각가들이 한국 조각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조선미술전람회》와 같은 관전에서 이러한 기법으로만 제작된 작품이 전시되었기 때문임(김이순, 2011: 38).
  - 우리나라에서 ‘조소’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1935년 제14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공모분야를 ‘조각’ 대신 ‘조소’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부터임. 그러나 우리나라 미술계에서 본격적으로 회화와 나란히 조소라는 용어를 미술 장르 개념으로 사용한 것은 해방 이후인데, 미술대학에서 ‘조소과’라는 학과 명칭이 생기면서부터임(김희양·하영준, 2018: 30).
- 허버트는 조각과 건축이 유래한 기원이 같다고 말함. 그는 인류 최초 조각의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표지석(標識石/monument)과 부적(符籙)을 통해 조각예술 발생의 기원을 설명함. 그는 헤겔이 헤로도토스(Herodotus)에서 빌어온 개념, “인류 최초의 표지석은 남근 숭배의 상징이었다”는데 착안했다고 하면서, 형태가 유사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주거형태인 건축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좁고 높은 원기둥의 구조에서 기원이 유래되었다는 내용을 인용함. 그리고 건축가들이 조각을 단순한 장식에서 교훈을 목적으로 바꾸어 놓는 행위를 통해 조각 예술의 극치를 이루었으며,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조각과 건축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옴과 동시에, 독자적인 예술로서의 면모를 분명히 드러냈음을 설명함(허버트, 2001: 13-53).
- 고대 조각은 주술사적 맥락에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의미로 여성의 인체를 조각하거나, 부장품 제작을 위한 실용적인 목적으로 제작됨. 고대 그리스 시대 이후 조각은 독립된 장르로 비약적 발전을 이룸(두산백과).
- 우리나라 조각의 발전은 선사시대 이후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 조선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되는데, 특히 찬란했던 불교미술과 뛰어난 공예, 건축, 왕릉 조성 등과 연관이 있음. 따라서 이 시기 조각 작품의 대상은 일반적 인물도 있지만 다수가 석가모니, 보살, 나한상 등 종교적 인물을 주제로 한 구상적인 불상조각이 주류를 이룸. 그러나 봉건적인 신분사회와 성리학의 엄격한 현세관으로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의 대한제국시대에서 조각가라는 집단은 예술가보다 ‘장이’로 취급되어 옴(국립현대미술관, 1999:51).
  - 19세기 말부터 조각이라는 장르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었으나, 일반인들이 조각을 순수미

술로 인식하게 된 것은 1922년 《조선미술전람회》를 통해 회화와 나란히 전시된 재현적인 인물상과 같이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각작품을 보고 순수미술의 영역으로 인지하기 시작하였음(김이순, 2011: 38).

#### 다. 건축

- '건축이란 인간의 여러 가지 생활을 담기 위한 기술·구조 및 기능을 수단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공간예술'임(두산백과). 또한 건축의 사전적 의미는 건축의 물리적 속성을 강조함. '집이나 성, 다리 따위의 구조물을 그 목적에 따라 설계하여 흙이나 나무, 돌, 벽돌, 쇠 따위를 써서 세우거나 쌓아 만드는 일'을 말함(표준국어대사전).
- 동아시아에서 '건축' 개념의 성립에는 이토 주타(伊東 忠太)의 기여가 큰데, 이토는 개념 완성에 있어 '아키텍처'의 개념을 반영하고자 하였음. 1894년 그가 제출한 논문, 「'아키텍처'의 본의를 논하고 그 번역어를 선정하여 우리 조가학회의 개명을 바랍」은 효력을 발휘하여 메이지 전반기에 아키텍처의 번역어로 사용되던 '조가' 혹은 '영조' 등의 개념을 대체하게 됨. 이토 주타는 '아키텍처'의 어원이 그리스에 있고 고등예술의 뜻을 지니지만 그리스인은 이전에 스스로 이 말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함(김영철, 2018: 94).
  - 영어인 아키텍처(architecture)는 그리스어인 '큰, 으뜸' 등의 뜻을 가지는 'arch'라는 접두어와 '기술'이나 '학문'을 뜻하는 'tect'의 합성어로서 '큰 기술'이라는 뜻임(김영철, 2016: 385에서 재인용).
  - 마사치로는 "아키텍처의 본의는 결코 가옥을 건조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그 의미의 실체는 기하학적 질서를 통해 'Building'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 사원, 탑, 분묘, 기념비, 개선문 등은 결코 가옥에 속하는 것이 아니며 이를 계획하는 것은 바로 '아키텍트'이다", "이 '아키텍처'를 '조가학'이라 하는 것이 아주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 '건축술'이라 하는 것도 역시 일리가 있다. 단지 둘 다 그 핵심에 닿지 못할 뿐이다. 따라서 아키텍처라는 글자를 우리 문자로 번역하기는 힘들지만 무리하게 갖다 붙이면 건축술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것이다"(Masaichiro, p.6~7; 김영철, 2018b: 94에서 재인용)라고 정의함.
  - 오늘날 동아시아 건축의 사전적 정의는 아토의 아키텍처 개념을 수용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음. 중국어 한어대사전에 나오는 건축의 해석은 다음과 같음. "건조,

건립: 건축물, 예를 들면 집, 교량 등과 같은 것을 지칭한다”고 정의하고 있음(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2013; 김영철, 2018: 95에서 재인용).

- 동양의 한자문화권에서는 ‘세울 건(建)자와 ‘쌓을 축(築)자를 합한 ‘건축(建築)’이라는 말을 그에 대응시켜 사용함(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그러나 김영철(2018)은 아토의 아키텍처에 대한 협소한 해석 때문에, ‘조가’가 가진 뜻인 ‘공간과 의미의 차원’이라는 의미가 퇴색되었고, 물리적 속성에 치우친 ‘건축’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말함. 1944년 하마구치 코이치(浜口隆一)도 「일본국민건축양식의 문제 -건축학의 입장에서」에서 마찬가지로 ‘건축’이라는 말의 사용으로 인해서 서양건축의 ‘구조적=물체적인 것’으로 향하는 건축의욕이 전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일본의 옛 ‘집’에 있었던 ‘공간적=행위적인 것’을 향하던 일본의 전통적인 건축의욕은 오히려 희박해져 갈 수 밖에 없으며, 그것이 일본 근대건축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임(Masaichiro, p.3; p.347; 김영철, 2018d: 95에서 재인용).

□ 고전적 정의로 미학적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것만이 건축이라는 의미를 담아, 건축과 건물을 구분하기도 하며, 백과사전에서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기도 함. “건축은 원래 인간적 요구와 건축재료에 의해 실용적·미적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만들어진 구조물을 말하며, 단순한 건조 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구조물은 ‘건물(建物)’이라고 말함. 따라서, 구조물을 형성하는 공간에 작가의 조형의지가 담긴 구조물을 ‘건축’이라고 표현함”(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N.페프스너는 이 건축과 건물이라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음. “차고(車庫)는 건물이고, 대성당(大聖堂)은 하나의 건축이다. 사람이 들어가는 데 충분한 넓이를 갖춘 것은 모두 건물이지만, 건축이라는 말은 미적 감동을 목표로 설계된 건물에만 사용된다”(두산백과)

□ 건축의 개념과 범위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예술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양하였으나, 르네상스 시대에 건축이 예술에 포함된 이러한 분리는 현재까지 이어지는 중임.

- 고전적인 건축이론을 관류해 온 기본 명제는 건축이 기하학의 근원적인 원리인 우주창조라는 조물주의 위업(ars divina)에 근거한 기술이론에 의해 구상되며 설계도는 기술(ars)이라는 것임. 거듭 말해 예술이란 대자연의 모방(imitatio, mimesis)이라는 명제임. 이 대자연의 모방에 있어, 기술 이전의 선한 목적(telos)이 필요하다고 말함. 기술(techne)과 윤리(ethos)가 별개의 것이 되어서는 안됨(임범재, 1993: 19).

- 최초로 건축의 3요소를 정의한 비트루비우스는 그의 '건축10서'를 통해 건축가는 수학, 기하학, 음악, 철학, 태양계 등을 익혀야 한다고 하였음. 고대건축사상의 핵심은 결국 다름 아닌 '조화의 이치(로고스)였음. 그가 정의한 3요소는 구조, 기능, 미로서 그의 건축이론은 9세기 이후 영향을 발휘해, 알베르티,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파라디소로 계승됨(임범재, 1993: 21).
- 미술사가 잰슨은 미술이 응용미술(applied art)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주류 예술(major art)이라며, 그 예시로 순수 예술의 하위 개념에 건축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함. 16세기 디자인 아트에 속했던 건축은 18세기 후반 순수 예술이 되었지만, 개념상 미학의 3D<sup>18)</sup> 요건을 따르지 않고, 명백한 유용성을 따름. 또 감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상적인 이해관계(interest) 속에 존재하며,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되기도 함. 그럼에도 여전히 순수 예술에 속해 있음(김주현, 2012: 62).
- 텍토닉 담론에 크게 기여한 뵈티히는 “텍토닉은 ... 집을 짓거나 도구를 만드는 행위이며, 기능을 만족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나 형태를 만들어 단순 기능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작의 결과가 예술형식으로 승화되도록 하는 것이다”로 정의하여 건축을 예술의 차원에서 강조하였음(Bötticher, Carl, Die Tektonik der Hellenen, 1852; 김영철, 2018e: 95에서 재인용).
- 건축사가 잰퍼는 “건축의 기념물들은 실은 사회적·정치적·종교적 제도의 미적 표현과 다름없다”고 주장하였음(우동선 역, 1997: 20; 인성기, 2002: 431에서 재인용).
- 반면, 근대문명에 대한 아돌프 로스의 입장은 예술과 실용품의 분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음. 『건축』(1910)에서 집은 예술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건축은 예술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건축의 아주 일부만이 예술이 속한다. 무덤과 기념비. 그 밖의 모든 기능을 충족하는 것은 예술의 영역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Adolf Loos, 1910: 108; 이상현, 2008a: 135에서 재인용).
- 로스는 실용품으로서의 주택은 예술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았으며, “예술은 예술가의 개인적 관심사지만, 주택은 아니다. 예술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지만, 집은 요구를 만족시킨다. 예술은 혁명적이지만, 주택은 보수적이다. 예술은 새로운 방향과 미래를 추구

18) 벤더(John W. Bender)와 블락커(H. Gene Blocker)는 '미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 3개의 디(D)를 제시했는데, 이는 사심 없음(disinterestedness), 자율성(detachment), 초연함(distance)임. 사심 없음이란 개인의 사리사욕, 이해관계를 벗어난 상태를 의미함. (김주현, 2012: 57)

하지만, 주택은 현재를 생각한다”고 말함(Adolf Loos, 1910: 107-8; 이상현, 2008b: 135에서 재인용).

#### 라. 판화

- 판화의 일차적 의미는 ‘판에 찍은 그림’, ‘인쇄된 그림’이나, 판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회화의 한 방법으로 간접표현 회화라고 하기도 함. 여기서 판(版)은 단순한 물질적 의미로서의 판(版) 뿐만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의 것으로 확장되어 해석됨(김승연·김희진, 2016: 91).
  - 프린트(Print)라는 말에 판화와 인쇄 두 가지 뜻이 담겨있듯이, 예술로서의 속성과 미디어로서의 속성이 포함되어 있음(최재혁, 2017: 122).
  - 권순왕은 판화예술을 현대미술을 넘나드는 그리기와 오브제, 사고 자체를 판화틀로 바라보고자 함. 표현의 원천으로서 판화를 그림의 틀로 정의하고, 매체를 통해 나타난 그림들이 다르게 해설될 수 있다고 설명함(권순왕, 2013: 109).
  - 데리다(Jacques Derrida)는 『그라마톨로지』(1967)에서 “예술은 모방에서 생겨났으므로 결국 모든 예술은 판화나 복제 인쇄 고유의 작업 영역에 속한다”고 함(박정자, 2005: 228; 권순왕, 2013: 97에서 재인용).
  - 콜드웰(Erskine Preston Coldwell)은 “판화의 기능은 기존의 제도와 관습 바깥에 있는 예술형식을 주요 흐름으로 끌어들이어 도입하고 실험하는 기능과 능력”이라고 언급함(김승연·김희진, 2016: 92).
  - 사전적 의미로 명사 ‘Printmaking’-판화 제작이 기술, 기법을 정의하지만, ‘인쇄하다. 프린트를 하다’를 뜻하는 동사 ‘print’는 인쇄된 활자체, 출판(업), 복제화, 사진 등을 의미함. 이에 비유하자면, 복제성과 재생산이라는 특성을 가진 판화의 기술과 기능은 시각 정보의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에서의 생산물이자 또 다른 모델을 의미함(심희정, 2013: 98).
- 기술의 발전으로 판화의 개념과 역할은 시대에 따라 지속해서 변화해왔으며, 이는 판화가 예술로 편입되고, 현대 미술에 있어 매체 특징적인 회화로서 역할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음.
  - 넓은 의미에서 판화의 시작은 선사시대 동굴회화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32,000년 전

소베(Chauvet) 동굴 벽화에서 나타난 표현 기법에서 원류를 찾을 수 있음. 판화는 17세기 후반까지도 인쇄물의 위치에 존재했는데, 19세기에 이르러야 판화는 예술가의 일원으로 인정되었음. 이는 석판화의 발명을 통해 누구나 원화 제작이 가능하였기 때문임. 이러한 기술발달의 흐름으로 판화는 전문가에 의해 제작되는 인쇄물이 아닌, 그림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형식으로 받아들여지며, 판화도 복제가 아니라 회화와 병행하여 예술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됨. 판화 기법의 발달로 인해 점차 매체의 한 종류로 받아들여지고, 20세기 들어와 예술가들은 판화를 표현 기법의 하나로 받아들이면서 예술사의 흐름과 일체화된 흐름을 형성함(김승연·김희진, 2016: 91).

- 미술평론가 하리우 이치로는 판화에는 실물과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판이라는 재질과 씨름하며 연금술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밀실형의 사고(복제)와 대중을 향해 배포하기 위한 ‘개방된’ 양산의 과정(복사)이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말함. 전자의 경우, 판화가 최종 형식으로 제시되는 형태는 ‘회화’에 속하지만, 새기거나 부식시켜 판을 제작하는 과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은 ‘조각’의 측면에 포함됨, 후자의 경우, 복제예술이라는 속성은 디자인과 포스터, 사진과 같은 인쇄에 기반을 둔 장르로 확대됨(최재혁, 2017: 122).

#### 마. 공예

- 사전적인 의미로 공예는 실용적 가치와 미술적 가치를 함께 지닌 조형물의 총칭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유용한 물건을 제작하는 공업기술과 미술 두 분야가 결합하여 유기적인 통일을 이룰 때 비로소 완성된다’함(김종선, 2015: 221).
- 공예라는 용어는 1900년대 초 일본으로부터 받아들여져 ‘인공으로 만든 모든 물산 즉, 공업과 산업과 같은 개념’으로 정착되기 시작하여 이후, ‘미술공예와 공업기술이 구체적으로 분화되는 시기’를 거쳐 오늘날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이인범, 2013).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에서는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고 기능과 실용성을 강조하여 공예를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수작업이 기계로 대체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선행 문헌에 의해 예술과 미술의 영역으로 포함된 공예를 제한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예술적, 산업적 측면이 결합된 관점인 “숙련된 기술이나 솜씨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실용적이면



서도 아름다운 물품이나 그것을 제작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여기서 숙련된 기술이나 솜씨, 제작의 행위는 인간의 손이 작용하는 부분이며,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사물이란 단순히 미적으로만 정의되는 예술품의 성격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균형잡힌 정의라고 할 수 있음(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15-16).

- 공예의 공(工)자는 상형문자로 주먹을 친 것, 또는 대장일을 할 때 사용하는 받침을 나타내며, 예(藝)는 장인이나 세공을 가리킴. 즉, 손끝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물건을 만드는 것, 즉 물건을 능숙하게 만드는 공(工)과 기능, 기술을 의미하는 예(藝)는 정교하게 물건을 만드는 것이 공예라 말할 수 있음(김종선, 2011; 김종선, 2015에서 재인용).
- 공예는 선사시대부터 생존을 위해 인간이 자원을 일구는 물질문화의 영역으로, 역사가 유구하나, 현재의 공예를 의미는 근대기에 성립된 역사적 ‘공예’와 연관이 있음. 서유럽 근대기에 ‘순수 예술(fine arts)’의 개념이 성립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수공(hand-made)에서 기계(machine-made)로 생산 양식이 전환되어가는 과정에서 자리잡은 개념으로서, 현재는 ‘순수 예술’개념과 대응되는 ‘실용적인 예술’로서, 기계 생산을 전제로 한 디자인에 대한 수공적 사물 제작영역으로 받아들여짐. 따라서 오늘날 공예의 개념은 예술이나 디자인에 의해 타자화 되거나 주변화되는 과정에서 탄생함. 따라서 공예 스스로는 현대 사회에서 하나의 활동 분야로 인정받거나 형식적으로 정의내리기 쉽지 않음(이인범, 2013: 245-246).
- 공예와 예술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공예 이론을 세우기 위한 탐구는 여러 선행연구자에 의해 지속 되어 옴. 김주현(2012)은 크게 공예와 예술이 다른 범주에 속한다는 구분론, 그리고 공예는 예술이라는 동일화 전략을 취하는 통합론으로 아래 표에서 구분하여 설명함.

〈표 6〉 공예 개념 탐구의 지형

구분론		통합론	
보수주의	분리주의	친예술파	친공예파
칸트, 콜링우드, 하이데거	단토, 알폰디, 멧칼프	파이, 리자티	리치, 쉬너

자료: 김주현, 2012: 52

- 보수주의 공예론은 ‘미적 쾌를 제공하는 자율적 존재’로, 공예는 ‘일상의 구체적 목적에 봉사하는 도구’로 정의함. 보수주의는 공예와 예술 사이의 재구성,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음. 반면, 분리주의는 예술과 공예를 마찬가지로 다른 범주로 구분하나, 공예가 예술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예술에 의존하거나 참조하지 않는 공예 자신만의 미덕으로 공예를 정의함(김주현, 2012: 52).

- 친예술파는 예술과 공예가 구분되지 않으며, 공예는 곧 예술이라 말하나, 친공예파는 역방향으로 예술 역시 공예라는 방향이 상이한 통합론을 펼침(김주현, 2012: 52).
- 쉬너(Larry Shiner)는 모더니즘 미학에서 예술과 공예를 구분하고, 공예를 정의한 방식인 보수주의 공예론을 다음과 같은 표로 구분함. 그는 이 표에서 순수 예술(fine art)과 공예가 분리되기 전과 분리된 이후 시기를 나누며, '예술 이전(pre-art) 시대에는 예술가와 장인이 구분되지 않았으며, 활동, 제작물도 차별받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함(김주현, 2012: 51).

〈표 7〉 쉬너(Larry Shiner)의 보수주의 공예론의 '예술/공예' 구분

분리 이전	분리 이후	
예술가/장인	예술가	장인
재능 혹은 기질	천재	규칙
영감	영감/감수성	계산
능력 (정신과 몸)	자발성 (몸을 압도하는 정신)	기술 (몸)
재생산의 상상력	창조적 상상력	재생산의 상상력
(과거 대가들의) 대리 실행	독창성	(모델에 대한) 모방
모방(자연)	창조	복제(자연)
봉사	자유(유희)	교환(지불)

자료: 김주현, 2012: 51

- 하워드 리사티(Howard Risatti)는 예술과 공예는 의도와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예술은 순수하게 지각적 요소들로 구성된 반면, 공예는 응용적 기능과 사물성을 갖는다고 주장함. 응용적 기능과 사물성이란 공예가 인간의 생리적 요구(psychological need)에 부응하여 실제적인 물리적 기능을 갖는다는 것을 뜻함. 그는 “공예품의 목적은 인간의 생리적 필요와 생존을 위한 투쟁과정에서 기인하므로 공예는 문화라기보다는 보다 근원적인 차원의 것”이라고 말함(김주현, 2012: 69).

□ 서양 역사에서 전통미학은 서양 16세기에 등장한 ‘순수 예술(fine art)’을 18세기에 미적 쾌(aesthetic pleasure)로 정의하고, 19세기 초에는 ‘공예’를 유용성으로 정의함. 보수주의 ‘공예’의 개념은 장인의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인 미케니컬 아트(mechanical art)의 정의로 확립됨(김주현, 2012: 54).

- 19세기 초 사용가치에 초점을 둔 공예는 ‘장식 예술(decorative arts)’, ‘응용 예술(applied arts)’, ‘비주류예술(minor arts)’, ‘산업예술(industrial arts)’ 같은 용어로 다양하게 호명됨(김주현, 2012: 54).

〈표 8〉 보수적인 공예론의 관점

구분	공예	순수 예술
칸트	사용을 목적으로 삼으며 규칙 따르기의 반복적 생산 행위(칸트, 2009)	미적인 관조를 위해 의도된 천재의 자발적인 창조
콜링우드	“유용한 사물을 제작하는 기예”로서, 이미 정해진 기술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고 정의(콜링우드, 1996)	‘진정한 예술(art proper)’을 창조의 상상적 과정
단토	단지 잘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Arthur, 1964)	아이디어의 자기 지시적 체현
달랑베르	장인의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으로 유용성을 목표로 삼음	순수 예술은 오직 지각하는 즐거움만을 목표로 삼음

자료: 김주현, 2012: 55-56에서 재구성

□ 보수주의 공예론에 대해 친예술파의 도전도 꾸준히 이어졌지만, 친예술파의 동일화 전략이 가진 개념적 모순 때문에, 공예 미학으로 완성되고 발전되지 못함. 공예와 예술이 같다고 정의하는 순간, 공예는 사라져버리기 때문임. 김주현은 ‘예술로서 공예’가 결국 마실 수 없는 컵, 앗을 수 없는 의자를 생산했으며, 결국 예술계에서 시도한 개념적 도전을 모방하고, 반예술이 아닌 친예술의 액션으로서 예술계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말함(김주현, 2012: 67).

- 19세기 말 등장한 예술 공예 운동(Art and Craft Movement)은 예술과 미케니컬 아트를 통합하여 ‘예술 공예’라고 불렀고 이 개념은 이후 다양한 ‘공예’ 개념으로 분화되는 기원이 됨. 모리스(William Morris)와 러스킨(John Ruskin)은 ‘순수 예술 대 공예’의 구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대안으로 통합 예술(unified art)인 ‘예술 공예’를 제안함. 이들의 통합 예술은 공예의 쓰임(use)을 끝까지 지지함. 모리스는 ‘예술 공예’를 ‘사람들에

악해, 사람들을 위해 제작된 예술, 제작자와 사용자에게 기쁨을 주는 예술'이라고 말함(김주현, 2012: 65).

- 1차 세계 대전 이후 예술 공예의 영향은 스튜디오 공예 운동(studio craft movement)으로 수공업적 소량 생산 작업이며, 또 다른 하나는 토탈 디자인(total design)의 산업적 활동임. 스튜디오 공예는 다시 세 방향으로 나뉘었는데, 첫째, 순수 예술과의 동맹, 둘째 산업 디자인과의 동맹, 셋째 예술 내부의 독립된 영역 모색이 그것인데, 스튜디오 공예의 주류는 세 번째 경향인 형식주의 공예가 되었음(김주현, 2012: 65).
- 김주현은 현재 공예 개념의 대안 정립을 위해서는 예술과 구분되는 공예만의 미적 패가 정의되어야 하며, 응용적 기능이 아닌, 맥락과 관점의 다양성을 승인하면서 재제작과 재사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유연한 쓰임 개념으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말함(김주현, 2012: 80).

#### 바. 서예

- 전통적으로 서예는 글씨를 붓으로 쓰는 예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이라고 하며, 붓과 먹물 그리고 화선지와 문자를 이용하여 '쓰는' 예술이라고 규정함.
- 서예는 작가의 예술적 감성을 문자를 통해 표현하는 일종의 조형예술로, 그 예술적 감성을 모필의 유려한 붓놀림과 현색인 먹의 농담 운용을 통해 표현한다는 점에서 운필법과 묵법을 강조하는 예술임(조민환, 2017: 70-75).
- 문자는 일차적으로 기억이나 기록의 기능을 담당하며, 문자를 기록하는 의미의 '서(書)' 역시 기록이라는 의미를 지님. 이처럼 기억이나 기록을 돕고 단순히 정보전달의 기능을 수행하던 '글씨 쓰는 방법과 원칙'이 오늘날 '서의 예술(書藝)'이라는 명칭을 지니게 된 배경에는 글 쓰는 방법을 예술로 여기게 된 의식화의 과정이 존재함(김백균, 2015: 194).
  - 문자를 기록하는 것이 예술의 범주로 이해되기 위해선, 문자의 장식적 아름다움으로 인한 시각적 아름다움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글씨에 대해 갖고 있는 순수예술 차원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함(김백균, 2006: 4-5).
  - 근대 이전 동북아시아인의 의식 속에서 서예란 단순한 기예가 아니라, 지식인이 갖춰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양이자 덕목으로 이해됨(김백균, 2006: 2).

- 서예는 한국, 중국, 일본 삼국에서 다르게 부르는데, 이는 각국 서예인의 의식을 일정 정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한국에서는 ‘서예(書藝)’, 중국에서는 ‘서법(書法)’, 일본에서는 ‘서도(書道)’라고 부름. 흔히 한국에서는 기예 차원의 예술성에 초점을 맞추고, 일본에서는 서예를 통한 수양 차원에, 중국에서는 기법차원에서 논의하기 때문임(조민환, 2017: 70-75).
  - “글씨는 마치 그 사람과 같다(書如其人)”(유희재, 2004: 92)에서 보듯이 그것을 구사하는 사람의 인격 차이로까지 여겼으며, 이는 예가 단순한 시각적 아름다움을 구사하는 기술을 넘어선 무엇, 즉 오늘날 순수예술 차원의 영역에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음(유희재, 2004: 92; 김백균, 2015: 194에서 재인용).
- 문자를 이용하여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이라는 의미로써 ‘서예란 용어 자체가 근대적 용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예술’개념 자체가 근대에 출현하였기 때문임(김백균, 2015: 194).
- 한대 양웅(揚雄)이 『법언(法言)』에서 말한 “서(書)는 마음의 그림이다”라는 것은 미학적 차원에서 서예를 마음 표현과 관련하여 이해했다고 볼 수 있음.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온유돈후(溫柔敦厚,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인정이 두터움)함과 절제를 근본으로 하는 유가(儒家)의 ‘중화(中和)’미학, 다른 하나는 노장(老莊) 미학 및 양명심학(陽明心學) 미학을 근본으로 하면서 마음 드러냄의 자유로움과 관련된 ‘광견(狂狷)’미학임(조민환, 2017: 70-75).

〈표 9〉 ‘중화(中和)’미학과 ‘광견(狂狷)’미학

중화(中和)미학	당대 유공권	마음이 바르면 붓도 바르다[심정즉필정]
	명대 향목	사람이 바르면 글씨도 바르다[인정즉서정]
	청대 유희재	운필을 통한 붓의 성질과 목의 운용을 통해 담아내는 정감[필성묵정]은 그 사람의 성정을 근본으로 한 것이니, 성정을 다스리는 것이 글씨를 쓰는 데 있어서 가장 힘써야 할 사항이다
	청대 이병수	서예는 인간의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성령을 도야할 수 있어야 한다
광견(狂狷)미학	동한 채옹	서예는 마음을 흘트려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다
	동한 최원	순수하면서 함절한 변화는 반드시 옛날의 법식을 따를 필요가 없다 마음에 쌓인 분노와 울적함과 같은 심적 상태를 내치는 듯 자유롭게 표현하면 기이함이 생긴다[방생일기]

자료 : 조민환, 2017: 70-75 재구성

### 사. 미디어 아트

□ 매체(Medium)는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어떤 작용을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물체나 또는 그런 수단을 의미하며(네이버 국어사전),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사이에’ 개입하여 전달·표현·전파·교환·반복을 담당하는 것으로 정의함(디터 메르쉬, 2010: 11-13; 진경아, 2015: 679에서 재인용).

- 디터 메르쉬(Dieter Mersch)는 매체는 물질, 물리적 특성, 과학기술, 사회적 기능 사이를 오가며 그 의미가 변주된다고 하며, 매체에 대한 논의가 거듭될수록 철학사에 이어 종국에는 미학으로 연결된다고 말함(디터 메르쉬, 2010: 11-13; 진경아, 2015: 679에서 재인용).

〈표 10〉 매체 개념형성에 작용한 3대 근원

이론	고대 '감각적 인지론'	18세기 '언어이론'	19세기 '의사소통 기술론'
특징	물질성	묘사	연산
영향	미학	언어	기술

자료 : 디터 메르쉬, 2010; 진경아, 2015: 679에서 재인용

□ 예술 영역에서 다양한 표현 매체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는 산업혁명 이후로, 기계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진, 영화, 비디오와 같이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예술형식이 등장함. 그런데 예술에서 기술이 차지하는 역할이 점점 커지면서 기술이 도구의 역할에서 그치지 않고, 도구가 본질이 되어버림(심혜련, 2006: 16-18; 진경아, 2015: 680에서 재인용).

□ 매체와 예술은 불가분의 관계로, 어떤 예술이든 매체를 통해서 표현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모든 예술은 매체 예술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오늘날 합의된 의미에서의 매체 예술은 다양한 기계를 활용하여 기술 이미지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함(박영욱, 2009: 82; 진경아, 2015: 680에서 재인용).

- 사물의 현상 형태와 지각하는 방식을 고찰하는 현상의 미학으로 규정되며, 매체예술은 시청각적 매체에 의한 지각 현상과 표현형식을 중심으로 이론적 틀을 정립하고 있음(Werner Faulstich(Hrsg), 1998; 진경아, 2015: 680에서 재인용).

- 국내에서 미디어 아트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90년대 후반부터이지만, 개념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채 사용되어 옴(박신의, 2001: 161).
- 미디어 아트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두 가지로 개념적 정의가 가능함. 협의의 미디어 아트는 실제 그 아트의 대상과 현실과의 관련 속에서 연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광의로는 기술 매체를 활용한 예술 일반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음(박신의, 2001: 161-162).
  - 협의의 미디어 아트는 90년대 들어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창작행위를 의미하였으나,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랙티브한 웹 작업으로 확장되면서, 미디어 아트는 인터랙티브 아트, 디지털 아트, 웹 아트, 인터넷 아트 등의 이름으로 통용되었음(박신의, 2001: 161-162).
  - 광의의 미디어 아트는 1839년 사진의 발명을 시작으로 이미지의 기계적 재현과 복제성, 그리고 이미지의 대량보급의 기능이 미디어 아트의 속성을 제공했다고 보는 관점임(박신의, 2001: 162-163).

#### 아. 디자인

- 디자인의 사전적 의미는 ‘의상, 공업제품, 건축 따위 실용적인 목적을 가진 조형의 설계나 도안’(네이버 국어사전)이나, 디지털, 기술 등의 발달과 함께 그 대상이 확대되거나, 디자인 역할의 변화에 따라 개념이 달라지고 있음.
  - 디자인의 대상은 ‘유형상품(조형)’에서 커뮤니케이션, 경험, 인터랙션, 서비스디자인과 같은 ‘무형상품’으로 확대되고 있음(유연식, 2005: 435).
  - 과거 조형적 스타일링의 역할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가치 창출자로서 기업의 R&D 역할로 전환되는 시기에 놓임. 이러한 바탕에서 ‘디자인’이란 용어가 현대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상품의 용도, 기획, 상품 그 자체, 품질, 재료, 유용성, 아름다움, 가격 그리고 제조방법에 이르기까지 제품에 관련된 모든 것을 포괄함(조동성·김보영, 2006: 51; 김종선, 2015: 222에서 재인용).

〈표 11〉 디자인의 정의

학자	정의
데일리 (Daley)	디자인은 창의성을 필수요소로 다루며 물리적 세계의 우리 경험을 체계화하는 것
정시화	주어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조형 요소들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창조활동이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실체
오병권	목적 조형 즉 기능을 충족시키며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창의성에 대해 실용을 지향하는 적극적 사고
김은주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기존의 디자인요소나 전혀 새로운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후 그것을 독창적이고 실용적으로 구성하는 창의적인 활동
조성근	실용성을 지닌 하나의 창조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조형 활동
파파넥 (Victor Papanek)	디자인이란 의미 있는 질서를 창조하려는 노력

자료 : 빅터 파파넥, 2009: 27; 김경원·박영원, 2017: 26에서 재인용; 정성모, 2018: 646

□ 디자인 역사의 출발점이 어디인가에 관점에 따라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함. 사회 시스템의 변화와 함께 개념도 변화해왔으며, 1920~30년대가 되어서야 디자인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됨(김호곤, 2015: 331).

- 원시시대부터의 용기나 상품의 개발 행위로 볼 수도 있고 중세의 가내수공업 사회에서의 원형 제작자들의 활동을 디자인 개념의 시작으로 보기도 하며, 기계를 이용한 대량생산 제품의 개발과 관련한 행위나 행동으로 볼 수도 있음.
- 디자인 개념은 크게 수공업 위주의 장식적 고딕 양식에서 출발하여 점차 기계에 의한 생산을 받아들였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의 조형미보다는 기능을 중시하는 기능주의가 전개되었으며 기능주의는 다시 모더니즘으로 연결됨(김호곤, 2015: 331).
- 비교적 최근에는 모더니즘의 상업성과 동질성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에 대응하기 위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표현되는 반 디자인(Anti-design)운동이 나타나고 있음(김호곤, 2015: 331).
- 국내에서는 1960년대 이전까지는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보편적으로 인식되어 있지 않았고, 응용미술 혹은 공예의 개념으로 이해되었음.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준으로 사회적으로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디자인



을 전문 분야로 인정됨(김경원·박영원, 2017: 8).

- 이러한 유래로 디자인이란 용어는 과거 응용 미술(Applied Art), 장식 미술(l'artdecoratif), 상업 미술(Commercaile Art), 실용 미술(Functional Art) 등으로 사용되거나, 일본에서 직수입한 도안(圖案), 의장(意匠)으로 번역 표기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디자인을 고유명사화하여 그대로 사용함(박유선, 2016: 144).

□ 1920~30년대 컨설턴트 디자이너의 시대에 이르러, 디자인 개념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리더에 따라 디자인의 정의와 역할은 발전과 변화를 거듭해 옴.

〈표 12〉 학자의 철학 및 활동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 개념 진화

학자	철학	실천 운동	개념 진화 방향
존 러스킨	기계에 의해 대량생산되는 제품 비난. 예술미의 순수감상 주장	미술공예운동(Arts and Crafts Movement) : 공예품의 미적수준을 높이기 위해 중세 고딕양식의 부흥 주장	예술의 민주화 및 사회화의 철학은 현대 산업디자인의 이념적 배경으로 전개
윌리엄 모리스	산업화로 인한 대량생산 반대. 일상과 함께 하는 공예 주창		
앙리 반 데 벨데	역사적 양식 탈피 새로운 조형미 창조 기계나 기계의 생산력 인정	아르누보(Art Nouveau) : 과거의 역사적 양식에서 탈피하여 참된 새로운 조형미의 창조에 도전	과거의 장식에서 탈피한 혁신적인 양식을 통해 미술을 모든 생활에 실용화 시도
헤르만 무테지우스	즉물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 '질'의 향상이 국가적 이익의 원동력	독일공작연맹(Deutscher Werkbund) : 건축가, 공업가, 공예가들이 모여 결성(1907)	예술이 근대공업과 결합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 산업디자인의 성립 발판
발터 그로피우스	새로운 예술을 통해서만 새로운 질서 창조 가능	바우하우스(Bauhaus) : 디자인을 통해 세계의 모든 사물과 환경의 질 변화 시도	디자인의 단순성과 편의성 교수법과 교육이념 등 현대 디자인에 영향
에토레 소트사스	반 디자인(Anti-Design)운동에 동조, 상품은 지식인이 아니라 상식을 지닌 일반인에게 호소력을 지녀야 함	멤피스(Memphis) : 모더니즘의 기능성을 거부하고 오히려 모더니즘 이전에 나타났던 아르 데코 풍의 장식적 디자인 지향	포스트모던 디자인 운동을 불러 일으키는 촉발제가 됨

자료 : 김호곤, 2015:337에서 재구성

□ 옥스퍼드 사전에 따르면 디자인의 정의는 다음의 두 가지 어원적 유래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유래를 배경으로 할 때, 디자인을 '문화적 상징의 해석과 창조'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풀이하자면 디자인이 결국은 우리 삶 자체를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문화를 형성시키고 기록하는 중요한 일을 담당할 수 있으며, 디자인이 일상 속에서 미적인 가치를 생성할 수 있음을 나타냄(김민수, 1997:5-6).

- 첫 번째 의미는 ‘미술의 계획’을 의미하는 ‘dessin’이라는 말은 회화에서 밑그림을 의미했던 디자인의 라틴 어원 ‘디세뇨’로써 점차 ‘예술가의 마음속에서 작용되는 창조적 사고’를 암시하는 말로 확장하여 사용함. 이 두 가지 말을 합하여 확장하자면, 디자인의 현대적인 의미는 ‘마음에서 인식되고 후속적인 실행을 위해 의도된 계획 또는 목적에 대한 수단의 채택’이라고 할 수 있음(박유선, 2016: 142).
- 두 번째 의미는 ‘데시그나레, designare’에서 유래하는 두 번째 의미로, ‘지시하다 또는 의미하다’를 의미하며, ‘기존의 기호로부터 분리시켜 새로운 기호를 지시하다’로 해석할 수 있음. 이 어원으로 볼 때 디자인의 의미는 ‘이미 존재하는 기호를 해석해서 새로운 기호를 창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음(박유선, 2016: 142).

#### 자. 만화

□ “만화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연속적인 그림과 글의 조합”이 1차적인 만화의 정의이며, 기술의 발전, 매체의 다양화에 따라 형식, 표현기법에 따라 칸이 없거나, 그림이 등장하지 않는 만화 등 다양한 형태의 만화가 등장함에 따라 만화를 한마디로 정의내리기는 쉽지 않음(공현희, 2008: 195-202).

- 만화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보는 이에게 미적인 반응을 일으킬 목적으로 그림과 그 밖에 형상들을 의도한 순서로 나란히 늘어놓은 것임(스콧 매클루드, 1999: 17; 김선미, 2011: 41에서 재인용).
- “만화란 풍자적이거나, 재치 있거나, 또는 유우머스러운 점을 만들어 내는 묘사적, 또는 상징적인 그림이다. 그것은 표제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한 칸 이상일 수도 있다”고 정의함(랜델 P 해리스, 2008: 20-44; 이종한, 2012: 191에서 재인용).

□ 각 나라에서 사용하는 명칭과 시대에 따라 만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여 정의가 달라졌음.

- ‘만화(漫畫)’라는 용어는 식민지시대 일본의 ‘망가(漫畫)’가 우리나라에 도입, 굳어진 것임

(김선미, 2011). 1913년 발간된 아동잡지 『붉은 저고리』에 만화라는 한자 표기 대신 순수한글인 ‘다음엇지’라는 용어를 사용한 계기로, 몇몇 동인잡지에서 ‘다음엇지’를 만화의 대체어로 사용하기도 함(공현희, 2008: 195-202).

- 19세기 후반, 미국 출판물과 신문을 통해 현재의 만화 형태를 띠게 되며, 재미라는 오락성을 담은 코믹스(comics)에서 다양한 소재와 장르를 함께 섞는 대중문화라는 의미의 코믹스(comix)로 재탄생함(공현희, 2008: 195-202).
- 프랑스에서는 만화를 ‘그림의 연속 혹은 연속된 그림의 따’라는 뜻을 가진 ‘라 방드 데시네’라고 부름. 미국의 comix보다 표현기법과 한 장면의 이미지라는 형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공현희, 2008: 195-202).

□ 만화는 기술이 발전하고 매체가 다양화되면서, 큰 갈래로 ‘광의의 만화’와 ‘협의의 만화’로 구분할 수 있음. 전자의 경우, 출판만화와 애니메이션, 관련 부수 산업을 포함한 분야를 아우르며, 후자의 경우는 출판만화를 가리킴. 또 각 매체로 구분한다면, 웹툰, 모바일 만화, 출판만화로도 나눌 수 있고, 대중예술의 특성에 따라 상업만화, 독립만화로 나눌 수 있으며, 만화가 다루는 내용에 따라 리얼리즘만화, 장르만화로도 구분할 수 있음(김선미·김익한, 2011: 41).

#### 차. 사진

□ 사진은 “빛이나 전자기적 발광을 이용하여 감광성 재료(건판이나 필름) 또는 촬상소자(CMOS 및 CCD)<sup>19)</sup>에 초점을 맞추어 맺힌 피사체의 영상(影像)을 기록하는 것”으로 정의됨(두산백과).<sup>20)</sup>

- “물체의 형상을 감광막 위에 나타나도록 찍어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만든 영상. 물체로부터 오는 광선을 사진기 렌즈로 모아 필름, 건판 따위에 결상(結像)을 시킨 뒤에, 이것을 현상액으로 처리하여 음화(陰畵)를 만들고 다시 인화지로 양화(陽畵)를 만든다.”(표준국어대사전)

□ Photography는 ‘빛으로 그린다’는 의미의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음. 현대적 의미로 쓰이기

19) 촬상소자(image pickup device), CMOS는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꾸어 저장해 주는 센서, 전하결합소자인 CCD(Charge Coupled Device)는 빛을 전하로 변환시켜 화상을 얻어내는 센서로 필름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리킴.

20) [네이버 지식백과] 사진 [photography, 寫眞]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07940&cid=40942&categoryId=33086> <검색일: 2019년 2월 22일>

시작한 것은 1839년 2월 독일의 천문학자인 폰 메들러(J. H. von Mädler)가 헬리오그래피(heliography), 다게스식 은판사진(daguerreotype), 포토제닉 드로잉(photogenic drawing) 등으로 불리던 실험적 방법들을 기록으로 남기면서부터임. 1839년 프랑스의 과학자 아라고(François Arago)가 하원 의회에 은판사진 공정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용되고 이후 널리 쓰이게 됐음(장 킷 다발, 1999: 9).

□ 프랑스 사진사가인 조르주 포토니에(Georges Potoniée)는 사진은 “카메라 옵스큐라에 의해 생겨난 이미지를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영원한 것으로 만드는 예술”이라고 정의하였음. 포토니에는 사진이 그림을 그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방법이며, 사진 이미지는 공간의 정확한 재현이어야 한다고 그 한계를 설정했음(장 킷 다발, 1999: 9).

- 사진의 기초적 기술인 옵스큐라(camera obscura), 이미지 형성 장치의 원리는 이미 고대에도 알려져 있었고, 중세에도 관련 기록이 남아있음.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는 이와 관련해 자연을 복사하는 것은 어리석은 화가들이 하는 일이라며 모방의 유혹을 비판적으로 언급한 바 있음.
- 카메라 옵스큐라에 대한 본격적인 최초의 저술은 1589년 지오반니 바니스타 델라 포르타(Giovanni Batista della Porta)가 쓴『자연의 신비』인데, 여기서 광학적 관측 장비, 사생도구로 정의되고 있음. 과학자들은 천체 관측에 사용했고, 화가들은 풍경과 정물을 그리는데 활용했음(장 킷 다발, 1999: 10-11).

□ 사진의 발전은 회화와 복제기술 발전의 직접적인 산물이었음. 사진이 발명되던 시기에 관찰의 기록과 시각적 인식의 유일한 수단은 회화였으며, 초기 사진가들의 작업은 화가들의 시각을 답습하였음. 카메라 옵스큐라는 빠르고 정밀한 그림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었고, 보다 객관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19세기에 더욱 널리 활용되었음(장 킷 다발, 1999: 14).

- 18세기 말, 인물화의 수요가 늘고 각종 판화기술의 발달하는 가운데 프랑스의 과학자 니엵스(Nicéphore Niepce)는 석판화법 등의 원리를 토대로 자연의 모습을 종이에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음. 1822년 카메라 옵스큐라에 생긴 이미지를 유리판 위에 기록하는데 성공했음. 공식적으로는 니엵스의 동료였던 다게르(L. J. M. daguerre)가 1839년 프랑스의 과학 아카데미에서 은판사진을 정식 발명품으로 발표하였음(장 킷 다발, 1999: 16-18).
- 영국의 탈보트(William Henry Fox talbot)는 1835년 처음으로 종이 인화법으로 자신의

포토제닉 드로잉을 다중 복제하는데 성공했음. 1839년 종이 인화법인 칼로타이프(calotype)를 영국 왕립협회에 제출했고, 1841년 특허권을 얻었음. 칼로타이프는 한 장의 음화에서 다량의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사진의 사회적 확산에 큰 기여를 하였음(장 킵 다발, 1999: 22; 49).

- 카메라가 갖는 객관성, 실재의 모사라는 사진의 속성은 예술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의 근거로 받아들여졌음. 예술가의 영감, 노력 등이 반영된 예술 작품과는 구별되며, 그저 예술에 유용한 도구라는 것이 초기 사진에 대한 평가였음. 다른 한편으로 사진의 발전은 입체주의와 추상미술의 탄생에 기여했음. 화가들은 대상을 모사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임(전영백, 2006: 313-314).
- 188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사진을 예술의 반열에 올려놓기 위한 시도로서 회화주의(pictorialism)가 번성했음. 당시 직업사진가들은 “사진을 순수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상태로부터 분리해서 독특한 회화적 운동”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추구했음(장 킵 다발, 1999: 146). 회화주의는 19세기 사진에서 객관적 사실의 구현이라는 사진의 속성을 사진가들 스스로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반영함(전영백, 2006: 316).
- 사진가들이 회화적 관습에서 탈피해 사진 고유의 작업을 전개한 것은 카메라가 가벼워지고 빠른 스냅(snap) 촬영이 가능해진 이후였음(장 킵 다발, 1999: 34). 20세기 초 회화주의와 결별하고 사진의 고유한 속성을 예술로 끌어올리는 시도가 성공했음. 스트레이트(straight photography) 사진의 형성이 그것임. 모더니즘의 시대에 사진은 매체의 속성을 그대로 살려야 한다는 모더니즘의 근본미학을 따라, 사진 고유의 매체속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음(전영백, 2006: 318).
  - 1900년대 초, 코닥의 휴대용 카메라 등 카메라의 발전과 산업화에 따라 사진은 대중적인 오락물이 되었음.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를 소유하게 되었고, 사진은 기억의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였음. 역설적으로 사진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는 한편 ‘예술 사진’이 등장하였음(장 킵 다발, 1999: 127-128).
  - 스트레이트 사진의 창시자인 알프레드 스티글리츠(Alfred Stieglitz)는 사진가이자 이론가, 출판 편집인, 전시 기획자로서 사진분리파(Photo-secession)를 형성하고 1903년부터 1917년까지 기간지『카메라워크』를 발간하여 사진이 회화나 조각과 같은 예술임을 주장하였음(장 킵 다발, 1999: 149-150; 전영백, 2006: 316-317).

□ 사진은 1960년대 이후 현재 미술의 지형도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현대미술의 주요 매체로 자리 잡았음. 시각 주체의 시각 또는 관점과 피사체와의 관계를 부각시키는 매체로서 사진은 포스트모던 미술의 지향에 부합하는 매체였기 때문임(전영백, 2006: 319).

- 포스트모던의 시대에 사진은 순수미술과 분리된 영역으로 존재하지 않음. 포스트모던 미술에서 사진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받아들여짐. 첫째, 매체의 특성보다 작품이 표현되는 맥락을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에서 사진은 다른 미술 영역과 분리될 필요가 없었음. 둘째, 포스트모던 미술의 속성에 부합하는 매체로서 사진의 독자성에 주목하는 관점이 있음. 예술사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두 번째 관점이 중요함(전영백, 2006: 319). 포스트모던 미술에서 기록(documentation)이 중요한 시각적 언어로 등장하면서, 사진은 리얼리티의 흔적으로, 이미지와 실제 세계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드러내는 매체로 예술적 독자성을 부여받음(전영백, 2006: 325).

- 이와 동시에 사진이 세계의 실재성을 담보하는 매체는 아니라는 논의도 전개됨. 인위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연출사진, 초현실주의 사진이 대표적인. 20세기 후반에는 초현실주의에 대한 논의가 미술사의 주요 논쟁이 됐음. 벤야민은 카메라는 인간의 눈과 다르며, 사진술을 통해 인간이 의식적으로 만든 공간과 다른, 인간의 눈으로 포착할 수 없는 세계, 즉 무의식의 세계를 알 수 있다고 그 특징을 설명했음. 포스트모더니즘이 모더니즘의 시각중심주의에 도전하는 시도라는 맥락에서 초현실주의가 중요한 화두가 된 것임(전영백, 2006: 329-330).

□ 1980년대를 전후로 기술의 발전으로 더 크고, 다채로운 색감을 가진 사진이 가능해졌고, 사진은 그림과 유사한 형태로 액자에 넣어져 전시되고 화소성을 갖고 거래되었음. 2000년대를 전후하여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주요 미술관의 전시실을 차지하였음. 대형 컬러사진은 사진 분과가 아니라 현대미술분과에서 수집되고 있을 만큼 그 예술적 영향력이 증대한 상황임(이필, 2015: 257, 269).

#### 카. 영화

□ 영화의 사전적 정의는 “일정한 의미를 갖고 움직이는 대상을 촬영하여 영사기로 영사막에 재현하는 종합 예술”(표준국어대사전)임.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영화라는 예술 작품의 생산과 수용 방식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음. 이 점에서 영화를 영화관에 가서 스크린을 통해 봐야

하는 것이라기보다, 서사를 갖춘 예술작품이자 시청각적 볼거리라는 측면에서 정의할 때 영화의 변신을 수용할 수 있을 것임(정영권, 2018: 246).

- “사진의 원리를 이용, 피사체를 연속 촬영함으로써 영사했을 때 피사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 매체”(네이버 지식백과 - 영화사전)<sup>21)</sup>, “스크린상에 움직이는 영상(映像)”(한 국민족문화대백과)<sup>22)</sup> 등과 같이 시각적 예술이라는 점에서 영상에 중점을 둔 정의도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카메라, 스마트폰의 보편화 등 영상 기록 매체가 다양해지고 대중에게 보편화 되었다는 점과 공연 실태 등 영화 이외에 다양한 예술작품이 스크린에 오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화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함.

□ 영화는 이미지의 예술임. 영화의 발명은 현실의 이미지, 현실 세계를 사실적으로 복제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었음. 이 점에서 영화는 객관적 현실을 기록하지만, 동시에 주관적 표현을 통해 드러난다는 점에서 모순적인 속성을 지님. 영화는 “사실적 기록과 허구적 환영의 결합”임(정현, 2013a:6-7).

□ 또한 영화는 이야기의 예술임. 영화 탄생의 초창기에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 예술이었다면, 영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점 더 이야기의 예술로 발전했음. 영화 예술만의 이야기를 조직하는 방법과 기술, 즉 내러티브(narrative)가 있음. 영화의 내러티브는 플롯(plot)의 전략, 사건의 인과관계, 시간의 배열, 공간의 재구성 등에 의존함. 동시에 미장센, 카메라 기술, 음향 효과, 자막 활용 등 다양한 기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임(정현, 2013a: 36).

□ 영화는 쓰임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림. 제작 과정의 측면에서 영화는 모션픽처(motion picture) 또는 무빙픽처(moving picture)라고 불리며, 대중오락 및 상품의 맥락에서는 무비(movie)라고 불림. 정치, 사회, 사회문화의 맥락에서 이론적으로 논의될 때는 시네마(cinema)로 사용되고, 필름(film)은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용어이며 영화예술(film arts)과 같이 영화의 예술성을 지향하는 맥락에서 쓰임(문학비평용어사전).

- 시네마(cinema)는 움직임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kinesis에서 왔음. 모션픽처, 무비 등 서양에서 영화라는 단어는 움직임이라는 의미를 공유하고 있음.
- 중국에서는 전영(電影), 일본에서는 영화(映畫)라고 쓰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전기로 나타낸 그림자, 비추어진 그림이라는 의미.

2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49806&cid=42617&categoryId=42617>

22)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7818&cid=46665&categoryId=46665#TABLE\\_OF\\_CONTENT1](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7818&cid=46665&categoryId=46665#TABLE_OF_CONTENT1)

- 우리나라에서는 기록상 1903년 6월 23일 동대문 한성전기회사 기계 창고에서 최초로 ‘활동사진’이 상영됐다고 황성신문에 보도됨. 이후 일본식 조어인 ‘영화’라는 단어를 받아 들여 사용하고 있음(영화사전).<sup>23)</sup>

〈표 13〉 영화의 명칭과 정의

명칭	정의 내용
시네마(cinema)	영화의 이론적 전달을 부각한 용어
필름(film)	예술, 독립, 작가 영화를 지향하는 영화 용어
무비(movie)	일반적인 영화 용어, 상업 영화 전반을 가리키는 용어
모션픽처(motion picture)	영화를 산업적으로 통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
무빙이미지(moving image)	움직이는 동영상의 모든 것을 일컬을 때 쓰는 용어

자료: 민경원, 2014: vi

- 영화는 기술도구이면서 동시에 예술임. 영화는 인류 최초의 “인간의 손떨림을 벗어난 기술적 자동성의 예술”로 등장했음(정현, 2013a: x). 영화는 19세기 과학기술의 총체로 탄생했으며, 이미지 재현과 영상 기술의 발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
- 미국의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Thomas Edison)이 발명한 영사기와 축음기는 영화 상영 및 사운드 장비의 기초가 되었음. 에디슨이 1891년 발명한 키네토스코프는 만화경과 같은 구조로, 관객 혼자서 장치를 들여다보고 영화를 관람하는 기계였음(민경원, 2014: vii).
  - 프랑스의 루미에르 형제는 1895년 12월 28일 촬영과 영사가 결합된 시네마토그래프(cinematograph)를 선보였음. 기차가 역으로 도착하는 순간을 기록한 영화를 상영했고, 관객들은 거대한 화면 속 가치를 보고 놀라 도망쳤다고 함. 이 날이 영화탄생의 날로 정해짐(민경원, 2014: viii).
- 영화의 예술성에 대한 논란은 그 기원부터 지속된 논쟁임. 영화는 산업이자 예술임. 초기 영화는 오락적 기능이 우선적으로 주목받았고, 문학과 연극의 전통 속에서 논의되었음. 사진과 유사한 영화의 현실 반영, 재현성은 모방론의 관점에서 영화의 예술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요인이었고, 다른 한편 관객에게 미치는 감정적 영향, 표현의 영역은 예술성을 인정받게

23)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0580&cid=42617&categoryId=42617>



하는 요인이었음.

- 영화는 처음부터 상업성을 갖고 산업으로 성장했음. 토머스 에디슨도 루미에르 형제도 처음부터 관람료를 받았음. 영화는 one source multi use의 특성을 실현시키는 매체로서 하나의 영화 작품이 완성되면 다양한 부가 산업을 활성화시켜 이익을 창출함. 스타워즈, 디즈니 시리즈가 대표적인 예임(민경원, 2014: x iii). 이런 측면에서 영화 등장 초창기에는 서커스, 마술, 희극과 같은 오락 문화의 하위 범주이자 한 산업으로서 비판적인 관점에서 매스미디어 학자, 사회학자들이 영화를 다룸.
  - 독일의 미학 이론가 랑게(Conrad Lange)는 예술의 본질이 자연에 있지 않고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힘에 비례하여 인간의 환상에 호소한다는 “환상 미학”을 제창했음. 그는 초기의 영화, 활동사진이 단순한 모방, 재현이라고 보고 영화의 예술성을 부정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랑게는 영화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 사회성, 교육성 등을 인정했음. 랑게의 관점은 오늘날 기술발전에 따른 영화의 다양한 표현력을 고려할 때 재고될 필요가 있음(김수남, 1997: 2-3).
  - 심리학자인 문스터베르그(Hugo Munsterberg)는 영화와 연극의 차이를 규명한 연구에서 영화의 예술성을 주장했음. 문스터베르그는 연극과 구분되는 사진극의 고유한 독자적 기능, 클로즈업을 통한 관객의 주의 집중, 시공을 초월하는 컷 백 등을 예로 들며 영화의 독자적 형식이 있음을 규명하고, 영화가 관객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화, 감정적 작용 등에 주목하여 효과적인 예술로서 사진극임을 주장하였음(김수남, 1997: 3-4).
- 영화는 무성에서 유성으로, 흑백에서 컬러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2D에서 3D 그리고 4D로 기술발전과 함께 발전하고 있음. 영화는 텔레비전, 컴퓨터게임,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스마트폰, 가상현실 등 새로운 기술과 매체의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고 있기도 함. 영화는 이제 극장을 떠나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고 소장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 필름은 이미 지난 시대의 역사적 유물이 되어 버렸지만, 영화는 뉴미디어의 내용과 형식을 수용하며 지속해서 변신을 꾀하고 있음(정영권, 2018: 266-267).
- 영화는 기술복제 시대의 대표적인 예술로 꼽힘. 기술이자 예술로서 영화의 미학적 가치에 처음으로 주목한 이는 독일의 비평가 발터 벤아민(Walter Benjamin)으로 영화가 예술인지 아닌지 보다 중요한 것은 영화가 예술의 개념을 변화시킨 것이라고 역설함. 벤아민은 회화와 같은 고전적 예술이 인간의 관조적 시각에 의존해 있다면, 영화는 움직이는 이미지의 충격 효과에 의해 온몸의 경험과 촉각적 지각을 요구한다며, 인간 감각의 변화에 영향을 주목함.

또 스크린을 통해 다수의 관객이 동시에 같은 작품을 본다는 점에서 대중 예술이자 대중 민주주의의 도구로서 영화의 사회적 의미가 있음을 밝힘(정현, 2013a: ix).

□ 이탈리아의 영화평론가 리치오도 카뉴도(Ricciotto Canudo)는 영화를 제7의 예술이라고 선언함. 카뉴도는 종합예술, 총체예술의 개념으로서 영화를 기존의 6개의 예술<sup>24)</sup>을 하나로 만나게 하는 예술이라고 명명한 것임(김수남, 1997: 6-7).

- 카뉴도는 영화의 극적 스토리를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문학과 연극의 오랜 전통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예술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았음. 그는 영화와 음악의 공통성을 모색함으로써 영화의 리듬을 발견하고, 그 리듬에 의한 움직임과 전개만이 감동을 창조할 수 있다고 주장했음(김수남, 1997: 4). 카뉴도는 영화를 건축과 음악이라는 두 개의 예술 축을 기준으로 회화와 조각이라는 보조적 예술이 더해지고, 과학과 예술의 만남을 통해 빛과 리듬의 표현으로 모든 것을 종합한 총체예술이라고 역설하였음(김수남, 1997: 7).

□ 영화의 예술성에 대한 논의는 리얼리즘, 표현주의, 아방가르드 정신 등의 큰 흐름으로 요약할 수 있음. 리얼리즘은 객관적 현실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데서 영화의 예술적 가치를 찾음. 지그프리트 크라카우어(Siegfried Kracauer), 앙드레 바쟁(André Bazin)의 말대로 영화는 물질적 현실의 기술적 복제와 예술적 모방을 달성함(정현, 2013b: viii-ix).

- 할리우드 영화의 고전적 리얼리즘 영화는 폐쇄적(전형적)인 내러티브 관습을 따라 역사적 이계도 현실의 모순을 봉합함. 네오리얼리즘, 사회적 리얼리즘 등 다양한 진보적 리얼리즘 영화들은 사회의 참담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데 주력함으로써 영화의 미학을 구현함. 다큐멘터리, 극영화가 대표적이며, 롱샷, 롱테이크, 딥포커스 기법 등이 영화의 사실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정현, 2013b: 5-6).

□ 리얼리즘이 영화의 객관성과 현실 복제에 주목한다면, 표현주의는 주관적 의식, 꿈과 환상의 표현을 중시하며 이런 측면에서 영화적 기법과 형식의 탐구를 강조함. 루돌프 아르헨하임(Rudolf Arnheim)은 영화는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지 않으며, 매체의 형식과 한계 속에서 재구성한다고 역설함. 영화 예술은 카메라 렌즈의 왜곡, 슬로·패스트 모션, 편집에 의한 시공간의 재배열 등을 통해 현실을 의도적으로 조직하고 변형하며, 이러한 형식과 표현방식이 영화에 예술성을 불어 넣는다는 것임(정현, 2013b: 18-19).

□ 영화예술(Film as Art)의 하위 장르로서 예술 영화(Art cinema)는 할리우드 대중 오락 영화

24) 연극, 회화, 무용, 건축, 문학, 음악

와 대비되는 스타일, 내러티브를 가진 영화를 가리킴. 예술영화라는 명칭이 다른 영화 장르보다 예술성이 있다는 식의 질적인 우위를 포함하지 않으며, 분류적인 기능에 따른 명칭임(홍진혁, 2015: 137). 독립영화, 실험영화, 유럽의 작가주의 영화 등을 가리키며 아방가르드 영화라고 칭하기도 함.

- 예술 영화로 분류되는 영화는 할리우드 영화 또는 고전적인 영화와 다르다는 공통점을 가질 뿐, 개별 작품 간에 공유하는 공식이나 내러티브가 존재하지 않음. 이 점에서 예술 영화는 개별 영화의 내적 요소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소, 하나의 제도로서 성립됨. 할리우드 대중영화와 차별화를 시도하는 이런 움직임은 1960년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국제영화제라는 제도를 통해 형성되었음(홍진혁, 2015: 126-127).

□ 디지털 기술은 영화의 제작 기술과 관행을 변화시키고 있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미디어 민주주의의 시대가 열렸음. 필름은 사라졌고, 관객들은 극장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공간 어디에서나 영화를 볼 수 있음. 영화는 실사와 컴퓨터 애니메이션의 합성물로 변화하고 있음. 데이비드 보드웰은 디지털 미디어가 영화를 소멸시킨 것이 아니라 극장과 거실에서 떠날 수 있게 한 것뿐이며, 영화는 뉴미디어의 내용과 형식을 수용하며 변화하고 있음(정영권, 2018: 266-270).

#### 타. 행위, 퍼포먼스 예술

- 행위예술은 예술가 자신의 조형 어법을 통해 신체를 매체로, 의사소통을 추구하는 '과정의 예술'임(정운선, 2001: 1).
- 행위예술에 있어 신체는 의식과 하나이며, 이는 뒤샹의 '오브제(Object)'개념에서 유래되어 표현수단을 확장시킨, 일상의 신체-의식이 곧 예술일 수 있음을 가능하게 하였음. 또한 시간과 공간은 신체-의식과 함께 즉각적인 생생한 경험을 통해 실현되고, 공연되는, 살아있는 시각예술로서의 의미를 지님(정운선, 2001: 1).
  -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예술가들은 인간의 형상을 표현한 드로잉, 조각, 회화 등을 선보였음. 그런데 점차 대상으로 재현된 인체표현에서 벗어나 행동을 표현하면서 몸의 우연성, 불안정성을 연구하고 표현해옴. 이는 예술의 경계 안팎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개념의 탐구를 뜻하는 것임(김현우, 2015: 5에서 재인용).

□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수많은 사조들의 출현은 ‘기존의 관념으로부터의 이탈’이라는 명제 아래 점차 예술작품이 사건화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때에 따라 해프닝(Happening), 이벤트(Event), 퍼포먼스(Performance)란 명칭으로 부르게 됨(이주은, 2003: 15).

- 1910년에서 1920년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다다이즘의 재현적 형식의 파괴는 급속도로 이루어짐. 다다의 예술가들은 전통의 양식을 거부하며 육체, 물질의 현실과 가까운 재료를 작품에 등장시킴으로서 행위적이며 다학문적인 특징으로 작품을 제작하였으며, 다다에서 파생된 초현실주의는 다다와 함께 콜라주(Collage), 설치(Installation), 퍼포먼스(Performance), 아상블라주(Assemblage) 등의 기법을 활용하면서 회화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일상의 것들을 투영하기 시작함(김현우, 2014: 5).
- 제2차 세계 대전(1941-1945) 이후 1950년대부터 1960년대의 유럽과 미국에서는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 존 케이지(John Milton Cage Jr), 알렌 캐프로우(Allan Kaprow)와 같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행위(Action)의 형식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작품 활동을 하였음. 이들은 작품의 결과물보다 과정을 중시하면서 신체로 적극적으로 활용함. 잭슨 폴록(Paul Jackson Pollock)의 평면 회화에서 나타난 몸을 이용하는 행위인 액션 페인팅(Action Painting)을 시작으로 급진적인 신체와 회화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후 캐프로우가 계획한 해프닝(Happening)으로, 예술의 행위는 회화의 2차원의 공간에서 3차원으로 확장됨. 더불어 플럭서스(Fluxus)에서는 관객의 참여까지 가능해지는 미술로 행위의 영역은 더욱 커져갔음. 플럭서스 예술가들은 일상의 제스처를 시각적인 스펙트럼보다 중시함. 이는 다다의 직접적인 예술혼의 수혈로 행위를 중시하고, 특히 뒤샹의 개념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음. 나아가 조지 브레히트(George Breeht)와 같은 플럭서스의 작가는 관객을 작품으로 끌어들이 참여하는 관객 협력의 역할을 스코어 이벤트(Score Event)를 통해 구성함(김현우, 2014: 5-6).

□ 광의의 의미에서 퍼포먼스는 인간의 다양한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특히 행위가 어떤 목적을 지니고 보여지게 될 때 공연예술로서의 특성을 내포하게 되는 것임(정용도, 2008: 3).

- 퍼포먼스의 사전적 의미는 연극, 콘서트 혹은 다른 형태의 공연을 보여주는 행위, 또는 어떤 임무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 또는 행동을 의미함. 비즈니스 온라인 사전에서 퍼포먼스는 미리 기준이 정해진 정확성, 완벽성, 비용, 속도로 평가되는 일정 업무의 성취로 정의됨(김민경, 2014: 26).

- 퍼포먼스는 제의, 놀이, 스포츠, 대중적인 오락,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일상 생활의 퍼포먼스에서부터 사회적, 전문적, 성차(gender), 인종, 그리고 계급적 역할, 그리고 치유 행위(사머니즘에서 의과수술까지), 미디어, 인터넷에 걸쳐있는 인간 행위들의 “광범위한 스펙트럼” 혹은 “연장성”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고 정의함(정용도, 2008: 3).
  - 학문영역별로 퍼포먼스의 개념과 차별화된 이해를 살펴보면, 먼저 퍼포먼스적 전환을 통해 퍼포먼스 담론에 주목했던 사회인문학에서의 퍼포먼스 개념은 1940-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사회적 삶과 퍼포먼스의 연계를 중시하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모든 인간의 프렉티스는 공공의 무대 위에서의 행위로 수행된 것으로 바라봄. 따라서 모든 인간 행태는 상징적이며 공적인 동시에 사적이며 사회적, 문화적 퍼포먼스로서 간주될 수 있음(김민경, 2014: 26).
  - 순수예술, 음악, 문학, 연극 등의 퍼포먼스 예술은 퍼포먼스를 통해 자신을 현실화하는 분야로서 ‘작품’자체보다는 ‘이벤트’가 중시되고 상황특이성(situation-specific)과 행위자의 순간순간의 예술적 재현 또는 행위 자체가 강조됨(김민경, 2014: 26).
- 행위예술과 함께 사용되는 퍼포먼스(Performance)라는 말은 매우 포괄적으로 쓰이며 해프닝(Action Painting), 플럭서스(Fluxus), 바디 아트(Body Art)를 포함할 수 있는 개념임. 여기서 퍼포먼스(Performance)의 정의는 ‘손으로 만든 그림 대신 행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신체성을 강조하며, 보편적인 대상으로서의 신체가 실증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영역을 추구하는 것임(이주은, 2003: 25-26).
- 퍼포먼스(Performance)는 20세기 이해 시각예술의 창조적 방법과 함께 풍자성과 음향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등의 구분을 없애버리려는 데서부터 그 출발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60년대 말과 70년대 초 해프닝과 매우 유사한 개념을 행위 형태에 사용함으로써 퍼포먼스의 명확한 개념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즉,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해프닝(Action Painting)의 예술적 반개념으로서 유발성을 지닌 행위를 좀 더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일관성을 지닌 행위예술로 발전시키려는 해프닝 작가들의 염원으로부터 탄생하게 된 것이 오늘날의 퍼포먼스(Performance)라고 할 수 있음(이주은, 2003: 15).

#### 파. 설치예술

□ 설치예술(Installation, Installationart)은 기존 미술작품(회화나 조각)과는 달리 전시장의 바닥이나 천장, 벽 등을 이용한 구조물들을 통해 전시하는 것으로, 현장성을 내포한 환경적 요인을 조형적 요소로서 구현하는 예술임(노민욱·김아연, 2012: 47).

- 사전적 의미는 설치(設置), 장치(裝置), 가설(架設)이라는 보통명사로, 동사 의미로는 ‘설치하다’, ‘-을 선정된 자리에 위치시켜 놓다’, ‘-을 여기저기 베풀어 놓다’라는 의미로 이때 ‘-을’에 부여하는 의미는 행위를 취하는 주체의 대상 곧 오브제가 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특수한 상황이나 목적에 맞게 적절히 여러가지 사물들을 결합하여 베풀어 둔다는 것을 의미함(나화선, 2013: 4).
- 어원적으로는 어떤 공간 속에 사물을 놓음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60년대 후반부터 원래의 의미를 특수화시켜 작품의 명제 등에 사용하게 되었음. 이 단어가 미술 용어로 전환된 배경에는 1970년대 이후에 조각이라든가 회화라든가 하는 종래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작업에 대해 구분한다는 것과 전시된 작품과 그 작품을 둘러싼 공간과 환경을 함께 정보화 한다는 이중의 의미가 존재함(나화선, 2013: 4).
- 엄밀한 의미로 “설치미술은 확대되어온 현대조각의 양식적 영역 속에 포함되며, 설치미술의 다양한 부분들 안에 조각이 그 한 영역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각과 설치미술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기보다는 서로 교류하는 하나의 연결선상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음(배정환, 1994: 12; 나화선, 2003: 6에서 재인용).
- 앗셈블라주(Assemblage)<sup>25)</sup>, 미니멀 아트(Minimal Art)<sup>26)</sup>, 환경미술(Environment Art)<sup>27)</sup> 등에 깊이 연관되면서 장소에 대한 인식과 아울러 전시공간의 새로운 예술적 의미를 형성하며 조형영역의 확장에 따른 한 표현양식으로 나타남(나화선, 2003: 5).
- 설치미술은 환경미술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으며, 이 설치미술의 영역에서는 빛, 소리, 물, 바람, 공기 등 자연경관에 이르기까지 온갖 소재로 구성되는 관객 주위의 환경을 배경으로 환경자체를 하나의 대상으로 취급함. 이는 설치미술이 단순히 공간 속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내고 공간을 규정짓고, 그것을 구조화, 작품화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음(나화선, 2013: 15).

25) 앗셈블라주(Assemblage) : 원뜻은 ‘집합, 조립’ 등의 뜻. 평면적인 타블로 회화에 3차원성을 부여하는 기법으로 우리 주변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집다한 물건이나 폐품 따위를 조립해서 만든 작품이며, 폐품 문화의 반영으로도 보여짐(나화선, 2003: 5; 네이버백과사전).

26) 미니멀 아트(Minimal Art) : 최소한의 예술이란 의미로,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 대두된 미술 경향(네이버 백과사전)

27) 환경미술(Environment Art) : 작품과 보는 사람과의 전체적인 교류를 의도하며, 빛·소리·색채를 포함한 모든 소재로 이루어져 공간 전체를 채우는 예술형식(네이버 백과사전)

- 설치예술은 전통에 대한 근원적인 부정을 통하여 본질에 가깝게 접근하려고 시도하면서, 곧 예술의 각 장르가 자율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형성되었던 엄격한 관습을 파괴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됨. 회화에서의 액틀의 제거라든지 조각에서의 좌대의 이탈, 연극에서의 무대의 거부, 또는 무용에서의 일상적인 동작의 도입 등은 기존의 관습에 대한 과거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음(나희선, 2003: 8).
  - 설치예술은 기존의 조각이나 회화와 같은 예술에 반발하여 발생한 입체주의(Cubism), 다다(Dadaism), 팝아트(Popart), 미니멀아트(Minimalart), 개념미술(Conceptualart), 대지미술(Landart)에 기원을 두고 있음(노민욱·김아연, 2012: 47).
- 설치미술에서 기본적인 특징이 되는 것은 오브제의 기용임. 설치미술은 오브제 출현과 미술영역 확대로서 행위성이나 환경의 개입으로 모든 것이 합체되는 총체 예술로 발전하게 되며 복합적이고 전체적인 미술의 한 양식으로 70년대부터 조형적 의미가 구체화되기 시작함. 이후 80년대 설치 작가들은 미술에 형태적 변화를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작품에 많은 의미 내용을 채워 넣음(서성록, 1995: 14-19; 나희선, 2003: 10에서 재인용).
- 현대미술에서 최근 다양한 소재와 미디어를 이용한 탈장르, 복합적인 표현방식이 증가하고, 실험정신이 내재된 설치미술은 오브제, 환경의 장, 참여와 상호작용, 테크놀로지와 결합한 새로운 미학적 가능성을 열어주고 예술과 삶, 일상생활과의 간격을 좁히고 더 나아가 일원화하려고 한다. 그리고 시공간적 상황속에서 관객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음(박신자, 1999: 8-12; 나희선, 2003: 11에서 재인용).
  - 새로운 공간을 형성하는 흐름은 그동안 예술 활동에서 관망만 해왔던 관객의 욕구를 크게 바꾸었다고 할 수 있음. 과거 관객들이 수동적인 수용자였던 것과는 달리, 설치예술에서의 관객은 그 과정에서 작품이나 작가의 위치만큼이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인식이 나타났고, 예술의 수용과정에서 그들로 하여금 적극성을 띄게 하였음. 따라서 설치예술에서는 이러한 관객의 적극적인 면이 수용되며 때로는 관객의 능동적 참여가 의도적으로 유도되기도 함(김학제, 1995: 87).

〈표 14〉 설치미술 전개양상의 특징

구분	의미	작가
앗쌍블라주	생활 주변의 일상적인 ‘오브제’(폐품 등을 활용)에 주목한 계기	조셉 코르넬, 라웃네 버그, 쿠르트 슈비터즈, 뒤상
팝 아트	적극적, 현실적 상황이 보여지면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이미지를 차용하여 실재의 생활공간 자체를 오브제화. 미술을 일상생활까지 확장, 설치 요소로 등장	조지 시걸, 에드워드 키엔홀츠, 앤디워홀, 클레이스 올덴버그
미니멀 아트	1960년대 말 미국에서 새로운 종류의 조각의 근원, 출발점으로서 표현자체의 극단적인 단순화, 내재성 경향을 보였으며, 오브제와 공간의 관계성에 주목하고 공간을 구조화함	도널드 저드, 로버트 모리스, 칼 안드레, 다니엘 뷔렌
개념예술	60년대의 미니멀 아트의 형식적 문제에 반해, 한걸음 더 나아가 정보, 언어를 내재한 비물질적 정신지향인 개념미술 (Conceptual Art)이 대두. 작품의 물질적 속성보다 그것이 배후에 있는 작가의 의도를 본질로 삼음, 개념을 시각화하기 위해 설치방법 사용	다니엘 뷔렌
행위예술(이벤트와 해프닝)	주어진 장치, 상황 속에서의 인간들과 사물들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예술작품 더 발전된 이해의 설치미술을 낳음 → 관객의 참여를 불러일으키는 총체적인 환경예술로의 발전에 큰 기여	잭슨 폴록, 탕겔리, 라우센 버그, 니키드 생 팔, 앨런 카프로우
대지미술	미니멀 아트의 ‘물질’로서의 예술을 부정하려는 경향과 반문명적인 문화현상이 뒤섞여서 생겨난 미술양식으로서 대지 자체나, 대지로부터의 재료 이용하여 작품화를 진행. 미니멀 아트와 개념미술과 함께 현대미술이 지니는 개념성의 위치를 높여줌.	로버트 스미슨
테크놀로시아트	1960년대, 영화, 비디오, 사진 사용법 도입 → 테크놀로지 예술 보급. · 빛(광선), 색채, 음향, 움직임이 참여하는 다차원적인 설치 유형. 1970년 이후 예술과 테크놀로지 ; 1) 빛, 소리, 색채의 요소적인 총합이 아닌 역사적 배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론적 근거에 기초 2) 다양한 미디어의 요소가 되는 과학기술에 의한 것이 아닌, 보다 복합적인 연결에 근거하여 제작되는 방향으로 움직임.	백남준, 막스 코퍼, 릴리언 리진

자료: 나희선 2013: 12-13에서 재구성



## 제4절 공연예술

### 1. 공연예술의 정의

- 공연예술이란 “관객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나 행동 속에서 행위자가 자연과 인간의 삶을 모방하여 재현하거나 제시하는 예술”임(김중호 외, 2016: 25).
- 우리나라에서 ‘무대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을 가리키는 용어로 ‘공연’ 대신 ‘공연예술(Performing Arts)’을 사용한 것은 1900년대 이후 경향임. 서구에서는 20세기 중반부터 ‘모든 공간의 공연’을 통칭하는 말로 ‘공연예술’이라는 말을 광범위하게 사용함(박갑용, 2006: 69-70).
  - ‘공연(performance)’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서양 중세어의 ‘parfourmen’임. ‘완결에 도달한다’는 뜻을 가진 말이며,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한 인간의 욕구’를 포함함. 이런 측면에서 공연은 “어떤 의도된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계획적으로 보여주거나 혹은 그러한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김중호 외, 2016: 25·91).
  - 공연의 필수적 요소는 배우(행위를 하는 사람), 무대(공간), 관객(보는 사람)이며, 공연의 본질적 의미는 목적을 가진 또는 계획된 ‘행위(act)’에서 찾을 수 있음(김중호 외, 2016: 25).
- 현대의 공연예술은 제한된 공간-한정된 무대에서 올리기도 하며, 한정적 무대를 벗어나 대중들의 생활공간 속에서 실현되기도 함. 또한 멀티미디어 등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의 영향을 받아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박갑용, 2006: 69-70).
- 박갑용은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여 공연예술을 “살아있는 인간들이 사회적 환경, 즉 삶의 무대 공간 속에서 발전된 극장 내 무대공간과 아울러 멀티미디어화로 변천된 공간까지 수용자(관객 또는 대중)와 창조자(예술가)가 상호 교감하는 현장의 행위를 표출하는 퍼포먼스의 성격을 가진 예술적 공연”이라고 정의함(박갑용, 2006: 78).
- 표현 매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공연예술의 장르를 나눌 수 있는데 연극, 무용, 오페라, 뮤지컬, 악극, 창극, 마당극, 연주회 등이 있음. 하지만 현대 사회의 다양성과 다원성, 기술의 발전 등에 의해 공연예술 분야가 다원화 되고 있어 기존의 공연에 대한 정의와 구분이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음(김중호 외, 2016: 25-26).

- 오늘날의 공연예술은 ‘퍼포먼스’ 개념을 바탕으로 양식화·다원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런 관점에서 보다 폭넓게 공연예술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음. 연극(play), 중국의 경극(京劇)과 화극(話劇), 일본의 노(能)와 가부기(歌舞伎), 오페라(Opera), 무용(Dance), 댄스스포츠(Dance Sports), 뮤지컬(Musical), 코메디(Comedy), 콘서트(Concert), 리사이틀(Recital), 퍼포먼스(Performance)와 해프닝(Happening), 팬터마임(Pantomime), 마술(Magic), 세계 여러 민족이나 지역의 토속적인 각종 축제(Festival), 곡예(曲藝, Circus), 우리나라의 판소리, 창극, 마당극, 아류, 탈춤 등을 포함함(박갑용, 2006: 78-79).
- 연극, 무용, 음악 등 표현의 형태에 따른 장르 구분이 일반적이지만, 전통 공연예술과 현대의 공연예술의 장르 구분도 있음. 또 전통의 현대화, 장르 간 혼합 등을 통한 새로운 공연의 탄생 등으로 인한 새로운 장르의 탄생도 이루어지고 있음.
- 동서양 문화 양식의 발달 과정은 상이했지만, 20세기 후반 정보과학의 발달과 이로 인한 대중화, 참여, 공유의 영역 확장은 동서양 예술의 차이를 좁히고 상호 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있음(서연호, 2015: 28). 서연호(2015)는 그동안 공연예술의 양식으로 “전통 음악, 서양고전음악, 대중음악, 전통기악, 서양기악, 가곡, 민요, 오페라, 뮤지컬 등의 구분”이 있었다고 함. 그러나 융복합의 콘텐츠시대라는 21세기에 들어와 기존의 영역을 뛰어넘는 양식 간 혼합, 새로운 양식의 등장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공연예술’이라는 하나의 양식개념을 사용하자고 제안함.
- 21세기의 공연예술은 디지털 산업 발전에 힘입어 영역의 경계를 허물고, 장르사이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장르를 생성하고 있음. 특히 현장성을 토대로 협업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공연예술은 장르적 속성을 허물고 예술가들의 결합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고품격 콘텐츠로 진화하고 있음(허난영, 2016: 245).
- 이숙경은 “장르나 방식을 규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연양상이 다양하고 흥미한 시대에 접어들지 오래”라고 평함. 연극은 무용, 퍼포먼스, 마술, 설치예술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결합되면서 다양한 장르들의 융합이 한 형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한국의 공연예술도 디지털 영상문화의 확산에 힘입어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컨버전스 방식으로 무대에 오르고 있음(이숙경, 2014: 159).

## 2. 공연예술 장르별 정의

### 가. 연극(연극, 뮤지컬 등)

#### 1) 연극

□ 연극은 “꾸민 이야기를 배우가 말과 행동을 통해 관객에게 보여주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할 수 있음(한국연극교육학회 편, 2003: 8).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연극(演劇, Theater)은 ‘배우가 각본에 따라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말과 동작으로 관객에게 보여주는 무대 예술’임(표준국어대사전).<sup>28)</sup>
- 배우가 연희(演戲) 장소에서 희곡 속의 인물로 분장하여 관객 앞에서 몸짓과 대사로서 만들어 내는 예술임(두산백과).<sup>29)</sup>
- 배우가 특정한 연희(演戲)의 장소에서 관객을 앞에 두고 극본 속의 인물로 분장하여 몸짓·동작·말로써 창출해 내는 예술임(한국민족문화대백과).<sup>30)</sup>

□ 연극은 어느 정도의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나 인격화 작업이 개입된 행위를 가리키며, 글로 쓰인 대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그렇지만 반드시 대본이나 대화를 필요로 하지는 않음. 대중 오락적 측면에서 연극의 전통을 찾는 경향에 따르면 연극의 범위는 매우 넓어서 즉흥장면, 팬터마임(pantomimes), 보드빌(vaudevil), 음악극, 대화극 등을 모두 포괄함(브로케트, 2014: 5-7).

□ ‘연극(theater)’이라는 용어는 ‘보다’라는 의미를 가진 고대 그리스어의 어원인 ‘테아트론(theatron)’에서 유래하였음. 테아트론은 ‘바라보는 장소’라는 뜻임.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은 매우 인기가 높은 취미생활이었음. 당시 관객들이 연극을 보러 오는 야외극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됨. 지금의 연기 공간인 무대에 해당하는 ‘오케스트라’, 무대 뒤 공간인 ‘스케네’, 연극을 바라보는 자리인 객석을 ‘테아트론’이라고 하였음. ‘관객들이 객석에 앉아 연기를 바라보는 것’에서 연극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임(고종환, 2014: 15).

28)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117573&cid=44415&categoryId=44415>

29)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26388&cid=40942&categoryId=33105>

30)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81435&cid=46664&categoryId=46664>

- 현대 연극을 뜻하는 ‘드라마(drama)’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행동하다’를 뜻하는 ‘드로메논(dromenon)’ 또는 ‘드란(dran)’에 어원을 둬. 이 때 연극은 ‘무대에서 행동하는 것(연기)’을 ‘관객에게 보여주는 예술’ 또는 ‘관객이 바라보는 예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고종환, 2014: 15-16).
- 연극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영화 같은 다른 연극적 매체와 다른 점은 같은 공간 안에 살아있는 배우와 관람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반복 상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차이는 연극적 경험의 입체성과 연기자인 배우와 관람자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임. 영화나 텔레비전 관람 시 관객은 카메라가 촬영한 장면만 볼 수 있는 반면, 연극 관람은 무대 안팎의 공간 전체를 보고 무엇을 볼지 선택할 수 있음. 또 배우는 관객의 반응을 이끌어 내고, 관객의 반응은 배우의 연기에 영향을 끼치는 상호작용이 일어남(브로케트, 2014: 15-16).
- 오페라, 뮤지컬은 연극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음악 요소가 강조된다는 점에서 다름. 두 장르는 ‘음악극’이라는 넓은 범위에 속함. 오페라는 음악의 예술성을 강조하고, 뮤지컬은 유희적 대중성을 추구한다고 이야기되기도 함. 역사적으로 뮤지컬은 오페라의 파생장르이자, 연극을 바탕으로 성장한 장르임(김중호 외, 2016: 13).
- 한국에서 현대연극의 시초는 1908년 월각사에서 공연된 이인직의 ‘은세계’로 꼽힘. 한국에서는 1901년을 전후로 ‘신연극(新演劇)’이라는 용어가 쓰임. 일본에서 유입된 신파극, 개량 판소리 등 전통 민속극 이외 새로운 양식의 모든 연극을 포괄하는 단어로 쓰임. 일제 식민지 시기부터 광복까지는 근대극, 그 이후는 현대극으로 지칭하는 경향이 있음(김중호 외, 2016: 77).

## 2) 뮤지컬

- 뮤지컬은 “음악과 춤이 극의 플롯 전개에 긴밀하게 짜 맞추어진 연극”(두산백과)으로 정의됨. 좁은 의미에서는 뮤지컬 플레이나 오페라타 등 음악적 요소가 가미된 연극적 작품을 가리키며, 넓은 의미에서는 레뷰나 보드빌 등 극적 요소가 없는 작품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임(세광 음악출판사, 1996: 523).
- 뮤지컬은 20세기 초반 미국을 중심으로 성립된 장르로 대중적인 오페라 양식인 오페라타의

방식을 도입한 대사극과 극적인 가창과의 조합, 극적인 의미를 지닌 댄스 장면 등의 배합으로 이루어짐. 이야기의 소재는 자유로우며, 역사적으로는 코미디, 멜로드라마, 풍자극, 환상극에서 차츰 사회문제, 문학작품이나 희곡 등으로 범위가 넓어짐. 작품의 경향과 스타일 면에서는 속도감 있는 진행, 로맨틱하고 쉬운 선율, 재즈적인 리듬감 등이 일반적인 특징임(세광음악출판사, 1996: 523).

- 뮤지컬이라는 명칭이 ‘뮤지컬 코미디(Musical Comedy)’에 기원을 두고 있는 만큼, 즐겁고 가벼운 내용을 중심으로 음악, 무용, 연극이 종합된 형태의 대표적인 공연예술 장르로 자리 잡음. 미국의 브로드웨이(Broadways)와 영국의 웨스트엔드(the West End)를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상업주의를 기반으로 성장했기에 대중음악으로 일컬어지기도 함(윤정연, 2012: 6).
- 뮤지컬은 다양한 공연예술 장르의 영향을 받았음. 구체적으로는 감성적인 빈 풍의 오페레타(Viennese operetta), 영국의 오페라 발라드, 1890년대 중반에서 1930년대 초 미국에서 성행했던 버라이어티 연예소인 보드빌(vaudeville) 등의 사상을 차용하였음. 이 외에도 춤과 무용으로 구성되고 시사 풍자를 다루는 익살극의 한 형식인 레뷰(revue), 미국의 민스트럴 쇼(Minstral show), 버라이어티 쇼(Variety show)등의 영향을 받았음(김중호 외, 2016: 310-312).
  - 미국 뮤지컬 연구자들이 최초의 뮤지컬 작품으로 꼽는 것은 남북전쟁 직후인 1866년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상연된 《검은 옷의 도적(The Black Crook)》임. 극장이 화재로 없어져서 무대를 잃어버린 프랑스에서 온 발레단을 위해 황급히 만들어진 작품으로, 음악과 춤을 배합한 멜로드라마로 ‘뮤지컬 익스트라버간자(Musical Extravaganza)’라는 명칭을 달고 1년 4개월 간 상영됨(세광음악출판사, 1996: 524).
  - 초기 뮤지컬은 ‘뮤지컬 코미디(Musical comedy)’라고 불렸음. 최초의 뮤지컬 코미디 작품으로 알려진 솔스베리(nate Salsbury)의 《The Brook》은 오페레타처럼 낙관적이고 낭만적인 내용으로 채워졌지만, 장소와 인물 설정 등은 미국을 배경으로 했음. 이후 《웨스트사이드스토리》처럼 사실적이고 비극적 결말을 가진 작품도 등장하면서 ‘코미디’라는 단어가 빠지고 ‘뮤지컬’로 불리게 됨(정진수, 2009: 19; 윤필상, 2018: 76에서 재인용).
  - 1차 세계대전과 경제공황의 영향으로 뮤지컬의 소재도 전쟁, 노동 문제 등 사회적 이슈로 확장됨.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는 사회적 문제보다는 보편적 주제, 오락적인 내용의 뮤지컬이 성행함. 이 시기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미국 문화산업을 이끌 정도로 성공하였음.

고대 그리스 신화, 셰익스피어 등 다양한 소재를 다루며 정교한 연극 기반의 북 뮤지컬 시대가 열림. 음악도 오페레타 스타일의 오케스트레이션을 사용하는 등 음악 활용 범위도 넓어졌음(이수진·조용신, 2009: 101; 윤필상, 2018: 77에서 재인용).

- 한국 최초의 뮤지컬은 1962년 연극인 유치진(1905-1974)이 드라마센터에서 올린 ‘포기와 베스’로 기록됨.

□ 뮤지컬 양식은 음악, 대본, 춤, 무대장치 등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음악으로만 진행되는 송수르 뮤지컬, 극의 스토리 보다는 노래와 춤, 볼거리 중심의 쇼 뮤지컬(show musical, spectacle show), 시사적인 이슈를 다루며 상황극처럼 진행되는 컨셉트 뮤지컬, 노래보다는 연극의 내용과 대본 중심으로 극의 짜임이 두드러지는 북 뮤지컬(book musical), 대사나 노래 대신 춤을 통해 극적 상황을 표현하는 댄스 뮤지컬 등으로 구분됨. 재즈음악의 리듬과 즉흥성, 금관 악기의 특색을 살린 재즈 뮤지컬, 전자기타와 드럼 등 전자 음악이 지배적인 록 뮤지컬, 유명 팝그룹을 소재로 그들의 음악을 재사용하는 팝 뮤지컬 등이 있음. 규모에 따라 플롯의 스케일이 대사보다는 노래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무대장치와 효과 마케팅의 규모가 큰 메가 뮤지컬, 중소극장용 뮤지컬인 앙상블 뮤지컬(Ensemble musical)로 구분하기도 함(윤필상, 2018: 70; 김종호 외, 2016: 313-314).

〈표 15〉 뮤지컬 양식의 구분과 특징

양식	특징	대표 작품
송수르 뮤지컬 Song Through Musical	대사 없이 노래(음악)로만 진행되는 공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노트르담 드 파리 레미제라블
쇼 뮤지컬 Show Musical	여흥의 메시지로 화려한 의상을 입은 코러스의 노래와 춤이 중심	캣츠 스타라이트 익스프레스 토요일 밤의 열기 브로드웨이 42번가
컨셉트 뮤지컬 Concept Musical	작품의 주제를 나타나게 함으로 관객들이 극에 몰입하지 않고 생각하게 함	유린 타운 시카고 피핀 숲속으로
북 뮤지컬 Book Musical	가승전결 구조로 클라이맥스를 명확히 구분 짓는 공연	오페라의 유령 미스사이공 오클라호마

양식	특징	대표 작품
블록버스터 뮤지컬 Musical	영화처럼 대형 무대 및 스펙터클한 무대장치로 구분짓는 공연	오페라의 유령 미스사이공 레미제라블 라이온킹
록 뮤지컬 Musical	록 음악으로 구분짓는 공연	토미, 헤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팝 뮤지컬 Musical	팝 음악으로 구분짓는 공연	요셉 드림걸즈 아이다
재즈 뮤지컬 Musical	재즈 음악으로 구분짓는 공연	포기와 베스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시카고
댄스 뮤지컬 Musical	안무가 주된 공연	캣츠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더티 댄싱

자료: 서정미, 2016: 57-58 수정

□ 최근에는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 등 다른 장르의 콘텐츠를 재창작(re-creation)하여 새로운 뮤지컬 작품으로 탄생시키는 ‘미디어믹스’(Media Mix)사례가 많음. 미디어믹스는 본래 광고용어로, 표적 수용자에게 도달하기 위해 여러 개의 매체 유형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문화, 예술에서 미디어믹스는 소설,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음악, TV드라마, 영화, 캐릭터 등 하나의 소스가 되는 작품을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전개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서정미, 2016: 48-49).

〈표 16〉 재창작 뮤지컬 유형의 정의

재창작 뮤지컬 유형	정의
무비컬 musical	흥행한 영화를 무대용 뮤지컬로 재가공한 공연물
애니컬 Anical	움직이는 만화 영상으로 애니메이션과 뮤지컬을 합성한 용어
드라마컬 Dramacal	TV드라마가 원작인 뮤지컬
주크박스 뮤지컬 Jukebox Musical	대중음악에 극적 형식과 열개를 엮어 무대용 뮤지컬로 재활용한 일련의 작품들

자료: 서정미, 2016: 57-58; 원종원, 2013: 9-43에서 재구성

□ 현대 공연예술에서 퍼포먼스가 중요한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새로운 형식의 뮤지컬이 등장하고 있음. 년버벌 퍼포먼스(non-verbal performance)는 “언어를 배제한 다양한 비언어 코드를 활용해 무대 위 이야기를 꾸미면서 퍼포먼스의 실험성을 덧붙인 무대양식”으로 정의됨(원종원, 2013: 86).

- 년버벌 퍼포먼스는 마임과 같은 무언극의 전통과 실험적인 예술행위로서 퍼포먼스가 결합된 형태임. 언어적 코드가 배제된 쉽고 대중적인 성격의 공연물을 가리키며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며 공연되고 있음(원종원, 2013: 88).
- 탭댄스를 엮어 만든 《탭덱스(Tap Dogs)》, 일상 속 소도구를 활용해 리드미컬한 무대를 꾸미는 《스톰프(Stomp)》, 얼굴을 파랗게 칠한 세 명의 남성 블루맨 그룹(blue-Man Group)이 출연한 《튜브스(tubes)》 등이 있음. 우리나라의 《난타》, 《점프》등이 있음(원종원, 2013: 88-89).
- 년버벌 퍼포먼스는 언어 장벽을 뛰어넘기 위한 상업적 선택이 아니라, 포스트모더니즘의 기성 질서의 해체, 장르간 충돌과 재구성의 순환 과정에서 등장한 양식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될 것으로 보임(원종원, 2013: 91).

#### 나. 무용(현대무용, 발레 등)

□ 무용은 ‘신체를 통해서 표현하는 예술’임. 그러나 신체적 표현 그 자체가 무용은 아님. 무용의 형식, 내용을 포함하여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신체를 통하여 미적, 철학적 가치 판단을 나타내는 시간적 공간적 종합예술”로 정의할 수 있음(김중호 외, 2016: 167).

□ 대영백과사전에서는 제시된 무용의 사전적 의미는 “종교적 혹은 집단적 환희와 같은, 어떤 강렬한 정서에 의해 발생하는 근육의 자연스러운 활동, 무용수와 관객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움직임의 다양한 구성체, 안무된 동작과 그 정열을 재현하기 위해 숙련된 무용수가 표현한 결과로 나타나는 움직임의 결정체”라는 것임(권윤방 외, 2003: 17).

□ ‘무용’을 가리키는 우리말은 ‘춤’이었고, 이를 한자로 표기할 때 처용무(處容舞), 승무(僧舞) 등과 같이 ‘舞’를 덧붙여 사용했음. 기록상 무용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1914년 매일신보 기사로 알려져 있음. 이후 서양의 무용이 일본을 거쳐 조선에 확산하면서 신무용(新舞踊)이 유행하고 무용이라는 단어가 널리 사용됨(권윤방 외, 2003: 14).



- 무용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해왔음. 무용의 형식, 목적 등 여러 기준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있음.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무용은 육체의 율동과 영혼의 매개체”라고 정의하였음. 그러나 근대 이후 무용은 ‘표현’을 중심으로 정의됨(김중호 외, 2016: 167).
- 원시시대의 무용은 종교적 의식, 전통적인 문화행사로써 기능했음. 이집트시대에 무용은 음악과 함께 자연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 의미를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종교적 무용은 아크로바틱식 체조 또는 느리고 차분한 형식으로 이루어졌음. 고대 중국에서는 청소년의 교육 수단으로, 인도에서는 종교적 의미 표현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이숙영·박현우, 2007: 284).
  - 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와 아테네에서 무용은 미적, 군사적, 교육적,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었음. 특히 신들을 경배하는 4대 제전경기대회에서 제례의식으로서 무용은 경배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음(이숙영·박현우, 2007: 284).
  - 예술은 자연이나 인간행동 등의 모방이라는 예술관이 지배적이었던 시대였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무용은 육체의 율동과 영혼의 매개체”라고 정의하였음.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성격이나 감정 혹은 행동을 리드미컬한 움직임으로 모방하는 것”으로 정의함(권윤방 외, 2003: 15-17). 근대 창작 무용의 등장 이전에는 무용을 음악에 맞추어서 움직이는 것으로써, “음악을 동결시킨 형식의 예술”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음(정소영, 1998: 18).
- 순수 예술의 한 장르로 무용이 인식되고 논의된 것은 20세기 초라고 할 수 있음. 근대 이후 무용은 ‘표현’을 중심으로 정의됨. 움직임의 형식보다는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가에 중점을 둠.
- 현대 무용의 창시자로 불리는 이사도라 던컨(Isadora Duncan, 1879~1927)은 무용이 ‘인간의 삶 그 자체’라고 주장하였음. 무용 형식의 상징이었던 토슈즈를 거부하고 맨발로 무대에 선 던컨에 의해 무용은 순수한 인간의 움직임으로서 조명되었고, 이를 계기로 춤의 양식이나 기교보다 춤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주목하는 표현주의적 시도가 점차 강화됨(권윤방 외, 2003: 17-18).
  - 독일 모던댄스의 선구자인 라반(Rudolf Von Laban, 1879~1958)은 무용을 “움직임의 예술(Art of movement)”로 정의하였음. “무용의 표현재료는 공간과 신체를 매체로 하는 에포트(Effort)의 상호작용인 움직임”이며, ‘에포트’란 “내부로부터 유발된 모든 종류의

충동, 의도, 요구에서 출발하여 신체의 움직임이 공간에 가득 채우는 동기로 작용함”으로 정의함(권윤방 외, 2003: 18·21).

- 라반의 제자이며 유럽 현대무용의 정립에 기여한 무용가 마리 뷔그만(Mary Wigman, 1886~1973) “인간의 신체 활동을 통하여 혼을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정의함(권윤방 외, 2003, 18).
- 미국의 무용비평가 존 마틴(John Martin, 1893~1985)<sup>31)</sup>은 무용은 “사람이 이성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사상 및 감정을 신체 움직임이라는 매체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함(권윤방 외, 2003: 18).

□ 표현의 관점에서 무용을 정의하는 시도에 반대한 주장도 있음. 앙드레 레빈슨은 무용의 아름다움은 그 움직임 자체에 존재한다는 순수 예술의 측면에서 형식주의적 입장을 제시함. 추상 발레의 창시자인 조지 발란신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함(권윤방 외, 2003: 18).

□ 형식과 표현 어느 한쪽을 강조하기보다 전체적 맥락에서 무용을 이해하고자 한 폴 발레리(Paul Valery, 1871~1945) 같은 이론가도 있음. 발레리는 무용은 ‘인간이 음악, 의상과 소품, 조명, 장치와 같은 다른 예술의 배경 위에서, 엄격하면서도 전문적인 훈련으로 다져진 무용수에 의해 행해지는 안무된 새로운 움직임 또는 이미 규격화된 동작을 통해 이데올로기, 관념, 감각, 감정, 정서 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봄(권윤방 외, 2003: 18).

□ 무용미학자이며 철학자인 수잔 랭거(Susanne K. Langer, 1895~1985)는 현대 무용의 ‘무용은 예술가의 정서를 직접 표현한다’는 자기표현의 이론을 거부하고, 상징 형식으로서의 무용이론을 전개, 형식론과 표현론 모두를 비판하는 관점에서 “무용이란 조형예술이며 창작, 구성된 형태의 변모를 보여주는 구경거리”라고 정의함(김중호 외, 2016: 170).

〈표 17〉 무용 정의

연구자	정의
플라톤 (Platon)	육체와 운동을 연결하는 매개체

31) John Martin. 1965년 미국의 무용비평가 존 마틴(John Martin)이 펴낸 책. 그는 이 책에서 ‘자연스럽지 못한 발의 제5포지션(fifth position)에서, 그리고 부자연스러운 팔 모양의 팔의 자세로는 무용수들이 결코 드라마틱한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클래식발레의 인위적인 모습을 탈피하고 인간의 내부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 현대무용이 시작됐다.’라고 말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현대무용 (존 마틴 著, 1965년) [Modern Dance] (무용이론사전, 2011. 9. 5., 메디컬코리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75987&cid=42685&categoryId=42685>

연구자	정의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eles)	무용은 인간의 성격과 감정, 행동을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모방하는 것
니체 (Friedrich Nietzsche)	‘몸짓의 언어’, 몸을 통한 사상의 표현, 특정한 사유형식의 표현
라반 (Rudolf Von Laban)	움직임의 예술(Art of movement) 무용의 표현재료는 공간과 신체를 매체로 하는 에포트(Effort)의 상호작용인 움직임
이사도라 던컨 (Isadora Duncan)	무용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삶 그 자체 동작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을 표현하는 예술
마리 뷔그만 (Mary Wigman)	인간의 신체 활동을 통하여 혼을 표현하는 예술
수잔 랭거 (Susanne Langer)	무용이란 조형예술이며 창작, 구성된 형태의 변모를 보여주는 구경거리

자료: 김미기(2006), 김중효 외(2016, 168-170), 세계무용사전

### 1) 발레

- 발레(ballet)는 “음악·팬터마임·의상·장치 등을 갖추어서 이야기나 주제(主題)를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무용”으로 정의됨. 연극무용, 극무용(劇舞踊), 극장예술무용으로 일컬어짐.
- 발레란 단어는 ‘춤을 추다’를 의미하는 이탈리아어의 동사 ‘ballare’에서 유래함. 무용예술의 한 장르로서 발레는 ‘다리의 포지션에 기초를 둔 클래식댄스의 정형기법(定型技法)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법을 사용하는 무용’을 가리킴(두산백과).
- 파 드 되(pas de deux) 형식이나 독립된 팬터마임 장면을 쓰는가의 여부에 따라, 이러한 요소가 들어 있는 무용을 고전 발레라 하고 그렇지 않은 무용을 모던발레로 구분함(두산백과).
  - 고전발레(classic ballet) : 17세기 프랑스 궁정발레에서 기원해 19세기 말까지 행해진 발레 형식임. 모던발레(modern ballet)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의 용어로 쓰이기도 함. 춤과 마임으로 내용을 전개, 디베르티스망(divertissement)과 그랑 파 드 되(grand pas de deux) 등이 다채롭게 사용됨. 《잠자는 숲 속의 미녀(The Sleeping Beauty)》, 《백조의 호수(Swan Lake)》, 《호두까기 인형(The Nutcracker)》을 고전발레의 3대 명작으로

손꼽음(세계무용사전).<sup>32)</sup>

- 모던발레, 현대발레(modern ballet)는 현대 무용가에 의해 창작되는 발레계의 작품을 가리키고, 전통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감각으로 개성적인 표현을 추구함, 주제 선정, 작품 형상화에 있어 시각적 요소보다는 감각적 요소를 중시하고, 정서적 측면보다 심리적 측면을 중점에 두는 경향이 있음. 또한 모던발레는 작품의 구성에 있어 음악, 연극, 민속무용, 심지어 서커스까지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송준영 외, 1999: 17; 네이버 지식백과 - 발레용어사전).<sup>33)</sup>

## 2) 현대 무용(modern dance)

□ 20세기 초 등장한 현대무용(modern dance)에서 '현대'는 무용이 현재의 문제와 사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동시대성(contemporary)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쓰임. 1930년대 다양한 실험적 시도가 이루어졌고, 새로운 예술의 한 장르로서 현대 무용이 인정받기 시작했음(권윤방 외, 2003: 91).

- 일반 개념으로서 현대무용은 동서양, 민족, 국가 등 특정한 지역이나 예술형식에 관계 없이 현대인에 의한 현대 예술로서 무용 활동과 그 작품을 가리킴. 무용예술의 하위 장르로서 현대무용은 발레의 형식주의에 반발하여 표현의 자유를 자연스러운 움직임에서 찾고자 한 일련의 무용을 가리킴(송준영, 1999: 17).
- 현대무용의 성립 초기에는 프리댄스(free dance: 自由舞踊), 익스프레싱 댄스(expressing dance: 表現舞踊)라고 부름. 독일에서는 노이에 탄츠(neue Tanz: 新舞踊)라고 부름. 이후 모던댄스라 총칭하였고, 이를 현대무용으로 번역함.

□ 현대무용가들은 고정적 형식을 강조하는 고전발레의 유미주의(唯美主義)를 비판하고, 무용가 개인의 자유로운 정신과 정서적 경험을 표현하고자 했음. 현대무용은 비교적 신세계인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유럽에서는 발레의 영향력이 비교적 약했던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현대 무용의 초기 발전을 이끌었음(권윤방 외, 2003: 91).

□ 현대무용은 이사도라 던컨의 무용을 기반으로 발전했음. 던컨의 무용은 현대무용의 성립 및

32)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811966&cid=42687&categoryId=42687>

33)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74791&ref=y&cid=50341&categoryId=50341>

모던발레의 발전에도 영향을 끼쳤음. 이사도라 던컨의 무용 형식은 '맨발의 춤(barefoot dancing)'으로 불리기도 함. 신발을 신지 않은 무용수의 출현은 기교와 형식에 갇힌 무용으로 부터의 해방, 인간의 자유로운 움직임에 주목하는 현대무용의 성립을 보여주는 것이었음. 던컨의 무용은 단순함과 수단의 절제로 요약되는데 무대, 의상, 안무에서도 자연스러움과 단순함을 추구하였음. 또한 던컨은 무용음악이 아니라 바흐, 베토벤, 브람스, 바그너 등 대가들의 음악을 무용에 도입하는 새로운 시도를 했음(권윤방 외, 2003: 89-90).

□ 던컨의 무용은 라반과 뷔그만 등에 의해 이론적으로 정리되고, 마사 그레이엄 등 독창적인 무용가들에 의해 '새로운 무용'에서 예술 형식을 갖춘 하나의 장르인 '현대무용'으로 정립됨.

- 유럽 현대무용의 아버지라 칭해지는 라반은 무용이론가이자 안무가로서 무용 동작을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무보 체계를 수립하였고, 이는 새로운 형식의 무용이 탄생하는 기반이 되었음. 또한 라반의 작업은 시간예술인 음악에 종속된 무용이 아니라 공간 예술, 공연 예술의 독립적 장르로 무용 예술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음(송준영 외, 1999: 61).
- 라반의 제자인 마리 뷔그만(Mary Wigman)은 독일 표현주의 무용을 미국에 전해 현대무용의 폭을 넓혔음. 뷔그만은 음악 등 다른 요소를 배제하고 오직 움직임으로만 구성되는 절대 무용이라는 새로운 동작을 주장하였음(권윤방 외, 2003: 93-94).
- 마사 그레이엄(Martha Graham)은 현대무용의 실질적인 창조자로 여겨짐. 그레이엄은 무용수가 기쁨이나 슬픔 같은 감정 표현의 도구(instrument of emotion)가 아니라 움직임의 도구(instrument of motion)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수축과 이완의 원리를 활용한 그레이엄 테크닉을 완성했음. 그레이엄의 무용은 발레의 형식주의를 비판했지만, 오늘날에는 현대무용의 전형적인 테크닉으로 자리 잡았음. 이런 측면에서 현대무용을 객관적인 예술의 반열에 올려놓았다고 평가받기도 함(송준영 외, 1999: 62).

### 3) 포스트모던댄스(Post modern dance)

□ 포스트모던댄스는 하나의 형식으로 굳어지는 현대무용을 비판한 일군의 실험들을 가리키는데 메시지의 전달 또는 감정의 표현 같은 의도적인 표현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짐(권윤방 외, 2003: 105).

- 20세기 중후반 현대무용의 실험적 시도는 계속 확장되었고, 1960년대에 이르러 극장 무용의 개념을 부정하는 새로운 작업들이 등장하였음. 이들은 현대무용 또한 독선적이고 겉모습에 치중하는 유희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무용이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는 특정한 행위라는 것을 부정했음. 무용수들은 일상복을 입기도 했고, 전혀 무용을 배운 적 없는 이들이 무대에 서기도 했음(권윤방 외, 2003: 102-103).
- 후기 현대무용이라고도 불리는 포스트모던댄스 무용가들은 인간의 어떠한 동작도 무용이 될 수 있으며, 전공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춤을 출 수 있고, 극장이 아닌 어디에서라도 춤을 추고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순수 예술로서의 고립이 아니라 대중문화와의 적극적 교류 등을 표방하며 무용의 범주와 가능성을 확장시켰음(권윤방 외, 2003: 105).

#### 4) 한국무용

- 한국무용이라면 우리나라에서 과거부터 전승되어 현존하는 춤, 소멸되어 이름만 남아 있는 춤, 이를 바탕으로 현대에 새롭게 창조된 춤 모두를 포괄하는 범주임. 크게 보면 한국 전통무용과 한국 창작무용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함(송준영 외, 1999: 14-15).
- 한국전통무용은 궁중무용과 민속무용으로 나뉨. 궁중무용은 궁중에서 추었던 춤으로, 궁(宮)이라는 공간적 지역적 특수성을 가진 예술무용으로 정재무(呈才舞)와 일무(佾舞)가 있음. 정재무는 광대나 재인이 왕을 받드는 춤이고, 일무는 국가적으로 존경받는 왕이나 학자 등의 제사를 지낼 때 추는 궁중 제례의식에서 행해지는 춤을 가리킴. 민속무용은 창작 및 향유가 민중이 중심이 된 춤으로, 종류에 따라 대략적인 형성 시기는 특정할 수 있으나 창작자 및 창작연도는 분명하지 않음. 춤의 내용은 평민 계급의 소박한 생활을 다루는 경우가 많고, 기본적인 가락은 갖췄으나 제한적인 형식이 아니라 개인의 창의성에 따라 자유자재로 표현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승무, 살풀이춤, 탈춤, 농악, 한량무, 장고춤, 강강술래 등이 있음(송준영 외, 1999: 15-16).
- 한국 창작무용은 전통무용과 관계없이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으로써 창조하는 예술 무용을 말함(송준영 외, 1999:16)

다. 음악(기악, 성악, 합창, 오페라 등)

- 음악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영역의 음과 소음을 소재로 하여 박자·선율·화성·음색 등을 일정한 법칙과 형식으로 종합해서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임(두산백과).<sup>34)</sup>
- 소리는 악음(樂音)과 소음(騷音)으로 구분되는데, 음악은 악음을 소재로 삼고 소음은 제외함. 그렇지만 악음과 소음이 개념은 시대와 문화권에 따라 다름. 이런 측면에서 음악이란 개념은 시대와 민족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정의될 수 있음(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35)</sup>
  - 소리의 높낮이, 장단, 강약 등의 특성을 소재로 한 예술이라는 점에서 다른 예술 장르와 구별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성, 전개된다는 점에서 ‘시간 예술’로 불림(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36)</sup>
- 우리 나라에서는 고대부터 악(樂)·가(歌)·무(舞)의 총체적인 개념이 음악의 일반적인 형태로 인식되어 왔음. 여기에서 악은 기악음악, 가는 성악, 무는 춤을 가리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음악이라는 용어는 서양의 Music(영어), Musica(독일어), Musique(프랑스어)의 번역어로서 성악과 기악을 모두 포함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37)</sup>
- 음악(Music)은 고대 그리스어의 무지케(Mousike)가 어원이나 그 의미는 크게 축소되어 왔음. 본래 무지케는 뮤즈 여신들(the Muses)의 보호를 받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음악, 문학, 무용 등을 포함한 총체적 예술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었다가, 좁은 의미의 음 예술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됨(세광음악출판사, 1996: 1181).
  - 고대 이집트에서는 종교음악과 세속음악을 한데 아울러 ‘히(hy)’라 불렀는데, ‘히’라는 말은 본래 즐거움을 뜻했으며, 이집트의 상형문자에서는 ‘hy’를 ‘꽃을 피운 향기로운 연꽃’으로 표현하고 있음. 고대 인도에서는 성악·기악·무용 등을 아울러 ‘삼기타(samgita)’라 하였고, 성악, 기악, 무용을 포함하였다고 함(세광음악출판사, 1996: 1182).
  - 고대 중국에서는 ‘악(樂)’이라는 용어가 음악의 넓은 의미로 쓰여 왔는데 시나 무용도 포함하는 개념이었음.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놀이’라는 말이 보통 관현(管絃)의 의미로 사용되는 동시에 무악(舞樂)의 의미로도 쓰임(세광음악출판사, 1996: 1182).

34)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3679&cid=40942&categoryId=32992> (검색일: 2018년 12월 18일)

35)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43022>

36)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43022>

37)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43022>

- 우리에게 알려진 최초의 고대 그리스 음악 중 하나는 디오니소스 신을 기리는 종교제약에서 비롯된 choreia임. 이는 chorus(영)의 어원이 되는 단어이지만, 단순한 합창이 아니라 시문학으로 이루어진 가사를 노래하는 동시에 연기나 무용을 통해 몸짓으로 표현하는 종합예술에 가까운 형태였음(권혁성, 2007: 6; 박서형, 2018: 11에서 재인용).
  - 음악의 역사에서 16세기 출현한 오페라는 그리스 시대 무지케를 재현하려는 시도였음. 19세기의 바그너는 고대의 통합된 예술을 지향하며 음악극(Musikdrama)이라는 장르를 주창함. 이런 경향과 반대로 낭만주의 시기에 이르러 문학, 무용 등 다른 예술과 독립적인 영역으로서 소리에 중점을 둔 청각예술로서의 음악 예술이 자리를 잡았음(오지희, 2001: 10).
- 음악의 정의는 시대와 문화권, 그리고 특정한 입장에 따라 다른 관점에서 내려질 수 있음. 서양에서 18세기 이전까지 음악은 ‘모방’으로 정의되었으며, 낭만주의 시대 이후에는 ‘감정표현’이라는 정의가 일반화됨. 현대에 이르러서는 미학적 관점에서 음악작품 자체의 형식미를 강조하는 정의도 제기됨(임현식, 2014: 14-15).
- 서양음악에서 모방의 관점으로 음악을 정의하는 것은 오래된 전통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이 감정이나 영혼의 상태를 모방하는 것이라고 보았음. 15~18세기에는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라는 예술관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고, 바로크시대에는 음악의 이상이 ‘인간의 객관화된 보편적 정서를 음형으로 그려내는 것’으로 여겨졌음(임현식, 2014: 30).
  -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에는 감정이 음악의 목적이고, 음악이 표현해야 할 내용이며 음악예술의 미적 토대로 강조되었음. 바그너(R. Wagner)는 음악적 구상은 인간의 내면적 인식에 기원을 두기에 작곡자의 이상 또는 감동을 반영하며, 이것이 음악의 진정한 내용으로서 청중들의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음(임현식, 2014: 42).
  - 근대 음악미학의 선구자인 한슬리크는 음악을 ‘음들의 움직임은 형식’이라고 정의함. 한슬리크는 음악과 감정을 연결하는 관점을 강하게 비판함. 음악은 감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표현하지 않고 그저 감정의 역동성, 움직임만을 표현할 뿐이며, 음악의 움직임으로 구현된 청각적 인상이 감정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임(임현식, 2014: 41). 한슬리크의 관점은 음악을 음악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기능이 아니라 독립적인 예술로 정립시키려는 시도로써 의의가 있으며, 시대적으로 ‘기악 음악의 해방’을 토대로 하고 있음(임현식, 2014: 42).



-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널리 수용되고 있는 음악에 대한 정의는 ‘목소리나 악기를 통하여 사상 또는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이라는 표현론적 관점에 입각한 정의임(임현식, 2014: 16).

〈표 18〉 음악 정의

학자	정의
프톨레마이오스	높은 음과 낮은 음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는 능력
아우구스티누스	음의 움직임을 잘 조정하는 지식
보에티우스	음의 고저의 차이를 감성과 이성으로 헤아리는 능력
이시도루스 (Isidorus, 600년 무렵의 세빌라대사교)	음과 노래에 대한 리듬적 체험
쿠스마르케	올바르게 노래하는 기술
라이프니츠	영혼이 스스로 헤아릴 줄 모르는 숨어있는 수학적 실천
루소	귀에 기분이 좋은 음을 결합한 아르스
슐처	정열적인 지각에서 탄생하며 그것을 묘사하는 음의 연속
네겔리	음의 운동적 유희
한슬릭	울리면서 움직이는 형식

자료: 세광음악출판사, 1996: 1181-1182.

- 표현매체에 따라 음악을 기악과 성악으로 구분할 수 있음. 합창은 성악의 한 유형임. W.아펠에 따르면 1500년 이전의 음악은 대부분 성악이었음. 16세기에 기악 음악이 등장하였으나, 여전히 90%는 성악이었음. 바로크시대에는 성악과 기악이 비슷한 수준이었다가, 1750년 이후 기악의 비중이 우세해짐(세광음악출판사, 1996: 831).

- 음악의 하위분류는 장르유형, 기능, 양식, 나라 또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함. 세계음악 장르용어사전은 장르유형을 궁중예술, 노래, 민속예술, 민속음악, 종교극, 고전음악, 장례음악, 축제음악, 희극 등으로 분류하고 있음.<sup>38)</sup>

#### 1) 기악

- 기악(器樂, Instrumental music)은 성악의 상대어로서 ‘악기로 연주되는 음악’을 가리킴.

38) 세계음악 장르용어사전 [http://ffr.krm.or.kr/base/td011/browse\\_jtype.html](http://ffr.krm.or.kr/base/td011/browse_jtype.html)

악기연주의 역사는 오래되었으나 노래나 춤의 반주로서 연주되어 왔음. 서양음악사에서 '악기만으로 이루어진 음악'이라는 좁은 의미에서의 기악은 16세기 후반에 등장하였음(세광음악출판사, 1996: 140).

- 악기의 기원은 오래되었으나, 서양에서 현존하는 기악 악보는 13~14세기 무곡 오르간 악보로서 14세기 초 이후의 것임. 14~15세기 다성가곡을 편곡한 오르간곡, 기악합주곡이 많이 발견됨. 16세기 무도의 융성에 따라 합주곡, 건반용 악곡에도 무곡이 다수 작곡되었고, 순수기악형식을 갖춘 모음곡이 등장함. 19세기 이후에는 대규모의 독주곡, 합주곡이 쏟아져 나왔으나 20세기 초 후기 낭만파양식을 기점으로 차츰 감소되는 경향을 보임(세광음악출판사, 1996: 140).
- 서양음악사에서 1600년경까지 성악 우위의 시대였다면, 바로크시대는 성악과 기악이 동등했고, 고전파 이후에 기악 우위 경향이 나타남. 동양에서는 기악의 독립 경향이 두드러지지 않았음(두산백과).<sup>39)</sup>
- 동양에서 기악은 고대 의식음악에서 찾아볼 수 있음. 중국 등 동아시아에서는 고대 아악 계통이 오늘날에도 기악합주에 있어 중요한 분야로 남아있음. 중국에서 아악은 없어졌지만, 공자묘의 의식음악이나 중국극의 반주에서 그 편모를 살펴볼 수 있음. 우리나라, 일본에도 전통 아악이 남아 있음(세광음악출판사, 1996: 141).

□ 기악은 연주형태에 따라 독주곡, 합주곡으로 구분하고, 편성에 의해 실내악, 관현악으로 분류하며, 악기의 종류에 따라 피아노음악, 바이올린음악 등으로 나눌 수 있음(두산백과)<sup>40)</sup>.

□ 실내악(Chamber music)은 “적은 인원수로 연주되는 기악합주곡”으로 정의됨. 파트가 단독 주자(單獨奏者)에 의해서 연주됨.

- 순기악이며, 독창이나 낭독이 더해지는 경우도 있으나 중심은 기악임. 2명 이상, 10명 안팎까지의 연주자에 의한 충실한 내용과 음악적으로 고도의 성실을 지향하는 것임. 각 파트는 오케스트라와 달리 각각 단독의 연주자에 의한 이른바 합주적임. 원칙적으로는 보편적인 실내나 작은 홀에서의 연주에 알맞은 합주임(세광음악출판사, 1996: 977-978).

□ 관현악(오케스트라)은 “여러 가지 악기로 이루어진 합주체(合奏體)”로 정의함.

39)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71231&cid=40942&categoryId=32992>

40)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71231&cid=40942&categoryId=32992>

-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대의 교향관현악(symphony orchestra)으로서 관·현·타악기를 포함한 60~120명의 연주자로 이루어지며, 지휘자의 통제 아래 연주됨. 각 파트가 복수의 연주자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실내악과는 구별됨.
- 특히 관현악을 위하여 작곡된 음악을 보통 관현악곡이라고 함. 관현악은 이 밖에 오페라나 발레 등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구성요소며, 종교음악이나 가곡의 반주에도 사용됨.<sup>41)</sup>

## 2) 성악

- 성악(聲樂, Vocal music)은 ‘인성(人聲)’을 사용하는 음악을 가리키며 서양음악이 들어온 이후의 말임. 한국 전통음악의 노래나 창과는 구별됨. 성악의 특수성은 가수 자신이 듣는 자기 소리와 청중 또는 제3자가 들을 때의 조건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임(세광음악출판사, 1996: 831).
- 노래를 불러 음악을 창출해 내는 방법을 성악 양식이라 통칭함. 노래는 ‘놀이’라는 어근에서 비롯되어 ‘놀애’가 되었다가 ‘노래’가 된 것으로 보임. 입소리로 어떤 멜로디를 만드는 일을 성악으로 볼 수 없음. 성악은 노랫말과 그 정조에 알맞은 멜로디 리듬, 하모니의 표현을 위주로 함(서연호, 2015: 81).
- 서양음악에서는 성부에 따라 성악을 분류하기도 함.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알토, 테너, 바리톤, 베이스, 카운터테너, 카스토라토 등으로 분류함. 보통 가사가 있으며, 종교적인 것과 기타 음악으로 나뉨. 종교적인 성악 음악은 오라토리오, 미사곡, 성서의 어구를 인용한 가곡이 있음. 기타음악으로 오페라, 리트, 민요 등이 포함됨(세광음악출판사, 1996: 831).
- 참여 인원의 수에 따라 독창(solo), 중창(ensemble), 합창(chorus)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고, 기악반주의 유무에 따라 구별 가능함.
  - 독창은 “무반주 또는 반주와 함께 한 사람이 연주하는 형태”를 가리킴.
  - 중창은 “두 사람 이상의 연주”를 가리킴. 2중창, 3중창, 4중창 등 “한 성부에 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임.
  - 합창은 다수(多數)를 의미하는 라틴어 코러스에서 유래함. “각 성부가 복수의 인원

41) [네이버 지식백과] 관현악 [orchestra, 管絃樂]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64724&cid=40942&categoryId=33004>

악해 노래되는 성악”을 가리킴. 4성부 합창이 가장 일반적이고, 혼성합창(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남성합창, 여성합창, 제창(unison) 등이 있음.

□ 합창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부르는 가창형태"임. 넓게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성부를 소리를 맞추어 부르는 제창(齊唱)과 다성악곡(多聲樂曲)의 각 성부를 한 사람씩 맡아서 부르는 중창(重唱)도 합창이라고 할 수 있으나. 좁게는 '다성악곡의 각 성부를 각각 두 사람 이상이 맡아서 부르는 것'으로 정의됨(두산백과).<sup>42)</sup>

- 합창(chorus)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코로스(choros)에 유래하며, 무도회장, 돌림춤, 무도가(舞蹈歌), 무용수의 집단 등을 뜻했음.
- 합창음악이 서양음악사에 나타난 것은, 오르가눔이 등장한 9세기 무렵부터임. 그 이전의 그레고리오 성가 등의 가창 형태는 독창 또는 유니존이었음. 합창음악은 마소가 나타난 14세기의 아르스 노바 무렵부터 본격화했고, 이어서 르네상스 시대에는 다성 합창곡의 전성시대를 맞이했음.<sup>43)</sup>

### 3) 오페라

□ 오페라는 '대본을 바탕으로 하여 일관성 있게 작곡되는, 가창을 중심으로 한 음악극'으로 정의됨(세광음악출판사, 1996: 1132). 넓은 의미에서는 '연극, 음악, 연기, 무용, 무대, 조명, 의상 등의 다양한 예술적 요소들을 종합해 상연하는 공연예술로서 종합예술적 성격을 강조하여 정의할 수 있음(윤필상, 2018: 5).

- 다른 연극과 경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엄숙한 내용을 관현악 반주에 따라 여러 개의 가곡으로 표현하는 클래식 작품을 가리킴(네이버 지식백과 - 파퓰러음악사전).
- 오페라의 역사, 다른 연극 또는 가극과의 구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둘 수 있음. 첫째, 오페라는 역사적으로 《다프네》, 《에우리디케》계통이 발전한 것으로, 그 이전의 음악극은 오페라라고 하지 않음. 둘째, 오페레타나 뮤지컬과 구분됨. 오페레타는 음악이 붙어있지 않은 연극적 대사가 많이 삽입되었다는 점에서 오페라와 다름. 오페라는 원칙적으로 연극적 대사가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적으로 작곡되어 있는 것

42)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61720&cid=40942&categoryId=33005>

43) [네이버 지식백과] 합창 [chorus]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2002. 1. 28., 삼호뮤직)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22793&cid=60517&categoryId=60517>

(utchkomponiert)임. 그러나 장슈필 계통의 《마적》, 《피델레오》 등의 작품처럼 연극적 대사가 있는 경우도 있음(세광음악출판사, 1996: 1132).

- 어원의 측면에서 opera는 작품을 의미하는 라틴어 opus의 복수형으로, 초기에는 'dramma in musica'나 'dramma per musica'라고 불리다, 이후 'opera in musica'로 쓰였고, 다시 더 생략해서 'opera'라고 불리게 됨(세광음악출판사, 1996: 1132).

□ 근대 오페라의 탄생과 발전은 고대 그리스 연극, 중세 종교극 등 서양 음악극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음. 오페라는 16세기 말 이탈리아 피렌체의 지식인 그룹, 카메라타(Camerata)의 학자와 예술가들이 그리스 비극의 음악극 양식을 연구한 결과물로 탄생하였음. 시의 리듬과 가사의 내용이 조화로운, '노래하듯 낭송하는 형태'로 음악과 극의 결합과 조화를 추구하는 시도였음(윤필상, 2018: 7).

- 17세기 이탈리아에서 번성하며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18세기에는 모차르트의 등장으로 다양한 오페라 공연이 열리고 관객층도 두터워짐. 넓은 무대와 웅장한 배경, 음악적 기교가 발전하였으며 당시의 오페라 전통이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음(김중호 외, 2016: 59-60).

□ 종합예술로서 오페라는 음악, 문학(대사), 연극(극적 요소, 연기), 미술(무대장치, 의상), 무용적 요소 등이 결합되어 있음. 다양한 예술 장르 간의 적절한 조화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연출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음. 특히 극적인 것과 음악적인 것 사이의 조화가 오페라의 예술적 특징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이 되어 왔음(세광출판문화사, 1996: 1132).

- 오페라의 음악은 독창, 중창, 합창과 관현악으로 구성됨. 독창자는 등장인물의 역할에 따라 소프라노, 알토, 테너, 바리톤, 베이스 등으로 구분됨. 오페라의 역(役)은 소리의 높이, 종류(리릭, 드라마틱)에 따라 정해지며, 주인공은 소프라노와 테너인 경우가 많음. 독창자의 노래는 아리아와 레시타티브로 이루어짐. 관현악은 성악의 반주를 맡아 등장인물의 감정, 행동 등을 묘사하거나, 기여하거나, 무대가 지나는 분위기를 표현하는 등 극적 요소에도 기여함.

- 오페라의 대본은 리브레토라고 불리며, 작곡을 위해서 특별히 씌어짐. 보통 운문으로 쓰이고, 막장경으로 구분됨.

□ 오페라는 서양음악극의 한 장르로,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변화를 통해 양식화에 성공하였고 뮤지컬 등 현재 음악극의 등장에 영향을 끼침. 400년의 역사만큼 다양한 종류의

오페라가 있음. 이 때문에 음악학자 하워드 브라운(Howard Meyer Brown)은 오페라를 ‘배우들이 부르는 드라마’로 단순히 정의하기도 함(윤정연, 2012: 6).

- 오페라 부파(opéra buffa)는 희가극, 즉 코믹한 내용의 작품임. 초기 베네치아 오페라에서 막 사이에 우스운 내용의 짧은 연극을 삽입하여 인테르메초라 했는데, 이것이 인기를 얻어 오페라 부파라는 형식으로 자리 잡음. 이탈리아의 오페라 부파는 서민의 생활을 소재로 하고, 등장인물들의 활기찬 연기와 음악의 희극적 특성화 등을 특징으로 함. 프랑스에서는 오페라 부프(opéra bouffe)라는 형식이 자리 잡았는데 이탈리아의 오페라 부파가 대화 부분에서 레시터티브를 사용하는 것에 반해 오페라 부프에서는 대사가 사용되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세광음악출판사, 1996: 1135).
- 오페라 세리아(opéra seria)는 오페라 부파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고대 영웅이나 신화를 바탕으로 심각한 내용을 다룬 18~19세기의 이탈리아 오페라를 가리킴. 정가극(正歌劇)으로 번역되기도 함(세광음악출판사, 1996: 1135~1136).
- 오페라 코미크(opéra comique)는 프랑스 오페라의 한 현식으로 곡과 곡 사이에 구술의 대화가 있음. 단어 자체는 희가극을 의미하고, 18세기에는 가볍게 감상할 수 있는 작품 또는 그랜드 오페라의 풍자적 모방, 패러디 형식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임. 19세기에는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는 작품이어도 구술 대사가 있는 오페라라면 오페라 코미크라고 칭했음(세광음악출판사, 1996: 1136).
- 오페레타(operetta)는 이탈리아에서 오페라의 소형이라는 뜻을 가짐. 희가극 또는 경가극으로 번역됨. 이탈리아 부파의 영향을 받았으며 18세기 중반 이후 등장, 19세기에 하나의 형식으로 자리 잡음. 대사의 사용, 시대상이나 생활상의 반영, 풍자 또는 희극성을 특징으로 하며 대중적인 오페라 장르로 일컬어지기도 함. 영국에서는 코믹 오페라로 자리잡았고, 현대의 뮤지컬 플레이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음(세광음악출판사, 1996: 1136).
- 지역적으로는 이탈리아의 오페라가 가창에 중점을 뒀다면, 독일의 오페라는 음악형식에 복잡성을 부여하고 관현악단의 역할을 확대시킨 특징이 있음. 프랑스는 19세기 초부터 그랜드 오페라가 성행, 거대한 무대와 강렬한 극적 효과를 특징으로 하였으며 발레도 결합되었음(세광음악출판사, 1996: 1133).

## 제5절 전통예술

## 1. 전통예술의 정의 및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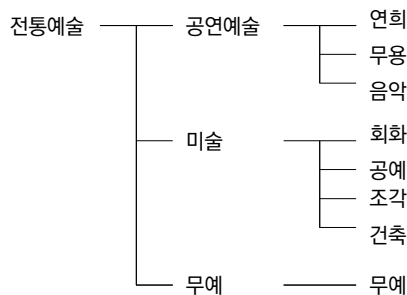
□ 전통예술은 ‘전통적인 문화를 표현하는 유형의 문화유산에서부터 예술품을 제작하기 위해 전승되는 무형의 기술, 그리고 역사적·예술적인 무형의 가치를 표현하는 공연예술작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음(박현승·허식, 2013: 76).

- 사전적 의미로 전통예술은 ‘과거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거나 창조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작품을 제작하는 모든 인간 활동’이라고 정의함(고려대한국어대사전).
- 전통예술은 선조로부터 이어받은 인간의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향유되어온 생활문화임. 특히 우리의 전통예술은 한민족의 생활, 풍습, 사상, 철학, 종교 등이 함축된 역사적이며 전통적인 결정체로 볼 수 있음(임영순·맹해양·배기형, 2016: 89).
- ‘전통예술’이라는 말은 ‘예술’의 앞에 붙어있는 ‘전통’이란 말이 그 자체로 계승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전근대시대에 만들어진 예술, 근대 이후에 만들어졌더라도 전근대시대의 창작 방식과 예술어법으로 만들어진 예술을 범박하게 통칭하는 용어로 일반화되어 있음(이영미, 2008: 179).
- ‘전통’의 사전적 의미는 지난 시대에서부터 계통을 이루며 전하여 내려오는 사상·관습·행동 등의 양식(표준국어대사전) 또는 사회공동체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사고방식, 행동방식, 관행을 뜻함(Merriam-Webster). 또한 전통이란 성장하고 변화하는 유기체와 같으며(Richard Handler & Jocelyn Linnekin, 1984)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온 풍습 중 현재에 수용하고자 합의된 가치라고도 함. 그렇기 때문에 전통을 시간의 차원에서 규정되는 유동적인 개념으로 보거나 새로운 상황에 대한 반응(Eric J. Hobsbawm, 1992)이라고 정의하는 등 지금의 관점에서 해석하여야 할 대상으로 다루는 것임(김경은, 2016: 8에서 재인용).
- 문명이 사회의 물질적 제요소의 발전 상태를 의미하는 데 반해 문화는 사람이 본래에 가지고 있는 이상을 실현하려는 인간의 활동 과정으로서 예술과 도덕, 종교, 철학, 경제, 법제, 체육, 무용 등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어 인류의 정신적인 소산을 가리키는 것임(임동권, 2007; 박효주·원유미·민성희, 2018: 905에서 재인용).

- 이와 같이 문화란 인간이 습득한 것이며,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사상, 습관, 행위가 반복되면서 체계화된 것을 의미함. 이러한 관점에서 전통문화는 그 민족의 창조적 지혜와 주체적 가치체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문화를 뜻하는 것임(박효주·원유미·민성희, 2018: 905).
- ‘예술’의 사전적 의미는 미적작품을 형성시키는 인간의 창조활동(두산백과)으로서, 전통문화란 그 민족이 창조한 것으로서 문화적 가치가 담긴 예술이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이처럼 전통문화의 개념은 객관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기 쉽지 않으며, 장르 구분에 있어서 법률이나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존재함.

□ 전통예술이라고 하면 크게 유형의 문화유산과 특정한 기술을 사용하여 가공된 재화를 만들어 내는 기능 중심의 분야와 한국의 전통적 예술양식을 무형의 공연예술로 표현하는 예능중심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음(박현승·허식, 2013: 76).

- 공연예술은 전통연희, 전통춤, 전통음악으로 나눌 수 있으며, 미술은 회화, 공예, 조각, 건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무예는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태권을 비롯한 전통무예로 분류함(김세연, 2005; 주창범·염영배, 2013: 4에서 재인용).
- 유형의 문화유산과 특정한 기술을 사용하여 가공된 재화를 만들어 내는 기능중심의 분야와 한국의 전통적 예술양식을 무형의 공연예술로 표현하는 예능중심 분야로 나누어 보는 시각도 있음(박현승·허식, 2013: 76).



〈그림 34〉 전통예술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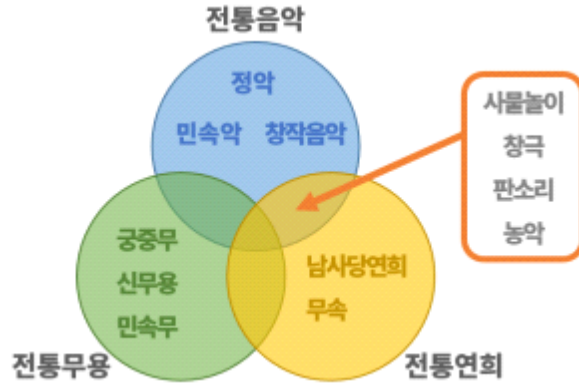
자료: 이원태·장장식 외 2명, 1995; 주창범·염영배, 2013: 4에서 재인용



- 우리나라의 전통예술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민족적 정체성의 상실을 가져왔고, 해방 이후 우리 생활 전반에 스며든 서구화로 인해 예술적 보편성까지 상실됨. 그러한 가운데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정부와 전통예술계의 활성화 노력을 바탕으로 재도약을 꾀하였으며, 이로 인해 전통예술교육, 인프라, 인적자원, 공연활동 등 지금의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IT기술의 발전 속에서 현재의 전통예술분야는 환경적 적응능력이 부재하고 질적으로 성장을 거두지 못했다는 인식이 존재함(임영순·맹해양·배기형, 2016: 89).
- 전통예술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전통예술’이라는 용어는 전통공연예술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는 반면, 미술 장르에서는 전통예술이라는 용어 대신, 동양화, 한국화, 전통 공예 등 해당 범주를 지칭하는 개별 용어를 주로 사용함. 좁은 의미에서 전통예술은 국악으로 해석되기도 함. 이에 따라 전통공연예술을 중심으로 전통예술을 살펴보고자 함.

## 2. 전통공연예술

- 전통공연예술의 범주에 대하여는 학계나 법률적으로 합의된 견해를 찾기가 쉽지 않으며, 전통 공연예술을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 등의 총체적 집합체로서 예로부터 반만년 동안 이어온 한민족의 생활·풍습·사상·철학·종교 등이 응축된 역사적 결정체”라고 설명함. 관련 기관 및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및 범주를 구분하고 있음(이용식, 2007: 42).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는 전통공연예술의 개념은 따로 표기되고 있지 않으나 재단의 사업 중 ‘전통예술복원 및 재현 사업’에서는 「풍물, 성악, 무용, 연희, 무속, 의례, 기악, 궁중음악」을 전통공연예술의 범주로 보고 있음(문화체육관광부, 2011).
  - 동 기관의 ‘2010 전통공연예술 통계조사’에서는 ‘전통공연예술의 항목을 『가야금, 한국무용, 판소리, 대금·소금·단소, 풍물(농악), 피리, 민요, 거문고, 해금, 타악, 민속놀이, 가곡·무궁·창작연희, 아쟁, 가면극, 인형극, 기타연희, 기타』로 구분하였으며, 앞머리에 ‘전통공연예술’의 범주는 전통음악과 연희, 한국무용을 포함하도록 설정하고 있음(문화체육관광부, 2011).
  - 중요무형문화재에서는 전통공연예술을 ‘무예, 공예기술, 음식’을 제외한 ‘음악, 무용, 연극, 놀이, 의식’을 본 범주로 이해하고 있음(문화재청, 2009).
  -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무형문화재를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설정하고 있음(임영순·맹해양·배기형, 2016: 90).
  -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전통공연예술의 범주를 조사를 위하여 전통공연예술의 개념을 ‘판소리, 시조, 민요, 사물놀이 등’과 같은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을 들려주는 행사 또는 민속놀이, 민속극(가면극·인형극) 등을 시연하는 행사’로 정의하고 있음(임영순·맹해양·배기형, 2016: 90).
  - 2006년 자료 ‘전통예술 활성화 방안 비전 2010’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전통예술의 범주를 설정하고 있음(문화체육관광부, 2006).



〈그림 35〉 전통공연예술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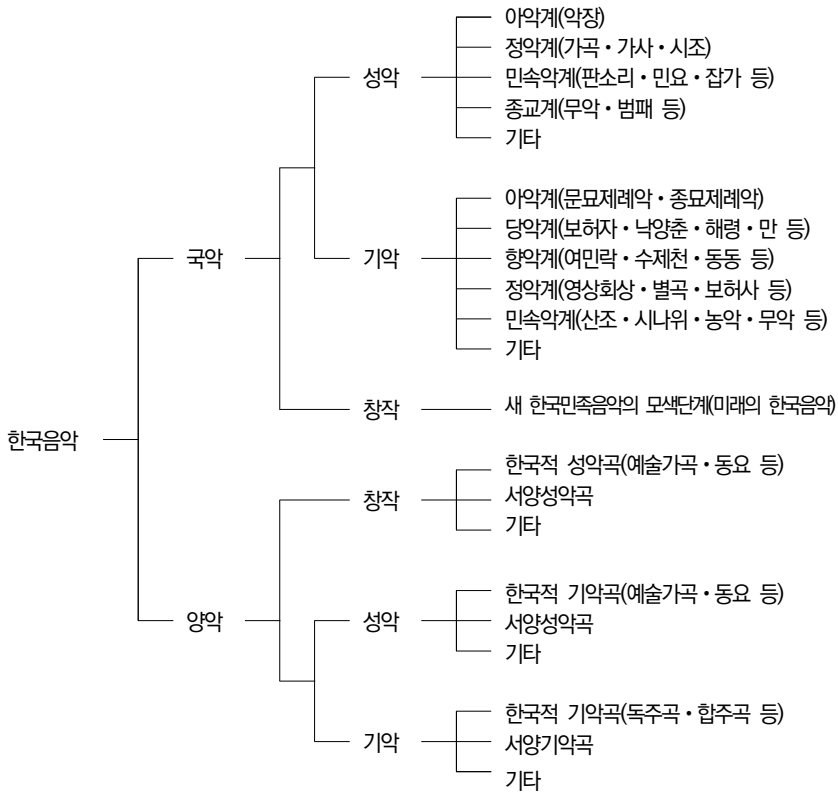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06

- ‘전통공연예술진흥법(안)’에서는 전통공연예술을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예술적 표현활동으로서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 등 소리와 몸짓을 주된 요소로 하는 예술행위 및 그 성과로 정의하고 있으며, 본 연구 또한 이러한 광범위한 개념적 정의를 기본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음(임영순·맹해양·배기형, 2016: 90).
  - 서연호는 예술사의 한 범주로서 ‘공연예술’은 전통과 현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며, 한국의 연희, 놀이, 놀음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봄(서연호, 2015: 32). 서연호는 한국은 공연문화로서 다양한 전통연희를 전승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국 전통 공연예술의 계승과 서양의 현대적 양식을 종합하여 공연예술의 양식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것을 제안함(서연호, 2015).
    - 성악양식: 판소리, 배뱅이굿놀이, 장대장네굿놀이, 아리랑
    - 기악양식: 가야금산조, 농악, 현대국악관현악
    - 음악극 : 창극, 약극, 여성국극, 오페라, 뮤지컬(현대국악극-전통양식/현대뮤지컬-서구양식), (백영춘의) 소리극
- 본 연구에서는 전통공연예술을 크게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각 정의와 범주를 확인하고자 함.

### 가. 전통음악

- 한국음악(국악)은 예로부터 전해오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말함. 그러나 오늘날 광의의 한국음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한국적인 아이디어에 의하여 작곡된 모든 활동까지를 의미함(한경신, 2012: 2).
- 삼국시대부터 조선전기까지는 향악(鄕樂), 당악, 아악의 세 갈래가 주류를 형성하였으며, 조선 후기(1592~1984)는 민속악이 성장하고 발전하던 시기였음. 해방 이후, ‘국악’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고 사용되었으며, 1950년대에 한국음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고, 문헌과 논문에서 많이 사용하게 됨(강순애, 2011: 113).
  - 국악(國樂)이라는 용어는 ‘가(歌), 무(舞), 악(樂)’의 유기적 결합과 운용을 중요시하는 우리 전통예술의 가장 큰 특징을 ‘악(樂)’이라는 용어에 한정함으로써 총체적 양식의 이해를 희석시키는 문제점을 포함함(박현승·허식, 2013: 76).
  - 다시 말해 국악이라는 용어 자체에 음악적 요소만을 강하게 내포하기 때문에 ‘한국무용’과 같은 움직임, 즉 무(舞)와 강하게 관련이 되어있는 장르이거나 ‘탈춤’처럼 움직이는 무(舞)와 가(歌)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대사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분야는 적용에 있어 한계가 존재함(박현승·허식, 2013: 76).
- 한국음악의 분류는 시대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데, 시대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음.
  - 한국음악의 분류는 조선조의 대표적인 악서인 『악학궤범(樂學軌範)』에 의하면, 당시 궁중 음악은 아악, 당악, 향악의 3분법으로 분류되었고, 한국악기도 악곡 연주에 사용되는 아악기, 당악기, 향악기로 구분됨(오용록, 1989: 62-64; 강순애, 2011: 113에서 재인용).
  - 1970년대 들어 일차 분류를 장르로 구분하여 정악과 민속악으로 나누거나, 아악과 민속악으로 나누었고, 사회계층에 기준을 두어 궁정음악과 민간음악으로 나누는 이분적 분류방식이 주류를 이루었고, 이차 분류는 음악의 기능에 따라 아악을 제례악, 연례악, 군악으로 나누거나 연주 형태에 따라 성악과 기악으로 구분하는 것이 특징이었음(강순애, 2011: 114).
  - 1980년대는 서흥범(1983)은 아악, 의식음악, 가악, 민속악으로 일차 분류를 하였음. 장사훈(1988)은 아악, 의식음악, 민속악으로 장르별 일차 분류를 하였는데, 두 연구자

모두 일차 분류의 중요 영역에 의식음악을 넣은 것이 특징임(강순애, 2011: 114-115).



〈그림 36〉 한국음악의 체계

자료: 송방송, 1984: 50

## 나. 전통무용

- 성기숙(2005)은 “전통무용에 대한 범주의 기준은 국가들마다 다르지만 근대를 기점으로 그 이전의 전통사회에서 추어졌거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하나의 계통을 형성하여 내려온 무용을 전통무용”이라 함(성기숙, 2005: 66).

- 정병호(2004)는 전통무용이란, 우리나라 사람들이 창조한 춤으로 민족 고유성과 민중을 기반으로 한 민족공통의 정신이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성기숙, 2005: 66에서 재인용).
- 한국의 전통무용은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으며, 기존의 무용학계에서 제시된 전통무용의 분류는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남(박효주·원유미·민성희, 2005: 906).
  - 민속무용: 민간에서 서민들에 의해 추어지는 무용
  - 무속무용: 토속신앙의 한 형태로 굿 속에서 추어진 무용
  - 궁중무용: 궁중에서 왕이나 왕족, 대신들 앞에서 연희 되는 무용
  - 의식무용: 국가의 제의나 불교행사 때 진행되는 무용

〈표 19〉 전통무용의 분류

학계	전통무용의 구분
안제승(1895)의 『한국무용사』	궁중무용, 민속무용, 향토무용, 의식무용
조원경(1967)의 『무용예술』	종교무용, 궁중무용, 민속무용
강이문(1982)의 『한국무용문화의 전통과 과제』	궁중무, 기방무, 민속무, 종교무
정병호(1999)의 『한국의 전통춤』	궁중무용, 민속무용
장사훈(1977)의 『한국전통무용연구』	궁중무용(향악정재, 당악정재)

자료: 박효주·원유미·민성희, 2005: 906

- 위의 분류는 고전적인 시각에서 분류한 것이며, 현재 전통무용의 분류 범위에는 근대를 포함함. 근대 이후 창작되어 지속적인 전승을 통해 국가로부터 문화재로 지정받은 무용도 전통무용이라 하며, 이러한 전통무용 범주의 확대는 서구의 현대무용에서 시작한 신무용 또한 전통무용의 하나로 귀속시킴(박효주·원유미·민성희, 2018: 906).
  - 성기숙(2005)은 전통무용의 현대적 수용(창조적 수용과 보존·전승 중)에서 한 부분인 전통의 보존과 계승적 차원에서 신무용이 유의미하게 수렴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즉, 무형문화재의 제도에 신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임. 신무용은 최승희·조택원 등 소위 신무용가들에 의해 전통과 접목되어 전통무용의 범주에 귀속될 수 있다고 말함(성기숙, 2005: 66-67).

#### 다. 전통연희

- 한국예술사에서 연희라는 개념은 모든 전통적인 공연양식을 포괄하는 내용이며,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사전』에서는 연희는 “말과 동작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재주를 부리는 것”이라 정의함. 연희는 시청중을 대상으로 해서 공연되는 모든 행위를 지칭함(서연호, 2009: 263).
  - 인간이 자신의 몸과 말을 통해서 또는 악기나 기구나 가장(假裝)을 이용해서, 일상적인 삶의 행위가 아닌, 어떤 상상적이고 모험적이고 창조적인 행위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는 것을 통칭 연희라고 말함(서연호, 2009: 263).
  - 서연호(1997)는 전승연희에는 굿놀이, 탈놀이, 인형놀이, 판소리, 광대굿놀이, 풍물놀이, 정재(呈才), 각종의 춤, 축제적인 연희, 사찰의 연희 등이 있으며, 민속연희, 민속예능, 민속예술, 민속놀이, 민속공연, 전통연희, 전통예술, 전통공연, 연행, 마당놀이, 마당굿, 연예 등을 아우르는 보편적 개념을 지닌 뜻으로 연희를 사용함(서연호, 1997, 조만호, 2001: 1에서 재인용).
  - 따라서 ‘전통연희’는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서 현재에도 그 흔적을 남기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연극적인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조만호, 2001).
  - 연희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 한자로는 한글로는 자신들의 행위를 기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적인 고유어로 연희의 명칭을 사용함. 놀이, 굿, 마당, 판이란 말이 그것이며, 모든 제의, 유희, 공연 등을 짓거리, 굿거리, 마당놀이, 판놀이 등으로 부름. 이렇게 연희의 명칭은 고유어와 한자어로 중복 사용되어 전승됨(서연호, 2009: 260).
- 연희를 분류하는 데에 있어서 공연시기, 공연장소, 표현방법, 표현도구, 연기자의 소속사회, 의례 등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이 가능함.
  - 연희의 범주는 양식(樣式)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양식은 시대성과 지역성을 중심으로 발전해옴, 우리나라 연희의 양식은 굿놀이, 탈놀이, 인형놀이, 판소리, 광대굿놀이, 정재(呈才)와 교방무(敎坊舞), 사찰연희, 대동놀이, 풍물놀이, 유랑광대놀이, 무용, 연주, 가창(歌唱), 강희(講話), 통과의례 등으로 대별됨(서연호, 2009: 265).
  - 고대에 연극과 연희는 동일한 범주를 의미했고, 장르 분화 이후 연극은 연희의 한 종류가

됨. 동양의 연희는 서양에서 연극, 오페라, 발레 등 분화한 것과 다르게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대체로 하나의 생명체로 전승되는 총체적인 형식임(서연호, 2009: 266).

- 박현승·허식(2013)은 전통과 관련한 여러 연구들을 통해 대략적인 범주를 나누어 보자면 농악, 탈춤, 전통무용, 판소리, 무속굿 등을 포함하는 전통연희와 기지시 줄다리기, 띠밧놀이, 기세배 등을 포함하는 민속연희, 가곡, 가사, 시조, 민요 등의 소리 분야, 마지막으로 그 외 선율이 있는 악기를 연주하는 기악 분야로 범주를 나누어 봄(박현승·허식, 2013: 77).
- 전경욱(2011)은 가면극, 판소리, 창극, 꼭두각시놀음 등 연극적 양식이 바탕이 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관중을 위해 연행하는 공연물을 전통연희로, 농어촌에서 마을주민들이 조직하여 자족적으로 즐기던 놀이를 민속연희로 구분함(전경욱, 2011: 252).



## 제6절 다원예술 및 융·복합예술

## 1. 다원예술

- “다원예술은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창작 활동으로서, 탈장르 예술, 복합장르 예술, 새로운 장르의 예술, 비주류 예술, 문화 다원주의적 예술, 독립예술 등을 중심적 대상으로 하는 개념”임(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 294).
- 국내에서 다원예술은 90년대 중반 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정책을 위해 예술현장을 범주화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 등장함. ‘독립예술’, ‘다원적 예술’에 이어 ‘다원예술’이라는 지원금 정책의 대상영역을 명명하는 과정에서 이 용어를 사용함. 즉 실험, 인디, 대안, 복합, 대중예술 등 기존의 예술 개념과 장르 체계에 속하지 않는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기 위한 정책 개념으로서 용어의 사용이 그 어원의 시작이라 볼 수 있음(안진주, 2010: 12).
- 다원(多元)이라는 단어는 ‘사물을 형성하는 근원이 많은, 또는 그런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님. 미국 고다드 대학(Goddard College)의 다원예술 석사 학위과정의 안내문에서 “다원예술을 정의하려는 어떤 시도도 이 개념이 한 가지 정의로 추론될 수 없음을 인정해야만 한다. 다원예술의 형식은 다원예술가들의 수만큼 많다”고 지적할만큼 궁극적인 가치개념을 부정하는 의미를 지님. 이러한 수평적인 다양성을 중시하는 것이 다원예술의 특징임(윤지현, 2008: 68).
  - 다원주의는 명쾌히 정의 내려진 하나의 미술 주류에 반대됨. 다원주의는 어떤 단 하나의 접근방식이 대폭적인 지지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다수의 양식이 공존하는 것을 말함. 1970년대의 다원주의는 1960년대 말의 정치적, 사회적 대변동에서 발달한 것이고 1970년대의 새로운 형태의 다원주의 미술세계는 워낙 복잡했기 때문에 새로운 평가기준을 필요로 했음. 이에 호응하는 평론가들은 이 상황을 혼란스럽다기보다는 개방적인 것으로 보았고 다원주의가 현대사회의 다양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한다고 주장함(Robert Atkins, 1990: 119; 안진주, 2010b: 12에서 재인용).
  - 국내의 다원예술 활동은 문화예술계의 시대적 요구에 활발하게 부응하여 장르 간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예술 지형을 제시해나가고 있음. 그러나 아직도 다원예술을 장르로 구분 짓고 모더니즘적 기준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다원예술의 정체성 논란을 일으키며 불안한

양상을 보임(안진주, 2010: 4).

- 국내의 다원예술은 크게 두 갈래로 정의되는데 한 갈래는 ‘실험성과 장르간의 화학적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의 창출’이며 다른 갈래는 ‘비주류예술의 통창’이자, 전통적인 예술 형식들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현대예술로서 동시에 공존함(윤지현, 2008: 71).

〈표 20〉 다원예술의 개념 정의

구 분	내 용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예술창작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장르예술에 대한 실험적 시도를 통해 장르예술을 새롭게 재구성하기 위한 창작활동</li> <li>- 장르 예술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장르간 새로운 창작을 시도하는 복합장르(혹은 장르복합)의 창작활동</li> <li>- 적극적으로 새로운 장르를 형성하기 위한 창작활동 등의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탈장르적 예술, 복합장르(장르복합)적 예술, 새로운 장르의 예술 등을 대상으로 함</li> </ul>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창작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계 혹은 장르예술과 관계에서 비주류적 위치에 놓여있는 대안적 예술창작활동</li> <li>- 내재적 자율성과 공공성을 기초로 한 독립예술(인디문화)의 예술창작 활동</li> <li>- 문화적 소수자집단의 예술적 표현을 기반으로 둔 예술창작활동을 포함하는 것임</li> <li>- 비주류예술의 대안적 가치, 독립예술의 공공적 가치, 소수자 문화의 문화다원주의적 가치 등의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창작활동이 정책 대상으로 포섭되어야 함</li> <li>- 이러한 개념정의 과정에서, 기존의 ‘대중예술’의 영역으로 분류되던 ‘서커스’와 같은 창작활동은 ‘비주류예술’의 영역으로 통합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li> </ul>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06: 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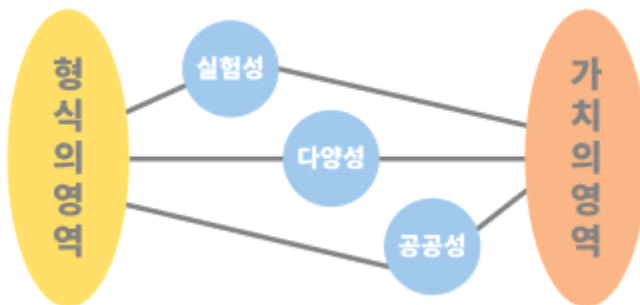
- 다원예술의 개념은 어원에서 한계와 모순점을 드러내며, 쟁점을 야기함(안영노, 2006: 46; 안진주, 2010: 15에서 재인용).

- ‘다원예술’이라는 명칭 자체가 다양한 현상을 포괄하려는 의도를 지니므로, 새로운 예술현상의 핵심적인 성격을 드러내지 못하며, 정책 수립을 위한 용어 형성과정에서 ① 기성예술 관습의 대안적 개념, ② 장르 예술의 상대적 개념, ③ 새로운 예술을 의도적으로 촉진하려는 전략적 개념, ④ 변화에 유연하고 다양한 현상을 포괄하려는 개방적 개념 등 복합적 개념 정의를 제안하였다는 점이 한계로 남음(안진주, 2010: 16).
- 윤지현은 공연예술에서 다원성, 실험성 및 복합장르적 시도들이 전반적인 특성이 된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다원예술은 장르에 대한 정의이기보다는 지원정책상의 분류라는 의미가 강하고, 실제 이 용어가 정책기관이 관리하는 지원금 제도의 지원방향과 지원심사를 위한 분류로 작용한다는 점이 창작자에게서 발견되었다고 지적함. 또한 이러

한 ‘독립단체 자원’에서 ‘다원예술분야 자원’으로의 변화는 이들 단체의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말함(윤지현, 2008: 86).

□ 한편, 김한상(2011)은 기존 다원예술 소위원회에서 정리한 두 가지 시각, 탈장르, 장르를 넘나드는 실험의 영역과 다문화적인 가치와 공동체적인 이슈를 증진하고자 하는 가치 지향적 영역을 소개하며, 현장의 창작자는 경과 중심의 매체 실험보다 ‘과정으로써의 예술’을, 공동체와 메시지 지향보다는 ‘사회참여에 대한 가치’를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발견함(김한상, 2011: 8).

- 형식과 가치의 두 영역과 더불어 다원예술 소위원회에서는 예술 환경의 변화에 따른 문제 제기를 통해 다원예술의 속성을 다양성, 실험성, 공공성으로 뽑아냄(김한상, 2011: 9).
- 우주희는 각 특성의 관계와 관련하여 실험성과 다양성은 분리된 개념으로서 각각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가진다고 말함. 각각의 개념은 다원예술 전체의 특성으로서 의미를 가지며, 각 예술의 집합 개념으로서의 다원예술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될 수 있지만, 한 종류의 다원예술이 이 세 가치를 모두 포괄하지 않을 수도 있음(우주희, 2007: 15).



〈그림 37〉 다원예술의 영역과 속성

자료 : 김한상, 2011: 9

□ 윤지현은 국내의 다원예술 현상을 특이성과 더불어 용어의 재정의하고자 한 담론을 소개하는데, 예술감독 김성희는 “단순한 매체 혹은 장르간의 ‘상호(inter)’ 교류의 개념으로부터 좀 더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담론, 즉 ‘횡단(cross)’의 개념으로 그리고 예술적 관습을 ‘초월

(trans)’하는 시도까지 지칭하여 재정의” 하며, 이어 다원예술을 ‘도구와 장르의 혼합을 넘어서는 현대예술의 새로운 방식과 태도를 포괄하는 다각적, 역동적 개념’으로 규정함. 홍성만은 다원적 예술의 태도를 “일화적 만남이 아니라 이음새 없는 융합이나 반대로 그 이음새를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통섭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기술함(윤지현, 2013: 160).

□ 해외에서는 새로운 예술에 대한 개념 정의와 지원정책을 일반화하기보다는 역사적으로 현상을 분석 반영한 후 이루어졌으며, 국가에 따라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정의와 지원정책도 상이함.

- 김성규에 따르면, 유럽은 국가의 지원 의존도가 높으며, 상대적으로 미국은 민간 의존도가 높음(김성규, 2008: 143; 안진주, 2010: 35에서 재인용).
- 캐나다, 호주, 영국은 문화예술위원회 안에 ‘다원예술 사무국’을 설치하였으며, 이 중 캐나다와 호주가 국가의 성립 배경이 아우르고 있는 이민국이라는 특징 때문인데 다문화주의, 다양성, 공동체 문화 등이 만연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함(안진주, 2010: 35).

〈표 21〉 해외의 다원예술 지원현황

국가	정의	지원범주
캐나다 다원예술사무국 (The Inter-Arts off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나다는 호주보다 광의적으로 다원예술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 특징</li> <li>- 예술의 새로운 미학적 정의, 사회적 역할 등을 탐구</li> <li>- 인류학 및 사회과학의 비판적 분석과 연계, 지역공동체와 소수자문화를 기록 및 연구</li> <li>- 인문학적, 실천적 접근에 연계된 지향점을 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퍼포먼스아트 (Performance Art)</li> <li>- 복합장르(Multi-Arts)</li> <li>- 새로운 예술 접근(New Artistic Approach)</li> </ul>
호주 다원예술사무국 (Inter-arts off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계, 예술내 장르, 예술 표현매체</li> <li>- 복합장르와 뉴미디어 아트는 창작 결과물(Product)</li> <li>- 하이브리드 예술은 창작 전 과정(Production)이 대상</li> <li>- 융복합 차원으로 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이브리드예술(Hybrid Arts)</li> <li>- 복합장르예술 (Multidisciplinary Arts)</li> <li>- 뉴미디어아트(New Media Arts)</li> </ul>
영국 예술위원회 (Arts Council Engl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은 지방자치 행정이 발달한 국가,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외에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로 나뉘며, 지역별로 파트너십은 갖지만 각각의 예술위원회의 정책과 재정은 별개 독립조직으로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성예술(Combined arts)</li> <li>- 학제간 협력예술 (Interdisciplinary arts)</li> </ul>
프랑스 문화부 (Ministère de l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 문화부(중앙정부)의 ‘음악, 무용, 연극, 공연 분과(DMDTS: Direction de la Musique, de l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커스</li> <li>- 거리예술(arts de la rue)</li> </ul>

국가	정의	지원범주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p>Dance, du Théâtre et des Spectacles)를 중심으로 이루어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극 분야에서 장르를 세분화하여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정책을 수립</li> <li>- 다원예술 지원기구(Frande Culture/前 AFFA 프랑스예술행동협회): 프랑스 문화부와 외무부의 공동지원을 받는 단체로 자체프로그램을 통한 지원방식 운영</li> </ul>	

자료 : 안진주, 2010: 35-50에서 재구성

## 2. 융·복합예술

□ ‘융·복합’이란 용어는 ‘융합’과 ‘복합’의 합성어로, 다양한 분야의 기술(혹은 다른 것)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말로서 수많은 기술 혹은 다른 것이 서로 교차하고 충돌시켜 발전을 이루는 것을 의미함. 또한 기존의 가치를 무시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가치를 유지하고 상호 보완적 흐름을 보이게 함으로써 발전하는 형태로도 해석할 수 있음(이경미, 2015; 김경식·신철호, 2018: 82에서 재인용).

- ‘융합(融合, convergence)’은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 없이 하나로 합하여지는 일”이며(우혜주, 2014), 두 학문 혹은 그 이상이 학문(혹은 다른 어떤 것)이 상호삼투를 통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함. ‘복합(複合)’은 “두 가지 이상이 하나로 합침”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이정민, 2012: 16; 김경식·신철호, 2018: 82에서 재인용).

□ ‘융·복합’ 용어는 통섭, 통합, 학제성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오늘날 문화현상에서 비슷한 용어로는 퓨전(fusion), 하이브리드(hybrid), 크로스오버(crossover),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등이 존재함(이경미, 2015; 김경식·신철호, 2018: 82에서 재인용).

- 연출가 오세곤은 그의 저서 『예술강국, 문화대국』(2011)에서 다음과 같이 용어를 개념 정의함(오세곤, 2011; 안주경, 2017: 366에서 재인용).

〈표 22〉 융·복합 관련 용어의 사전적 정의

용어	사전적 의미
통합	여러 요소들이 조직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룸
융합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지는 일
통섭(統涉)	사물에 널리 통합 또는 서로 사귀어 오감
통섭(統攝)	전체를 도맡아 다스림 / 라틴어 어원: 함께 넘나들

자료 : 오세곤, 2011; 안주경, 2017: 366에서 재인용

- 심광현은 관련 학문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분함(심광현, 2009: 12-27; 서영식, 2012: 149에서 재인용).

- 학제간 협동연구는 여러 전공 분야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를 유지하면서 이미 제시된

특정한 주제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함께 모여 연구하는 방식을 말한다.

- 융합연구는 각 전공 분야가 특정한 주제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연구로 수렴되는 방식을 말하며, 이 경우 기존의 여러 전공들이 서로 삼투되어 새로운 전공이 창출될 수 있음.
  - 복합연구는 각각의 전공 분야가 하나로 융합되지 않고, 각각 전공의 특성이 복합적 전체의 구성 성분으로 유지되는 방식의 연구로 규정할 수 있음.
  - 통합연구는 융합연구와 복합연구가 전체적으로 유기적 통일체를 이루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통섭연구는 여러 전공 영역이 함께 모여 상호 연결하는 방식으로 출발하지만, 상호연결의 과정에서 어떤 결과로 귀착될지가 미결정된 다양성으로 열려 있는 연구방식을 의미. 그 결과는 학제 간 연구 또는, 특정 주제로의 융합적 연구, 또는 복합적으로 네트워크화된 지식을 통한 새로운 복합학문 분야의 형성, 또는 예기치 못한 새로운 연구주제와 과제의 창발적 출현 등으로 다기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 위 개념에 더하여, 태혜신과 박명숙은 ‘학문간 융합’의 개념이란 다양한 형태의 실제적인 융합 현상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그것들이 가능하게 된 근거를 밝히며, 이러한 현상을 옹호해줄 새로운 이론 토대의 구축을 지칭한다고 하며, 새로운 학문 분야로의 창조를 내포하되, 각 학문분야의 존재성 및 기능 역할을 인정하고, 각 학문 간의 문제해결과 관련한 새 방식의 관점을 이끌어 가는 ‘간(間)’의 학문이자 총체적 지지작업이라고 설명함(태혜신·박현숙, 2012: 606).
- 전병삼은 다원예술과 대비하여 학제적 예술을 다음 두 가지로 정의함. “좁은 의미로 쓰인 학제적 예술은 다양한 예술장르 즉 미술과 공연, 음악 등과 같은 장르예술들이 융합되어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을 뜻하고, 넓은 의미로는 예술과 과학, 그리고 인문사회 등의 전문가들이 방법론을 공유함으로 함께 하나의 목표를 가진 프로젝트를 하는 것”임(전병삼, 2012; 윤지현, 2013b: 158에서 재인용). 이에 따르면, 학제적 예술의 정의는 학제적 예술은 예술장르 사이의 협업과정을 거치거나 다양한 학문분야 사이의 협업과정을 거친 예술작품 자체와 그 과정을 지칭하는 용어라 할 수 있음(윤지현, 2010; 윤지현, 2013: 158에서 재인용).
- 윤지현은 국내 ‘다원예술’의 개념은 복합적 실험적 예술 시도라는 점에서 협의의 학제적 예술과 유사하나, 비주류 예술과 독립예술 등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함(윤지현, 2013: 167).

- 동시대 예술현장에서 이미 흔하게 융·복합의 예술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음. 임산은 “장르 혼성적 창작, 장르의 지배적 미디어의 감각체계에도 도전하는 상이한 미디어 사이의 연합, 분과적 전문성을 지닌 창의적 개인들이 미적 행위의 일환으로서 협업하는 공동체, 작가-관객(감상자)으로서의 인간 주체의 위상, 혹은 인간 창작자와 문화적/사회적 사물로서의 기계 사이의 관계 등을 통해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말함(임산, 2012: 50).
-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문화적 생산의 보편적 구성까지 변형함으로써 기존의 학제화(혹은 장르화) 체제에서의 주객 이분법적 인식에 도전함(Mark Poster. 2002: 68-70; 임산, 2012: 51에서 재인용).
  - 예술에서 융·복합의 현상은 역사적으로 지속해서 존재해 왔음. 아리스토텔레스는 단어(lexis), 음악(melos), 광경(opsis)등의 서로 다른 감각적 미디어가 어우러져 드라마를 이룬다고 보았으며, 작곡가 바그너(R. Wagner)는 음악과 단어의 결합을 넘어 춤에서 건축에 이르는 모든 예술형식의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예술작품(Gesamtkunstwerk) 개념을 제안하였음. 20세기에 하긴스(d. Higgins)는 미디어의 경계를 넘는 다감각적 작곡 프로세스를 위해 ‘인터미디어(intermedia)’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앤디 워홀(A. Warhol)의 ‘팩토리(Factory)’ 등의 사례들 역시 예술가들의 협업과 예술적 미디어의 통합을 목적으로 하였음(임산, 2012: 51).
- 안주경은 현대의 공연예술에서 융복합은 꾸준히 있었으며, 이미 독창적인 새로운 창작개념으로 정착되었다고 말함. 따라서 “융복합 공연예술에 대한 고민과 시도는 단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연예술의 현상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예술가들의 창작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면서 자리하고 있었던 개념이자 앞으로도 새로운 해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공식적 이면서도 통시적인 개념”이라고 말함(안주경, 2017: 365).
-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융·복합예술은 예술 장르 내 또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 학문 등 사이에서 융·복합과정을 거친 예술 작품 및 그 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제7절 예술비평

## 1. 예술비평

□ 비평의 사전적 정의는 “사물의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따위를 분석하여 가치를 논함”(표준국어대사전)임.

- ‘criticism’은 그리스어의 분할하다(krinein), 판단하다(krion), 판사·배심원(krites)에서 유래한 단어로 17세기경 등장함. criticism은 비난(fault finding), 칭찬(praise), 판단(passing judgment), 비교(comparison), 감상(appreciation)의 의미를 내포함. 비평(criticism)은 판단, 식별, 판단과 식별에 의한 평가를 의미함(권윤방 외, 2003: 170).
- 한자어 ‘批評’의 의미도 서양 언어와 유사함. ‘批’는 手(손 수)자와 比(비교할 비)자가 결합한 모습으로, ‘비평하다’ 또는 ‘바로잡다’는 뜻을 가진 글자로 비교해서 바로잡는다는 의미임. ‘評은 言(말씀 언)자와 平(평평할 평)가 더해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말을 고르게 하다’는 의미로, ‘평하다, 평론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로 쓰이며 여기서 평가에는 공정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임(디지털 한자사전 e-한자).<sup>44)</sup> 한자어 비평도 식별하는 것과 공평한 판단에 근거를 두고 대상이 가치를 밝히는, 평가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임.

□ 예술비평이란 미적 창조 대상이 예술작품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통한 가치 평가이자 예술작품의 증진된 이해 또는 작품의 보다 나은 감상을 목적으로 함(권윤방 외, 2003: 170).

- 평가는 가치를 규명하고 그 의미를 밝히며, 비평은 사물의 가치를 판단하고 그 의미를 천명하는 것임. 비평은 비평가의 판단을 지지하기 위해 타당한 논거를 제시해야 함. 타당한 논거가 없다면 개인적 표현에 불과하며, 신빙성이 없는 것임(권윤방 외, 2003: 170).

□ 비평작업은 평론(review)과 비평(criticism)으로 구분됨. 평론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작품소개가 주를 이룬다면, 비평은 주로 전문성을 지향하는 작품평가 및 해석의 활동으로서 비평임(권윤방 외, 2003: 170).

□ 예술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판단에 근거하여 서술하고 평가하는 것으로서 비평의 형태가 자리 잡은 것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임. 18세기 이전의 비평은 주로 이론가들의 이론적 논의나 평가, 예술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옹호를 내용으로 했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졌음. 예술비평가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벗어

44) 네이버 디지털 한자사전 e-한자 [https://hanja.dict.naver.com/hanja?q=%E6%89%B9&cp\\_code=0&sound\\_id=0](https://hanja.dict.naver.com/hanja?q=%E6%89%B9&cp_code=0&sound_id=0)

나, 작품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학문적이고 객관적인 새로운 기준을 찾기 시작한 것이 18세기였음(심정민, 1999: 101).

- 예술비평이 18세기 이전까지 독자적인 학문 또는 작품으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예술의 발전 상황과도 맞물려 있음. 18세기 이전에는 예술의 개념도 학문적으로 정립되지 않았고, 당시 예술은 교회나 귀족, 도시 부르주아의 취미와 오락 정도로 존재하고 있었음. 따라서 예술의 독자 또는 관객인 대중도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었음(심정민, 1999: 101).

□ 19세기에 전문적인 근대 예술비평이 확립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결합되어 있음. 첫번째 요인은 예술 감상자로서 대중의 형성임. 18세기 후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중의 탄생, 문자 교육 확대에 따른 독자층의 증가가 이루어졌음. 이런 의미에서 근대 예술비평은 소수 귀족이나 예술가가 아니라 대중의 한 사람, 비평가가 대중을 위해 쓰는 평가와 해설을 가리킴. 둘째, 인쇄술의 발전과 일간지와 정기간행물 같은 언론 매체의 확대는 비평이 발표되고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중요한 배경이었음. 셋째, 예술의 개념이 정립되고 각 분야의 자율성이 확립된 시기였음. 예술에 대한 글을 통해서 예술 개념이 정리되고 더불어 비평이 함께 발전할 수 있었음. 이 시기 예술 감상자인 대중의 탄생은 과거에 후원이라는 명목으로 예술 작업의 자율성을 제한하던 귀족 등 특수 계층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이 등장하는데 기여함. 19세기 중반에는 대중과 예술작품, 예술가를 연결하는 전문적인 비평가들이 등장하였고, 비평은 예술작품의 미적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됨. 마지막으로 미술관 전시, 공개 연주회, 극장 공연 등 소수 엘리트의 향유 대상으로서의 예술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미술, 음악, 무용 예술 등이 자리 잡으면서 이에 대해 설명하고 평가하는 예술비평이 더불어 확산되었음(심정민, 1999: 106-111).

## 2. 문학비평

- 오늘날 통용되는 비평의 형태, 즉 언론매체 등을 통해 동시대의 예술적 경향을 논의하는 일은 18세기 후반부터 이루어졌고, 사회문화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19세기 중엽 첫 번째 전성기를 맞이하였음(심정민, 1999: 102). 델포(G. Delfau)에 따르면 18세기 말 역사, 철학, 웅변, 극예술, 시, 소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문예(belles-lettres)라는 개념이 무너지고 근대적 의미의 문학예술이 확립되었다고 설명하며, 문헌학자 로베르 에스카르피(Robert Escarpit)의 연구를 빌어 서구 유럽에서 문학이라는 단어가 1770년과 1800년 사이에 출현했다고 밝힘(김춘희, 2001: 142-143).
- 문학비평이란 문학에 관련된 논의, 즉 문학작품 및 문학이론을 대상으로 하여 그 가치를 규정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작업을 의미함. 넓은 의미의 문학비평은 문학에 관한 실제적이고 이론적인 논의를 가리키며, 좁은 의미에서 즉 문학의 하위 장르로서 비평은 한 작가나 작품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행위임(김종희 외, 2007: 347; 이상섭, 2001: 122).

〈표 23〉 문학 비평의 사전적 정의

출처	정의
웹스터 국제사전	문학비평은 문예작품의 미와 단점에 대한 지식과 적정의 판단과 가치평가의 기술이다.
뉴 잉글리쉬 사전	문학비평이란 문예작품 또는 예술작품의 특성과 성격을 평가하는 기술, 곧 비평가의 기능과 사명이다.
백철 편, 『문예사전』	문예에 대한 과학적 비평을 말한다. 곧 작품의 비평은 그의 호오(好惡)를 기초로 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점에서 논리적으로 귀결을 지어보이는 비평방법을 가리킨다. 따라서 비평가의 주관은 용납되지 않으며, 문예비평의 판단은 소위 심미적 판단으로서 감상비평에 이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	문예비평이란 문예작품의 구조, 효과, 작가의 창작방법, 세계관 등을 검토하고, 개인적인 견지에서 작품의 미적 가치내용을 판단하는 일이다.
이상섭 편, 『문예비평용어사전』	문학이란 무엇인가, 한 편의 문학작품의 뜻이 무엇인가, 작가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한 작가 또는 작품의 가치는 어떠한가 등을 논의하는 일을 문예비평이라고 한다.
연구사, 『세계문예사전』	예술상의 비평이란 작품의 향수( 감상)에 의거하여 이에서 예술적 가치, 특성, 또는 그 성립에 관한 판단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이것을 유효하게 독자에게 전할 수 있게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정의
대백과사전	문예에 대한 과학적인 비평, 작품을 비평하는 데 있어 그 작품의 좋고 나쁜 것만 따질 것이 아니라 여러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귀결 지으려는 비평 방법이다. 따라서 비평가의 개인적인 주관은 용납할 수 없고, 그의 판단은 심미적인 판단으로써 감상비평의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프랑스의 생트 뵈브(C. A. Sainte-Beuve)는 작품 그것 외에 작가의 생애, 환경, 목적, 사회 등을 고찰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테느(H. A. Taine)는 인종환경·시대 등의 조건까지도 열거하였다.
옥스퍼드 잉글리쉬 사전	문예작품의 질과 특성을 평가하는 기술, 즉 비평적 기능과 활동

자료: 김종희 외, 2007: 349-350

□ 문학비평은 소설이나 시와 마찬가지로 창작의식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독자성을 가짐. 문학비평은 소재로 주어진 작품을 갖고 비평가가 자신의 비평관에 따라 자기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임. 작품이 인간의 삶에 대한 인식에 그친다면, 비평은 그 의식을 새롭게 정리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함(김종희 외, 2007: 352).

-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 1856~1900)는 “비평가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에서 받은 자기 인상을 다른 수법, 또는 재료로 변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비평에 예술적 창조성 부여하였음(김종희 외, 2007: 351).
- 머리(J. M. Murry, 1889~1957)는 “비평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문학 자체와 같다. 즉 비평은 비평가가 자신을 표현하는 방편이라 할 수 있고, 그 점에서 볼 때 비평가 또한 다른 문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정의하였음.

□ 비평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류가 가능함. 비평가의 신분, 비평의 대상, 기능과 성격 등에 따른 분류가 있음. 아브람스(M.H.Abrams)는 문학 작품의 생산과 수용의 네 가지 요인인 우주, 청중, 예술가, 작품 중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모방론(mimetic criticism), 효용론(pragmatic criticism), 표현론(expressive criticism), 객관적 비평(objective criticism)이라는 비평 분류를 제시하고, 이 네 가지 이론이 순차적으로 역사에 등장했다고 설명함. 모방론은 문학작품이 우주(세계)를 중심으로 다루는 것으로, 고대 그리스부터 이어지는 원초적인 미 이론을 가리킴. 효용론은 문학 작품이 청중에게 어떤 영향 또는 효과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관점임. 시드니의 ‘시는 가르치고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말하는 그림’이라는 관점이 효용론에 속함. 표현론은 문학을 작가의 개인적인 체험과 관련해 보는 관점으로, 워즈워드가 ‘시는 시인의 사상과 감정의 흐름 넘침’이라고

본 것이 그 예임. 객관적 비평은 예술작품 자체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실체로 보는 방법으로, 1920년대 이후 비평의 주류 경향임(문영진, 2007: 364-365).

- 문학비평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여겨지는 프랑스의 비평가이자 소설가인 티보데(Albert Thibaudet)는 비평가의 신분에 따라 자연발생적 비평, 직업적 비평, 작가적 비평으로 구분함. 자연발생적 비평은 문학애호가나 저널리즘 종사자 등의 비평 작업으로 인상 비평에 머무는 수준이 다수이지만, 상대적으로 일반 대중에 가깝다는 점에서 대중성이 높고 문학의 기반을 확대하는데 의의가 있음. 직업적 비평은 체계적으로 문학 관련 이론이나 교육 경험이 있는 전문적 비평가의 작업을 가리킴. 작가적 비평은 시인이나 소설가 같은 창작자들이 창작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임(윤병로 외, 2002: 302-303).
- 왓슨(George Grimes Watson)은 기능과 성격에 따라 입법비평(legislative criticism), 심미비평(aesthetical criticism), 기술비평(descriptive criticism)으로 나눔. 입법비평은 일정한 규범이나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비평을 하고, 작가에게 그러한 기준에 따라 창작할 것을 요구하는 유형으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창작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음. 사회주의 비평이 그 예임. 심미비평은 미적 쾌락에 중점을 둔 비평으로 비평가의 직관, 주관적 상상력이 두드러짐. 기술비평은 문학 작품의 내적 구조, 즉 언어, 구조, 형태 등을 분석하고 해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미국의 신비평(New-criticism), 심리비평 등이 기술비평에 속하며, 현재 비평의 주류 방법으로 자리 잡음(윤병로 외, 2002: 303-304).
- 웰렉은 외재적(extrinsic)비평과 내재적(intrinsic) 비평으로 구분함. 아브람스의 비평 구분에서 모방론, 효용론, 표현론은 외재적 비평에 속하고 존재론은 내재적 비평에 속함. 인간의 생활, 독자에 끼치는 영향, 작가의 정신 등은 모두 문학 작품 외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가치 있는 의미 구조는 문학작품에 내재한다고 보는 것임(이상섭, 2001: 138).
- 비평의 대상에 따른 구분도 있음. 문학의 본질, 목적, 기능 등을 연구하는 문학이론적 접근으로 이론비평(theoretical criticism), 개별 작가 또는 작품의 의미를 밝히고 가치를 평가하는 실천(실제)비평(practical criticism), 비평에 대한 비평인 메타 비평(meta criticism)이 있음.



## 제3장

### 문화예술 장르 분류 현황

제1절 : 2019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현황

1. 2019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분류
2. 세부 사업별 장르 제시 및 분류 현황

제2절 : 해외 문화예술 지원 현황

1. 미국의 문화예술 지원체계
2. 영국의 문화예술 지원체계
3. 프랑스의 문화예술 지원체계

제3절 : 법·조례 분석

1. 예술에 대한 법적 정의
2. 문화예술 관련 주요 법
3. 문화예술 관련 주요 조례
4. 문화예술 관련 법·조례와 장르분류

제4절 : 문화예술 기관 분석

1. 문화예술 관련 기관 현황
2. 공공기관: 중앙부처 및 소속 기관, 유관 기관
3. 공공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
4. 민간기관
5. 기관별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현황

제5절 : 타 분류체계 분석

1. 국가승인통계 분류
2. 산업분류 및 특수분류, 일반분류
3. 한국십진분류 6판(KDC 6)
4. 포털사이트 및 예매사이트

## 제1절 2019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현황

## 1. 2019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분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간한 『2019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 안내』에 따르면 공모사업을 크게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으로 구분하고 있음.
- 공연예술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장르는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다원예술로 지원하는 사업은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신나는 예술여행(순회처매칭형)’, ‘신나는 예술여행(순회처 발굴형)’이지만, 실제 지원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다원예술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시각예술의 전시지원과 공연예술의 창작실험활동지원 등을 통해 융·복합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
- 전통예술 장르는 각 분야별 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음.

〈표 24〉 2019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구분	사업명	문학	시각 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 예술	다원 예술	예술 일반
문학	아르코문학창작기금	●							
	문예지발간지원	●							
	문학행사및연구지원	●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							
시각 예술	전시지원		●						
	전시사전연구지원		●						
	공간지원-비영리전시공간		●						
	공간지원-사립미술관		●						
	비평지원		●						



구분	사업명	문학	시각 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 예술	다원 예술	예술 일반
공연 예술 공통	창작실험활동지원			●	●	●	●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 원			●	●	●	●	●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			●	●	●	●		
	공연장대관료지원			●	●	●	●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	●	●	●		
연극	올해의신작			●					
	올해의레퍼토리			●					
무용	올해의신작				●				
	올해의레퍼토리				●				
음악	오작교프로젝트					●			
	지속연주지원					●			
오페 라	창작오페라발굴지원					●			
	올해의신작					●			
전통 예술	올해의신작						●		
	올해의레퍼토리						●		
창작 뮤지 컬	올해의신작					●			
	올해의레퍼토리					●			
	창작뮤지컬해외유통지원					●			
국제 예술 교류	예술기해외레지던스지원	●	●	●	●	●	●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	●	●	●	●	●		
	국제예술공동기금지원	●	●	●	●	●	●		●
예술 인력 육성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	●	●	●	●	●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	●	●	●	●		●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	●	●	●		
예술 의관 광자 원화	지역대표공연예술제지원			●	●	●	●		
	전통예술지역브랜드상설공 연						●		
	ARKO국제예술확산지원(일 반공모)			●	●	●	●		
	ARKO국제예술확산지원(프 로모션키트지원)			●	●	●	●		
	지역명소활용공연지원			●	●	●	●		
문화 예술 향유 지원	신나는예술여행(순회차매칭 형)		●	●	●	●	●	●	●
	신나는예술여행(순회차발굴 형)	●	●	●	●	●	●	●	●

## 2. 세부 사업별 장르 제시 및 분류 현황

### 가. 문학

#### □ 아르코문학창작기금

- 시·시조, 소설, 아동·청소년문학(동시·동화), 수필, 평론, 희곡

### 나. 시각예술

#### □ 전시지원

- 순수미술, 전통미술, 설치, 미디어, 융·복합, 건축, 사진, 퍼포먼스

#### □ 비평지원

- 비평활동, 비평서 출판, 비평간행물 발간

### 다. 공연예술

#### □ 창작실험활동지원

- 장르통합심의
- 공연예술: 연극, 무용, 전통예술, 음악, 창작뮤지컬 등

#### □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 전문지 발간, 비평·연구 및 학술행사, 디지털 비평활동

#### □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 □ 공연장대관료지원

- 공연예술분야: 연극(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

#### □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 기초공연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 올해의 신작

- 연극, 무용, 전통예술, 창작뮤지컬, 창작오페라

□ 올해의 레퍼토리

- 연극, 무용, 전통예술, 창작뮤지컬

□ 오작교프로젝트

- 국악·양악 오케스트라

□ 지속연주지원

- 국악, 양악: 관현악(협주곡)·실내악·편성의 작품 및 창작 합창곡을 실현(재연)

□ 창작오페라 발굴지원

□ 창작뮤지컬 해외 유통지원

라. 국제예술교류

□ 예술가 해외 레지던스 지원

- 비지정: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 지정
  - 문학: 시인, 소설가, 극작가, 아동문학가
  - 시각예술: 작가 및 큐레이터
  - 공연예술: 연극 분야 예술가, 무용수, 안무가, 축제기획자, 음악가(전자음악 포함), 기획자
- 국가별
  - 네덜란드 라익스아카데미 레지던스: 설치, 영상, 미디어아트 회화, 사진 등
  - 독일 베타니엔 스튜디오: 미디어, 사진, 회화, 설치, 영상매체
  - 오스트리아 댄스웍: 무용가, 안무가
  - 더플레이스 CHOREODROME 프로그램: 무용가, 안무가

- 스웨덴 국립전자음악스튜디오(EMS) 레지던스 프로그램: 작곡가, 전자음악가, 사운드 디자이너

#### 마. 예술인력육성

#####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 문학: 시, 소설
- 시각예술: 작가, 큐레이터
- 공연예술: 연극, 무용, 음악
- 기획(aPD): 문화예술기획자
- 무대예술: 조명, 음향, 무대, 영상, 디자인

##### □ 문화예술기관·단체 연수단원 지원

- 창작 및 실연분야: 실연자(연주자, 성악가, 무용수, 배우 등), 제작·기획(연출자, 의상 및 무대 제작 등), 큐레이터, 도슨트, 무대기술(음양, 무대, 조명 등)
- 경영분야: 홍보·마케팅(펀드레이징, 티켓관리, 후원회 관리 등), 경영 일반(총무, 세무, 회계, 인사, 조직관리 등)

##### □ 공연예술전문인력(스태프) 지원

- 공연기획·경영 전문인력: 공연기획·경영, 홍보 및 마케팅 등
- 무대예술(기술) 전문인력: 무대조명, 무대음향, 무대기계·장치, 무대감독

#### 바. 예술의 관광자원화

##### □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 공연예술분야: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 □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 전통예술 분야 중심으로 문학, 시각예술, 연극/뮤지컬 등 공연예술, 기술 등 연계 공연도

가능

사. 신나는 예술여행

□ 신나는 예술여행(순회처 매칭형)

-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예술일반(다원예술)

## 제2절 해외 문화예술 지원 현황

### 1. 미국의 문화예술 지원체계

#### 가. 미국의 문화예술 지원정책 역사 및 배경

- 미국은 “대표적인 시장주의 예술정책 국가”(현지은, 2009: 32)로 어느 국가보다도 사적 지원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음(이현선, 2011: 16).
  - 왕실, 귀족, 교회 등의 후원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지원이 이뤄진 유럽과는 달리 미국은 20세기 초반까지 미국 연방정부를 통한 지원은 제한적임.
  - 공공자원의 범위에 대한 견제는 미국이 독립 국가로 선포한 이후에 사회적으로 지속되어 온 정부의 역할에 대한 관념에 대한 논의와도 연관이 있음(김의석, 2017: 55).
- 1930년대에 들어 처음으로 루스벨트 정부가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예술가 지원 프로젝트인 ‘최고의 연방정부 프로젝트(Federal One)’<sup>45)</sup>를 추진했고,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1961년부터 예술지원 정책 개발을 시작함(현지은, 2009: 32).
  - 이를 통해 1965년 연방의회에서 문화예술 지원 공공기관으로 국립예술기금을 창설함.
- 국립예술기금(NEA: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이 설립된 이후로도 1990년대에 이른바 ‘문화전쟁’<sup>46)</sup>을 겪으며, 기관의 존폐에 대한 논쟁이 지속해 왔음.
  - 예술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예술가들의 국가 통제에 대한 우려와 예술에 대한 공공자원에 대한 적대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의 문화예술지원은 지속적인 논쟁거리로 존재했음(현지은, 2009: 33).
- 오랜 논쟁 끝에 1996년 “장르별 예술창작과 발표활동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던 것을 예술교육과 예술에 대한 접근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현지은, 2009: 33)하며 ‘국립예술기금

45) 1935년 미국 공공산업진흥국(WPA: Work Progress Administration)이 미술가, 배우, 작가, 음악가 등 예술가에게도 뉴딜 사업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연방 작가 프로젝트(FWP)’, ‘역사 자료 조사(HRS)’, ‘연방 연구 프로젝트(FRP)’, ‘연방 음악 프로젝트(FMP)’, ‘연방 미술 프로젝트(FAP)’ 등 5개 사업으로 진행(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Federal\\_Project\\_Number\\_One](https://en.wikipedia.org/wiki/Federal_Project_Number_One), 2019.01.11. 최종 접속)

46) 1987년 국립예술기금으로부터 매칭 지원금을 받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남부현대미술관이 〈오줌 예수〉라는 제목의 작품을 그린 안드레스 세라노의 전시에 지원한 사건과 1988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현대미술관이 국립예술기금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중 일부를 동성애를 주제로 하는 사진작가 로버트 메이플소프의 추모 전시에 사용한 사건에서 논란이 시작됨. 신성모독과 동성애 등을 주제로 하는 문화예술활동에 공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지, 여기서 더 나아가 문화예술활동 자체에 대한 지원에도 이의를 제기했음(최보연, 2016: 142-143).

전략계획 1999-2004'의 첫 번째 전략 목표를 '예술에 대한 접근성'으로 설정함(이현선, 2011: 17).

- 다시 말해, 2000년대 이후 예술활동 자체에 대한 자원보다는 시민참여 및 지역 문화예술 중심으로 방향성을 조정했음(최보연, 2016: 11).
- 이 같은 취지로 2001년부터 예술교육사업과 소외계층의 예술향수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챌린지 아메리카(Challenge America)'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을 확대함.

#### 나. 미국의 문화예술 지원 행정체계

□ 중앙정부에 설치된 국립예술기금으로부터 지역예술재단(RAOs: Regional Arts Organizations), 주립예술진흥원(SAAs: State Art Agencies) 등을 통해 지역으로 정책과 예산이 전달됨.

- 주립예술진흥원은 지역에 따라 중서부, 중부, 애틀랜틱 중부, 뉴잉글랜드, 남부, 서부 등 6개의 지역예술재단으로 나뉘고, 주립예술진흥원마다 지방 예술기관(LAA: Local Arts Agency)이 설치되어 있음.
- 지원체계는 국립예술기금 → (지역예술재단) → 주립예술진흥원 → 지방 예술기관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음(양건열: 2003, 31).

□ 미국의 문화예술 공공지원 체계는 주립예술진흥원을 중심으로 지역 단위에서 활성화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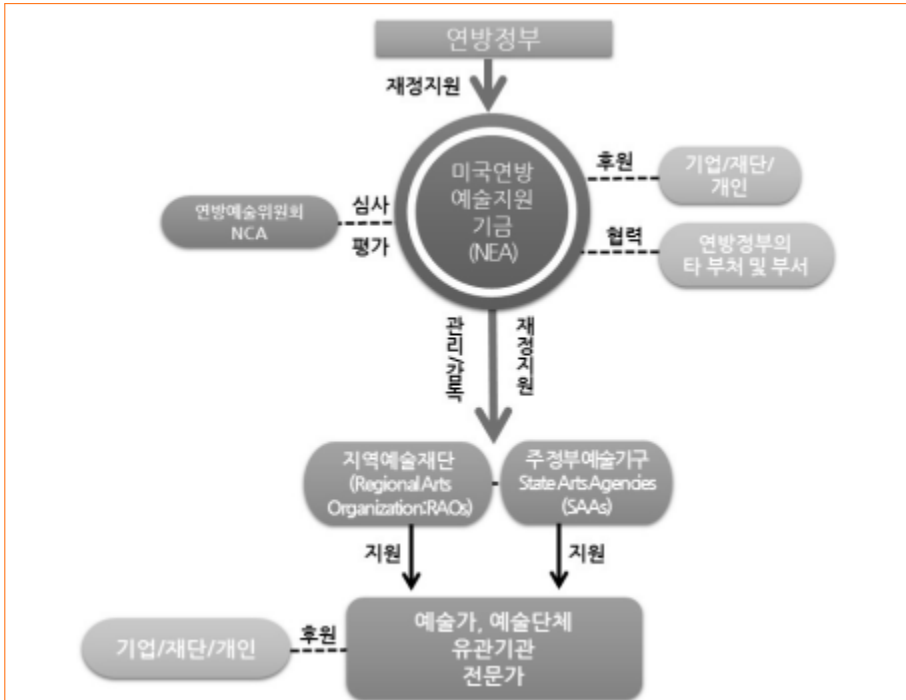
- 국립예술기금이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자금의 75% 이상을 주립예술진흥원이 담당함(양건열, 2003: 31).
- 역사적으로 전국 단위의 문화예술지원보다 지역 단위에서의 공적 지원이 선행되었음.

〈표 25〉 미국 문화예술 지원 체계 내 관련 기관

구분	기구명		역할
재정지원	연방정부		국립예술위원회의 위원과 국립예술기금이 의장 지명, 의회를 통하여 재정지원
관리감독/ 재정운영	국립예술기금 (NEA)		1965년 설립된 독자적 연방기구로 미국의 예술 및 예술가 지원을 목표로 함 각 주와 지역 예술단체에 기금 지원, 의회 명령에 따라 40%를 각 주와 지역의 예술기관에 할당 국립예술위원회를 통해 예술적 자문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금 분배 및 단체 선정과정 진행 개인 및 기업 기부제도를 예산운용에 적극 활용
수혜기관	예술단체/ 기관	지역예술재단 (RAOs)	비영리 형태로 지역별로 대서양 중부, 남동, 북동, 중부, 중서부, 서부지역 등 6개 지역 중소 예술재단과 주립 예술국에 기술적 지원 제공, 지역 예술가와 기관 후원을 목적으로 함
		주립예술진흥원 (SAAs)	56개 주정부 소속의 주정부 예술기구로서 주정부의 직속기관으로 운영되거나 타부서와 공동관리, 독립기관, 민간 비영리기관 등 주별로 운영형태 상이 국립예술기금이 전체 예산의 40% 가량을 지원, 주정부에서 나머지 예산 지원, 각 주별 예술진흥 역할 담당
후원	개인, 민간단체 기업		연방 및 주의 연방예술지원기금 기부 및 예술단체, 예술가에 직접 기부 독려
협력관	주 정부		연방 각 부처의 경우, 국립예술기금의 사업활동 영역과 관련하여 다양한 협력사업 진행 주 정부 차원에서도 각 주의 예술활동에 예술기금 활동 지원
	연방정부 부처		
	기타 공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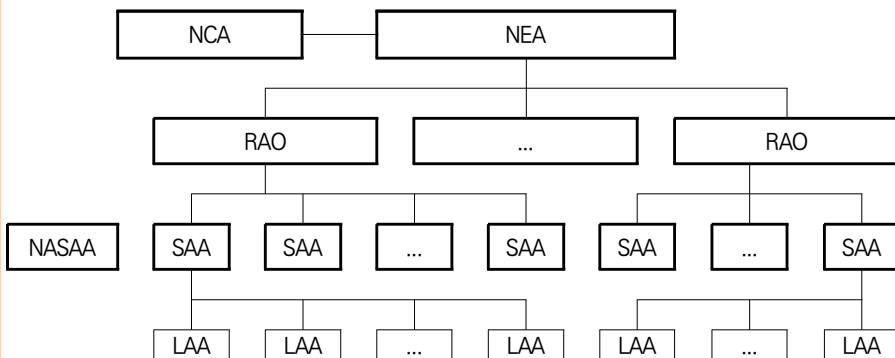
자료: 류정아(2015 :54), NEA(2014)에서 재인용





〈그림 45〉 미국 문화예술 지원 체계의 관계도

자료: 류정아(2015: 54)



〈그림 46〉 미국 문화예술 지원 체계

자료: 조화연(2008, 46)

□ 문화예술정책 관련 정부 부처 간 협력은 국립예술기금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음(NEA, 2014).

- 국립인문학기금, 연방정부기관 중 문화예술 관련 주요 기구들은 국립예술기금을 중심으로 협력을 진행하며, 각 기관 및 부처의 역할과 기능을 조합해서 문화예술 관련 활동을 지원함.
- 다양한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하나의 기관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활동을 추진할 수 있고, 문화예술행정의 확장에 기여함(최보연, 2016: 147).



〈그림 47〉 미국 국립예술기금과 타 연방정부부처 및 기관 사이의 협력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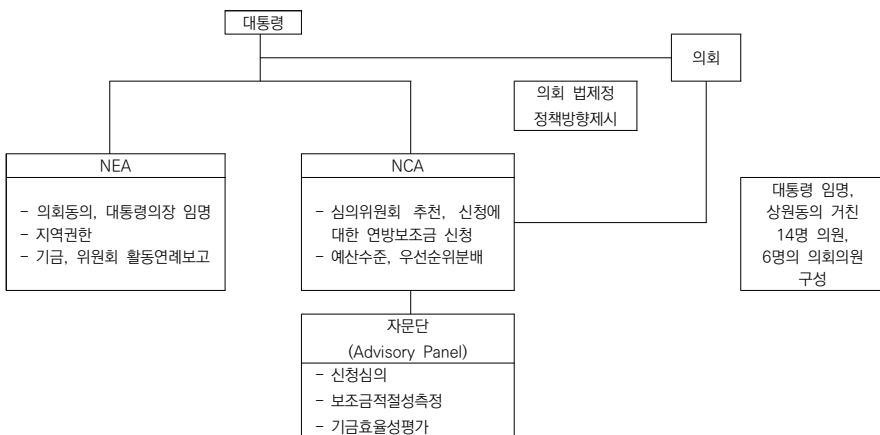
자료: NEA(2014: 21); 최보연(2016: 148)에서 재인용)

### 다. 미국의 문화예술 지원 주요 기관

#### 1) 국립예술기금(NEA: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 (1) 역할 및 위상

- 국립예술기금은 문화예술인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인 동시에 독자성이 보장되는 특수성을 가진 기관임.
- 국립예술기금의 의장은 미국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고, 20명의 예술 분야 전문가 및 예술가로 구성된 국가예술위원회(NCA: National Council on the Arts)가 국립예술기금에 자문을 제공함(양건열, 2003: 144).
  -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국립예술위원회는 국립예술기금의 사업 방향, 예산 배정 등 정책 자문을 담당함.
  - 국립예술기금은 연방 차원의 문화예술 관련 자원정책 수립, 개인, 비영리단체, 주와 지역별 예술담당부처 등에 보조금 지원,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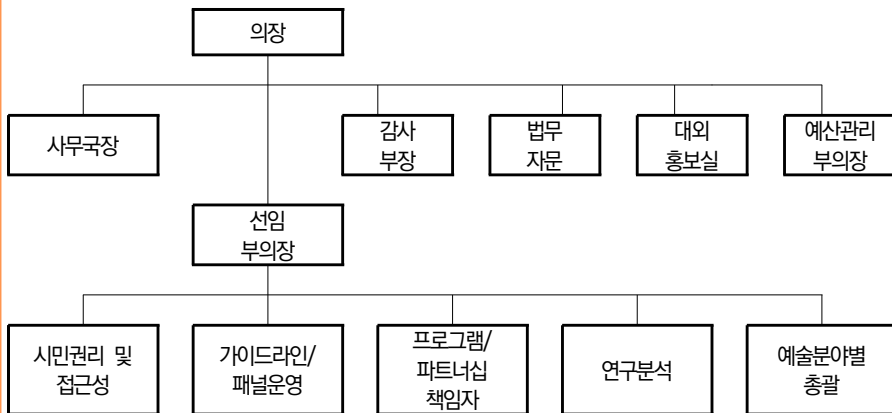
〈그림 48〉 미국 국립예술기금의 운영구조

자료: 한국문화예술진흥원(2003: 99), 조화연(2008: 44)에서 재인용

- 문화예술과 관련한 유일한 연방정부 부처로, 설립 당시에는 국립예술기금의 목적이 정책 조성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최보연, 2016: 147), 사실상 “국립예술기금의 사업과 그 방향성은 미국의 문화예술정책으로 이해될 정도”의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음(김익석, 2017: 55).
- 국립예술기금이 국가 예산을 분배하는 재정지원은 사실상 정책으로 보일 수 있다는 시각이 있음(John K. Urice, 2010: 7).
  - 미국 내 7개의 지역예술재단과 50개 주와 6개의 관할구역에 있는 주립예술진흥원을 통해 국립예술기금의 예산과 정책을 전달함.

## (2) 조직 구성 체계

- 국립예술기금은 크게 행정부서(Administrative Offices)와 사업부서(Program Divisions)로 분류됨.
- 행정부서는 의장실을 비롯하여 재무, 회계, 연구, 법무, 인사, 가이드라인 및 패널 운영 등 17개 부서로 구성됨<sup>4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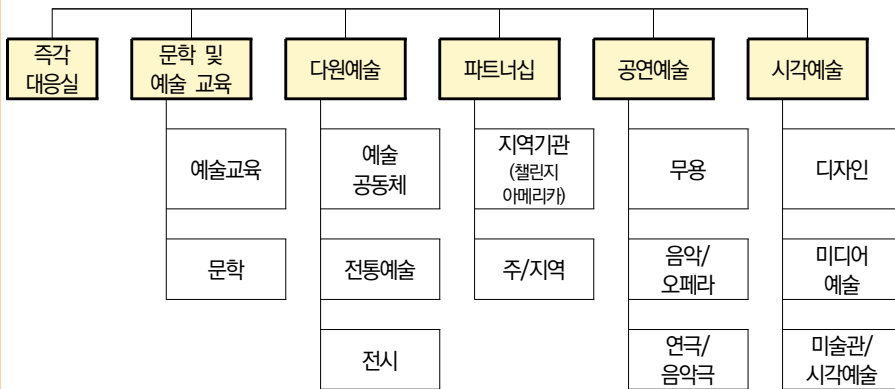


〈그림 49〉 미국 국립예술기금 행정부서 조직도

자료: NEA 웹사이트(<https://www.arts.gov/sites/default/files/NEA-Organization-Chart.pdf>, 2019년 3월 21일 최종접속)  
 주: 부서별 한국어 명칭은 최보연(2016: 154) 참조

47) <https://www.arts.gov/staff>, 2019.01.08. 최종 접속

- 국립예술기금 웹사이트에서는 2019년 현재 17개 부서로 구성된 행정부서를 나열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조직도는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14년 조직도를 참고했음.
- 사업부서는 예술 장르별로 분류된 문학 및 예술교육, 공연예술, 시각예술, 다원예술로 구성된 4개 부서와 주 정부 및 지역 등 협력사업을 담당하는 1개의 부서로 구성됨.
- 행정부서 및 사업부서와는 별도로 '즉각 대응실(Immediate Office)'이 설치되어 있음(최보연, 2016: 154).



〈그림 50〉 미국 국립예술기금 사업부서 조직도

자료: NEA 웹사이트(<https://www.arts.gov/sites/default/files/NEA-Organization-Chart.pdf>, 2019년 3월 21일 최종접속)

주: 부서별 한국어 명칭은 최보연(2016: 154) 참조

### (3) 주요 지원사업

□ 국립예술기금의 지원 형태는 지원/협력 대상에 따라 크게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예술가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 주 정부 및 지역의 협력사업 등 세 가지로 분류됨.

- 단체와 개인에 대한 지원은 직접지원, 주 정부와 지역과의 협력사업은 간접지원 형태임.
- 국립예술기금의 예산은 의회로부터 받으며, 의회의 명령에 따라 전체 기금의 40%를 협력사업에 할당하도록 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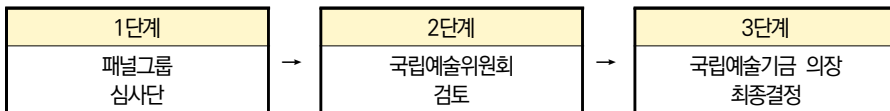
〈표 26〉 미국 국립예술기금의 지원사업 분류

직접지원	단체지원	아트웍스(Art Works) 챌린지 아메리카(Challenge America) 아워 타운(Our Town) 연구: 아트웍스(Research: Art Works)
	개인지원	문학 기금(Literature Fellowships) 일생의 명예상(Lifetime Honors)
간접지원	협력사업	주/지역 정부(State & Regional) 정부 협력(Government Partnerships)

자료: 미국 국립예술기금 2018 안내서(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2018 Guide)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리

□ 직접지원 신청자 및 입후보자는 3단계 심사(패널그룹심사단-국립예술위원회-국립예술기금 의장)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발하여 문화예술지원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음(최보연, 2016: 153).

- 패널그룹심사단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 심사단으로, 다수의 예술 전문가와 소수의 비전문가로 구성함. 미공개 심사과정을 거쳐 국립예술위원회에 추천 목록을 제출함. 추천 목록에 해당하는 분과별 담당자가 예산 검토를 실시하고, 지원 금액을 조정함.
- 국립예술위원회는 추천 목록과 조정된 예산을 함께 검토하여 공개적인 심사과정을 진행함.
- 국립예술기금 의장이 최종 서류 검토를 하고, 최종 결정을 내림.



〈그림 51〉 패널심사과정 3단계

자료: 최보연(2016: 153)

□ 국립예술기금의 지원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단체지원은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제공함(최보연, 2016: 151).

- 공공지원은 명확하게 공공성을 가진 비영리단체만을 대상으로 제공함(정훈, 2008: 35).

예술단체, 지방 예술기관, 예술 서비스 단체, 지역 교육기관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지원금을 일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고, 1:1 매칭펀드 형태로 제공되어 전체 사업비의 일부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체지원 4개 사업은 모두 국립예술기금에서 다루는 문화예술 장르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지원 신청 시, 문화예술 장르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표기하게 되어있지만, 사업별로 특정 장르에 지원이 제한되는 것은 아님. 사업의 구분은 예술활동의 목적에 따라 구분함.

- '아트웍스'는 다양한 형태의 우수한 예술에 대중의 참여 및 접근 확대, 높은 수준의 예술창작, 전 생애 단계에서 예술 학습, 공동체 생활 구조와 예술의 통합 등 네 가지 사업목표 제시함.
- '챌린지 아메리카'는 중소 규모의 단체를 중심으로 지리, 인종, 경제, 장애 등의 한계로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소외계층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의 사업임.
- '연구: 아트웍스'는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다양한 분야의 예술 관련 연구자들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임. 양적조사에 해당하는 '가치 및 영향력 조사'와 질적 조사에 해당하는 '(준)실험 설계', 두 가지 영역을 구분하여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아워타운'은 공간조성 지원사업으로, 예술, 문화, 디자인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및 사회 발전을 도모하여 공동체를 강화하는 사업에 지원함. 공간 기반 사업과 지식 구축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을 제공함.

□ 개인지원은 크게 문학 기금과 일생의 명예상으로 구성되어 있음.

- 문학 기금은 창작 작가(Creative Writers)와 번역가(Translators)를 구분하여 지원함. 창작 작가 기금을 통해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임. 해를 번갈아 산문과 시 분야에 격년제로 지원금을 지급함(양건열, 2003: 145).
- 일생의 명예상은 재즈장인기금(NEA Jazz Masters Fellowships), 국가유산 기금(NEA National Heritage Fellowships), 국립예술훈장(National Medal of Arts) 등 연방정부 부가 분야별 뛰어난 예술가를 승인하여 대통령상(Presidential Award)으로 수여함.

□ 파트너십 지원은 주/정부 기관을 비롯한 여러 연방 기구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지역 예술가 및 단체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국립예술기금의 전체 예산의 40%에 해당하는 기금을 주립예술진흥원과 지역예술기관에

분배하고 있음.

- 예술 및 예술품 보상 프로그램, 예술 및 인류 예술 교육 파트너십, 블루스타 뮤지움, 지역 디자인 시민 연구소, 군복무자 치유 예술 네트워크 등 다양한 파트너십 사업을 진행 중임.<sup>48)</sup>

#### (4) 분류체계 및 장르 구분

□ 미국 국립예술기금의 문화예술 분류체계는 지원사업 중 단체지원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사업부서에 따른 분류체계와 지원사업의 목적에 따른 분류체계 등 두 가지 차원에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문화예술의 장르를 구분함.

□ 국립예술기금의 단체지원 프로그램은 공통적으로 지원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은 장르로 구분하여 신청하도록 안내되어 있음.

- 국립예술기금의 이러한 분류체계는 앞서 언급한 조직도를 고려해봤을 때, 조직 내 사업부서에 따른 업무 배분을 위한 구분으로 보임. 지원사업은 모든 분야의 문화예술을 통합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음.

〈표 27〉 미국 국립예술기금의 단체지원 프로그램 세부 장르 구분

부서명	분류
문학개론/예술교육	문학(Literature)
	예술 교육(Arts Educations)
다원예술	예술가 공동체(Artist Communities)
	민속/전통예술(Folk/Traditional Arts)
	다원예술/재현(Presenting & Multidisciplinary Works)
파트너십	지역 예술 기관(Local Arts Agencies)

48) 협력 사업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Arts and Artifacts Indemnity Program', 'Arts & Humanity Development Task Force', 'Arts Education Partnership', 'Blue Star Museums', 'Citizen's Institute on Rural Design', 'Creative Force: NEA Military Healing Arts Network', 'Mayor's Institute on City Design', 'Musical Theater Songwriting Challenge', 'NEA Big Read', 'Poetry Out Loud', 'Save America's Treasure', 'Shakespeare in America Communities' 등 12개 프로그램. (출처: 국립예술기금 신청 안내서)



부서명	분류
공연예술	무용(Dance)
	음악(Music)
	오페라(Opera)
	연극(Theater)
	음악극(Music Theater)
시각예술	디자인(Design)
	미디어 예술(Media Arts)
	시각예술(Visual Arts)
	박물관(Museums)

자료: 미국 국립예술기금 웹사이트에 제시된 장르 구분을 국립예술기금의 사업부서에 맞춰 재정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분류체계와 비교 시, 보다 세분화된 분류체제로 볼 수 있음.

- 오페라와 음악극이 연극과 별개로 각각 구분됨.
- 디자인과 미디어 예술, 박물관 3개가 시각예술과 별개로 구분됨.

〈표 28〉 미국 국립예술기금의 분류체계(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분류체계와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국 국립예술기금
문학		문학(Literature)
시각예술		시각예술(Visual Arts)
		미디어 예술(Media Arts)
		디자인(Design)
공연예술	무용	무용(Dance)
	연극	연극(Theater)
		오페라(Opera)
	음악	음악극(Music Theater)
		음악(Music)
전통예술		민속/전통예술(Folk/Traditional Arts)
다원예술		다원예술/재현(Presenting & Multidisciplinary Works)
예술일반		예술 교육(Arts Educations)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국 국립예술기금
	박물관(Museums)
	예술가 공동체(Artist Communities)
	지역 예술 기관(Local Art Agencies)

□ 지원사업의 분류체계는 매년 발표하는 5년 단위의 전략계획을 반영하여 1997년 이후로 여러 차례 변화를 도모함.

- 조직 및 사회의 환경 변화에 따라 분류체계의 수정이 필요함을 시사함.

〈표 29〉 지원사업 분류체계의 주요 변화

~1996	1997	2000	2005	2012
무용 디자인 확장예술 민속/전통예술 국제 문학 매체예술 다원 미술관 음악 음악극 표현 연극 시각예술 예술교육 기획, 연구, 기술	창작과 표현 교육과 접근 유산과 보존 기획과 안정화	창작과 표현 교육 접근 유산과 보존 기획과 안정화 라디오/텔레비전 예술	예술적 우수성에 대한 접근 예술 교육	예술 창작 예술 참여 지식 증진

자료: NEA 연도별 연차보고서를 참조(NEA, 1996; NEA, 1997; NEA, 2000; NEA, 2005; NEA, 2012)

□ 1996년까지 장르별로 지원하던 체계를 1997년부터 창작과 표현(Creation and Presentation), 교육과 접근(Education and Access), 유산과 보존(Heritage and Preservation), 기획과 안정화(Planning and Stabilization) 등 총 4가지 주제에 따라 재구성함.

- 이러한 변화는 재원의 감소로 국립예술기금의 사명에 보다 초점을 맞춰 효율성을 높이고 자 하는 목적을 반영한 것으로, 이를 통해 공동체 및 국가 안에서 예술의 역할이 무엇인지

재고하는 기회로 삼기를 기대함(NEA, 1995: 3).

□ 이후로 여러 차례 변화를 거쳐 현재 분류체계는 예술 창작(Creation of Art), 예술 참여(Engagement with Art), 지식 증진(Promoting Knowledge) 3개로 구성됨.

- 주제에 따라 분류체계를 재구성한 이후로도 분류체계를 지속적으로 통합하여 점차 간소화되는 과정을 통해 장르 자체의 의미는 더욱더 적어졌고, 장르보다는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임.
- 이는 문화예술활동에 대해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대중이 우수한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립예술기금의 역사와 배경도 함께 반영한 분류체계로 보임.

## 2) 주립예술진흥연합회(NASAA: National Assembly of State Arts Agencies)

### (1) 역할 및 위상

□ 주립예술진흥원(SAAs: State Arts Agencies)의 연합단체로 주립예술진흥원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설립했음.

- 주립예술진흥연합회는 각 주에 설치된 주립예술진흥원의 연합단체로, 주립예술진흥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임(김의석, 2017: 34).
- 50개 주와 6개 특별구역 및 자치령으로 구성된 연방국가의 행정 특수성을 반영하여 각 주/구역마다 하나씩 총 56개의 주립예술진흥원 설치되어 있음(이현선, 2011: 21). 주마다 독립기구, 위원회, 주 정부 등 형태는 다양함.

〈표 30〉 주립예술진흥원의 조직 구조

형태	개수(개)	비율(%)
독립기관	28	50.0
문화부 소속	11	19.0
경제개발부 소속	6	10.7
내무부 소속	4	7.1
교육부 소속	3	5.3

형태	개수(개)	비율(%)
자치단체장 직속	2	3.6
기타기관	2	3.6
합 계	56	100.0

자료: 조화연(2008: 45)에서 재인용

- 주립예술진흥연합회의 세 가지 사명은 대표성(Representation), 지식(Knowledge), 공동체(Community)로 주립예술진흥원의 활동과 연대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역할임. 자체 지원 프로그램은 없음.

〈표 31〉 주립예술진흥연합회의 세 가지 사명

사명	내용
대표성	주립예술진흥원을 위한 옹호 기관, 정부 지도자에게 예술의 중요성 주장 공공 정책 수립, 다양한 분야의 지원 촉진
지식	공식 자료 배포, 주립예술진흥원 활동의 중요성 강조, 예술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 근거 마련 등
공동체	주립예술진흥원 간 화합과 연결을 도모 주립예술진흥원의 업무 활성화, 공통 목표를 중심으로 회원의 통합, 공동 비전 구축

자료: NASAA(2017: 5)

## (2) 주립예술진흥원(SAAs)의 공통 분류체계

- 56개 주립예술진흥원은 각자만의 지원사업을 진행하지만, 최종 사업보고서 제출 시 통일된 분류체계를 표기하도록 요구함(NASAA, 2018: 1).
- 대분류와 소분류, 2개 차원으로 구분해서 문화예술활동을 분류함. 대분류는 15개, 소분류는 56개로 구성된 분류체계임(아래 표 참고).
    - 음악의 하위분류인 뉴(New)에는 실험, 전자음악을 포함하며, 팝(Pop)에는 록(Rock) 장르도 포함함.
    - 시각예술의 하위분류인 그래픽은 조판술, 북아트 등을 일컫는 것으로 그래픽 디자인은

디자인의 하위분류인 그래픽에 포함됨.

- 미디어 예술의 하위분류인 오디오에는 라디오 및 음향 설치가 포함됨.
- 융합예술은 두 개 이상의 장르를 하나의 형태로 융합한 예술을 말함. 다원예술은 두 개 이상의 분야에서의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운영비 지원도 포함)으로, 활동 중 대부분이 하나의 분야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에 해당함.
- 민속/전통예술은 민족, 종교적, 언어학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예술활동을 일컬음. 하위분류로 세분화한 무용, 음악, 시각예술 등의 장르로 구분할 수 없는 활동도 포함함.
- 인문학은 역사, 철학, 언어, 문학, 언어학, 고고학, 법학, 예술사 및 비평, 윤리학, 비교종교학 등을 포함함.

〈표 32〉 미국 주립예술진흥연합회 예술문화 장르 구분(결과보고서 제출 시 표기)

무용 (Dance)	발레(Ballet)	공예 (Crafts)	도자기(Clay)
	민족/재즈(Ethnic/Jazz)		섬유(Fiber)
	현대(Modern)		유리(Glass)
음악 (Music)	밴드(Band)		가죽(Leather)
	챔버(Chamber)		금속(Metal)
	합창(Choral)		종이(Paper)
	뉴(New)		플라스틱(Plastic)
	민족(Ethnic)		목공예(Wood)
	재즈(Jazz)		혼합(Mixed Media)
	팝(Pop)	사진	사진(Photography)
	독주/연주회(Solo/Recital)	미디어 예술 (Media Art)	영화(Film)
	오케스트라(Orchestral)		오디오(Audio)
오페라/ 음악극	오페라(Opera)		비디오(Video)
	음악극(Music Theatre)		기술/실험(Technology/Experimental)

연극 (Theatre)	일반(General)	문학 (Literature)	소설(Fiction)
	마임(Mime)		비소설(Non-Fiction)
	인형극(Puppet)		극작(Playwriting)
	아동극(Theatres for Young Audiences)		시(Poetry)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융합예술	융합예술(Interdisciplinary)
시각예술 (Visual Arts)	실험(Experimental)	민속/ 전통예술 (Folklife/ Traditional Arts)	민속/전통 무용 (Folk/Traditional Dance)
	그래픽(Graphics)		민속/전통 음악 (Folk/Traditional Music)
	회화(Painting)		민속/전통 공예 및 시각예술 (Folk/Traditional Crafts & Visual Arts)
	조각(Sculpture)		구전(Oral Traditions)
디자인 (Design)	건축(Architectures)	인문학	인문학(Humanities)
	패션(Fashion)		다원예술(Multidisciplinary)
	그래픽(Graphic)	다원예술	다원예술(Multidisciplinary)
	산업(Industrial)		비예술/비인문학 (Non-Arts/Non-Humanities)
	인테리어(Interior)	비예술/ 비인문학	비예술/비인문학 (Non-Arts/Non-Humanities)
	조경(Landscape Architecture)		비예술/비인문학 (Non-Arts/Non-Humanities)
	도시(Urban/Metropolitan)		비예술/비인문학 (Non-Arts/Non-Humanities)

자료: NASAA(2015)

□ 한국 문화예술위원회의 분류체계와 비교 시(대분류 기준), 보다 세부적인 분류체계로 구성됨.

- 다원예술과 융합예술을 구분함(둘의 차이는 위를 참고).
- 오페라와 음악극을 연극과 별개로 하나의 분류체계로 구분함.
- 디자인, 공예, 사진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시각예술의 하위분류로 구성되는 항목들을 개별 분류체계로 구분함.
- 융합예술, 인문학, 그리고 비예술/비인문학 3개의 분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분류체계에서 비교 가능한 분류가 없음.

〈표 33〉 미국주립예술진흥연합회 문화예술장르 분류체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국 주립예술진흥연합회
문학		문학(Literature)
시각예술		시각예술(Visual Arts)
		공예(Crafts)
		디자인(Design)
		사진(Photography)
		미디어 예술(Media Arts)
공연예술	음악	음악(Music)
	연극	오페라/음악극(Opera/Music Theater)
		연극(Theater)
	무용	무용(Dance)
전통예술		민속/전통예술(Folklife/Traditional Arts)
다원예술		다원예술(Multidisciplinary)
예술일반		
		융합예술(Interdisciplinary)
		인문학(Humanities)
		비예술/비인문학 (Non-Arts/Non-Humanities)

## (3) 각 주립예술진흥원의 분류체계

## □ 뉴욕 주립예술진흥원(뉴욕주 예술위원회, New York State Council on the Arts)

- 뉴욕 주립예술진흥원은 장르별로 지원 사업을 구분하고 있음.
- 다른 주립예술진흥원은 대체로 장르별 구분 없이 주제 및 대상별로 지원 사업을 구성하고 있으며,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지원 사업 내에서 분류체계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임.

〈표 34〉 뉴욕 주립예술진흥원 문화예술장르 분류체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뉴욕 주립예술진흥원
문학		문학(Literature)
시각예술		시각예술(Visual Arts)
		전자 미디어 및 영화(Electronic Media & Film)
공연예술	음악	음악(Music)
	무용	무용(Dance)
	연극	연극(Theatre)
전통예술		민속예술(Folk Arts)
다원예술		다원(Multidisciplinary)
예술일반		특별 예술 서비스(Special Arts Services)
		표현(Presenting)
		박물관(Museum)
		시설(Facilities)

자료: 뉴욕주 예술위원회 웹사이트(<https://www.arts.ny.gov/programs>, 2019년 2월 8일 최종 접속)

#### □ 플로리다 주립예술진흥원(플로리다 문화부, Florida Division of Cultural Affairs)

- 플로리다 주립예술진흥원은 지원 사업 중 예술 장르를 기반으로 하는 지원 사업이 있음. 장르 구분으로 지원 대상을 평가할 심사위원을 결정하게 됨.
  - 이외에 예술교육, 지역 예술기관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음.
- 각 장르의 세부 설명을 제시하고 있음.
  - 다원예술은 2개 이상의 예술 형태를 제작하는 것을 말함.
  - 박물관에는 미술관, 역사 박물관, 어린이/청소년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이 포함됨.
  - 전통예술은 전통예술 작품 및 예술가가 참여하는 공연, 전시, 축제 등이 있음.
  - 시각예술의 활동 형태는 강의, 출판, 전시, 교육, 워크숍, 직업 개발 등이 될 수 있음.



〈표 35〉 플로리다 주립예술진흥원 문화예술장르 분류체계(장르 기반 지원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플로리다 주립예술진흥원			
문학		문학(Literature)			
시각예술		시각예술(Visual Arts)			
		미디어 예술(Media Arts)			
공연예술	음악	음악(Music)		표현(Presenter)	
	무용	무용(Dance)			
	연극	연극 (Theatre)	공동체(Community)		
			전문(Professional)		
전통예술		전통예술(Traditional Arts)			
다원예술		다원(Multidisciplinary)			
예술일반					
		박물관(Museum)			

자료: 플로리다주 문화부(2018)

## □ 노스다코타 주립예술진흥원(노스다코타 예술위원회, North Dakota Council on the Arts)

- 지원사업은 크게 예술교육, 전통예술, 일반 예술로 나누어 제공됨.

〈표 36〉 노스다코타 주립예술진흥원 지원 사업

지원 사업	세부 내용
예술교육	Artist in Residence, Artist in Residence Roster, New Teaching Artist Application, Arts Ed Collaboration 등
전통예술	Folk and Traditional Arts Apprenticeship, Apprenticeship Application Instructions 등
일반예술	Community Arts Access, Individual Artist Fellowship, Institutional Support, Professional Development, Special Projects 등

자료: 노스다코타 주립예술진흥원 웹사이트(<http://www.nd.gov/arts/grants>, 2019년 2월 8일 최종 접속)

- 일반 예술 지원 사업은 예술가 개인, 예술단체, 공동체 등 대상별로 사업이 구분되어 있음.
- 개인 지원사업은 장르별로 구분이 되어있고, 각 장르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름.

〈표 37〉 노스다코타 주립예술진흥원 문화예술장르 분류체계(일반 예술 - 개인 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노스다코타 주립예술진흥원	
문학		문학 (Literature)	시(Poetry)
			소설(Fiction)
			아동문학(Children's literature)
시각예술		시각예술 (Visual Art)	도자기공예(Clay)
			섬유공예(Fiber)
			유리공예(Glass)
			가죽공예(Leather)
			금속공예(Metal)
			혼합공예(Mixed media)
			종이공예(Paper)
			플라스틱공예(Plastic)
			목공예(Wood)
			회화(Drawing)
			조각(Sculpture)
			그래픽(Graphic)
			사진(Photography)
			실험(Experimental)
		미디어 예술 (Medial Arts)	오디오(Audio)
			영화/비디오(Film/Video)
			시나리오(Screenwriting)
공연예술	음악	음악(Music)	작곡(Composing)
			지휘(Conducting)
			공연(Performance)
	무용	무용(Dance)	안무(Choreography)
			공연(Performance)
	연극	연극 (Theatre)	(조명·의상·무대) 디자인(Design)
			뮤지컬(Musical)
극작(Playwriting)			
전통예술		전통예술 (Traditional Arts)	공예/시각예술(Crafts/Visual Art)
전통 무용(Traditional Dance)			
전래음악/구전(Music/Oral Traditions)			
다원예술			
예술일반			

자료: 노스다코타 예술위원회 웹사이트(<http://www.nd.gov/arts/grants/general/individual-artist-fellowship>)

□ 사우스다코타 예술진흥원(사우스다코타 예술위원회)

- 기본적으로 장르 구분 없이 개인, 단체 등 대상별로 지원사업을 제공함.
- 대신 장르별로 요구되는 제출 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아래의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있음.  
전통예술이 각 예술 장르에 포함되어 있음.
- 서류 제출 시에는 미국 주립예술진흥원 연합회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표기하게 되어있음.

〈표 38〉 사우스다코타 예술위원회 장르 분류체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우스다코타 예술위원회	
문학	문학 (Literature)	시(Poetry)	소설(Fiction)
		연극(Plays)	영화(Screenplays)
		창의적 비소설(Creative non-fiction)	
시각예술	시각예술 (Visual arts)	소묘(Drawing)	회화(Painting)
		판화(Printmaking)	조각(Sculpture)
		사진(Photography)	홀로그래피(Holography)
		디지털 예술(Digital art)	공예(Crafts)
		혼합 매체(Mixed media)	
	미디어 예술 (Media arts)	-	
	디자인 (Design arts)	건축(Architecture)	조경(Landscape architecture)
		제품(Product design)	그래픽(Graphic design)
		도시(Urban design)	역사 보존(Historic Preservation)
		공동체 기획(Community planning)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우스다코타 예술위원회		
공연 예술	음악	음악 (Music) : 작곡/공연	클래식(Classical)	전통(Traditional)
			합창(Choral)	재즈(Jazz)
			현대(Contemporary)	실험(Experimental)
			팝(Popular)	오페라(Opera)
	무용	무용 (Dance) : 안무/공연	발레(Ballet)	현대(Modern)
			재즈(Jazz)	탭(Tap)
			전통(Traditional)	
	연극	연극 (Theater) : 제작/공연	마임(Mime)	인형극(Puppet)
			이야기(Storytelling)	음악극(Musical theater)
			아동극(Theater for young audiences)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자료: 사우스다코타 예술위원회 웹사이트(<https://sdac.gosmart.org/page.php?id=109>)

#### □ 미주리주 예술진흥원(미주리 예술위원회, Missouri Arts Council)

- 연간(Annual) 지원사업과 급행(Express)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음.
  - 급행 지원사업은 심사 절차가 간단한 소액 지원사업이고, 연간 지원사업은 심사 절차가 엄격하고 까다로운 대규모 지원사업임.
  - 각 지원사업이 지원하는 장르 및 대상이 다름.

〈표 39〉 미주리 주립예술진흥원의 지원 사업

사업 종류	지원 장르 및 대상
연간 지원사업 (Annual Grants)	예술교육, 소수 예술, 순회(공연), 예술 위원회(기본), 학생 예술 체험
급행 지원사업 (Express Grants)	예술교육, 민속예술, 소수 예술, 예술 장르(문학, 음악, 무용 등), 역량 강화, 예술위원회 (운영, 프로젝트)

자료: 미주리 예술위원회(2018)

- 연간 지원사업의 세부 장르 구분은 다음과 같음.

- 예술협의회로 분류되는 장르는 공동체 예술기관(Community Art Agency)의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 예술 프로그램을 일컬음.

〈표 40〉 미주리 주립예술진흥원의 연간 지원사업의 분류체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주리 주립예술진흥원
문학		문학(Literature)
시각예술		시각예술(Visual Arts)
		전자 미디어 예술(Electronic Media arts)
공연예술	음악	음악(Music)
	무용	무용(Dance)
	연극	연극(Theater)
전통예술		민속예술(Folk Arts)
다원예술		다원 예술(Multidiscipline)
		소수 예술(Minority Arts)
		예술협의회(Art Councils)
예술일반		
		축제(Festivals)
		예술교육(Arts Education)

자료: 미주리 예술위원회(2018)

#### □ 루이지애나 주립예술진흥원(루이지애나 예술부, Louisiana Division of the Arts)

- 지역 예술 위원회(Regional Art Council)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단체 및 사업을 지원하는 분권 예술 지원(Decentralized Arts Funding), 일반 운영 지원(General Operating Support), 지역 예술위원회 운영 지원(Regional Arts Council Operating Support) 등 세 가지 지원사업이 있음.
- 장르별 구분 내용 없음.
- 2010년까지 명예상 수여자들을 다음과 같은 장르별로 구분하고 있음.

〈표 41〉 루이지애나 주립예술진흥원 명예상 수여자 분류체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루이지애나 주립예술진흥원 (명예상 수여자 기준)
문학		문학(Literature)
시각예술		시각예술(Visual Arts)
		미디어(Media)
		비디오(Video)
		디자인(Design Arts)
		공예(Crafts)
공연예술	음악	음악(Music)
	무용	무용(Dance)
	연극	연극(Theatre)
전통예술		민속(Folklife)
다원예술		
예술일반		

자료: 루이지애나 주립예술진흥원 웹사이트(<https://www.crt.state.la.us/cultural-development/arts/fellowship-recipients/index>, 2019년 2월 8일 최종접속)

#### □ 위스콘신 주립예술진흥원(위스콘신주 예술 이사회, Wisconsin Arts Board)

- 위스콘신 주립예술진흥원의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별로 구분되어 제공되고 있음.

〈표 42〉 위스콘신 주립예술진흥원 지원 사업

사업명	지원 대상 및 장르
창작과 표현(Creation and Presentation)	예술가/단체
창의적 공동체 지원(Creative Communities Grants)	공동체
우드랜드 인디언 예술 추진(Woodland Indian Arts Initiative)	전통예술
아트 챌린지 이니셔티브(Arts Challenge Initiative)	비영리기관
위스콘신 재분배 사업(Wisconsin Regranting Program)	지역 예술기관

자료: 위스콘신 주립예술진흥원 웹사이트(<https://artsboard.wisconsin.gov/Pages/Community/GrantPrograms.aspx>, 2019년 2월 8일 최종 접속.)

- 단체 지원 사업 중 창작 활동과 표현 활동에 지원을 제공하는 ‘창작과 표현 지원사업 (Creation and Presentation Grants)’은 다음과 같은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음.

〈표 43〉 위스콘신 주립예술진흥원 단체 지원 사업 ‘창작과 표현’의 분류체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스콘신 주립예술진흥원	
문학		문학(Literary Arts)	
시각예술		시각예술(Visual Arts)	
공연예술	무용	무용(Dance)	
	음악	음악(Music)	
		오페라(Opera)	
	연극	음악극(Musical Theater)	
		연극(Theater)	
전통예술		민속예술(Folk Arts)	
다원예술		다원예술(Multi-Disciplinary Arts)	
예술일반			
		표현(Presenting)	

자료: <https://artsboard.wisconsin.gov/Documents/CPP/FullYearChart.pdf>

#### □ 인디애나 예술진흥원(인디애나주 예술위원회, Indiana Arts Commission)

- 지원 대상별로 개인, 단체, 개인·단체가 신청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표 44〉 인디애나 예술진흥원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사업명
개인		개인 발전 사업(Individual Advancement Program)
단체	단체(일반)	예술 단체 지원(Arts Organization Support III)
		지역 이니셔티브 지원(Regional Initiative Grants)
	공동체	공동체 컨설팅(Community Consultancies)
		주 전역 문화 지구(Statewide Cultural Districts)
	예술 기업가	온램프(On-ramp)
예술교육(학교)		PACE(PACE program)
개인·단체		공원 및 유적지 내 예술(Arts in Parks and Historic Sites)

자료: 인디애나 예술진흥원 웹사이트(<https://www.in.gov/arts/index.htm>)

- 예술가에 대한 개인 지원 사업의 자격요건에 따르면, 매년 장르를 특정하여 지원을 제공함. 2019년에는 공예, 디자인, 미디어, 사진, 시각예술을, 2020년에는 무용, 문학, 음악,

연극, 민속예술을 지원하는 식으로 구분해서 지원함.

-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해당 사업에 지원자가 많기 때문임<sup>49)</sup>.

〈표 45〉 인디애나 주립예술진흥원 개인 지원 사업(IAP) 분류체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디애나 주립예술진흥원
문학		문학(Literature)
시각예술		시각예술(Visual Arts)
		공예(Crafts)
		디자인(Design)
		미디어(Media Arts)
		사진(Photography)
공연예술	무용	무용(Dance)
	음악	음악(Music)
	연극	연극(Theatre)
전통예술		민속예술(Folk Arts)
다원예술		
예술일반		

자료: 인디애나 주립예술진흥원 웹사이트([https://www.in.gov/arts/files/IAP19\\_guidelines.pdf](https://www.in.gov/arts/files/IAP19_guidelines.pdf), <https://www.in.gov/arts/files/FY20-IAP-guidelines.pdf>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2019년 2월 8일 최종 접속)

#### □ 테네시 주립예술진흥원(테네시주 예술위원회, Tennessee Arts Commission)

- 매년 동일하게 지원하는 연간 지원사업(annual grants)과 마감일이 그때그때 다른 수시 지원사업(rolling grants) 두 가지로 크게 나뉘서 진행하고 있음.
- 매해 제공하는 연간 지원사업은 단체, 개인 등 대상별로 구분되어 있음.

<sup>49)</sup> <https://www.in.gov/arts/3024.htm>, 2019년 2월 8일 최종 접속



〈표 46〉 테네시 주립예술진흥원의 연간 지원사업

지원 대상		사업명
단체	프로젝트	Arts Project Support/Rural Arts Project Support (APS/RAPS)
		Arts Build Communities (ABC)
		Arts Access (AA)
	운영	Cultural Education Partnership (CEP)
		Partnership Support (PS)
		Major Cultural Institutions (MCI)
	예술교육	Funds for At-Risk Youth (FAY)
		Arts Education Teacher Training (AE-TT)
		Arts Education Community Learning (AE-CL)
		Arts 360 Arts Integration (Arts360)
개인 지원		Individual Artist Fellowship (IAF)

자료: 테네시 주립예술진흥원 웹사이트(<http://tnartscommission.org/grants-at-a-glance>, 2019년 2월 13일 최종 접속)

- 단체 지원사업에는 장르 구분이 없음.
- 개인 지원사업은 매년 장르별로 2명씩만 선발하는 등 장르별 지원 규모를 제한하고 있음.

〈표 47〉 테네시 주립예술진흥원 개인 지원 사업(IAF) 분류체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테네시 주립예술진흥원
문학		문학(Literary Arts)
시각예술		시각예술(Visual Arts)
		공예(Craft)
		미디어(Media)
공연예술	무용	무용(Dance)
	음악	음악(Music)
	연극	연극(Theatre)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자료: 테네시 주립예술진흥원 웹사이트(<http://tnartscommission.org/grants/individual>, 2019년 2월 8일 최종 접속)

□ 미시시피 주립예술진흥원(미시시피 예술위원회, Mississippi Arts Commission)

- 대상별로 구분하여 개인, 단체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음

〈표 48〉 미시시피 주립예술진흥원의 지원사업

대상	사업명	세부 내용
개인	예술가 장학금 (Artists Fellowship)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개인에게 \$5,000까지 지원
	예술가 소액 지원 (Artists Minigrants)	여행, 행사 등록, 홍보, 재료 비용으로 \$500까지 지원
	민속예술 양성 (Folk Arts Apprenticeship)	공동체 기반 전통예술의 생존을 위해 전통 예술가 개인에게 \$2,000까지 지원
	예술가 명부 (Mississippi Artists Roster)	공연, 워크숍, 거주, 기타 공동체 사업이 가능한 예술가 및 교육가 명부에 등록이 되면 지원 제공
	예술 교육가 명부 (Teaching Artists Roster)	유치원-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예술 활용 전략 개발을 위해 행정가 및 교육가와 협업하는 예술가 지원
단체	소액 지원(Minigrants)	
	사업 지원(Project Grants)	
	운영 지원(Operating Grants)	

자료: 미시시피 주립예술진흥원 웹사이트(<https://arts.ms.gov/grants/grants-for-individuals>, <https://arts.ms.gov/grants-for-organizations>, 2019년 2월 13일 최종접속)

- 개인 지원사업 중 예술가 장학금 사업은 장르별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음.
- 매년 장르를 다르게 특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민속예술은 유일하게 매년 지원을 제공함.

〈표 49〉 미시시피 주립예술진흥원 문화예술 분류체계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미시시피 주립예술진흥원(예술가 장학금 사업 기준)			
	2019-2020년		2020-2021년	
문학	문학 (Literary Arts)	시나리오(Screenwriting)	문학	시(Poetry)
		극작(Playwriting)		소설 (Fiction)
		창의 비소설(Creative non-fiction)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미시시피 주립예술진흥원(예술가 장학금 사업 기준)			
		2019-2020년		2020-2021년	
시각예술	시각예술 (Visual Arts)	회화(Painting)	시각예술	회화	
		조각(Sculpture)		조각	
		도자기(Ceramics)		도자기	
		종이 예술(Works on paper)		종이 예술	
		사진(Photography)		사진	
		유리(Fine art glass)		유리	
		금속(Metal)		금속	
		목공예(Woodworking)		목공예	
	디자인 (Design)	패션 디자인(Fashion)	미디어 예술 (Media arts)	영상(Video)	
		그래픽 디자인(Graphic)		영화(Film)	
		조경 디자인(Landscape architecture)			
		건축 디자인(Architecture)			
공연 예술	무용 음악 연극	공연예술 (Performing Arts)	무용(Dance)	공연예술	안무(Choreography)
			음악(Music)		작곡(Composition)
			연극(Theater)		융합(Interdisciplinary)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전통예술	민속예술 (Folk Arts)	전통공연예술 (Performing art traditions)	민속예술	전통공연예술	
		공동체 기반 시각예술 (Community-based visual arts)		공동체 기반 시각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자료: 미시시피 주립예술진흥원 웹사이트(<https://arts.ms.gov/grants/grants-for-individuals/artist-fellowships>, 2019년 2월 13일 최종접속)

#### □ 노스캐롤라이나 주립예술진흥원(노스캐롤라이나주 예술위원회, North Carolina Arts Council)

- 개인/단체로 구분하여 대상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개인 지원사업 중 예술가 장학금 사업은 2년 주기로 장르를 나눠서 지원을 제공함. 이를 종합하면 아래의 표로 정리할 수 있음.
- 특이한 점은 음악, 무용, 문학 등 장르로 분류하지 않고, 작곡가, 안무가, 작가 등 예술가 개인의 직업으로 분류함.

〈표 50〉 노스캐롤라이나 주립예술진흥원 분류체계(개인 장학금 지원사업 기준)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노스캐롤라이나 주립예술진흥원	
		2019년	
문학	작가 (Writers)	극작가(Playwrites)	
		시인(Prose writers)	
		시나리오작가(Screenwriters)	
		문학 번역(Literary translation)	
시각예술		시각 예술가(Visual artists)	
		공예 예술가(Craft artists)	
		영화/영상 예술가(Film/video artists)	
공연예술	무용	안무가(Choreographers)	
	음악	작사가(Songwriters)	
		작곡가(Composers)	
연극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자료: 노스캐롤라이나 주립예술진흥원 웹사이트(<https://www.ncarts.org/invest-arts/grants-artists/artist-fellowships>, 2019년 2월 13일 최종접속)

#### □ 뉴저지 주립예술진흥원(뉴저지 예술위원회, New Jersey State Council on the Arts)

- 개인/단체로 구분하여 대상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예술가 개인 장학금 지원사업은 매년 장르를 다르게 특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2012년부터 지원했던 장르를 종합해보면 아래와 같음.
- 기존에 시각예술 장르를 폐지하고, 각 세부 장르에 맞게 지원하도록 변경됨.
- 디자인 장르는 한시적으로 없었음. 그래픽 디자인은 '지면 예술' 혹은 '미디어/디지털/전자'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으나, 건축, 조경, 산업, 패션 디자인 등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이 중지되었음.

〈표 51〉 뉴저지 주립예술진흥원 분류체계(개인 장학금 지원사업 기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뉴저지 주립예술진흥원
문학		극작(Playwriting)
		시(Poetry)
		산문(Prose)
시각예술		사진(Photography)
		조각(Sculpture)
		회화(Painting)
		지면 예술(Works on Paper)
		공예(Crafts)
		미디어/디지털/전자(Media/Digital/Electronic)
공연예술	무용	안무(Choreography)
		융합 공연(Interdisciplinary Performance)
	음악	작곡(Music Composition)
	연극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자료: 뉴저지 주립예술진흥원 웹사이트(<https://www.state.nj.us/state/njsca/pdf/individual-artist-fellowship-schedule.pdf>, 2019년 2월 14일 최종접속)

#### □ 메릴랜드 주립예술진흥원(산업부 소속-메릴랜드 예술위원회)

- 개인/단체로 구분하여 대상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단체 지원사업은 예술을 장르별로 구분하여 각 단체의 활동에 가장 가까운 하나의 장르에만 지원하게 되어있음.

〈표 52〉 메릴랜드 주립예술진흥원의 분류체계(단체 지원사업 기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메릴랜드 주립예술진흥원
문학	문학(Literary arts)
시각예술	시각예술 및 미디어(Visual arts/Media)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메릴랜드 주립예술진흥원
공연예술	무용	무용(Dance)
	음악	음악(Music)
	연극	연극(Theater)
전통예술		민속·전통예술(Folk and traditional arts)
다원예술		복합예술(Multi-discipline)
예술일반		
		예술 서비스(Art services)
		어린이 행사(Children's events)
		대규모 기관(Large organizations)

자료: 메릴랜드 주립예술진흥원 웹사이트(<https://www.msac.org/sites/default/files/files/GFO%20FY2020%20Guidelines.pdf>, 2019년 2월 14일 최종 접속)

#### □ 코네티컷 주립예술진흥원(코네티컷 예술부, Connecticut Office of the Arts)

- 예술가, 교육가 및 학교, 지자체, 도서관, 예술단체 등 대상별로 구분하여 지원사업을 제공함.
- 예술가 개인 지원사업 중 장학금 사업은 장르를 구분하여 신청을 받음.
- 신청 시, 대분류 중 1개 장르에, 소분류 중에는 4개 장르에 표기하게 되어있음. 소분류가 대분류의 하위분류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대분류 기준으로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분류 체계와 비교했음.

〈표 53〉 코네티컷 주립예술진흥원의 분류체계(단체 지원사업 기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코네티컷 주립예술진흥원
문학	문학(Literature)
	극작(Dramatic writing)
시각예술	시각예술(Visual arts)
	영화(Film)
	디지털 미디어(Digital media)
	디자인(Design)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코네티컷 주립예술진흥원
공연예술	무용	공연예술(Performing arts)
	음악	
	연극	
전통예술		전통예술(Traditional arts)
다원예술		복합예술(Multi-discipline)
예술일반		
		공동체/교육 예술가(Community/Teaching artist)

자료: 코네티컷 예술위원회 웹사이트([https://portal.ct.gov/-/media/DECD/Arts\\_Culture/Broad\\_Category\\_Definitions.pdf?la=en](https://portal.ct.gov/-/media/DECD/Arts_Culture/Broad_Category_Definitions.pdf?la=en), 2019년 2월 14일 최종접속)

#### □ 로드아일랜드 주립예술진흥원(로드아일랜드 예술위원회, Rhode Island State Council on the Arts)

- 예술가, 비영리단체, 전통예술가, 예술교육, 보건기관 등 대상별로 구분하여 지원사업을 진행함.
- 예술가 개인 지원사업 중 예술가 장학금은 장르별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 지원 신청을 받음.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표 54〉 로드아일랜드 주립예술진흥원의 분류체계(개인 장학금 지원사업 기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로드아일랜드 주립예술진흥원
문학	시(Poetry)
	소설(Fiction)
	극작/시나리오(Playwriting/Screenwriting)
시각예술	공예(Crafts)
	영화·영상(Film&video)
	사진(Photography)
	소묘·판화(Drawing & printmaking)
	회화(Painting)
	3차원 예술(3-dimensional art)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로드아일랜드 주립예술진흥원
공연예술	무용	안무(Choreography)
	음악	작곡(Music composition)
	연극	
전통예술		민속예술(Folk arts)
다원예술		새 장르(New genres)
예술일반		

자료: 로드아일랜드 예술위원회 웹사이트(<https://risca.online/grants/artist-fellowships/>, 2019년 2월 14일 최종접속)

#### □ 매사추세츠 주립예술진흥원(매사추세츠 문화위원회, Massachusetts Cultural Council)

- 예술가 장학금 지원사업은 2년 주기로 장르를 특정하여 신청받음. 올해 지원하는 장르는 영화·영상, 작곡, 사진임. 내년에는 소묘·판화, 시, 전통예술, 안무, 소설/창의적 비소설, 회화를 신청받음.
-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장르별 정의에 따라 매사추세츠 주립예술진흥원의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음.

〈표 55〉 매사추세츠 주립예술진흥원의 분류체계(개인 장학금 지원사업 기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매사추세츠 주립예술진흥원	
문학	시(Poetry)	
	소설/창의적 비소설 (Fiction & Creative non-fiction)	소설(Fiction novels)
		단편(Short stories)
		초단편 소설(Flash fiction)
		그래픽 노블(Graphic novel)
	극작(Dramatic writing)	무대 연극(Stageplays)
		음악극(Musical theater works)
		시나리오(Screenplays)
		오디오 드라마(Audiodramas)
		독백(Monologue/solo)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매사추세츠 주립예술진흥원	
시각예술	공예(Crafts)	유리(Glass)	
		금속(Metal)	
		목공예(Wood)	
		섬유(Fiber)	
		도자기(Clay)	
	영화·영상(Film&video)	서사 영화(Narrative film)	
		다큐멘터리(Documentaries)	
		실험 영화(Experimental film)	
		애니메이션(Animation)	
		비디오 예술(Video arts)	
	사진(Photography)		
	소묘·판화 (Drawing & printmaking)	판화(Engraving)	
		에칭(Etchings)	
		석판(Lithographs)	
		인쇄(Printing)	
		실크스크린 인쇄(Serigraphy)	
		목판화(Woodcut)	
	회화(Painting)		
	조각/설치/새 장르 (Sculpture/Installation/New genres)	3차원 조각 (3-dimensional sculpture)	
		설치 미술(Installation arts)	
		시간 기반 미디어 작품 (Time-based media work of art)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매사추세츠 주립예술진흥원	
공연예술	무용	안무(Choreography)	무용(Dance)
			혼합 매체(Mixed media)
			복합 장르(Multi-genre)
	음악	작곡(Music composition)	실내악(Chamber)
			합창(Choral)
			전자(Electronic)
			교향악(Symphonic)
			팝(Popular)
			밴드(Band)
			음악극(Musical theater)
			오페라(Opera)
			재즈(Jazz)
			실험(Experimental)
	연극		
다원예술			
전통예술	전통예술(Traditional arts)	음악(Music)	
		공예(Crafts)	
		무용(Dance)	
		언어예술(Verbal arts)	
예술일반			

자료: 매사추세츠 주립예술진흥원 웹사이트([http://www.massculturalcouncil.org/applications/fellows\\_disc\\_definitions.asp](http://www.massculturalcouncil.org/applications/fellows_disc_definitions.asp), 2019년 2월 14일 최종접속)

#### □ 버몬트 주립예술진흥원(버몬트 예술위원회, Vermont Arts Council)

- 뉴잉글랜드 지역 내 예술가 및 예술사업체 명부로 'Creative Ground'가 있음. 이 명부에서 장르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전통예술이 각 예술 장르 하위체계로 분류되어있음.

〈표 56〉 버몬트 주립예술진흥원의 분류체계(개인 장학금 지원사업 기준)

〈표 56〉 버몬트 주립예술진흥원의 분류체계(개인 장학금 지원사업 기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버몬트 주립예술진흥원	
문학	문학 (Literature)	일반(General)	소설(Fiction)
		아동(Children's)	비소설(Non-fiction)
		시(Poetry)	출판(Publishing)
		구어(Spoken word)	
시각예술	디자인 (Design)	전통(Traditional)	게임(Game)
		일반(General)	그래픽(Graphic)
		건축(Architecture)	산업(Industrial)
		패션(Fasion)	인테리어(Interior)
		조경(Landscape architecture)	도시(Urban/Metropolitan)
	미디어 (Media)	일반(General)	디지털(Digital)
		애니메이션(Animation)	사이버아트(Cyberart)
		영화(Film)	라디오(Radio)
		오디오/음향(Audio/Sound)	마케팅/광고(Marketing/Advertising)
		텔레비전(Television)	영상(Video)
	시각/공예 (Visual/Crafts)	일반(General)	실험(Experimental)
		바구니 직조(Basket weaving)	장식예술(Decorative arts)
		카툰/그래픽노블(Cartooning/Graphic novel)	
		조각(Carving)	섬유(Fiber)
		가구(Furniture)	유리(Glass)
		인형/연체 조각(Dolls/Soft sculpture)	
		설치(Installation)	보석(Jewelry)
		가죽(Leather)	회화(Painting)
		조명 예술(Light art)	종이(Paper)
		금속(Metal)	사진(Photography)
		혼합(Mixed media)	플라스틱(Plastic)
		판화(Printmaking)	조각(Sculpture)
		설치/회화 (Installation/Drawing)	음악 악기 (Musical instruments)
		섬유 직조(Textile weaving)	나무/나무껍질(Wood/bark)
		석조(Ston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버몬트 주립예술진흥원		
공연예술	무용	무용 (Dance)	일반(General)	발레(Ballet)	
			무도회(Ballroom)	민족(Ethnic)	
			민속(Folk)	힙합(Hip hop)	
			재즈(Jazz)	현대(Modern/Contemporary)	
			탭(Tap/Percussive)	전통(Traditional)	
	음악	음악 (Music)	밴드(Band)	민속(Folk)	
			실내악(Chamber)	재즈(Jazz)	
			아동(Children)	뉴(New)	
			합창(Choral)	오페라(Opera)	
			작곡(Composition)	팝/록(Pop/Rock)	
			컨트리(Country)	전자(Electronica)	
			무용/DJ(Dance/DJ)	랩/힙합(Rap/Hiphop)	
			R&B/소울(R&B/Soul)	독주/합주(Solo/Recital)	
			민족/세계(Ethnic/World)	전통(Traditional)	
	연극	연극 (Theater)	일반(General)	마임(Mime)	
			아동(Children's)	음악극(Musical)	
			서커스(Circus)	극작(Playwriting)	
			즉흥극(Improv)	인형극(Puppet)	
			각본극(Devised/Artist-led)	독백(Solo/One-person show)	
			버라이어티/보드빌 (Variety/Vaudeville)	스토리텔링 (Storytelling)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인문학	일반(General)	역사(History)
				인류학(Anthropology)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
				고고학(Archeology)	언어학(Linguistic)
				예술사 비평(Art history & Criticism)	종교 비교학(Comparative Religion)
				문학(Literature)	철학(Philosophy)
				과학(Science)	
비예술/비인문학					

자료: 뉴잉글랜드 지역 예술인 명부 웹사이트(<https://www.creativeground.org/>, 2019년 2월 14일 최종접속)

자료: 뉴잉글랜드 지역 예술인 명부 웹사이트(<https://www.creativeground.org/>, 2019년 2월 14일 최종접속)

□ 메인 주립예술진흥원(메인 예술위원회, Maine Arts Commission)

- 개인, 단체, 교육가로 구분하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개인 지원사업 중 장학금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장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표 57〉 메인 주립예술진흥원 문화예술 분류체계(예술가 장학금 지원사업 기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메인 주립예술진흥원
문학		문학(Literary Arts)
시각예술		시각예술(Visual Arts)
		공예(Craft)
		멀티미디어/영화(Multimedia/Film)
공연예술	무용	공연예술(Performing Arts)
	음악	
	연극	
전통예술		전통예술(Traditional Arts)
다원예술		
예술일반		

자료: 메인 주립예술진흥원 웹사이트(<https://mainearts.maine.gov/Pages/Funding/Individual-Artist-Fellowships>, 2019년 2월 14일 최종접속)

□ 괄 예술진흥원(괄 예술인문학위원회, Guam Council on the Arts & Humanities Agency)

- 지원사업으로 운영비 지원사업, 사업비 지원사업, 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가 장학금 지원사업이 있음.
- 개인 및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비 지원사업은 지원 장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표 58〉 괄 예술진흥원 문화예술 분류체계(단체 운영비 지원사업 기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괄 예술진흥원
문학		
시각예술		시각예술(Visual Arts)
		미디어예술(Media)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 예술진흥원	
공연예술	무용	공연예술 (Performing Arts)	무용(Dance)
	음악		음악(Music)
	연극		연극(Theater)
전통예술		민속예술(Folk Arts)	
다원예술			
예술일반			
		특별사업 (Special Projects)	인문학(Humanities)
			공동체(Community)
			문학(Literature)

자료: 광 예술진흥원 웹사이트([https://docs.wixstatic.com/ugd/850b83\\_5526961ea3fb44018114f878b80c0857.pdf](https://docs.wixstatic.com/ugd/850b83_5526961ea3fb44018114f878b80c0857.pdf), 2019년 2월 14일 최종접속)

## 2. 영국의 문화예술 지원체계

### 가. 영국의 문화예술 지원정책 역사 및 배경

□ 18세기 영국 사회를 지배했던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 정신을 바탕으로 1940년대에 문화예술 지원체계 구축하기 시작했음(최보연, 2016: 15).

- 개인의 문화예술활동에 지원은 하지만, 국가의 간섭은 최대한 배제하는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따라 음악예술진흥위원회(CEMA: the Council for the Encouragement of Music and the Arts)를 설립함.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국민과 병사의 사기진작과 문화향유를 목적으로 설립했음(이현선, 2011: 25). ‘책망이나 비판이 아니고 용기와 자신감, 그리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음(류정아, 2015: 18).
- 설립 당시에는 국민의 문화적 삶이 일정 수준으로 오를 때까지 일시적으로 존립할 것이라고 판단했음(류정아, 2015: 18).

□ 그러나 문화예술 분야에서 공공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제2차 세계대전 직후 1946년에 음악예술진흥원을 대영예술위원회(ACGB: Arts Council of Great Britain)로 전환 설립함(류정아, 2015: 18).

- 국민들의 예술향유 기회제공이 설립의 이론적 근거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예술활동 옹호, 정부지원금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이현선, 2011: 26-27), 예술가들에게 지원 제공했음.
-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 지원 및 개입이 처음으로 시도되고 제도화되기 시작한 시기이지만, 자유방임주의적 배경과 역사로 인해 여전히 적극적이지 않은 환경이었음(현지은, 2009: 40).

□ 1980년대 대처(M. Thatcher)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의 역할과 공공지출 축소를 주장하였음. 문화예술 단체가 자체 수입을 보충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며 민간 후원 활성화를 유도했음.

- 1984년에 민간과 정부의 매칭 지원제도인 기업후원인센티브제도(BSIS: Business Sponsorship Incentive Scheme)를 만들었음.
-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이 축소할 것이라는 추측과 달리, 정부 개입이 오히려 증가함.

공공지원에 대한 당위성으로 예술의 공공성을 강조, 접근성과 교육 등 문화예술단체에 사회적 공헌 등 공공지원의 대가로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을 요구함(이현선, 2011: 26).

- 보호·지원의 대상으로서만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예술의 개념이 전환함(최보연, 2016: 17). 예술을 ‘예술 그 자체’로서 보다 고용, 관광, 지역경제 등 경제적 가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목적으로 인식이 변화함(현지은 2009; 40).

□ 1997년 신노동당 집권 이후, 문화부가 문화정책 전면에 등장하며 문화예술의 공공성이 더욱 대두됨(이현선, 2011: 26).

- ‘새로운 문화 프레임(A New Cultural Framework)’ 정책문건을 통해 예술지원의 목적을 ‘국민의 문화접근’, ‘예술의 질적 향상’, ‘예술교육 기회제공’, ‘문화산업의 활성화’ 등으로 제시했음.
- 기존 문화예술정책의 암묵적 전제였던 ‘생산자(예술가) 대 향유자(일반인)’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넘어서, “모든 이들이 잠재적으로 창의적”이며, 누구나 문화예술생산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최보연, 2016: 18).
- 창의산업 13개 세부분야를 ‘DCMS 13’<sup>50)</sup>이라는 이름으로 포용하기 시작함.

□ 담당 부서의 이관 및 신설 부서 설립, 관련 부서 통폐합을 통해 영국의 문화예술지원체계는 중간기구 없이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역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변화함(류정아, 2015: 21).

- 1946년부터 20년간 대영예술위원회를 재무부에서 담당하다가 1965년 교육과학부로 이관됨.
- 1992년에 보수당이 국가문화유산부(DNH: Department of National Heritage)를 신설했고, 1997년에 노동당이 문화매체체육부(DCMS: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s)로 확대개편함.
- 2017년 7월, 데이터 보호, 인터넷 안전, 사이버 기술 및 미디어 및 창의산업의 일부 등 디지털 분야 업무가 확대되어온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디지털문화매체체육부(Department of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s)로 부서명을 바꿈(DCMS,

50) ‘DCMS 13’은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에서 제시한 창의산업의 13개 분야로, 광고, 건축, 미술/공예품 시장, 공예, 디자인, 패션디자인, 영화/비디오, 음악, 인터랙티브 여가 소프트웨어, 공연예술, 출판, 소프트웨어/컴퓨터, TV/라디오가 이에 해당(<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reative-industries-mapping-documents-2001>, 2019.01.16.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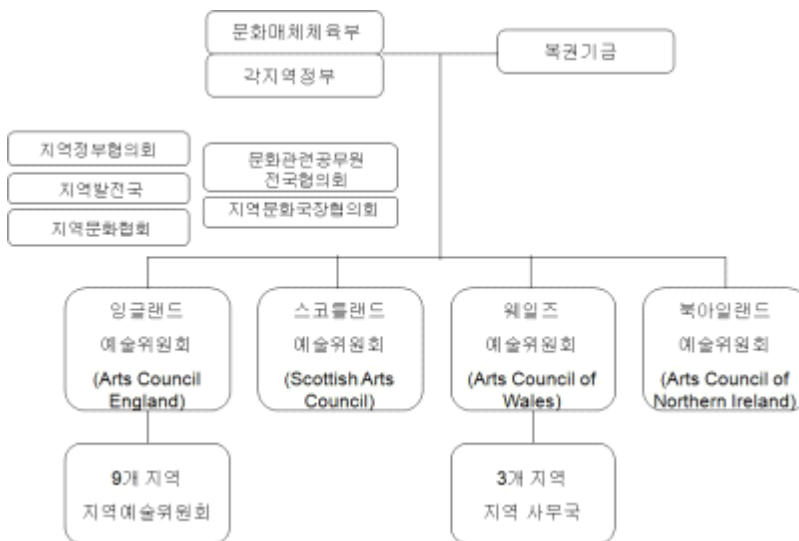


2017)<sup>51)</sup>.

## 나. 영국의 문화예술 지원 행정체계

□ 영국의 문화예술 지원 행정체계는 중앙-지역의 역할 분담과 DCMS-ACE의 이중적 행정지원 구조임(최보연: 2016,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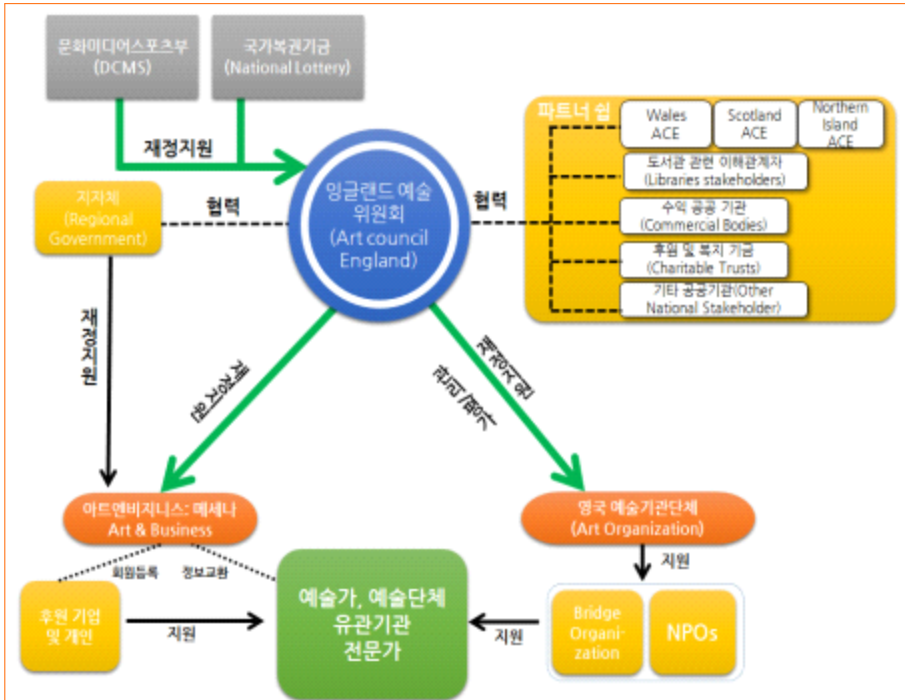
- 중앙부처는 거시적인 정책 방향 제시 및 예산분배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의 각 예술위원회가 독립된 예술지원기구로서 실질적인 행정을 담당함.



〈그림 52〉 영국 문화예술 지원 체계의 구성

자료: 조화연(2008: 31)

51)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ge-of-name-for-dcms> 2019. 01. 15 최종 접속



〈그림 53〉 영국 문화예술 지원 체계의 관계도

자료: 류정아(2015: 27)

- 대영예술위원회의 기능은 1994년에 지역에 따라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예술위원회로 이전되었고, 이미 설립되어있던 북아일랜드예술위원회와 함께 총 4개의 위원회가 독립적인 지원체계를 유지함(이현선, 2011: 26).
- 현재 디지털문화매체체육부는 잉글랜드예술위원회만 지원함. 나머지 예술위원회는 스코틀랜드청, 북아일랜드청, 웨일즈청 등 각 지역 정부가 재정을 지원함(현지은, 2009: 41; 이현선, 2011: 26).
- 스코틀랜드예술위원회는 2010년부터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Creative Scotland)로 이름과 형태를 바꿈.

□ 디지털문화매체체육부와 잉글랜드예술위원회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주요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

- 문화부와 예술위원회가 사전협의를 통해 체결한 운영협약(Management Agreement)에 권한과 업무 위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영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류정아, 2015: 24; 김세훈, 2013: 83).
  -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진 비정부공공기관(NDPB: Non-Department Public Bodies)을 통해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팔 길이의 원칙’을 따름.
- 1994년부터 문화부가 국립복권기금(National Lottery)을 관장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금을 문화예술 분야에 투자했음(조화연, 2008: 30).
- 2000년부터 예산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7:3의 비율로 정부기금과 복권기금의 예산이 구성되어 있음(최보연, 2016: 32-33).

〈표 59〉 영국 문화예술 지원체계 내 관련 기관

구분	기구명		역할
재정 지원	디지털문화매체체육부 (DCMS)		영국 문화매체체육을 담당하는 부처로 예술위원회의 정부재정지원을 담당
	국민복권위원회 (National Lottery Commission)		문화매체체육부 산하기관 중 하나로 복권기금을 운영관리 복권기금은 국가 예술지원 및 복지 지원 등으로 활용
관리 감독/ 재정 운영	잉글랜드예술위원회 (ACE)		영국 예술지원체계의 핵심 기관으로 예술기관과 예술기관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 국가재정지원을 운영하는 역할 영국 각지의 예술단체와 예술가들의 지원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여 단체 선정 및 재정 지원 진행
수혜 기관	예술단체/ 기관	매개 예술단체/기관 (Bridge Organization)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예술위원회는 880개 예술단체를 중심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국가 포트폴리오 기금 사업을 통해 영국 전역의 예술단체와 예술가를 후원 중
		국가 포트폴리오 기관 (Organizations: NPOs)	
	아트 & 비즈니스(Art & Business)		영국 기업 및 개인 투자자와 문화예술 영역간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2009/10년 기준 중앙정부지원금이 전체 예산 중 61% 차지)

구분	기구명		역할
협력 기관	지방자치단체(Regional Government)		지역단위의 문화 관련 사업에 대하여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지역 예술 위원회	웨일즈 예술위원회 (Wales ACE)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하는 지역별 예술위원회는 지역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관리 운영하여 각 지역의 예술단체와 예술가들을 후원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각 지역의 예술활동 지원 강화 기능을 담당
		스코틀랜드 예술위원회 (Creative Scotland)	
		북아일랜드 예술위원회 (Northern Island ACE)	
	도서관 관련 이해관계자 (Libraries stakeholder)		문화매체체육부의 대표 산하기관(NDPBs) 예술지원을 담당하는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의 중요한 파트너로 이들과의 긴밀한 협조 및 사업연계를 통하여 국가의 예술지원체계의 큰 틀을 마련
	수익공공기관 (Commercial Bodies)		
	후원 및 복지 기금 (Charitable Trusts)		
기타 공공기관 (Other National Stakeholder)			

자료: 류정애(2015: 27)에서 재인용

#### 다. 영국의 문화예술 지원 주요 기관

##### 1) 문화매체체육부

##### (1) 역할 및 위상

□ 영국예술위원회 포함 43개의 기관(ALBs: Arm's Length Bodies)을 관할하는 것이 주요 업무임.

- 43개 기관에는 지역별 예술위원회, 대영박물관, 내셔널 갤러리, 대영도서관 등 32개의 비정부공공기관과 BBC 등의 공공기관 4개, 비장관급기관 1개, 책임운영기관 1개, 그리고 영국스포츠연구소, 방송통신산업 규제 기관 Ofcom 등 기타 기관 5개로 구성됨(아래 표 참조).

- 예산분배, 정책수립 및 수행 등 거시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이현선, 2011: 27).
- 디지털문화매체체육부의 주요활동은 직접지원보다는 정책수립 영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책의 집행기능은 43개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음(현지은, 2009: 42).
  - 그 외에는 잉글랜드예술위원회를 통해 6개 분야(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융합예술)를 중심으로 지원함(김익석, 2017: 38).

〈표 60〉 영국 디지털문화매체체육부 지원 기관 목록

분류	기관명				
비장관급기관	The National Archives				
책임운영기관	Royal Parks				
비정부공공기관 (NDPBs)	실행기능 중심 비정부 공공조직				
	Arts Council England		Big Lottery England		Birmingham Organising committee for the 2022 Commonwealth Games LTD
	British Film Institute		British Library		British Museum
	Gambling Commision		Geffrye Museum		Heritage Lottery Fund (administered by the NHMF)
	Historic England		Horniman Public Museum and Public Park Trust		Horserace Betting Levy Board
	Imperial War Museum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National Gallery
	National Heritage Memorial Fund		National Museum Liverpool		National Portrait Gallery
	National History Museum		Royal Armouries Museum		Royal Museum Greenwich
	Science Museum Group		Sir Jon Soane's Museum		Sport England
	Sports Ground Safety Authority		Tate		UK Anti-Doping
	UK Sport		Victoria and Albert Museum		VisitBritain
	Visit England			Wallace Collection	
	자문기능 중심 비정부 공공조직				
	The Advisory Council on National Records and Archives		The Reviewing Committee on the Export of Works of Art and Objects of Cultural Interest		The Theatres Trust Treasure Valuation Committee
공공기관	BBC		Channel 4		Historic Royal Palaces
기타	English Institute of Sport	National Citizen Services	Ofcom	S4C	UK Council for Internet Safety

자료: GOV.UK 웹사이트(<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digital-culture-media-sport>, 2019.01.16. 접속)

- 문화매체체육부 지원 기관 43개를 장르별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에 따르면 유산, 규제기관, 미디어·창의산업 등 총 11개의 분류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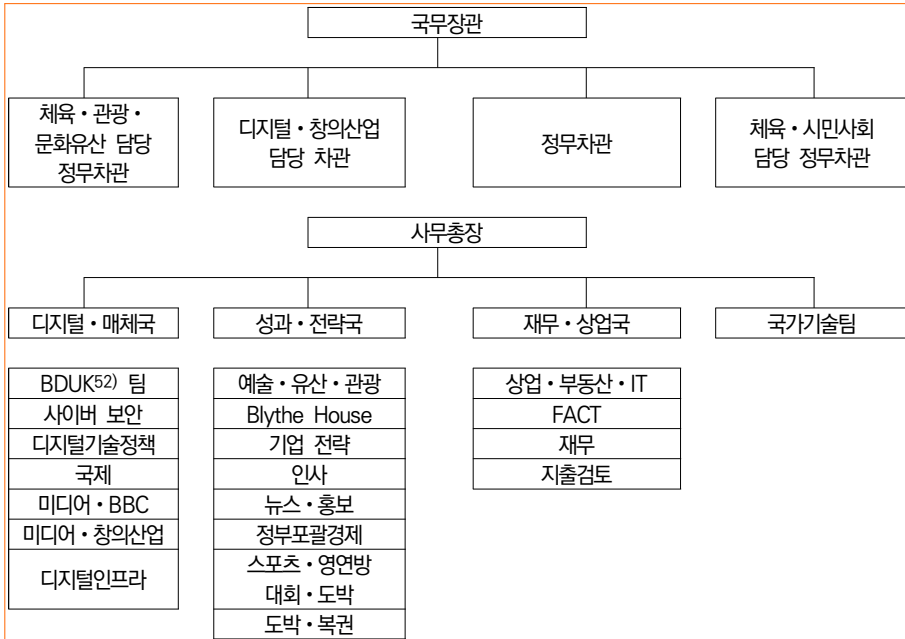
〈표 61〉 영국 디지털문화매체체육부 지원 기관의 장르별 분류

유산	Churches Conservation Trust, Historic Royal Palaces Heritage Lottery Fund/National Heritage Memorial Fund, Historic England
규제기관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Office of Communication(Ofcom)
미디어·창의 산업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Channel 4, British Film Institute S4C-Welsh Fourth Channel Authority
박물관·미술 관	British Museum, Royal Armouries, Geffrye Museum, Royal Museum Greenwich Horniman Museum, Science Museum Group, Imperial War Museum, Sir John Soane's Museum, National Gallery, Tate Gallery, Natural History Museum, Wallace Collection, National Portrait Gallery
체육	Sport England, UK Anti-Doping, Sports Grounds Safety Authority, UK Sport
관광	British Tourist Authority (VisitBritain and VisitEngland)
도박	Horse Race Betting Levy Board
예술·도서관	Arts Council England, British Library
시민사회	Big Lottery Fund
문화재	Reviewing Committee on the Export of Works of Art, Treasure Valuation Committee
기타	Phone-paid Services Authority

자료: DCMS(2018)

## (2) 조직 구성 체계

- 직접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부처가 아닌 만큼, 문화예술 장르별로 분류된 조직구성 체계가 아니라, 업무의 기능에 따라 분류함.



〈그림 54〉 영국 디지털문화매체체육부 조직도

자료: DATA.GOV.UK 웹사이트 (<https://data.gov.uk/organogram/department-for-culture-media-and-sport/2018-09-30>, 2019. 01. 14. 최종접속) 및 GOV.UK 웹사이트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digital-culture-media-sport>, 2019. 01. 14. 최종 접속) 내용 재구성

### (3) 주요 지원사업

□ ‘2017-18 단일 부서 계획(SDP: Single Department Plan)’으로 한 개의 공동목표 아래 다섯 가지 목표를 명시했고, 각 목표에 따라 프로젝트를 시행함으로써 46개 지원 기관 중 40개 기관에 직접지원을 제공함(DCMS, 2018: 12).

- 디지털문화매체체육부 전체 예산의 약 91%를 직접지원 기관에 제공함(National Audit Office, 2017: 5).

52) 영국광대역 보급 프로그램(Broadband Delivery UK).

〈표 62〉 영국 디지털문화매체체육부의 주요사업

목표	주요 내용	참여 기관
1      글로벌	거주, 근무, 방문, 투자에 좋은 곳으로, 글로벌 영국을 추진	Arts Council England, Heritage Lottery Fund British Tourist Authority, Reviewing Committee on the Export of Works of Art and Objects of Cultural Interest, Treasure Valuation Committee, UK Anti-Doping, UK Sport
2      성장	창조적, 혁신적이고 모두를 위한 경제를 성장	British Film Institute (including National Film and Television School), Ofcom
3      디지털	전세계 최고의 디지털 경제 구축 및 디지털 전환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Ofcom
4      참여	문화·체육 참여 및 사회활동 확대	Arts Council England, British Library, DCMS-sponsored museums and galleries, Churches Conservation Trust, Heritage Lottery Fund, Historic England, National Heritage Memorial Fund, Reviewing Committee on the Export of Works of Art and Objects of Cultural Interest, Sport England, Sports Ground, Safety Authority
5      사회	매체, 자유 언론, 공유 사회 자원	BBC, Big Lottery Fund, Channel 4, Gambling Commission, Horserace Betting Levy Board, Phone-paid Services Authority, S4C
공동      효율	자산감 있고 민첩하며 네트워크로 연결된 부서로서 적자 감축 및 기관의 효율성 구현 보장	British Museum, British Tourist Authority, Heritage Lottery Fund, Historic England, National Heritage Memorial Fund, Science Museum Group, The Royal Parks, Victoria and Albert Museum

자료: DCMS(2018: 18-66)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리 - 연차보고서

## 2) 잉글랜드 예술위원회(ACE)

### (1) 역할 및 위상

□ 잉글랜드 지역의 예술 진흥과 국민의 문화접근성 확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잉글랜드예술위원회의 사명은 “모두를 위한 위대한 예술(Great Arts for Everyone)”로



예술의 우수성과 접근성을 강조함. 이에 따라 우수성(excellence), 모두를 위함(for everyone), 유연성과 지속가능성(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다양성과 기량(diversity and skills), 어린이와 청년(children and young people)을 다섯 가지 전략으로 정하고 이를 통해 사명을 이루고자 함(ACE, 2013: 40).

□ 디지털문화매체체육부의 지원 기관 중 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담당함.

- 정부(공적 영역)와 예술계(사적 영역)의 매개자 역할 수행하며, 자율적인 독립기구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음(김익석, 2017: 41).
- 이같이 예술위원회를 대리기관으로 개입시키는 이유는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목적임(이현선, 2011: 28).

□ 문학,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융합예술 등 주요 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과 박물관, 도서관 지원을 제공함.

- 전통적으로 6개 문화예술 분야에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정부 예산 삭감으로 인해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위원회(The Museum,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가 폐지되면서 박물관, 도서관 지원 업무가 잉글랜드예술위원회로 이관됨(ACE, 2013; 김익석, 2017: 41 재인용).

## (2) 조직도



〈그림 55〉 영국 잉글랜드예술위원회 조직도

자료: ACE 웹사이트<sup>53)</sup>를 바탕으로 최보연(2016: 37)를 참조하여 재구성

#### □ 국가위원회, 실행이사회, 지역위원회로 구성됨.

- 국가위원회는 매년 10월 회의를 진행하는 최고의결기구임. 1명의 위원장과 5명의 지역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 예술위원회가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으며, 예술위원회의 우선사업 및 정책을 결정함.
- 실행이사회는 실무를 담당. 홍보/공공정책, 공간/참여, 예술/문화, 기업/혁신 등 4개 국의 국장과 운영책임자 1명, 재무책임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역위원회는 기존 9개로 구성되었으나, 2010년 정부의 예산 삭감 계획에 따라 2013년부터 런던, 남서부, 중부, 북부, 남동부 5개 지역위원회로 축소 개편함. 이에 따라 명칭도 ‘Regional Council’에서 ‘Area Council’로 개칭함.
  - 지역위원회의 역할은 예술위원회의 전략에 따라 공공자금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 내 이해관계자에게 예술위원회의 전략을 이해시키기 위해 토론회 개최 등을 맡음.
  - 각 지역의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슈들을 국가위원회에 전달, 관할 지역의 예술과 예술기관을 대변함(최보연, 2106: 37-38).

#### (3) 주요 지원사업

#### □ ‘2018-22년 투자 계획’ 발표를 통해 확정된 주요 사업 3개를 제시함. 국가포트폴리오기관 지원사업, 국가복권기금의 지원사업, 발전기금이 이에 해당함(아래 표 참조).

- 이전에는 박물관, 도서관은 국가포트폴리오기관 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2018년부터 박물관·도서관 지원사업이 폐지되고 국가포트폴리오기관 지원사업으로 통합됨.
- 국가복권기금의 지원사업은 기존의 ‘예술지원사업(Grant for the Arts)’을 재원의 출처를 부각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가복권기금의 지원사업’으로 개칭함. 유일하게 개인 및 단체의 신청을 받는 공모사업임.
- 발전기금은 기존 ‘전략적 펀딩(Strategic Funding)’ 지원사업을 개칭한 사업으로, 예술참

53) [https://www.artscouncil.org.uk/sites/default/files/download-file/Arts\\_Council\\_Directors\\_Oct2018\\_0.pdf](https://www.artscouncil.org.uk/sites/default/files/download-file/Arts_Council_Directors_Oct2018_0.pdf)(2019. 03. 21. 최종 접속)

여가 저조한 지역을 중심으로 참여 확대에 중점을 두는 사업임.

〈표 63〉 영국 잉글랜드예술위원회 주요 사업(2018~2022년)

국가 포트폴리오 기관 지원사업 (National Portfolio Organisations)	사업 내용	예술단체, 박물관, 도서관에 4년 동안 지원	
	지원 대상	예술단체, 박물관, 도서관	
국가복권기금 지원사업 (National Lottery Project Grants)	사업 내용	국가복권기금의 자금을 예술가 및 단체에 지원	
	지원 대상	개인, 단체, 박물관, 도서관	
발전 기금 (Development Fund)	사업 내용	다양성, 탄력성, 비즈니스모델의 혁신성, 리더십 개발 등 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	예술가, 예술기관 및 공동체	
	지원 사업	Developing your Creative Practice	현역 독립 예술가 중심 지원
		Creative People and Places	예술참여가 저조한 지역 중심 지원

자료: ACE 웹사이트(<https://www.artscouncil.org.uk/about-us/how-and-where-we-invest-public-money>, 2019.01.16. 접속)

#### (4) 문화예술 분류체계

- 국가포트폴리오기관 지원사업과 국가복권기금 지원사업은 문학, 음악, 무용, 시각예술, 연극, 융합예술 등 6개의 예술 분야에 도서관, 박물관이 추가되면서 8개 분류체계를 통해 지원함.
  - 2018년 이전까지 도서관과 박물관을 지원하던 별도 지원사업이 폐지되면서 분류체계에 통합되었음.
  - 도서관, 박물관이 추가된 것 이외에는 분류체계의 변화가 없었음.
- 위의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분류체계와 거의 유사하나, '전통예술'과 '예술일반'이 따로 분류되지 않는 차이가 있음.

〈표 64〉 영국 잉글랜드예술위원회의 예술문화 분류체계의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국 잉글랜드예술위원회
문학		문학(Literature)
시각예술		시각예술(Visual arts)
공연예술	음악	음악(Music)
	무용	무용(Dance)
	연극	연극(Theatre)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융합예술(Combined arts)
		도서관(Libraries)
		박물관(Museums)

자료: ACE 웹사이트(<https://www.artscouncil.org.uk/what-we-do/supporting-arts-museums-and-libraries>, 2019.01.16. 최종 접속)

### 3) 지역예술위원회

#### (1) 스코틀랜드 예술위원회(Creative Scotland)

□ 주요지원사업으로 정규 지원사업, 공모 프로젝트 지원사업, 목적 지원사업 등으로 나뉨.

〈표 65〉 스코틀랜드 예술위원회 주요 지원사업

사업명	사업 내용
정규 지원사업 (Regular Funding)	- 스코틀랜드예술위원회의 주요 지원사업 - 스코틀랜드 정부가 3년간 문화예술단체 지원(운영비 등)
공모 프로젝트 지원사업 (Open Project Funding)	- 개인/단체 지원 -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목적 지원사업 (Targeted Funding)	- 구체적인 우선순위 및 공동 목표를 가진 단체에 소수 지원 - 'Youth Music Initiative', 'CashBack for Creativity' 등

자료: Creative Scotland 웹사이트(<http://creativescotland.com/funding/funding-overview> 2019. 01. 25. 최종 접속)

□ 지원사업 중 정규 지원사업만 유일하게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있음.

- 문학, 음악, 무용, 시각예술, 연극, 다원예술 등 잉글랜드예술위원회의 분류체계에 영화, 공예, 기타 장르(창의산업·디지털)가 추가로 있음.
- 기타 장르는 2018-21 지원사업부터 분류하기 시작한 것으로, 기술환경 변화로 나타나는 새로운 예술 형태를 반영하기 위해 포함했음.<sup>54)</sup>

〈표 66〉 영국 스코틀랜드예술위원회의 예술문화 분류체계의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스코틀랜드예술위원회
문학		문학(Literature)
시각예술		시각예술(Visual Arts)
		공예(Crafts)
공연예술	음악	음악(Music)
	무용	무용(Dance)
	연극	연극(Theatre)
전통예술		
다원예술		다원예술(Multi)
예술일반		
		영화(Screen)
		창의산업·디지털(Creative Industries, Digital)

자료: Creative Scotland 웹사이트([https://www.creativescotland.com/\\_data/assets/excel\\_doc/0005/48362/2018-21-Regular-Funding-Network-updated.xlsx](https://www.creativescotland.com/_data/assets/excel_doc/0005/48362/2018-21-Regular-Funding-Network-updated.xlsx), 2019.01.25. 최종 접속)

## (2) 웨일즈 예술위원회(Art Council of Wales)

□ 웨일즈 예술위원회는 핵심 전략을 ‘만들고(Make), 도달하고(Reach), 유지하는(Sustain)’,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함.

- 이에 따라 창의적인 개인 및 단체를 육성하는 지원사업, 예술 경험과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 운영비용 지원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54) <https://www.creativescotland.com/funding/latest-information/funded-organisations/regular-funding-2018-21/overviews/other-specialisms>, 2019년 1월 25일 접속

〈표 67〉 웨일즈예술위원회의 주요 지원사업

지원사업	세부내용
예술가 개인 지원사업 (Arts Grants for Creative Professionals)	예술가 개인의 역량강화를 통해 경력개발과 지속가능한 생계를 지원
예술 단체 지원사업 (Arts Grants for Organization)	웨일즈 최고 예술을 대표하는 프로젝트 지원
국제 예술 지원 (International Opportunities Fund)	개인 및 단체의 국제 활동을 위한 해외 방문 및 작품 발표/전시 등을 지원
예술 학습 지원 (Creative Learning through the Arts)	갤러리, 극장, 예술센터 등에서 열리는 예술 행사(공연, 전시 등) 방문 지원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지원사업 (Wales in Edinburgh)	웨일즈의 연극, 무용, 서커스 등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통해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
복권 자본 지원사업 (Lottery Capital Programme)	자본자산(건물, 장비, 차량 등)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자료: 웨일즈예술위원회 웹사이트(<http://www.arts.wales/funding>, 2019년 2월 7일 최종 접속)

□ 문화예술 활동을 장르별로 분류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음.

- 대신, 각 지원사업의 목적에 따라 문화예술 활동의 종류를 ‘strand’로 분류하여 목적 초점을 맞춰 지원함.

〈표 68〉 웨일즈예술위원회의 목적에 따른 지원사업 분류

지원사업의 목적	세부 내용
관객 개발 (Audience Development)	잠재 고객 개발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하며 측정 가능한 접근법을 취하는 사업 지원
경영 및 조직 개발 (Business & Organisational Development)	보다 탄력적이고 자가 지속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단체를 지원
축제 (Festivals)	웨일즈 최고 예술의 질과 특색있는 행사 지원
음악 산업 발전 (Music Industry Development)	웨일즈 음악산업의 기반 활성화와 인재 지원
제작 (Production)	좋은 예술 작품 창작, 발표 지원
공간 및 갤러리 (Venues & Galleries)	갤러리 프로그램 혹은 공간을 향상하는 작품 큐레이션 및 발표 지원

지원사업의 목적	세부 내용
연구개발 (Research & Development)	작품의 새로운 아이디어/방식을 위한 실험과 개발 지원
참여 (Taking Part)	예술활동 방식 다변화 지원
교육 및 전문성 개발 (Training & Professional Development)	예술 분야 종사자 역량, 기술 강화 지원

자료: Art Council of Wales(2018)

□ 영화와 문학 분야의 지원사업은 다른 기관에서 담당한다는 특이사항이 있음.

- 영화는 웨일즈 영화 기관인 Cymru Wales에서, 문학은 공기업인 Literature Wales에서 각각 지원을 제공함.

(3) 북아일랜드 예술위원회(Art Council of Wales)

□ 북아일랜드예술위원회는 지원사업을 대상별로 구분하여 단체 지원과 개인 지원을 공모받음.

- 타 기관에 비하면 공모사업을 주제별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지원받고 있음.
- 사업에 따라 특정 장르에 지원을 한정하기도 함.

〈표 69〉 북아일랜드예술위원회의 공모사업

대상	사업명
단체	Annual Funding Programme
	Small Grants Programme
	International Programme for Organisations
	Resilience Programme
	Young People & Wellbeing Arts Programme 2016-2019
	Arts and Older People Grants Programme
	Lottery Project Funding 2018-19

대상	사업명
개인	Open Submission Scheme
	Momentum Music Fund
	International Showcase Fund
	Young Musicians' Platform Award
	Indian Residencies
	Travel Awards
	The Rosemary James Memorial Trust Award

자료: 북아일랜드예술위원회 웹사이트(<http://artscouncil-ni.org/funding>, 2019.01.26. 최종접속)

□ 북아일랜드가 지원하는 예술 형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문학과 문화를 하나의 장르로 묶어 전통예술을 '문학·언어·문화'의 하위분류로 구분했음.
- 무용과 음악, 그리고 연극에 해당하는 드라마와 희극을 '공연예술'의 하위분류로 구분했음.

〈표 70〉 북아일랜드 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 분류체계

문학·언어·문화 (Literature, Language, and Culture)	문학(Literature)
	언어예술(Language Arts)
	국제예술(International Arts)
	전통예술(Traditional Arts)
참여예술 (Participatory Arts)	예술과 장애(Arts & Disability)
	서커스·축제 예술(Circus Carnival Arts)
	자발적 예술(Voluntary Arts)
	청년 예술(Youth Arts)
	예술과 건강(Arts & Health)
	문화 간 예술(Intercultural Arts)
	예술과 노인(Arts & Older People)
	'Young People & Wellbeing Arts Programme'



공연예술 (Performing Arts)	무용(Dance)
	드라마(Drama)
	음악 · 오페라(Music & Opera)
	희극(Comedy)
	'Take it away scheme'
시각예술 (Visual Arts)	매입(Acquisition)
	건축(Architecture)
	공예(Crafts)
	영화 · TV(Film & TV)
	공공예술(Public Arts)
	시각예술(Visual Arts)
	'Building Peace through the Arts: Re-Imaging Communities'
	'Own Art'
	'Art Lending Scheme'

자료: 북아일랜드예술위원회 웹사이트(<http://artsocouncil-ni.org/the-arts>, 2019.01.26. 최종접속)

주: 사업명에 해당하는 분류체계는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표기.

- '시각예술'의 하위분류로 건축, 공예, 영화 · TV, 공공예술, 시각예술 등이 있음.
  - '매입'이라는 하위분류는 작품을 구매하여 예술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다양한 주체가 예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술활동의 형태를 '참여예술'로 따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사항으로 볼 수 있음.
- 북아일랜드예술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이 분류체계는 예술활동의 형태와 목적이 혼재되어 있다고 수 있음.

### 3. 프랑스의 문화예술 지원체계

#### 가. 프랑스의 문화예술 지원정책 역사 및 배경

- 프랑스는 대표적인 “국가주의 예술정책” 국가로(현지은, 2009: 26), 16세기부터 국가가 문화 소비자로서 문화예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주도했음(이현선, 2011: 32).
  - 루이 14세는 예술시설 및 기관 건설 등의 간접지원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예술가들이 궁정에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등 예술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했음(현지은, 2009: 26).
- 정치·경제·행정적으로 강한 중앙집권적 구조로 되어있고, 문화예술정책도 마찬가지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함(최보연, 2016: 61).
  - 1789년 프랑스혁명 이후에도 공적 지원을 지속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했음(현지은, 2009: 26).
  - 1959년 샤를 드골 정부 수립과 함께 세계 최초로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문화부를 창설하여 정부 주도의 문화보급정책을 펼침.
  - 미국, 영국과 달리 기금을 분배하는 예술지원기구가 없고, 대신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예술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함. 중앙정부는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예술분과별로 설치된 국립진흥원이 집중 지원을 하는 식으로 강력한 국가중심주의 예술정책을 펼치고 있음(이현선, 2011: 32; 조화연, 2008: 37).
  - 지식(콜레주 드 프랑스, 국립도서관), 예술(코메디-프랑세즈, 루브르 미술관), 문화의 진흥과 조직, 행정구조 및 예산 등 기금의 단계적 배치에 국가가 중심 역할을 맡고 있음(양건열, 2003: 8).
- 기존에 교육부 산하에 있다가 독립된 문화부는 문화예술정책을 교육 및 여가활동 목적에서 “문화민주화”의 발현으로 개념을 확장하였음(최보연, 2016: 65).
  - 1960년대에는 문화예술의 정책대상을 고급예술로 한정했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 ‘인간활동의 결과물’로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정의를 바탕으로 접근함(최보연, 2016: vii).
  - 일차적 목표는 전 예술 영역에서의 창작 활동 장려뿐만 아니라, 문화 확산 및 격차 해소에 있었고, 이에 따라 전국 도 단위에 문화센터(Maison de la Culture)를 세우고자 노력했음

(양건열, 2003: 9).

- 1977년부터 지역문화사업국(DRAC: Directions Regionales des Affaires Culturelles)이 설립되어, 현재는 22개 행정구역 레지옹에 모두 설치되어 있음.

#### 나. 프랑스의 문화예술 지원 행정체계

□ 국가 중심적 모델에서 최근 중앙-지역의 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음(최보연, 2016: 70).

- 1982년 3월 2일 제정된 ‘레지옹, 데파르트망, 코뮌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법’에 따라 지역분권화가 추진됨.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지역정부의 독립성이 강화되었고(김의석, 2017: 47),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의 역할 분담과 연계가 강화되고 있음(한국정책학회, 2011: 165-166; 최보연, 2016: 70).
- 기존에는 지역문화사업국을 통해 획일적인 문화예술정책이 수행되는 식이었지만(김의석, 2017: 47), 점차 중앙정부가 지역정부와 별도 계약을 맺으면서 중앙-지방의 관계가 공급자-수혜자가 아닌, 협력적 동반자로 변모하고 있음(한국정책학회, 2011: 165; 최보연, 2016: 70; 류정아, 2015: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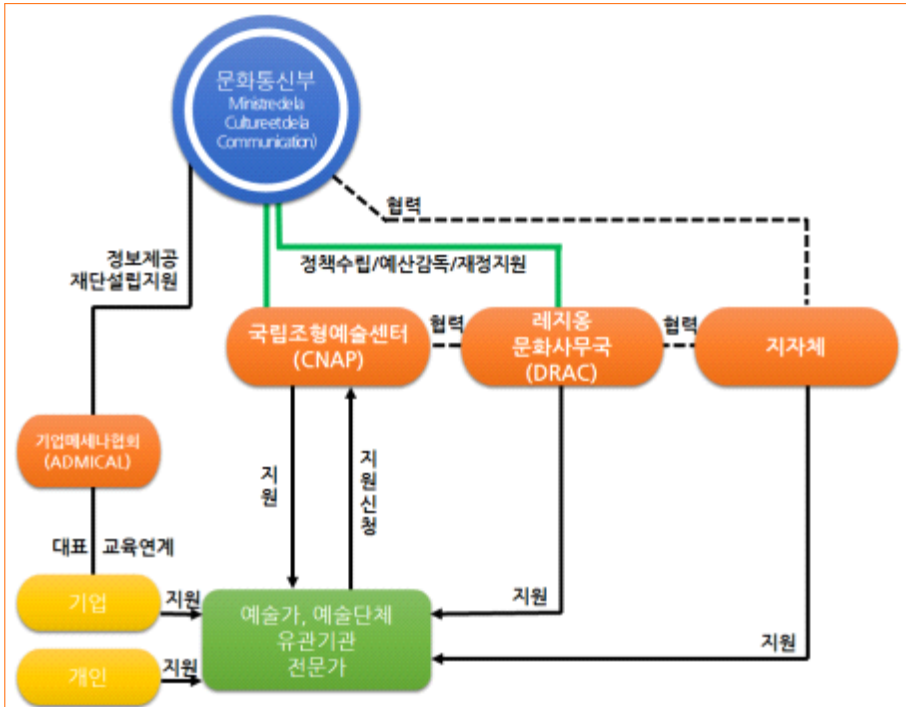
〈표 71〉 프랑스 문화예술 지원 체계 내 지원/운영/협력 기관: 국립조형예술센터 중심

구분	기구명	역할
정책수립/ 예산감독	문화통신부 (Minist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국가가 문화예술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문화정책 및 재정지원의 중앙집권적 형태를 보이고 있음. 일반사무총국, 문화유산국, 예술창작국, 미디어 및 문화산업국, 프랑스 언어특별국으로 이뤄져 있으며, 산하기관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문화예술의 각 분야별 지원 형태로 문화행정이 이뤄지고 있음

55) 문화통신부 소속의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은 국립조형예술진흥원 이외에도 국립도서진흥원(CNL, Centre National du Livre)과 국립영화진흥원(CNC, Centre National du Cinématographie) 등이 있음. 국립조형예술센터가 이 중 가장 대표적인 문화예술지원기관으로 꼽힘(한승준, 2011: 178).

구분	기구명	역할
행정/운영	국립조형예술진흥원 (Centre National des Arts Plastiques: CNAP) <sup>55)</sup>	문화통신부에 소속된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임 조형예술과 시각예술 분야의 예술창작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문화통신부의 감독을 받음-100% 국가예산으로 구성됨 '국가현대예술소장품'에 속하는 창작 부분의 작품들을 국가를 대리하여 구입,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보조금이나 연구비 지급을 통해서 예술분야 연구나 예술창작을 지원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갤러리, 출판사, 복원가, 비평가 등 현대예술 전문가들을 지원함
	지역문화사무국 (Direction Regional Des Affaires CUlturelles: DRAC)	1977년 이후 프랑스 문화부는 광역자치단체인 각 레지옹에 파견기관 인 지역문화사무국을 두고 있음 DRAC의 국장은 중앙정부에서 파견하는 직위이며 관리체계상으로 여타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동일하게 중앙정부 보고 의무를 지니고 있음 DRAC은 지역단위에서 중앙의 문화부의 모든 활동분야를 포괄하며 문화분야의 파트너와 지자체에 대한 자문평가 작업을 수행함
지원기관	기업메세나협회 (ADMICAL)	공익적 특성을 지닌 협회로서 중앙과 지자체에서 다루지 못하는 새롭고 실험적인 예술창조활동들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설립 후원과 메세나를 구분하는 프랑스 문화행정상 기업메세나협회 소속 기업은 법적으로 세액공제 등의 공익적활동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협력기관	지자체	문화분야에서 레지옹은 데парта망이나 꼬뮌 단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문화정책성과 관련된 업무나 문화관련 정책을 하위 지자체와 연결해주 는 역할을 수행하고 각종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업무를 담당함

자료: 류정아(2015: 45)



〈그림〉 56 프랑스 문화예술 지원체계

자료: 류정아(2015: 46)

주: 프랑스 문화정책 중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한 지원체계임

□ 레지옹-데파르트망-코뮌 3층 구조의 지방행정체계에 따라 각각 고유의 권한과 책임을 가짐.

- 1983년 7월 2일 제정된 『지방분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박물관과 도서관을 운영 및 재정적 지원을 하고, 음악·무용·드라마·조형예술·공공교육기관 운영은 국가의 권한에 속하거나 상위교육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레지옹, 데파르트망, 코뮌의 책임으로 시행함(한국정책학회, 2011: 183).
- 레지옹 단위에서는 지역문화사무국이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행정 등 지역 행정을 지원하고 있음.

〈표 72〉 프랑스 지방정부의 문화업무 관련 권한

자자체	권한
레지옹 (région)	-레지옹의 박물관 조성과 재정지원 -문서 보존
데파르트망 (département)	-데파르트망의 도서관, 박물관 조성과 재정지원 -고문서 보존과 관리 및 고문서관리국 재정지원
코뮌 (commune)	-코뮌의 도서관, 박물관 조성과 재정지원 -고문서 보존과 관리

자료: 한국정책학회(2011, 185)

□ 문화통신부 이외 타 부처도 문화서비스 공급 등 문화예술에 대한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할당하고 있음(양건열, 2003: 25).

- 문화통신부 중심으로, 타 부처와의 교류를 중요시하며 교육부, 외교부, 도시청소년체육부 등과 함께 정책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음(김익석, 2017: 48).
- 교육부는 자연사 박물관, 프랑스 학사원, 프랑스 아카데미 등의 자연사박물관을 감독하고, 외무부는 문화적·언어적 교류 및 해외에서의 프랑스어 교육을 책임지고 있음(양건열, 2003: 25).

#### 다. 프랑스의 문화예술 지원 주요 기관

1) 문화통신부(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sup>56)</sup>

(1) 역할 및 위상<sup>57)</sup>

□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 주도의 정책의제를 설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 문화예술 교육,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예술창작 등 세 가지 축을 통해 문화 접근성의 불평등 개선, 문화 다양성 확대 및 모든 분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 행정의 지역분권화를 통해 지역문화 발전을 장려하고, 문화향유 수준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56) 1997년 영상, 전자통신 등 테크놀로지 예술 보급과 발전을 위해 문화부에서 문화통신부로 명칭을 바꿈(이현선, 2011)

57) 최보연, 2016: 75에서 주로 인용함

및 정책을 수행함.

- 문화부의 지역 대표부를 지역에 두는 것을 비롯해 문화인프라 확충, 예술단체 양성, 예술가 지원 등을 맡고 있음(이현선, 2011: 33).

## (2) 조직 구성 체계

□ 문화통신부와 별개로 국가 단위의 행정체계로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Service à compétence nationale)과 문화통신부 산하 공공 문화예술기관(Etablissements publics d'Etat)이 있음(최보연, 2016: 75).

- 공공서비스 제공기관과 공공 문화예술기관은 분야별로 문화예술 행정 및 지원, 예산관리를 통해 국가 단위의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공공 문화예술기관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행정과 예산 처리에 있어 중앙정부와 별개로 운영되고 있음(최보연, 2016: 75).
-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은 기관의 특성에 맞는 특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지역분권의 행정통합형 기관으로 25개가 있음<sup>58)</sup>. 무형문화재사업소(L'Agence du patrimoine immatériel de l'État), 국가기록보관소(Les Archives nationales) 등이 대표적임(최보연, 2016: 84).
- 공공 문화예술기관은 현재 기준 86개가 있음<sup>59)</sup>. 국립조형예술진흥원을 비롯하여 장르별로 국립무용진흥원, 국립영화진흥원, 국립도서진흥원, 국립연극진흥원 등이 문화통신부 산하 공공 문화예술 기관임. 각 장르에 대한 정책수립과 지원을 같이 하고 있음(조화연, 2008: 3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65를 재인용). 자체적으로 예산 운용을 하는 등 독립성을 보장 받음(최보연, 2016: 84).

〈표 73〉 프랑스 문화통신부 산하 장르별 국립진흥원

장르	국립진흥원
시각예술	국립조형예술진흥원(Centre National des Arts Plastiques)
영화 및 음향·영상	국립영화진흥원(Centre National de la Cinématographie)

58) <http://www.culture.gouv.fr/Nous-connaître/Organisation/Etablissements-et-services-deconcentrés/Services-à-compétence-nationale>(2019년 2월 26일 접속)

59) <http://www.culture.gouv.fr/Nous-connaître/Organisation/Etablissements-et-services-deconcentrés/Etablissements-publics>(2019년 2월 26일 접속)

장르	국립진흥원
도서	국립도서진흥원(Centre National du Livre)
음악	국립음악진흥원(Centre National des Variétés, de la Chanson et du Jazz)
공연예술	국립무용진흥원(Centre National de la Danse) 국립연극진흥원(Centre National du Théâtre)

자료: CFPDC(2008)에서 내용 재구성

□ 문화통신부는 1개의 사무총국, 3개의 소속국, 1개의 특별국으로 구성됨(최보연, 2016: 77).

- 2010년 조직 개편을 통하여 문화부 장관 산하 1개의 사무총국, 3개의 소속국, 1개의 특별국을 둠.
- 조직개편의 주요 목적은 문화통신부의 주요 정책 전달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함임. 또한, 중앙정부의 조정력을 높이고, 부서별 기능을 명확하기 위해 추진됨.



〈그림 57〉 프랑스 문화통신부 조직도(2019년 2월 28일 기준)

자료: 최보연(2016: 77)

주: 프랑스 문화통신부 웹사이트에서 현재 조직도 재확인(<http://traduction.culture.gouv.fr/url/Result.aspx?to=en&url=http%3A%2F%2Fwww.culture.gouv.fr%2FNous-connaitre%2FOrganisation>, 2019년 2월 28일 최종접속).

□ 조직개편 이후, 부서별로 명확하게 정리된 업무는 아래와 같음(최보연, 2016: 78-81).

- 미디어 및 문화사업국은 프랑스의 문화산업군<sup>60)</sup>을 지원함. 출판(책, 언론매체, 음악, 전자게임), 영상산업(영화, 비디오, TV, 라디오), 언론의 정보전달 서비스 등을 지원함.

60) 프랑스에서의 문화산업군은 우리나라 및 영미권에서 의미하는 문화산업과 차이가 있음. 프랑스에서는 일련의 프로토타입을 가지는 서비스와 수익을 창출하는 복제 생산과 다량 대포가 가능한 콘텐츠를 가지고 활동하는 산업 전반을 의미함(Thomas Perrin 외, 2015; 최보연, 2016: 81에서 재인용).



- 문화유산국은 문화유산 보존, 현대적 활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 건축담당부, 국가기록물부, 프랑스박물관부, 문화유산부, 국내외 문화유산 자료 프로젝트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예술창작국은 조형예술과 공연예술 분야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함.
- 프랑스언어특별국은 영어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위기의식을 느끼고 프랑스어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함. 이외에도 문화정체성을 추구하고 문맹률 퇴치 등을 위해 노력함.

〈표 74〉 프랑스 문화통신부 부처 및 주요 사업(2016년 2월 기준)

부서명	업무
일반사무총국	인적자원, 예산, 국제 및 법률, 문화예술정책의 조정 및 혁신
미디어 및 문화산업국	서적 및 독서, 미디어 업무
문화유산국	건축, 프랑스 박물관, 문화유산, 프랑스 고문서 부처간 업무
예술창작국	예술창작, 조형예술 업무
프랑스언어특별국	프랑스어 권리 보장, 프랑스어로 인한 사회결속 강화, 프랑스어 현대화, 언어학적 다양성 촉진, 프랑스에서 사용되는 언어 평가 및 촉진

자료: 최보연(2016: 78)에서 일부 발췌

### (3) 주요 지원사업

□ 프랑스 문화통신부의 지원사업은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사업, 공공구매 사업, 라벨 사업, 기타 목적사업이 있음.

〈표 75〉 프랑스 문화통신부의 주요 지원사업

사업	내용
보조금 지원사업 (Subventions)	고고학, 건축, 시각예술 등 장르별로 사업 주제에 따라 지원 ※ 장르 구분은 아래 표 참고
프로젝트 공모사업 (Appels à projets)	연구, 공연, 전시 등 특정 주제에 대한 프로젝트들을 공모하여 지원하는 사업
공공구매 사업 (Mes démarches)	중앙행정의 부서, 지역정부, 공공서비스 제공기관 등에서 예술가의 작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연결
라벨 사업 (Protection, labels, appellations)	문화유산의 보존 및 복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사업
기타 목적사업 (Dispositifs spécifiques)	‘예술의 1%(Le 1% artistique)’, ‘1 건축물, 1작품(1 immeuble, 1 oeuvre)’ 등 기타 목적사업이 포함

자료: 프랑스문화통신부 웹사이트(<http://traduction.culture.gouv.fr/url/Result.aspx?to=en&url=http://www.culture.gouv.fr/Aides-demarches>, 2019.03.09. 최종접속)

- 보조금 지원사업은 장르별로 구분하여 주제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음.

〈표 76〉 프랑스 문화통신부 주요 지원금 제공사업(2019년 2월 기준)

분류	지원사업
영역행동-공유 (Territorial action-share)	문화예술 교육(국가, 영역), 사회적 연대 행동(국가, 영역), 우선순위 영역을 위한 지원 등
고고학 (Archaeology)	고고학 연구 등
건축 (Architecture)	건축·유산 강화 영역 연구, 보호구역, 자치구 및 시 지역 예술 및 역사(이야기) 지원, 현대 건축 확산 지원, 교육 활동 설치 지원
아카이브 및 박물관 (Archives and Museums)	프랑스 박물관 수집품 강화 지원, 프랑스 박물관 수집품 보존 및 복원 지원, 프랑스 박물관 개발 프로젝트 지원, 프랑스 국립 국유 박물관 전시, 자치 지역, 디지털 정보 및 디지털 아카이빙 관리, 디지털화와 복원 및 홍보, 창작 개인 지원 등
시각예술 (Visual Arts)	워크숍(스튜디오) 설치 수당, 예술 공공 위원회 등
문화산업 (Cultural industries)	도서관(서적)의 서면 저작물의 보존 및 판촉(평가) 지원, 출판사 지원, 서점 지원, 독서 개발(특정 대중 포함), 영화 지원 및 영화 유산 보호 지원, 국익 문서(APIN) 매입, 공공 도서관(서가)의 전통 습득, 복원, 홍보 등
프랑스어 및 프랑스언어 (French language and languages of France)	1994년 8월 4일 법안에 의해 국립 유산 보존 협회 승인, 과학 공동체의 프랑스인(파스칼 기금), 사회에서의 프랑스어의 존재, 프랑스어 능력을 위한 활동(공유), 언어생활 관찰, 다언어주의 추진(수업), 프랑스 언어의 홍보(평가), 언어적 관계에 대한 인식 제고, 프랑스어 강화, 디지털 세계의 언어(방언)
확산 및 창작 (Places of distribution and of creation)	국립무용진흥원, 현대예술센터, 국립안무개발진흥원, 국립연극진흥원, 국립 거리 예술 및 공공공간 진흥원, 현대예술 지역기금, 국립오페라, 국립오케스트라, 국립 서커스진흥원, 현대음악무대, 국립무대, 지역 안무회사 지원, 지역 극장회사 및 서커스 거리예술 지원, 지역 스타일밴드 지원, 레지던스 지원 등
미디어 (Medias)	지역 잡지 지원, 언론 유통 지원, 국립 출판물(광고 수입원이 적은 정치적·일반정보) 지원, 국립 일간지(광고 수입원이 적은 정치적·일반정보) 지원, 지역 일간지 지원 등
역사기념물 (Historic monuments)	기념 유산 보존 및 보호, 역사기념물 연구, 역사기념물(건물, 가구, 오르간) 지원금 요청 등
음악 (Music)	독창적인 음악 작곡 지원 등
라이브 공연 (Live performance)	서커스 예술 및 거리 예술 분야 프로젝트 지원, 축제 지원 등

자료: 프랑스 문화통신부 웹사이트(<http://www.culture.gouv.fr/Aides-demarches/Subventions>, 2019년 2월 28일 최종접속)

- 특정 주제에 프로젝트를 공모하는 사업의 경우, 정기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수시 공모를 함.
- 문화유산의 보존 및 복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사업은 사업마다 사업의 목적이 드러나는 이름으로 라벨(Label)을 붙여서 프랑스 전역 문화유산의 다양성을 추구함.

〈표 77〉 프랑스 문화통신부 라벨 사업

라벨	목적
역사적 기념물 (Monument historique)	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및 기술적 기준을 검토하여 평가하는 재산의 유산에 기반을 두는 공공시설 보호
프랑스의 박물관 (Musée de France)	국가의 박물관으로 인정하는 박물관에 대한 지원(현재 1,218개)
뛰어난 정원 (Jardin remarquable)	공공/민간의 문화적, 미적, 역사적 또는 식물학적 관심을 지녔다고 인정되는 정원으로, 5년 동안 지위가 유지
유명인의 집 (Maisons des illustres)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에서 유명한 프랑스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보존
유럽의 유산 (Patrimoine européen)	2005년 유럽연합(EU) 회원국인 프랑스의 주도로 만들기로 결정한 라벨로, 유럽의 문화재, 유적지, 문화 유적지, 기념 사이트 등 유럽의 차원을 강조
뛰어난 현대 건축 (Architecture contemporaine remarquable)	역사적 기념물로 등록되지 않은 100년 미만의 건축물로 건축적, 기술적 관심이 충분한 건축물을 인정(현재 1,392개 등록)
도시와 국가의 예술 및 역사 (Ville et Pays d'art et d'histoire)	문화유산, 건축물, 환경의 질에 있어서 주민, 방문객, 젊은 층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
독립 참고서점과 참고서점 (Librairie indépendante de Référence et de Librairie de Référence)	편집의 다양성 증진, 지역 계획 참여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독립서점의 문화활동, 협의회 활동 등을 지원

자료: 프랑스 문화통신부 웹사이트(<http://www.culture.gouv.fr/Aides-demarches/Protections-labels-et-appellations>, 2019년 2월 28일 최종접속)

- 공공구매 사업(Marchés publics)을 통해 중앙행정의 부서, 지역정부, 공공서비스 제공기관 등에서 예술가의 작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음.<sup>61)</sup>
- 기타 목적사업으로는 공공 건축물에 1% 예산을 지원하는 ‘예술의 1%(Le 1% artistique)’, 건설 회사가 건설을 시행할 때마다 예술가 작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1 건축물, 1작품(1 immeuble, 1 oeuvre)’ 등이 있음.

61) 공공구매 플랫폼 웹사이트(<https://www.marches-publics.gouv.fr/?page=entreprise.AccueilEntreprise>) 참조

#### (4) 분류체계 및 장르 구분

□ 문화통신부의 지원사업은 장르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 편이지만, 일반적인 분류체계와는 차이가 있음.

- 문학예술 자체에 지원하는 사업은 없고, 문화산업의 관점에서 도서 지원 및 독서 문화 장려를 하거나 매체를 지원하는 형태임.
- 프랑스어 지원사업도 있으나 언어의 보존 및 확산 목적이 강하므로 기존 장르체계에서 전통예술 장르와 상응하는 것으로 분류함.
- ‘영역행동-공유’로 번역되는 지원사업의 내용은 예술교육에 가까운 것으로 보임.

〈표 78〉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프랑스 문화통신부 분류체계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프랑스 문화통신부
문학		문화산업(Cultural industries) - 도서(Livre)
시각예술		시각예술(Arts plastiques)
		건축(Architecture)
		멀티미디어(Multimédia)
		사진(Photographie)
공연예술	무용	무용(Danse)
	연극	연극(Théâtre)
	음악	음악(Musique)
다원예술		
전통예술		
예술일반		영역행동(Territorial action)
		서커스(Cirque)
		거리예술(Arts de la rue)
		문화산업(Cultural industries) - 영화(Cinéma)
		역사기념물(Monuments historiques)
		프랑스어(Langue française)
		예술 고등교육-장학금 (Enseignement supérieur artistique : bourses)
		아카이브(Archives)
		박물관(Musées)
		고고학(Archéologie)

자료: 프랑스 문화통신부(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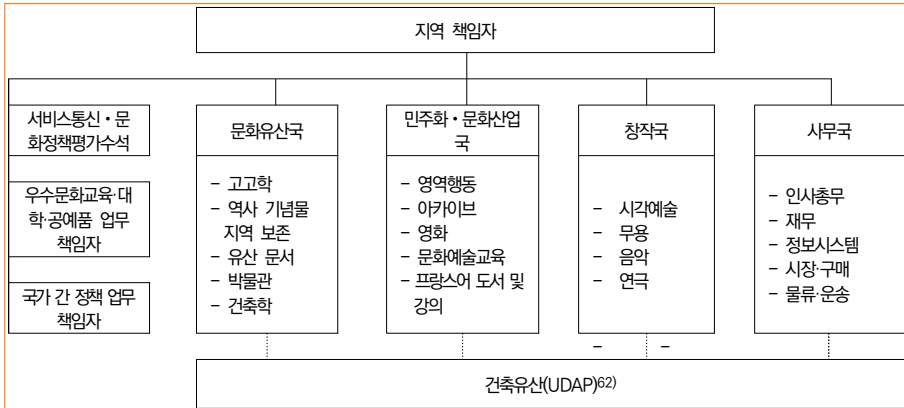
## 2) 지역문화사업국

### (1) 역할 및 위상

- 중앙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을 지역 단위에서 추진하는 기관으로, 지방정부의 문화예술정책과는 별개로 운영됨(최보연, 2016: 86).
  - 지자체 산하에 설치되어 있지만, 지자체 문화담당부서와 독립된 기구임.
  - 중앙의 재원을 지역에 분배하는 데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자체 문화정책실행에 대해 자문을 제공함(조화연, 2008: 39).
- 프랑스 22개 레지옹에 모두 설치되어 있으며, 해외 자치부인 DOM-TOM에 7개가 설치되어 있음(조화연, 2008: 39).

### (2) 조직 구성 체계

- 문화유산국, 민주화·문화산업국, 창작국, 사무국 4개 국을 중심으로 구성됨.
-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샬롱앙상파뉴(Châlons-en-Champagne), 메스(Metz) 세 개의 지역이 나눠서 기능을 맡고 있음.
  - 스트라스부르는 창작국, 샬롱앙상파뉴는 문화유산국, 메스는 민주화·문화산업국을 담당함.



〈그림 58〉 프랑스 지역문화사업국의 조직구성도

자료: 문화통신부 웹사이트(<http://www.culture.gouv.fr/Regions/Drac-Grand-Est/La-DRAC/Organigramme-de-la-DRAC-Grand-Est>, 2019년 2월 28일 최종접속)

#### □ 일반적인 분류체계와는 다르게 중분류에 속하는 장르가 있음.

- 문화통신부와 마찬가지로 문학예술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특징이 있음. 문학의 민주화나 문화산업의 관점에서 프랑스어 도서를 통해 문학예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임.
- 건축도 문화유산의 관점에서 분류되고 있음.

#### □ 3개 국(문화유산국, 민주화·문화산업국, 창작국)에는 각각 10개의 건축유산 단위(UDAP)<sup>63)</sup>가 있음.

#### (3) 주요 지원사업

#### □ 지역문화사업국의 지원사업으로는 보조금 지원사업, 프로젝트 공모사업, 라벨 사업, 후원사업 등이 있음.

62) UDAP Ardennes, UDAP Aube, UDAP Marne, UDAP Haute-Marne, UDAP Meurthe-et-Moselle, UDAP Meuse, UDAP Moselle, UDAP Bas-Rhin, UDAP Haut-Rhin, UDAP Vosges 등이 여기에 속함.

63) 1996년에 신설된 건축유산부서(SDAP)이 2016년 건축문화유산단위(UDAP)로 개칭됨.

〈표 79〉 프랑스 지역문화사업국의 주요 지원사업

사업명	내용
보조금 지원사업(Subventions)	정기적으로 장르별 보조금 지원 사업
프로젝트 공모사업(Appels à projets)	문화통신부, 지역문화사업국, 국영기업 등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 공모사업
라벨(Labels et appellations)	문화다양성과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라벨 사업
후원(Mécénat)	문화 후원자에게 면세 혜택 제공 등 간접적 지원

자료: 프랑스 문화통신부 웹사이트(<http://www.culture.gouv.fr/Regions/Drac-Grand-Est/Aides-et-demarches>, 2019년 2월 28일 최종접속)

- 보조금 지원사업은 문화예술 장르 및 주제에 따라 제공되고 있음. 현재는 지원사업 공고가 없어 각 분류별 세부 설명은 찾을 수 없었음.

〈표 80〉 프랑스 지역문화사업국의 보조금 지원사업

분류
역사적 기념물(Monuments Historiques)
프랑스 박물관(Musées De France)
아카이브 서비스(Services D'archives)
도서 및 독서(Livre et Lecture)
문화적 민주화(Democratisation Culturelle)
문화예술 교육(Education Artistique et Culturelle)
시각예술(Arts Plastiques)
연극, 거리예술, 서커스, 인형극(Theatre, Arts De La Rue, Arts Du Cirque, Arts De La Marionnette)
음악(Musiques)
무용(Danse)

자료: 문화통신부 웹사이트(<http://www.culture.gouv.fr/Regions/Drac-Grand-Est/Aides-et-demarches/Demande-de-subsidations>, 2019.03.10. 최종접속)

#### (4) 분류체계 및 장르 구분

- 지역문화사업국의 장르 구분 체계는 문화통신부의 장르 구분 체계와 마찬가지로, 문학 자체가 아니라, 도서 및 독서로 지원을 하고 있음.

〈표 8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프랑스 지역문화사업국 분류체계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프랑스 지역문화사업국				
문학		도서 및 독서				
시각예술		시각예술				
공연예술	무용	무용				
	연극	연극	거리예술	서커스	인형극	
	음악	음악				
다원예술						
전통예술		역사적 기념물				
예술일반		문화 교육				
		프랑스 박물관				
		아카이브				
		문화적 민주화				



## 제3절 법 분석

## 1. 예술에 대한 법적 정의

- 우리나라의 법령에서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음. 다만,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정책 수립과 지원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으며, 정책적인 관점에서 문화예술로서 보호하고 지원할 문화예술의 범주를 나열하고 있음(주강원, 2011: 562).
- 문학·예술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sup>64)</sup> 제2조 제1항은 협약의 보호대상에 대하여 “문학·예술적 저작물(Literary and Artistic Works)이란 그 표현의 형태나 방식이 어떠하든 간에 서적, 소책자 및 기타 문서, 강의·강연·설교 및 기타 같은 성격의 저작물, 연극 또는 악극저작물, 무용저작물과 무언극, 가사가 있거나 또는 없는 작곡, 영화와 유사한 과정에 의하여 표현된 저작물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 도해·지도·설계도·스케치 및 지리학·지형학·건축학 또는 과학에 관한 3차원저작물과 같은 문학·학술 및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창작물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주강원, 2011: 575).
- 미국의 경우 각 주별 법령을 통해 순수미술, 예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캘리포니아주는 캘리포니아 민법(California Civil Code) 제 987조<sup>65)</sup>에서 “예술가”를 순수 미술(fine art)을 창작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순수미술이란 공인된 품질(Recognized Quality)을 가진 원본 회화, 조각, 소묘, 또는 원본 유리공예 작품에 한정되며,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할지라도 매도인의 상업적인 사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작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함(주강원, 2011: 572).
  - 뉴욕주는 예술과 문화 사무에 관한 법률(Arts and Cultural Affairs Law)을 통해 회화, 조각, 소묘, 그래픽 아트 등을 순수미술로 규정하면서, 순수미술에 속하는 예술작품에 한정하여 보호대상을 규정하고 있음(주강원, 2011: 574).
  - 오레곤주 문화예술법(Oregon Revised Statutes, Chapter 359 Art and Culture)에

64)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https://www.wipo.int/treaties/en/ip/berne> <2018.12.18. 최종 접속>

65) California Civil Code §987 b. 1, 2.

서 예술은 기악과 성악, 무용, 연극, 민속예술, 창작적인 집필과 사; 건축과 조경 디자인; 회화, 조각, 사진; 그래픽과 공예 미술, 산업디자인; 복식과 의상디자인; 동영상, 텔레비전, 라디오; 테이프와 음향 녹음; 예술사, 예술비평, 예술이론과 관행; 공연, 실연, 실행전시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함<sup>66)</sup>(주강원, 2011: 574).

## 2. 문화예술 관련 주요 법

### 가. 「문화예술진흥법」

- 1972년에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15638호, 2018. 6. 12., 일부개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처음 법 제정 당시 제2조(정의)에서는 “문화예술”을 “문학·미술·음악·연예 및 출판에 관한 사항”으로 정의하였음. 1987년 일부 개정을 통해 “무용·연극·영화”를 추가하여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 및 출판에 관한 사항”으로 정의하였음. 1995년에 이 법의 전부 개정을 통해 “문학, 미술(應用美術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으로 다시 확대함.
- 2014년에 이 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로 확대하였음.
  - 법제처는 개정이유로 ‘최근 만화가 영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출판 등 주요 문화산업의 창조적 원천으로서 그 중요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법의 ’문화예술’의 정의 개념에 만화를 포함시킴으로써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음(김시범, 2018: 38-39).
  - 20대 국회에서는 김병관의원 등 11인이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5259)을 발의하여 문화예술에 “게임”을 포함하고자 함. 관련 검토보고서는 게임을 동법 문화예술에 포함시킬 경우, 게임 분야 종사자가 예술인에 포함되게 되어, 기존 문화예술 지원 체계와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회의적인 의견을 표함.

66) Oregon Revised Statutes, Chapter 359

- 동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자국 「문화예술진흥기본법」에 게임을 문화예술로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게임산업진흥 관련 독립법이 없기 때문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과 「문화예술진흥법」내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를 비교했을 때, 상당부분 유사하게 분류함. 눈에 띄는 차이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구분하고 있는 다원 예술과 관련한 분류는 해당 법에서 찾아볼 수 없음.
- 일부 차이가 있는 부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세부 구분 없이 시각예술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해당 법에서는 미술(응용미술), 사진, 건축, 출판 및 만화 등을 구분하고 있음.
- 또한 해당 법에서 정의하는 어문(語文)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학에 포함될 수 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전통예술에 해당하는 분야는 해당 법에서는 국악만이 정의에 포함되어 있음. 마지막으로 해당 법 내 영화, 연예, 만화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에 따른 분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동법 제23조(위원회의 구성) 제2항에서 규정하는 위원 위촉 시 고려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을 예시로 들고 있음.

〈표 8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장르와 「문화예술진흥법」 정의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문학		문학
		어문
		출판
시각예술		미술(응용미술)
		사진
		건축
공연예술	연극	연극
	무용	무용
	음악	음악
전통예술		국악
다원예술		
예술일반		
		영화
		연예
		만화

#### 나. 「문화재보호법」

-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5639호, 2018. 6. 12., 일부개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처음 법 제정 당시 제2조(정의)에서는 “문화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음.
  - 건조물, 전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기타의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기타의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
  - 패총, 고분, 성지, 궁지, 요지, 유물포함층 기타사적지와 경승지, 동물, 식물, 광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예술상, 학술상 또는 관상상 가치가 큰 것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등에 관한 풍속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기타의 물건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 1970년 일부 개정을 통해 제2조(정의) 제1호에 “서적”을 추가했고, 1982년 전부개정을 통해 제2조(정의) 제2항을 신설 “지정문화재”를 새로이 규정함.
- 1999년 제1조(목적)를 수정하여 단순 문화재 보존과 활용 뿐만 아니라 “민족문화를 계승”하고자 하는 법 제정 목적을 추가함. 문화재 자체에 대한 조항도 “문화재라 함은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규정함. 유무형문화재에 대해서도 단순히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뿐만 아니라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추가 규정함. 기념물에 대해서는 기존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것, 경승지로서 예술상·관상상 가치가 큰 것 및 동물(서식지·번식지·포함한다)·식물(자생지를 포함한다)·광물·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이라는 규정을 세부적으로 분류함. 마지막으로 제2조 제3항을 신설해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당해 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인 “보호구역”에 대해 새로이 규정함.
- 2000년에 제2조(정의) 제1항 제3호를 개정해 단순 사적지 뿐만 아니라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을 기념물 정의에 포함시킴.

- 2010년 전부개정을 통해 제2조(정의) 제5항부터 제8항을 신설함. 제5항 보호물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 제6항 역사문화환경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 제7항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제8항 국외소재문화재는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라 새로이 규정함.
- 2015년 일부개정을 통해 제2조(정의) 제1항 제2호 무형문화재에 대해 기존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세부적으로 구분함. 개정된 무형문화재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각 목에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등을 정의함.
- 2017년 일부개정을 통해 제2조(정의) 제8항 국외소재문화재에 대해 기존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제39조(수출 등의 금지) 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재는 제외한다)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이라 확대 규정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의 조항 체계를 갖추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과 「문화재보호법」내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를 비교했을 때, 대부분 정의가 ‘전통예술’에 포함될 수 있음. 하지만 전통예술 내에 다시 기존 장르구분 체계인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다원예술, 예술일반 등으로 상세 구분이 가능함.
- 특히 제2조(정의) 제1항에 따른 구분을 재분류하면 유형문화재 중 전적, 서적, 고문서의 경우 ‘문학’에, 회화, 조각, 조각품의 경우 ‘시각예술’에 해당될 수 있음. 또한 무형문화재 중 공예, 미술분야는 ‘시각예술’에 전통적 공연은 ‘연극’, ‘무용’, ‘음악’에 해당 될 수 있음.

〈표 8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장르와 「문화재보호법」 정의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재보호법」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전통예술	문학	전적, 서적, 고문서	
	시각예술	회화, 조각, 조각품	공예, 미술
	공연예술	연극	전통적 공연
		무용	
		음악	
	다원예술		
	예술일반		

#### 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1999년에 제정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법률 제15815호, 2018. 10. 16., 일부개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해당 법 제2조(정의)의 “문화산업”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관련 산업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산업에는 영화·비디오물, 음악·게임, 출판·인쇄·정기간행물, 방송영상물, 문화재,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 제외)·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 디지털문화콘텐츠·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 대중문화예술산업,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건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이와 같은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이 포함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장르와 비교하면, 해당 법의 출판·인쇄·정기간행물은 ‘문학’ 장르로, 미술품, 공예품 등은 ‘시각예술’ 장르로 구분할 수 있음. 공연은 ‘공연예술’로, 음악은 ‘음악’으로 구분할 수 있음.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은 ‘시각예술’과 ‘전통예술’로 분류할 수 있음. 하지만 영화·비디오물, 방송영상물,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디자인의 경우 해당 법에서는 시각예술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앞선 타법과의 관계 등을 비추어 볼 때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 중 시각예술에 포함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함.

〈표 8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장르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정의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학		출판, 인쇄, 정기간행물
공연예술	연극	공연
	무용	
	음악	음악
시각예술		미술품, 공예품
전통예술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
다원예술		
예술일반		
		영화, 비디오물, 방송영상물,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디자인

라. 「저작권법」

- 1957년 제정된 「저작권법」(법률 제15823호, 2018. 10. 16., 일부개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해당 법 제2조에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 해당 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에서 저작물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음.
  -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및 그 밖의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 영상저작물
-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와 비교했을 때,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및 그 밖의 어문저작물 중 일부는 ‘문학’ 장르에 속하며, 음악저작물은 ‘음악’ 장르,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은 ‘공연예술’ 장르,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과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영상저작물은 시각예술장르에 속함.

〈표 8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장르와 「저작권법」 정의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저작권법」	
문학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및 그 밖의 어문저작물	
시각예술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영상저작물	
공연예술	연극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무용		
	음악		음악저작물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2014년에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법률 제15437호, 2018. 3. 13., 일부개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해당 법 제2조(정의)에서 방송영상물, 영화, 비디오물, 공연물,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 관련 산업을 대중문화예술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용역은 연기, 무용, 연주, 가창, 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말함.
- 동법 시행령 제2조(대중문화예술산업의 범위)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 「공연법」에 따른 공연물(무용, 연극, 국악 형태의 공연물은 제외한다),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위하여 제작된 영상물(보도, 교양 분야의 영상물은 제외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이미지를 활용한 제작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와 비교했을 때, 공연물은 ‘음악’ 장르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은 ‘음악’과 ‘전통예술’ 장르로 분류할 수 있음.

〈표 8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장르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정의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연극	
	무용	
	음악	「공연법」에 따른 공연물(무용, 연극, 국악 형태의 공연물은 제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위하여 제작된 영상물(보도, 교양 분야의 영상물은 제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이미지를 활용한 제작물

### 바. 기타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 제29105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에 대해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장르 구분에 비해 포괄적인 문화 영역을 관장하고 있으며, 일부 영역은 세부적으로 구분을 통해 강조하고 있음. 실제 문화와 예술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전체를 포괄하고 있으며, 영상은 ‘시각예술’, 출판과 간행물은 ‘문학’ 등에 포함될 수 있음.

〈표 8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장르와 문화체육관광부 직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문학		문화, 예술	출판, 간행물
시각예술			영상
공연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법」제2조(정의)에서 공연을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 제외)라 정의하고 있음. 공연법예술 분야에 대한 진흥을 위해 제정된 해당 법의 정의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중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과 관련이 있음.

〈표 8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장르와 「공연법」 정의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법」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연극	연극
	무용	무용
	음악	음악
전통예술		국악
다원예술		
예술일반		
		연예

-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서는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공공디자인”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중 ‘시각예술’에 해당할 수 있음.
-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제2조(정의)에서는 공예를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이라 정의하고 있음.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중 ‘시각예술’에 해당하는 분야로 구분할 수 있음.
-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문학진흥법」에서는 문학을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학’ 장르와 상당 부분 유사함.
-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정의)에서는 “독서 문화”를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으로, “독서자료”를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라 규정하고 있음.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중 ‘문학’, ‘시각예술’ 등에 해당될 수 있음.

-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음악’ 장르와 관련이 있음. 해당 법 제2조(정의)에서는 음악을 “소리를 소재로 박자·선율·화성·음색 등을 일정한 법칙과 형식으로 종합하여 사상과 감정을 나타낸 것”으로, 음악산업을 “음악의 창작·공연·교육,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제작·유통·수출·수입, 악기·음향기기 제조 및 노래연습장업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으로 규정함.
-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는 만화를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스크 등 디지털매체에 담긴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2조(정의)에서 영화는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 비디오물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상세하게 규정함.
- 이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문화기본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역시 문화와 예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 상세 정의 조항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위 언급된 여러 법률 등의 조항을 인용하고 있음.

### 3. 문화예술 관련 주요 조례

#### 가. 서울특별시

##### 1)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해당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작품과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미술작품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미술을 활성화하고, 작품수준을 향상” 목적으로 함.
- 해당 조례 제2조(정의)에서는 공공미술을 “공원·도로·녹지대 등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되는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벽화·미디어아트·기념비 등의 미술작품”이라 규정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와 비교했을 때, 대부분 ‘시각예술’에 해당될 수 있음.

##### 2)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해당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를 목적으로 함.
- 해당 조례 제2조(정의)에서 문화예술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로 재규정하고 있음.
- 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과 유사함.

##### 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해당 조례는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진작시켜 서울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함.
- 해당 조례에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규정하기보다 재단이 수행해야 할 업무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해당 조례에 따라 재단은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 지역문화의 육성·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해야 함.

#### 4) 「서울특별시 전시예술·디자인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

- 해당 규칙은 “공공시설의 전시예술 및 디자인분야에 대한 공공성과 예술적 수준을 높이고 관련 정책과 사업에 관한 전문성 있는 민간전문가를 감독으로 지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규칙 제2조(정의)에서 전시예술분야를 “디자인공간 조성, 전시행사 개최, 조형물 설치 등”으로, 디자인분야를 “디자인정책, 디자인사업, 공공공간·공공건축물·공공시설물·공공시각매체·옥외조명 및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창작 및 개선행위가 가능한 분야”로 정의하고 있음.
-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중 ‘시각예술’ 분야에 해당될 수 있음.

#### 5) 기타 조례

- 이밖에 「서울특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화관 설립·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이 문화와 예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 또는 예술에 대한 별도 상세 정의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나. 부산광역시

### 1)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해당 조례는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과 문화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함.
- 조례 제2조(정의)에서 거리예술을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미술 등을 공연·전시하는 예술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 예술에 대해 음악, 연극, 무용, 미술 등으로 상세 구분하고 있고,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중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등의 분야에 해당될 수 있음.

### 2) 「부산광역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해당 조례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 전문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함.
- 조례 제2조에서 문화예술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이라 규정함. 앞선 일부 조례 등과 같이 모법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진흥법」내 정의를 재인용하였고,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과 유사함.

### 3)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 해당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20조 문화상 시상에 대한 조항에서 시상부문을 인문과학상, 자연과학상, 문학상, 공연예술상, 시각예술상, 전통예술상, 대중예술상, 체육상, 언론·출판상, 공간예술상으로 분류하

고 있음.

-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문학상, 언론·출판상), ‘시각예술’(시각예술상), ‘연극’, ‘무용’, ‘음악’(공연예술상), ‘전통예술’(전통예술상) 등에 해당될 수 있음.

#### 4)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 해당 조례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2조에서 문화예술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이라 규정함. 이는 앞선 여러 조례들과 같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과 유사함.

#### 5)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해당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2조에서 문화예술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로 규정함. 이는 앞선 여러 조례들과 같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과 유사함.

#### 6) 기타 조례

- 이밖에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이 문화와 예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 또는 예술에 대한 별도 상세 정의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다. 대구광역시

##### 1)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 해당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2조(소속단체)에서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소속단체들을 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극단, 청소년교향악단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중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에 해당될 수 있음.

##### 2) 「대구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해당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함.
- 조례 제2조(정의)에서 문화예술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이라 규정함.
- 조례에는 법률에서 규정한 만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다른 분류는 앞선 여러 조례들과 같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과 유사함.

##### 6) 기타 조례

- 이밖에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예술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이 문화와 예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 또는 예술에 대한 별도 상세 정의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라. 인천광역시

#### 1)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해당 조례는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2조(정의)에서 거리예술을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미술 등을 공연·전시하는 예술행위”라 규정함.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중 ‘시각예술’(미술), ‘연극’(연극), ‘무용’(무용), ‘음악’(음악) 등에 해당될 수 있음.

#### 2)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 해당 조례는 “인천광역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인천광역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2조 인천광역시립예술단의 구성에 대해, 인천광역시립교향악단, 인천광역시립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 포함), 인천광역시립무용단, 인천광역시립국악단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중 ‘음악’(교향악단, 합창단)과 ‘무용’(무용단), ‘전통예술’(국악단) 등에 해당될 수 있음.

#### 3)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 해당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문화예술진흥 도모”를 목적으로 함.
- 조례 제12조의 2(보조금의 지원) 제1호에서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서예, 문학, 사진, 영화, 건축 관련 공연·전시회·기획·연구·창작활동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며 문화예술 장르를 구분함.

-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중 ‘문학’(문학), ‘시각예술’(미술, 서예, 사진, 건축), ‘연극’(연극), ‘무용’(무용), ‘음악’(음악), ‘전통예술’(국악) 등에 해당될 수 있음.

#### 4)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해당 조례는 “인천광역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2조(정의)에서 문화예술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이라 규정함.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과 유사함.

#### 5) 기타 조례

- 이밖에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등이 문화와 예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 또는 예술에 대한 별도 상세 정의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마. 광주광역시

#### 1)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 해당 조례는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광주광역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2조에서 광주광역시립예술단의 구성을 광주광역시립교향악단, 광주광역시립창극단, 광주광역시립발레단, 광주광역시립국악관현악단, 광주광역시립합창단, 광주광역시립소년소녀합창단, 광주광역시립극단, 광주광역시립오페라단 등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이 같은 구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중 ‘연극’(극단), ‘무용’(발레단), ‘음악’(교향악단,

관현악단, 합창단, 오페라단, '전통예술'(창극단) 등에 해당될 수 있음.

## 2)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 조례」

- 해당 조례는 “이고장 출신으로 한국문화예술발전에 현저한 업적을 남긴 문화예술인들의 숭고한 예술정신을 드높이고, 그들의 뜻을 이어받아 한국 문화예술의 창조적 계발과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3조(부문별 시상종류 및 인원)에서 문학 부문(박용철문학상, 김현승문학상, 정소파문학상), 한국화 부문(허백련 미술상 본상 및 특별상), 서양화 부문(오지호 미술상 본상 및 특별상), 국악 부문(임방울국악상 본상 및 특별상)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조례 제4조(수상자 요건)에서 박용철문학상, 김현승문학상, 정소파문학상은 시, 소설 등 문학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허백련미술상은 한국화, 문인화, 서예 등 전통미술분야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오지호미술상은 서양화, 조각, 판화 등 현대미술분야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임방울국악상은 판소리 등 국악분야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로 규정함.
- 이와 같은 구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중 ‘문학’(시, 소설)과 ‘시각예술’(한국화, 문인화, 서예, 서양화, 조각, 판화), ‘전통예술’(판소리, 국악) 등에 해당될 수 있음.

## 3)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 해당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의 문화예술진흥 도모”를 목적으로 함.
- 조례 제2조(정의)에서 문화예술을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이라 규정하며 「문화예술진흥법」의 정의 조항을 재인용했지만 만화는 누락되었음.
- 또한 조례 제2조의2(보조금 지원)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을 우수 예술지, 문학지 발간 및 문학 문화제, 전통민속행사 육성 및 계승발전,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등 전시·공연·기획 및 연구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함.

- 이와 같은 구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중 ‘문학’(문학지, 문학문화제), ‘시각예술’(미술, 사진, 건축), ‘연극’(연극), ‘무용’(무용), ‘음악’(음악), ‘전통예술’(국악) 등에 해당될 수 있음.

#### 4) 「광주광역시 예술의거리 조성 조례」

- 해당 조례는 “문화와 예술의 고장 광주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서화와 도자기 등 예향예술의 상징적 작품을 집산판매하는 “예술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3조(육성업종)에서 화실 및 서도원, 화랑 및 필방, 도자기 전시 및 판매, 토산품 및 민속가구, 서점(예술 및 고서점), 문화예술 관련 학원 및 사무실,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 전통차의 보급 및 판매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구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중 ‘문학’(서점), ‘시각예술’(화실 및 서도원, 화랑 및 필방, 도자기) 등에 해당될 수 있음.

#### 5) 「광주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해당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2조(정의)에서 문화예술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이라 규정함. 실제 해당 법 조항에서 만화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지만 이와 같은 구분 자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과 유사함.

#### 6) 기타 조례

- 이밖에 「광주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광주광

역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체 운영 규칙」, 「광주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등이 문화와 예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 또는 예술에 대한 별도 상세 정의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바. 대전광역시

##### 1) 「대전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해당 조례는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다양한 거리예술 활동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예술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2조(정의)에서 거리예술을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미술 등을 공연·전시하는 예술행위”로 규정함.
- 이 같은 구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중 ‘시각예술’(미술), ‘연극’(연극), ‘무용’(무용), ‘음악’(음악) 등에 해당될 수 있음.

##### 2)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 해당 조례는 “대전광역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대전광역시립예술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2조 대전광역시립예술단에 대전광역시립교향악단, 대전광역시립합창단, 대전광역시립무용단, 대전광역시립청소년합창단 등의 예술단체들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함.
- 이와 같은 구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중 ‘음악’에 해당될 수 있음.

##### 3)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 해당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12조의2(보조금 지원)에서 ▲국어, 인문학 및 독서문화 증진 사업, ▲우수 예술지, 문학지 발간 사업, ▲문화예술 장르별 시민축전 및 예술제 지원 사업, ▲전국 규모 문화예술 경연대회 유치 및 참가 지원 사업,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문학상, 미술상 및 음악상 지원 사업,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사업, ▲전통민속문화 육성 및 계승발전 사업,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원 사업,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사진 및 건축 관련 전시·공연·기획·연구 활동 사업,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사업, ▲문화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다문화 관련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함.
- 이와 같은 구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중 ‘문학’(국어, 인문학 증진사업, 우수 예술지, 문학지 발간사업, 문학상), ‘시각예술’(미술, 미술상, 사진 및 건축), ‘연극’(연극), ‘무용’(무용), ‘음악’(음악, 음악상), ‘전통예술’(전통민속문화, 국악) 등에 해당될 수 있음.

#### 4) 「대전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해당 조례는 “대전광역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여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2조(정의)에서 문화예술을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로 규정함.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과 유사함.

#### 5) 기타 조례

- 이밖에 「대전광역시 생활예술진흥 조례」,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대전예술가의 집 조례」,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대전테마예술창작센터 조례」등이 문화와 예술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 또는 예술에 대한 별도 상세 정의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사. 세종특별자치시

##### 1)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해당 조례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2조(정의)에서 문화예술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로 규정함.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과 유사함.

##### 2) 기타 조례

- 이밖에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등이 문화와 예술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 또는 예술에 대한 별도 상세 정의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아. 울산광역시

##### 1)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해당 조례는 “시민의 정서생활 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울산광역시립예술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2조(구성)에서 울산광역시립예술단에 울산광역시립교향악단, 울산광역시립합창단, 울산광역시립무용단, 울산광역시립청소년교향악단, 울산광역시립청소년합창단 등의 예술단체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함.
- 이 같은 구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중 ‘무용’(무용단), ‘음악’(교향악단, 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청소년합창단) 등에 해당될 수 있음.



## 2)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 해당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창달을 위하여 설치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활성화 추진 등 회관 운영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2조 정의 조항에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을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광고·영화 등의 촬영을 위한 사용행위”라 규정함.
- 이와 같은 구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중 ‘시각예술’에 일부 해당될 수 있음.

## 3) 「울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해당 조례는 “울산광역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를 목적으로 함.
- 조례 제2조에서 문화예술을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라 규정함.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과 유사함.

## 4) 기타 조례

- 이밖에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등이 문화와 예술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 또는 예술에 대한 별도 상세 정의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자. 경기도

## 1)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해당 조례는 “탐구의 특성을 가진 실험적이고 대안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기초예술을 진흥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2조(정의)에서 거리예술에 대해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로 규정함.
- 이 같은 구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중 ‘연극’, ‘무용’, ‘음악’ 등에 해당될 수 있음.

#### 2)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 해당 조례는 “경기도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2조(정의)에서 문화예술을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이라 규정함.
- 이와 같은 구분은 만화가 빠져있지만 「문화예술진흥법」과 유사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와도 유사함.

#### 3) 「경기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 해당 조례는 “경기도의 문화예술분야 후원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2조(정의)에서 문화예술을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재보호법」제2조(정의) 제1항에 따른 문화재”라 규정함.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과 유사함.

#### 4)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해당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2조(정의)에서 문화예술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이라 규정함. 실제 해당 법조항 내 만화가 빠져 있지만,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과 유사함.

#### 5) 기타 조례

- 이밖에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등이 문화와 예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 또는 예술에 대한 별도 상세 정의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차. 강원도

#### 1) 「강원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 해당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문화예술진흥과 함께 도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2조(정의)에서 거리예술에 대해 “도로, 광장, 공원, 시장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로 규정함.
- 이 같은 구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중 ‘연극’, ‘무용’, ‘음악’ 등에 해당될 수 있음.

#### 2)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 해당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5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범위)에서 “도내에 소재지를 두고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규정함.

-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 중 ‘시각예술’(미술, 사진),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국악) 등에 해당될 수 있음.

### 3) 기타 조례

- 이밖에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 조례」, 「강원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강원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강원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강원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이 문화와 예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 또는 예술에 대한 별도 상세 정의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카. 충청북도

### 1)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 해당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2조(정의)에서 문화예술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라 규정함.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과 유사함.

### 2) 기타 조례

- 이밖에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 등이 문화와 예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 또는 예술에 대한 별도 상세 정의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타. 충청남도

##### 1) 관련 조례

-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충청남도 문화예술화관 운영 조례」,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 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문화와 예술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 또는 예술에 대한 별도 상세 정의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파. 전라북도

##### 1) 「전라북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해당 조례는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도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과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2조(정의)에서 거리예술에 대해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로 규정함.
- 이 같은 구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중 ‘연극’, ‘무용’, ‘음악’ 등에 해당될 수 있음.

##### 2) 「전라북도 국제문화예술 체육행사 지원 조례」

- 해당 조례는 “전라북도에서 개최하는 국제문화예술체육행사(이하 “행사”라 한다)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되는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과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2조(정의)에서 국제문화예술체육행사에 대해 “전라북도가 주최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국제기구 및 공공단체 등이 전라북도 내에서 개최하는 문화·음악·미술·무용·연극·영화·민속·체육 등과 관련한 행사 중 외국국가가 참여하는 행사로서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말하며 전라북도의회 승인을 받은 사업 또는 행사”라 규정함.

- 이와 같은 구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전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특히 '시각예술'(미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민속) 등에 해당할 수 있음.

〈표 8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장르와 「전라북도 국제문화예술 체육행사 지원 조례」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라북도 국제문화예술 체육행사 지원 조례」	
문학		문화	
시각예술			미술
공연예술	연극		연극
	무용		무용
	음악		음악
전통예술			민속
다원예술			
예술일반			
			영화

### 3) 「전라북도 문화 예술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 해당 조례는 “전라북도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분야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2조에서 문화예술을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정의) 제1항에서 정한 문학, 미술(응용 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이라 규정함. 조례의 정의에 만화가 빠져 있지만,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과 유사함.

### 4) 「전라북도 어린이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해당 조례는 “음악예술에 대한 전라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수요에 충족하고 지방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전라북도어린이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2조(예술단)에서 어린이교향악단 및 어린이국악관현악단을 둘 수 있고, 그 구성 중 어린이국악관현악단에 필요시 창작부, 무용부, 풍물부 등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 중 ‘무용’, ‘음악’(교향악단, 관현악단), ‘전통예술’(풍물부) 등에 해당될 수 있음.

5) 「전라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해당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2조(정의)에서 문화예술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라 규정함.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과 유사함.

6) 기타 조례

- 이밖에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등이 문화와 예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 또는 예술에 대한 별도 상세 정의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하. 전라남도

1) 「전라남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해당 조례는 “전라남도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2조(정의)에서 문화예술에 대해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로 규정함. 이 같은 구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과 유사함.

## 2) 「전라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해당 조례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2조(정의)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에 따른 활동”이라 규정함.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과 유사함.

## 3) 기타 조례

- 이밖에 「전라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등이 문화와 예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 또는 예술에 대한 별도 상세 정의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거. 경상북도

### 1) 「경상북도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

- 해당 조례는 “다양성과 창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도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과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2조(정의)에서 거리예술에 대해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로 규정함.
- 이 같은 구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중 ‘연극’, ‘무용’, ‘음악’ 등에 해당될 수 있음.

### 2)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해당 조례는 “경상북도민의 정서함향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경상북도 도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2조(구성)에서 예술단 구성을 경상북도 도립국악단, 경상북도 도립교향악단, 경상북도 도립무용단으로 규정함.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 중 '음악'(교향악단), '무용'(무용단), '전통예술'(도립국악단) 등에 해당될 수 있음.

### 3) 「경상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 해당 조례는 “경상북도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을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재능나눔 활동을 장려·지원함으로써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2조(정의)에서 문화예술에 대해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이라 규정함. 이는 「문화예술진흥법」의 정의와 대부분 동일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과도 유사함.

### 4)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 해당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2조(정의)에서 전통문화를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 할만한 문화유산 및 전통풍속”으로, 문화예술을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로 정의함.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과 유사함..

### 5) 「경상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

- 해당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분야 후원문화를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2조(정의)에서 문화예술을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재보호법」제2조(정의) 제1항에 따른 문화재”로 정의함.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장르 구분과 유사함.

#### 6) 「경상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해당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시키고 문화적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2조(정의)에서 문화예술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라 정의함.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과 유사함.

#### 7) 기타 조례

- 이밖에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운영 규칙」, 「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등이 문화와 예술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 또는 예술에 대한 별도 상세 정의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너. 경상남도

#### 1)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 해당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및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경상남도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2조(정의)에서 문화예술에 대해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로 정의함.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과 유사함.

## 2) 「경상남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 해당 조례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과 도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2조(정의)에서 문화예술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로 정의함.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과 유사함.

## 3) 「경상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해당 조례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2조(정의)에서 문화예술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이라 정의함.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과 유사함.

## 4) 기타 조례

- 이밖에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경상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등이 문화와 예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 또는 예술에 대한 별도 상세 정의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더. 제주특별자치도

## 1)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

- 해당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및 제39조(국고보조 등)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에 따른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건전한 체육활동 생활화 조성과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2조(정의)에서 문화예술에 대해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으로 정의함. 이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의 정의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과 유사함.

#### 2)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해당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 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3조(구성)에서 예술단 구성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 제주특별자치도립제주에 술단에 두는 도립제주교향악단 및 도립제주합창단,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예술단에 두는 도립서귀포관악단 및 도립서귀포합창단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함.
-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 중 ‘무용’(무용단), ‘음악’(교향악단, 합창단, 관악단) 등에 해당될 수 있음.

#### 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 해당 조례는 “도민의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분야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2조(정의)에서 문화예술에 대해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제1항 제2호에 따른 문화재”라 정의함.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과 유사함.

#### 4)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

- 해당 조례는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5조의4(문화예술 관련 업종 육성)에서 육성할 문화예술 관련 업종에 대해서 문화예술에 대해 화실과 서도원, 화랑과 필방, 도자기 전시와 판매, 토산품 및 민속가구, 고서점,

문화예술 관련 학원과 사무실, 실내문화예술 공연장과 전시장 등을 규정함.

□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 중 ‘시각예술’과 ‘전통예술’에 해당될 수 있음.

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해당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2조(정의)에서 문화예술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라 정의함.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과 유사함.

6)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 해당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청년 문화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2조(정의)에서 청년 문화예술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으로 정의함.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과 유사함.

7)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 해당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제주문화예술 섬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며 문화예술 창달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2조(정의)에서 문화예술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이라 정의함.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과 유사함.

## 8) 기타 조례

- 이밖에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등이 문화와 예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 또는 예술에 대한 별도 상세 정의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4. 문화예술 관련 법·조례와 장르 분류

- 우리나라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문화예술에 대해 반복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대부분은 문화예술 관련 대표 법령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재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화예술과 문화재 정의를 인용함.
-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조성 등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의 경우 문화예술에 대해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 내리고 있으며, 해당 정의 내용은 대부분 법령과 조례에 인용되어 있음.
- 이를 기반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과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에 걸쳐 추진하고 있음.
- 「문화재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문화재 역시 상당수 조례 등에서 문화예술의 정의 중 하나로 인용되고 있음. 전체적으로 유·무형문화재 등의 경우 전통예술과 관련이 있지만, 형태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달리 장르적 구분은 중첩되거나 명확하지 않은 구분이 존재함. 특히 「문화재보호법」의 무형문화재 중 전통적 공연은 어떠한 장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또한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는 물론 활용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만, 진흥과 육성의 대상인 문화예술로 보기보다 보존과 계승에 초점이 맞춰진 문화로 보는 경향도 존재함.
-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문화예술진흥 조례」,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등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조례를 제정 및 운용하고 있지만, 지방의 특성과 상황 등을 고려한 별도의 문화예술 정의는 없고 상위 법률의 정의 내용을 인용함.
- 전체 문화예술 관련 법 또는 조례를 살펴보았을 때,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시각이 순수한 문화예술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산업적 관점에서 문화산업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병존함. 결국 병존하는 시각으로 인해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와 장르적 구분이 세분화 될 수 있지만

정의 자체가 모호하게 여러 장르에 걸쳐 있는 사례 역시 존재함.

- 실제 법 또는 조례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행위에 대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원대상, 지원영역, 지원범위 등이 보다 면밀하고 상세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음.



#### 제4절 문화예술 기관 분석

##### 1. 문화예술 관련 기관 현황

- 본 절에서는 한국의 문화예술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살펴보고, 문화예술 장르체계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예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내 지원체계 현황과 기관별 업무연계를 살펴봄으로써 문화예술 장르체계의 효과성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음.
- 문화예술분야 유관기관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기관, 광역지방단체 문화재단, 기타 주요법인 등으로 구분 가능함. 문화체육관광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각 정부에서는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 형태를 바뀌어 왔음. 현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전2030-사람이 있는 문화'를 비전으로 삼아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을 꾀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18개 소속기관과 문화예술, 관광, 체육의 각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유관기관은 48개를 두고 있음.
- 다양한 법과 제도로 문화예술 정책을 생산하고, 전담기관을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해온 가운데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분권의 중요성이 대두됨. 이러한 흐름에서 2013년 『문화기본법』에서는 국민 개인의 삶에서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필요성이 명시됨.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문화전문기관을 둘 수 있음. 현재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6개 지역에 문화재단이 설립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예술기관의 장르체계를 비교하기 위해 문학예술,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그 외(다원예술, 예술일반)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는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 그리고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함.
- 공공기관(중앙부처 및 소속 기관, 유관기관) 조사대상 선정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소속기관(18개) 중 교육기관을 제외하고 문화예술 관련 기관과 단체를 기준으로 6개(문화체육관광부 포함) 기관을 조사했으며, 유관기관의 경우 발주처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제외하고, 48개 기관 중 문화예술 관련 사업(공연, 교육, 전시, 행사, 기획 행사, 인력양성)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또는 단체)인 21개 기관(또는 단체)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총 27개 기관을 조사함.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조사대상 선정은 광역시도 문화재단인 16개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민간기관 조사대상 선정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및 분야별 협회 등을 포함해 8개 기관을 다뤘으며, 결론적으로 문화예술기관 분석 조사는 총 51개 기관(또는 단체)의 현황과 장르체계를 비교조사하였음.

〈표 90〉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관련기관, 공공기관 목록

소속기관(18개)	관련기관 <sup>67)</sup> 및 공공기관 <sup>68)</sup> (48개)	
한국예술종합학교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한국문화정보원
국립국악고등학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문화진흥(주)
국립국악중학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민체육진흥공단	<b>한국영상자료원*</b>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재)국악방송	한국저작권위원회
국립중앙박물관	국제방송교류재단(Airang TV)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국립국어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b>한국콘텐츠진흥원*</b>
국립중앙도서관	대한체육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해외문화홍보원	<b>(재)정동극장*</b>	한국저작권보호원
<b>국립국악원*</b>	세종학당재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국립민속박물관	<b>아시아문화원*</b>	<b>(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b>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영상물등급위원회	<b>국립극단*</b>
국립한글박물관	대한장애인체육회	<b>국립오페라단*</b>
<b>국립극장*</b>	영화진흥위원회	<b>서울예술단*</b>
<b>국립현대미술관*</b>	<b>(재)예술경영지원센터*</b>	<b>국립발레단*</b>
한국정책방송원	<b>예술의전당*</b>	<b>국립합창단*</b>
<b>국립아시아문화전당*</b>	태권도진흥재단	<b>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b>
<b>예술원사무국*</b>	<b>(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b>	<b>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b>
	한국관광공사	<b>국립현대무용단*</b>
	<b>한국문학번역원*</b>	언론중재위원회
	<b>한국문화관광연구원*</b>	<b>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b>
	<b>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b>	<b>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b>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잡지협회

67)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관련 기관 링크 검색(2019년 2월 5일 기준) 및 웹사이트 내 소속기관 링크([https://www.mcst.go.kr/kor/s\\_etc/link/innerSite.jsp](https://www.mcst.go.kr/kor/s_etc/link/innerSite.jsp))

68)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2019년 1월 30일 기준.)

## 2. 공공기관: 중앙부처 및 소속 기관, 유관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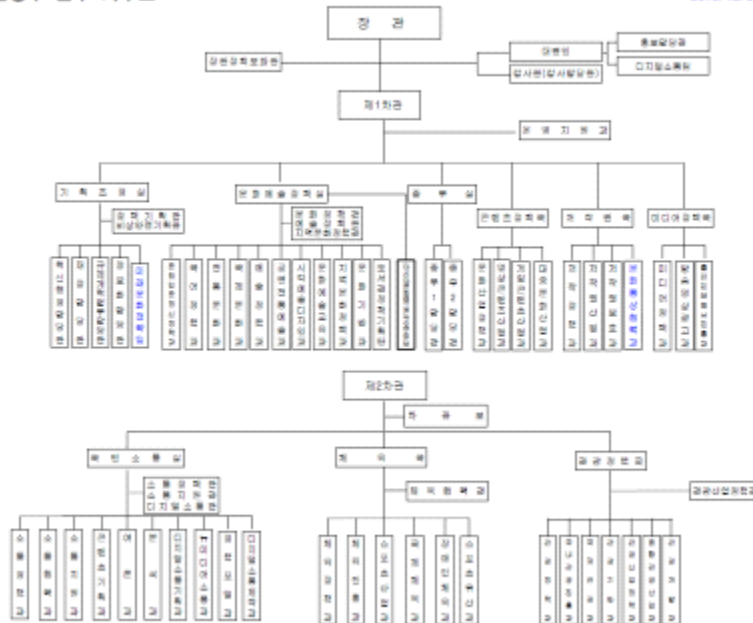
### 가.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누구나 문화를 찾고, 알고, 즐길 수 있도록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콘텐츠, 종교, 미디어, 홍보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은 총 18개 기관으로 구성됨. 문화체육관광부의 18개 소속기관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관기관 및 단체를 포함하면, 총 64개의 기관(단체·박물관·미술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 조직도<sup>69)</sup>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기구도

2018. 12. 31. 기준



〈그림 59〉 문화체육관광부 조직도

69) 문화체육관광부 웹사이트 캡처( [https://www.mcst.go.kr/kor/s\\_about/organ/main/mainOrgan.jsp](https://www.mcst.go.kr/kor/s_about/organ/main/mainOrgan.jsp) , 2018년 12월 31일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내 문화예술정책실은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지역문화정책관으로 구성되며,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민족문화 자원의 발굴과 활용, 국제문화교류,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 문화적 환경 조성, 지역문화정책, 박물관·미술관·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 정책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소속기관(2019년 2월 기준)

- (①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 연극, 영상, 무용, 미술, 전통예술 분야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해 설립된 종합예술대학교
- (②국악고등학교·③국악중학교) 전통예술을 계승·발전시키며, 우리 문화 창달의 주역이 될 전통예술 인재를 육성하는 학교
- (④전통예술고등학교·⑤전통예술중학교) 전통예술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통예술인의 양성하는 학교
- (⑥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와 자료를 수집·보존 및 전시하여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며, 이에 관한 연구·조사하는 기관
- (⑦국립국어원) 우리나라의 올바른 어문 정책을 연구·수행하고 한국어의 세계화를 주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 (⑧국립중앙도서관) 국내외에서 발행된 출판물과 지식정보를 수집·제공·보존관리해 제공하는 기관
- (⑨해외문화홍보원) 한국을 해외에 알리고 해외의 문화와 교류를 한국에 알리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의 정책 등을 홍보하고 지원하는 기관(27개국 32개 한국문화원 운영, 2019년 2월 기준)
- (⑩국립국악원) 민족음악을 보존·전승하고, 그 보급 및 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 (⑪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생활민속문화를 보여주는 생활사 박물관이자 연구 및 조사를 진행하는 기관
- (⑫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자료의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 및 교류를 진행하는 기관
- (⑬국립한글박물관) 한글문화유산의 보존·전시·교육·교류를 통해 한글문화 가치의 보

#### 존, 확산하는 기관

- (⑭국립중앙극장) 전통예술의 발전과 연극문화의 향상을 위한 공연기관
- (⑮국립현대미술관)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조사하는 기관
- (⑯한국정책방송원) 실생활에 유용한 생활정보, 교양, 문화, 정책 뉴스를 방송하는 채널
- (⑰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의 문화교류와 창작, 교육 및 연구를 확산하는 기관
- (⑱예술원사무국)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는 기관

#### □ 주요사업<sup>70)</sup>

- 2018년 주요 정책방향은 다변화된 문화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 시민의 사회 참여 문화 확산, 계층간·지역간 문화향유 격차 등의 상황을 고려해 공정하고 균형있는 문화, 국민의 삶을 바꾸는 문화, 혁신성장을 이끄는 문화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음.
- 공정하고 균형있는 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문화기초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함. 기초 장르는 문학, 미술, 음악, 공연·연극, 영화, 공예의 장르를 구분해 문화예술·콘텐츠의 기본역량 강화를 추진함.
- 국민의 삶을 바꾸는 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예술체험을 확산함. 분야별 예술주간(문학주간, 미술주간 진행, 공예주간 신설)을 진행함.
- 홈페이지에서는 문화광장 카테고리 내 문화예술공연과 문화서비스 소개 등 하위 카테고리 경우 장르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있음.

#### □ 장르체계 비교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시책의 주요 장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장르 구분과 유사함. 문화예술공연 카테고리의 경우 크게 공연예술과 국악예술 위주의 공연 소식을 전하고 있음. 실제 공연 소식을 집대성한 아카이브 공간의 대분류 장르는 연극, 뮤지컬, 오페라, 음악, 콘서트, 국악, 무용, 전시, 기타 등으로 분류됨. 기타에는 영화, 마술쇼, 체험극, 세미나 및 컨퍼런스 등이 포함하고 있음.
- 문화서비스 소개 카테고리의 경우 공공기관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임. 대분류 장르는 문화, 체육, 관광, 전통음악, 한글교육 등으로 구성하고 있음.

70) 문화체육관광부, 2018 업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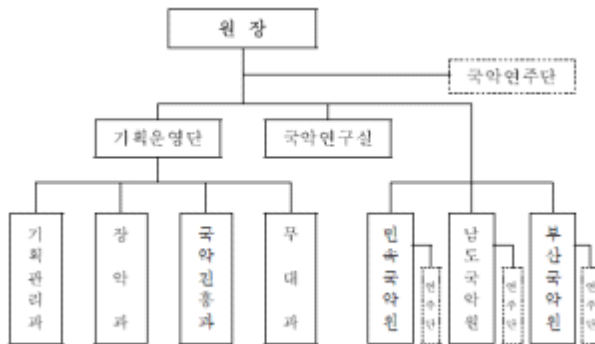
〈표 9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공연)
문학		
시각예술		전시
공연예술	연극	연극
		뮤지컬
	무용	무용
	음악	음악
전통예술		오페라
다원예술		국악
예술일반		
		콘서트

#### 나. 국립국악원

□ 국립국악원은 민족음악의 보존 및 전승, 71) 전통예술의 교육, 연구, 공연을 통한 진흥, 국민과 함께 하는 생활국악의 보급 및 발전을 위해 1951년에 창설되었으며, 1993년 문화체육부로 소속 이관되었음.

□ 조직도72)



〈그림 60〉 국립국악원 조직도

7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및 동법 제58조(직무), 2018.8.21. 일부개정

72) 국립국악원 웹사이트 내 2018 주요업무계획 캡처(<http://www.gugak.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01005002>, 2018년 3월 기준)

## □ 주요사업

- 국악공연, 온라인 국악교육, 국악자료의 수집, 국악학술연구를 비롯해 국립국악원 운영의 일환으로 국악원 전속단체 운영 중임. 국악원 연습장 건립 및 국악원정보시스템 환경 구축 사업을 벌이고 있음.
- 국립지방국악원(민속국악원, 남도국악원, 부산국악원), 국악연주단(정악단, 민속악단, 무용단, 창작악단)을 운영하고 있음. 국악연주단의 정악단은 종묘제례악, 궁중연례악 등 조선시대 궁중에서 연주된 음악을 공연하고, 민속악단은 판소리, 산조, 민요, 병창, 사물놀이 등 민속악 분야의 연주활동을 공연하고, 무용단은 처용무를 비롯해 선유락, 포구락 등 궁중무용을 공연하고, 창작악단은 창작국악의 연주활동을 벌이고 있음.

## □ 장르체계 비교

- 국립국악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장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장르인 전통예술에 포함됨.
- 현재 국립국악원이 운영 중인 사이트인 국악아카이브<sup>73)</sup>에 따르면 국악분류는 전통예술 내 정악, 민속악, 창작음악, 무용, 연희, 기타 등으로 구성됨.

〈표 9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과 국립국악원의 국악아카이브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국악원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연극	
	무용	
	음악	

73) 국악아카이브 <http://archive.gugak.go.kr/ArchivePortal/index.jsp>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국악원		
전통예술	연희	창작연희	마당놀이/노래극
		창극	흥보가/춘향가/적벽가/심청가/수궁가/국극
		전통연희	탈놀이/줄타기/인형놀이/광대굿놀이
	무용	창작무용	현대적 창작/전통적 창작/무용극
		전통무용	의식무용/민속무용/궁중무용
	정악	종교음악	종묘제례악/문묘제례악/경모궁제례악
		성악	시조/가사/가곡
		기악	취타/정음/자진한원/영산회상/여민락/보하자/낙양춘
	민속악	종교음악	불교음악/무속음악
		성악	판소리/잡가/시창송/병창/민요/광대소리
		기악	취타/시나위/삼현육각/산조/봉장취/농악
	창작음악	종교음악	기독교
		성악	합창/창작판소리/중창/성악과실내악/성악과관현악/독창
		기악	협주곡/합주(관악/현악)/중주/사물놀이/독주/관현악
다원예술			
예술일반			

#### 다. 국립극장

□ 전통예술을 동시대적 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50년에 창설된 공연 예술 극장임.<sup>74)</sup>

74) 「국립극장설치법」 제1조, 1954.1.12. 일부개정



□ 조직도<sup>75)</sup>

〈그림 61〉 국립극장 조직도

## □ 주요사업

-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을 운영하고 있음. 주로 전통예술 위주의 공연을 선보이고 있음. 이 밖에 대관, 교육/아카데미 운영하고 있음.
- 국립창극단에서는 창극을 선보이고 있음. 국립무용단은 1962년에 창단된 국립극장의 전속단체로서 전통을 기반으로 한 민속춤, 극무용, 한국창작무용 등을 공연하고 있음. 국립관현악단은 실내악, 관현악 위주의 공연을 선보이고 있음.
- 국립극장은 공연예술박물관을 2009년 12월에 개관해 운영 중임.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수집과 보존을 통한 한국 공연예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음. 공연예술박물관에는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공연예술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을 통해 공연예술자료 전반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음. 1950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극·무용·창극·오페라·판소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있음.

## □ 장르체계 비교

- 국립극장에서 진행하는 공연 및 사업 장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장르

75) 국립극장 웹사이트 캡처(<https://www.ntok.go.kr/kr/Introduction/Officer/index>, 2019년 2월 기준)

구분과 유사함. 다만, 복합장르의 사례로는 승마와 춤, 음악, 시, 사머니즘을 결합한 공연, 퍼포먼스와 코미디의 결합 공연, 반복적인 이미지로 구성된 막간극 등이 구성돼 있음. 복합장르의 자료가 전반적으로 복합장르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고, 다양한 장르의 이종결합인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 복합장르 공연 자체의 공급도 낮은 상황임.

〈표 93〉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과 국립극장의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극장(*공연위주)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연극	연극	
		막간극	
	무용	무용	
	음악	관현악	
		실내악	
전통예술		전통예술	창극
			판소리
			마당놀이
다원예술			
예술일반			

#### 라. 국립현대미술관

□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작품과 미술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조사연구와 이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미술활동의 보급·교육을 통한 미술문화의식 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sup>76)</sup>임.

7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0조(설립과 운영) 2018.10.16.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소속기관) 2018.8.21. 일부개정

## □ 조직도<sup>77)</sup>



〈그림 62〉 국립현대미술관 조직도

## □ 주요사업

- 미술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미술전시의 경우 전시, 필름앤비디오, 다원 예술, 이벤트, 소장품 등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음.
- 특히 다원예술의 경우 2017년부터 매월 한 편 이상의 국제 다원예술작품을 선보이고 있음.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다원미술을 ‘날카롭고 고유한 관점으로 오늘을 사유하고 이를 자신만의 예술 형식으로 표현하는 동시대예술 작가’를 위한 프로젝트로 전람하는 형태를 넘어서 퍼포먼스, 무용, 연극, 사운드, 영상 등 장르의 경계를 초월하는 작품이라고 정의내리고 있음.
-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참여자가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현대미술을 경험하게끔 촉진하고 있음. 전문인교육, 성인교육, 청소년 및 교사교육, 어린이 및 가족 교육을 비롯해 문화접근성향상 교육(문화다양성교육, 장애인교육, 학교밖청소년 교육)을 통해 장애인, 이주민 등 지역, 공간, 계층에 따른 장벽을 최소화하는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77) 국립현대미술관 웹사이트 캡처(<https://www.mmca.go.kr/contents.do?menuId=5030001310>, 2019년 2월 기준)

## □ 장르체계 비교

〈표 94〉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과 국립현대미술관의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현대미술관
문학		
시각예술		한국화/회화/조각/공예/뉴미디어/건축/디자인/드로잉&판화/사진/서예 <sup>78)</sup>
공연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다원예술 <sup>79)</sup>
예술일반		

## 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의 문화교류와 창작, 교육 및 연구를 확산하는 기관<sup>80)</sup>임.

78)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분류 체계 기준(<https://www.mmca.go.kr/collections/collectionsList.do>, 2019년 2월 기준)

79) 국립현대미술관 다원예술 전시 기준(<https://www.mmca.go.kr/exhibitions/dawonArtList.do>, 2019년 2월 기준)

8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운영) 2015.3.13 일부개정

□ 조직도<sup>81)</sup>

&lt;그림 63&gt;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직도

## □ 주요사업

- '아시아'를 주제로 한 공연예술 작품의 제작과 유통 플랫폼을 지향하면서 창·제작 공연은 물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기획공연, 주목할 만한 공연을 초청하는 초청 공연 등을 벌이고 있음.
- 창제작공연에서는 현대극, 애니메이션음악극, 현대무용, 융복합극, 뮤지컬, 퍼포먼스, 음악, 어린이극, 연극, 무용 등의 장르를 공연함. 기획공연에서는 아시아 아티스트를 초청하는 페스티벌로 서아시아의 특징을 살린 스토리, 음악을 소개하고 있음. 주요 장르로는 현대음악, 오페라, 연극, 전자음악&미디어, 창작 판소리, 곤극(중국) 등을 소개함. 초청공연은 클래식, 국악음악극, 연극, 무용, 콘서트 등의 장르를 소개함.
- 국제교류 부문 사업의 경우 아시아전통음악, 아시아무용, 아시아스토리 부문으로 진행 중임.

## □ 장르체계 비교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장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장르 구분과 유사함. 하지만 각 공연별 장르와 공연 내용의 경우 타 기관에 비해 융·복합적 장르를 시도하고 있음.

8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웹사이트 캡처([https://www.acc.go.kr/ac\\_c/intro/group](https://www.acc.go.kr/ac_c/intro/group), 2019년 2월 기준)

〈표 95〉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장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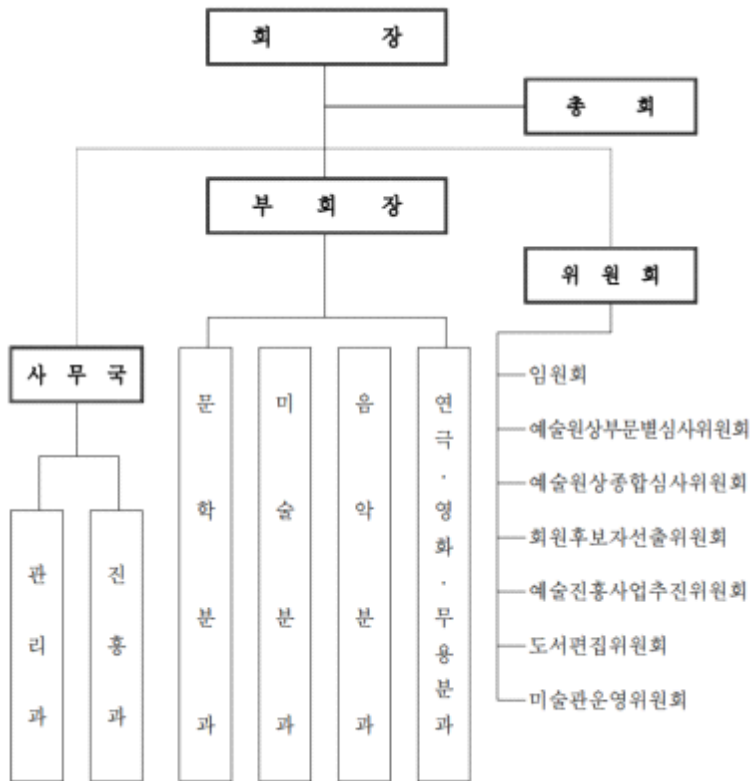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공연위주) <sup>82)</sup>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연극	연극
		뮤지컬
		어린이극
	무용	무용
		퍼포먼스
		현대무용
	음악	클래식
		오페라
		융복합극
		애니메이션음악극
		전자음악&미디어
		곤극
		마임극
		거리극
인형음악극		
전통예술	창작판소리	
	국악음악극	
	마당극	
다원예술		
예술일반		
		패션쇼
		영화

#### 바. 대한민국예술원

□ 대한민국예술원(예술원사무국)은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행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기관<sup>83)</sup>임.

82) 2018 ACC예술극장 공연소개집(<https://www.acc.go.kr/performance/intro>) 및 공연 참고(<https://www.acc.go.kr/performance/Creation/view>)

□ 조직도<sup>84)</sup>



〈그림 64〉 대한민국예술원 조직도

□ 주요사업

- 대한민국예술원은 문학, 미술, 음악, 연극·영화·무용분과 등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별 분과도 문학, 음악, 미술, 연극·영화·무용으로 나누어 구성됨. 회원 정원은 100명으로 현원은 문학(25명), 미술(17명), 음악(21명), 연극·영

83)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조(목적) 2011.4.14 일부개정

84) 대한민국예술원 웹사이트 캡처(<http://www.naa.go.kr/site/main/home> , 2019년 2월 기준)

화·무용(24명) 등을 포함하면, 총 87명(2019.1.21. 기준)임.

- 대한민국예술원상, 문화예술활동(문학, 미술, 음악, 연극·영화·무용 등 4개 부문), 예술원회원세미나, 국제예술교류(예술원 회원 국제교류, 국제예술심포지엄), 회원예술활동창작지원, 회원예술특별강연회 등이 있음.

#### □ 장르체계 비교

- 대한민국예술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장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장르구분과 유사함. 하지만 연극·영화·무용을 묶어 사업을 지원하는 등 공연예술 분야를 통합해 운영 중임.
- 국제예술교류 사업(국제예술회의 및 주요행사 참석을 통하여 국제예술계의 동향파악과 한국예술의 소개 등, 국제교류 증진에 사업)과 예술활동창작지원 사업, 우수예술인발굴사업(2005~2006년 시행) 등 모두 위 4개 부문으로 지원 중임.

〈표 96〉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과 대한민국예술원의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한민국예술원
문학		문학
시각예술		미술
공연예술	연극	연극
	무용	무용
	음악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영화

#### 사. 정동극장

- 정동극장은 전통공연예술의 명품화, 대중화, 세계화를 1995년에 개관했으며, 문화관광부 관리 위탁으로 1997년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전통창작공연장임.



□ 조직도<sup>85)</sup>

〈그림 65〉 정동극장 조직도

## □ 주요사업

- 극장운영 관리, 작품제작 등 공연예술진흥을 비롯해 전통공연예술의 대중화를 위해 공공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음.

## □ 장르체계 비교

- 정동극장에서 진행하는 사업 및 공연 장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장르 구분과 유사함. 전통예술 특화 공연극장이기에 전통예술 장르에 포함됨.

〈표 97〉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과 정동극장의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동극장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85) 정동극장 웹사이트 캡처(<https://www.jeongdong.or.kr/portal/main/main.do>, 2019년 2월 기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동극장	
전통예술	전통예술	판소리
		창작극
		뮤지컬
		음악
다원예술		
예술일반		

### 아. 아시아문화원

- 아시아문화원은 아시아 각국의 문화예술인과 교류하며 문화원형을 전문적으로 연구·수집하고 전시·공연·페스티벌 등의 문화콘텐츠로 제작해 그 결과물을 국내외에 유통하는 기관임.<sup>86)</sup>
- 조직도<sup>87)</sup>



〈그림 66〉 아시아문화원 조직도

8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아시아문화원의 설립 등) 2015.3.13. 일부개정

87) 아시아문화원 웹사이트 캡처(<http://aci-k.kr/intro/greeting> , 2019년 2월 기준)

□ 주요사업

- 아시아 문화 관련 연구·홍보, 콘텐츠 창작·제작 및 유통,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기구 및 단체 네트워크 구성, 융합형 문화·예술 전문 교육 등으로 구성됨.
- 대관 관련해 공연(오케스트라, 연극, 뮤지컬 등)을 진행함.

□ 장르체계 비교

- 아시아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사업 및 공연 장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장르 구분과 유사함.

〈표 98〉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과 아시아문화원의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시아문화원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연극	연극
	무용	무용
	음악	음악
전통예술		무형문화유산 연구(지역)
다원예술		다원예술
		융·복합예술 인력 교육
예술일반		문화다양성 연구
		무형문화유산 연구(아시아)

자. 예술경영지원센터

- 예술유통의 활성화와 예술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으로 자생적 제고를 위해 2006년에 설립된 재단법인임.

□ 조직도<sup>88)</sup>



〈그림 67〉 예술경영지원센터 조직도

□ 주요사업

- 주요 지원사업은 시각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 공연예술지원사업으로 구성됨<sup>89)</sup>.
- 예술의 자생적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 운영,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정부시상지원 공연·전통예술 경연대회 평가사업(연극 및 기타, 음악, 무용, 전통예술)을 하고 있음.
- 인적지원 사업으로는 인적역량 강화를 위해 예술경영아카데미, 예술분야 창·취업 육성 지원, 창업·사업개발비 지원, 투자 활성화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음.
- 이 밖에도 예술시장 정보 확산을 위해 공연예술실태조사,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시각예술실태조사,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 웹진 예술경영을 운영 중임. 해외시장 진출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아트마켓을 비롯한 예술 관련 축제 개최, 해외출판 지원, 해외진출

88) 예술경영지원센터 웹사이트 캡처(<http://www.gokams.or.kr/main/main.aspx> , 2019년 2월 기준)

89) 예술경영지원센터, 2019 사업설명회 자료집(2018년 11월)

관련 네트워크 구성 사업을 벌이고 있음.

- 또 정부 명의의 상장을 수여하는 예술경연대회에 대한 주요 정보 및 운영하는 예술마루 운영을 맡고 있으며, 문화예술 현장 종사자를 위한 예술경영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음.

#### □ 장르체계 비교

-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장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장르 구분에 포함됨.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지원사업의 주요 장르는 공연예술과 시각예술 부문을 지원하고 있음.
-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공연예술의 경우 뮤지컬, 연극, 클래식, 무용, 발레, 오페라, 국악<sup>90)</sup> 등으로 분류함. 시각예술은 회화, 조각·설치, 사진, 현대공예, 판화, 골동품·목기, 전통회화, 미디어 아트 등으로 분류함.<sup>91)</sup>

〈표 99〉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과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sup>92)</sup>	
문학			
시각예술		시각예술	회화
			조각·설치
			사진
			현대공예
			판화
			골동품·목기
			전통회화
		미디어 아트	
공연예술	연극	공연예술	뮤지컬
	무용		연극
			무용
			발레
		클래식	
		오페라	
전통예술		전통예술	국악
다원예술			
예술일반			

90) 예술경영지원센터, 카드 및 소셜빅데이터로 살펴본 공연트렌드 분석(2017.11)

91) 예술경영지원센터, 2017 미술시장실태조사(2016년 기준)

92) 예술경영지원센터, 2019 사업설명회 자료집(2018.11.)

### 차. 예술의 전당

□ 예술의 전당은 문화예술 창달,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1987년에 설립된 특수법인임<sup>93)</sup>.

□ 조직도<sup>94)</sup>



〈그림 68〉 예술의 전당 조직도

□ 주요사업

- 공연, 작품전시 활동, 강좌사업, 문화예술 교육사업, 대관사업, 공익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음.
- 예술의 전당 예술대상 수상자 부문의 경우 음악분야(관현악, 실내악/독주, 성악 등), 공연 분야(오페라/무용/연극, 연출 등), 전시분야로 나눠 시상하고 있음.<sup>95)</sup>

93) 「문화예술진흥법」 제37조(예술의전당) 2018.6.12 일부개정

94) 예술의 전당 웹사이트 캡처(<http://www.sac.or.kr/SacHome/sachome/main>, 2019년 2월 기준)

## □ 장르체계 비교

-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장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장르 구분에 포함됨.

〈표 1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과 예술의전당의 장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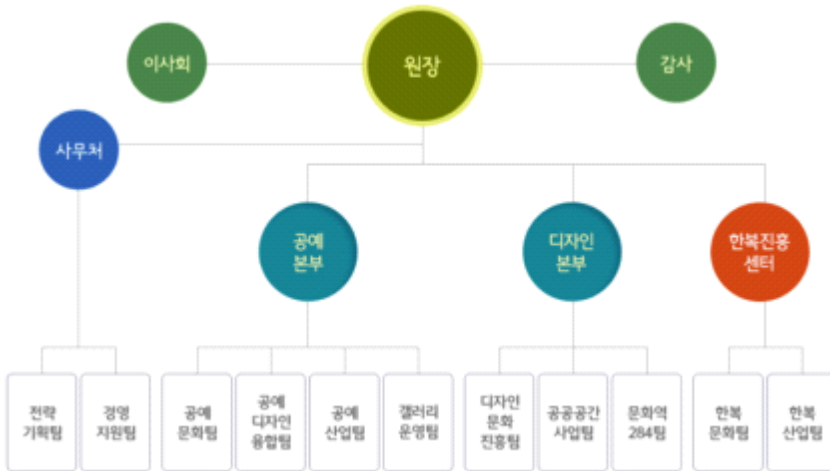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 전당(예술대상수상자 기준 <sup>96)</sup> )	
문학			
시각예술		사진, 서예 등(일시적 전시 사업)	
공연예술	연극	공연예술	오페라
	무용		무용
			연극
			연출
	음악	음악	관현악
			실내악
			독주
성악			
전통예술		판소리	
다원예술			
예술일반			

### 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창의적인 공예문화와 디자인문화의 확산과 진흥을 통해 한국공예 및 디자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에 생긴 재단법인임.

95) 예술의 전당, 2016 예술의 전당 운영보고서

96) <http://www.sac.or.kr/SacHome/org/biz/sacAwards>

□ 조직도<sup>97)</sup>

〈그림 69〉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조직도

## □ 주요사업

- 공예, 디자인, 한복, 상품개발 및 유통 부문으로 나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공예 장르에서는 지역공예마을 육성, 공예트렌드페어, 해외한국공예전, 한지 프로모션 등을 벌이고 있으며, 디자인 장르에서는 문화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한국적 문화생활공간,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타이포잔치 등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공예디자인교육, 백서 및 전문서적 발행, 아카이브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 장르체계 비교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진행하는 사업의 장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 기금 장르 구분인 시각예술 장르에 해당됨.

97)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웹사이트 캡처(<https://www.kcdf.kr/views/cms/kcdf/ie/organization.jsp>, 2019년 2월 기준)



〈표 10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문학		
시각예술	공예	금속(귀금속, 보석 포함)
		도자
		유리
		목
		섬유
		종이
	디자인	기타(석, 칠, 가죽, 죽세, 초경, 복합 등)
		사물(제품디자인, 자동차(운송기기)디자인, 가구디자인 등)
		공간(인테리어디자인, 전시디자인, 환경디자인 등)
		이미지(CI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광고디자인 등)
		뉴미디어(영상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등)
		서비스(유니버설디자인, 그린(एको, 친환경)디자인 등)
		기타(디자인 교육, 디자인 이론 등)
공연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한복

타. 한국문학번역원

□ 한국문학번역원은 2005년 법정기관화하여 특수법인으로 전환했으며, 체계적인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 사업을 벌이는 기관<sup>98)</sup>임.

98) 「문학진흥법」 제13조(한국문학번역원) 2018.10.26 일부개정

□ 조직도<sup>99)</sup>

〈그림 70〉 한국문학번역원 조직도

## □ 주요사업

- 번역지원사업(외국어 번역 능력을 지닌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분기별 한국도서의 번역을 지원하는 사업)과 출판지원사업(한국도서의 저작권을 수입한 해외출판사를 대상으로 번역 및 출판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음.
- 위 지원사업의 대상은 문학, 인문사회, 아동·청소년 소설(아동 그림책 제외), 장르문학(추리, 판타지, SF), 그래픽 노블 등으로 동일함.
- 그 밖에 해외교류사업, 국내교류사업, 교육사업, 출판부사업, 번역전문도서관, 정보화사업 등을 벌이고 있음.

99) 한국문학번역원 웹사이트 캡처(<https://www.ltikorea.or.kr/orgboard.do>, 2019년 2월 기준)

## □ 장르체계 비교

-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장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장르 구분인 문학에 포함됨. 국내도서, 번역도서 사업 지원 모두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분류 중 문학 장르에 포함됨.
- 그러나 소분류의 경우 문학 장르 구분보다 장르의 내용적 특성에 따라 문학, 인문사회, 아동·청소년 소설(아동 그림책 제외), 장르문학(추리, 판타지, SF), 그래픽 노블 등으로 구성됨.
-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진행하는 세부 장르 그래픽 노블은 웹툰에 해당함. 한국문학번역원은 그래픽 노블이 하나의 문학 장르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고 있음.

〈표 10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과 한국문학번역원의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학번역원	
문학	문학	아동·청소년소설	
		장르문학	추리
			판타지
			SF
		그래픽 노블	
시각예술			
공연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인문사회	

## 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sup>100)</sup>임.

```

graph TD
    President((원장)) --- Board[이사회]
    President --- VicePresident[감사(비상임)]
    President --- Planning[경영기획본부]
    President --- Culture[문화연구본부]
    President --- Tourism[관광연구본부]
    President --- Content[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
    President --- Stats[통계·평가센터]

    Planning --- PlanningDept[기획조정실]
    Planning --- ManagementDept[경영지원실]
    Culture --- PolicyDept[문화정책연구실]
    Culture --- ResearchDept[문화유산연구실]
    Tourism --- PolicyDept2[문화정책연구실]
    Tourism --- ResearchDept2[문화유산연구실]

    PlanningDept --- PlanningTeam[기획팀]
    PlanningDept --- ResearchTeam[연구팀]
    ManagementDept --- ManagementTeam[경영지원팀]
    ManagementDept --- AdminTeam[행정지원팀]

    Content --- ContentTeam[콘텐츠산업정책연구팀]
    Stats --- StatsTeam[통계·평가팀]
  
```

〈그림 7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직도

## □ 주요사업

-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정책, 관광산업, 창조여가, 정책통계평가 등의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 장르체계 비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장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장르 구분과 유사함.

100) 「문화기본법」제11조의2(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2017.11.28 일부개정

10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웹사이트 캡처(<https://www.kcti.re.kr/web/association/organization.do> , 2019년 2월 기준)

100) 「문화기본법」제11조의2(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2017.11.28 일부개정

10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웹사이트 캡처(<https://www.kcti.re.kr/web/association/organization.do>, 2019년 2월 기준)

〈표 103〉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문화, 관광

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2005년에 설립된 특수법인임<sup>102)</sup>.

<sup>102)</sup>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0조의2(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설립) 2017.3.21 일부개정

□ 조직도<sup>103)</sup>

## □ 주요사업

-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정책연구, 국제교류 및 대외 홍보,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를 진행하고 있음.
  -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sup>104)</sup>는 문화예술교육 매개자(교원, 문화예술단체기관 대표, 예술강사), 협력자(정책관계자, 행정인력, 문화기반시설관계자, 기업관계자), 잠재인력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sup>103)</sup>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웹사이트 캡처(<https://www.arte.or.kr/index.do>, 2019년 2월 기준)

<sup>104)</sup> <https://hrd.arte.or.kr>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ARTE)에서 주관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분야별 전문인력을 각 학교로 파견하여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분야 사업은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며, 융합 교육은 “아직 용어에 대해 명확히 정의 내리지 못하지만, 교과과정 재구성이나 STEAM교육<sup>105)</sup>, 프로젝트 수업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면서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형태”를 말함. 융합교육에 대한 정의가 내려진 상황이 아니지만, 2017년 처음으로 교육현장에서 융합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였으며, ‘예술교과와 타 교과와의 융합’, ‘예술 교과 간 융합’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음.

#### □ 장르체계 비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장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장르 구분과 유사함. 특이점은 교육 사업을 비롯해 현장 종사자 교육 사업 내에서 융합분야에 관한 장르가 따로 구분되어 있음.

〈표 104〉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sup>106)</sup>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문학	문학	문학	문예창작		독서감상(문학감상) 및 토론 등	
시각예술	미술	순수미술	한국화	서양화	드로잉	조소/조각/입체 미술
		디자인	시각	영상	제품	
			패션	건축/실내/환경 디자인		
		공예	북아트	목공예(DIY)	금속/비즈/주얼리	
			섬유	도자기/유리	종이/한지	
		클레이	토탈공예(종합공예)			
		서예	서예	캘리그래피		
		사진	사진이론/사진실기			
		미술 종합 및 기타	미술 종합(미술의 여러 영역이 통합되어 있는 경우)		미술비평/감상	
			미디어 아트		미술 기타	

105)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and Mathematics의 약자로, 과학, 기술, 공학, 인문/예술학, 수학 분야의 융합

10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7, 『2017 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p.3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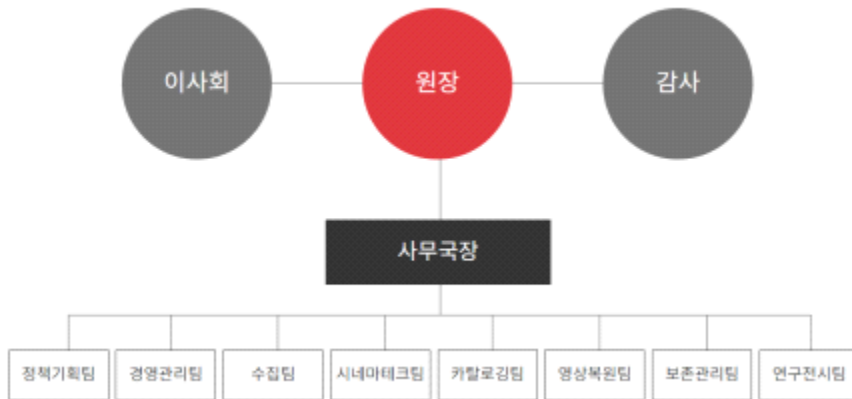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sup>106)</sup>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공연예술	연극	연극	연극	연극, 인형극 등					
			뮤지컬	뮤지컬					
	무용	무용	한국무용	전통무용	창작무용	민속무용 등			
			외국무용	발레	현대무용(창작무용)		벨리댄스		
				재즈댄스(라틴, 모던, 재즈댄스 등)		댄스스포츠 등			
			대중무용	K-POP커버댄스	힙합	치어리딩 등			
	음악	음악	국악	관악	현악	타악	사물놀이		
				풍물놀이		성악(민요, 판소리, 시조 등)			
			양악	목관	금관	현악			
				건반	오케스트라 등 합주		타악		
				합창	동요	성악 등			
			대중음악	밴드	대중음악	보컬 등			
			음악 종합 및 기타	감상		난타 등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영화·만화/애니메이션	영화·영상	영화 제작	동영상/UCC제작	음향/방송	영화(미디어) 감상 등			
		만화/애니메이션	만화/웹툰 창작	애니메이션 창작		만화/애니메이션 감상			
	기타	융합	융합수업(예술간, 타 교과 융합 등)						

## 거. 한국영상자료원

- 한국영상자료원은 국내외 영화 필름과 함께 다양한 비필름 자료들(비디오물, 오디오물, 포스터, 스틸, 시나리오, 도서, 정기간행물, 의상, 소품, 영화인 애장품)를 포함하여 모든 영상자료를 수집하는 기관<sup>107)</sup>임.

<sup>107)</sup>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2018.12.24 일부개정



□ 조직도<sup>108)</sup>

〈그림 73〉 한국영상자료원 조직도

## □ 주요사업

- 시네마테크(상영), 영상도서관, 한국영화박물관 등으로 이뤄짐.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 본편과 시나리오, 포스터 등 영화제작 과정에서 파생되는 주요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 장르체계 비교

-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장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장르 구분에 포함되지 않고, 영상(영화)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영상도서관에는 영화, OST, 이미지, 시나리오, 도서/논문, 정기간행물, 심의서류로 나뉨.
- 영상도서관 내 디렉토리는 유형별, 장르별, 연도별로 나뉨. 유형별 영화 검색은 극장개봉 영화, 미개봉한국영화, 외국영화, 독립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기록물, 정보물, 광고홍보물, 교육물, 뮤직비디오, 게임, 홈비디오, (실험)공연물, 실험영화, 미디어아트, TV영화, TV애니메이션, TV다큐멘터리, TV시리즈, TV정보물, 온라인영화, 기타로 구성됨.

<sup>108)</sup> 한국영상자료원 웹사이트 캡처([https://www.koreafilm.or.kr/pages/PC\\_00000049](https://www.koreafilm.or.kr/pages/PC_00000049), 2019년 2월 기준)

- 장르별 영화 검색은 SF, 가족, 갱스터, 계몽, 공포, 군사, 느와르, 동성애, 드라마, 로드무비, 멜로드라마, 무협, 문예, 뮤지컬, 뮤직, 미스터리, 반공/분단, 범죄, 사회물(경향), 서부, 스릴러, 스포츠, 시대극/사극, 신파, 실험, 아동, 액션, 어드벤처, 예로, 연쇄극, 움니버스, 재난, 전기, 전쟁, 종교, 첩보, 청춘영화, 코메디, 판타지, 하이틴(고교), 합작(번안물), 해양액션, 활극으로 구성됨.

〈표 105〉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과 한국영상자료원 장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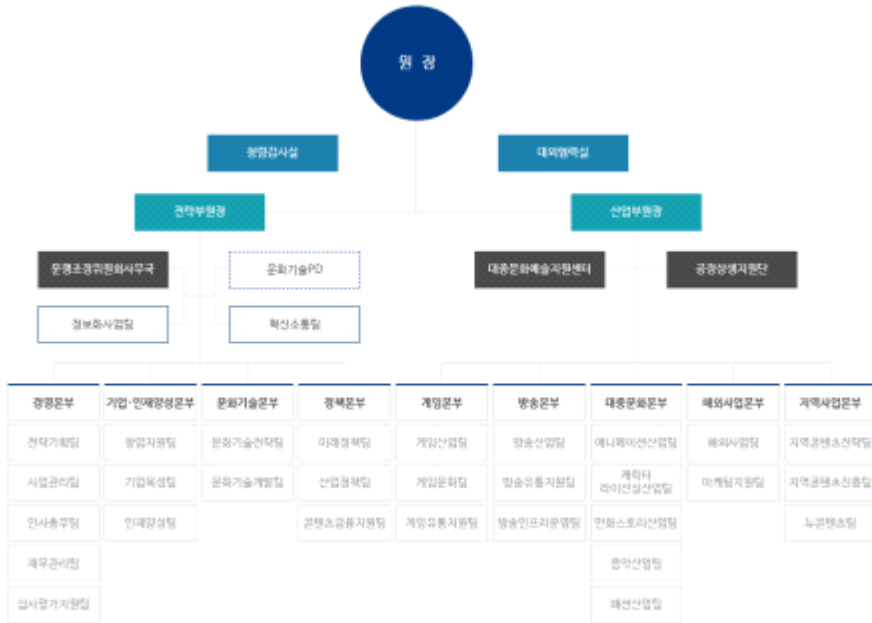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영화

#### 너. 한국콘텐츠진흥원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09년에 생긴 특수법인임<sup>109)</sup>.

<sup>109)</sup>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2018.10.26 일부개정

## □ 조직도<sup>110)</sup>



〈그림 74〉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직도

## □ 주요사업

- 기획/인큐베이팅 부문 사업은 기업육성, 인재양성, 연구/백서/실태조사, 창작지원 등으로 구성됨. 제작 부문 사업은 제작지원, R&D, 금융, 취업, 제작인프라구축으로 구성되며, 유통 부문 사업은 해외진출지원(전시,마켓), 유통플랫폼, 공모전/시상식, 네트워킹, 포럼/컨퍼런스 등으로 구성됨.

## □ 장르체계 비교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장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장르에 포함되지 않음.

110) 한국콘텐츠진흥원 웹사이트 캡처(<http://www.kocca.kr/cop/contents.do?menuNo=200795>, 2019년 2월 기준)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사업을 17개 장르(기능)와 3개의 지원단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있음. 3개의 지원단계는 기획/인큐베이팅, 제작, 유통 지원 사업으로 나뉨. 위 지원단계 내 장르는 동일함. 장르는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악, 패션, 융복합, 대중문화, 방송, 연구, 금융, 기업육성, 지역, 인재양성, 스토리, R&D, 기타 등으로 구성됨.

〈표 106〉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연극	
	무용	
	음악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패션
		융복합
		대중문화
		방송
		연구
		금융
		기업육성
		지역
		인재양성
		스토리
		R&D
		기타

### 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2012년에 생긴 특수법인임<sup>111)</sup>.
- 조직도<sup>112)</sup>



〈그림 7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조직도

- 주요사업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패스,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 산재보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됨.
- 장르체계 비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장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111) 「예술인복지법」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2018.10.16 일부개정

11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웹사이트 캡처(<http://www.kawf.kr/intro/sub04.do>, 2019년 2월 기준)

장르 구분과 유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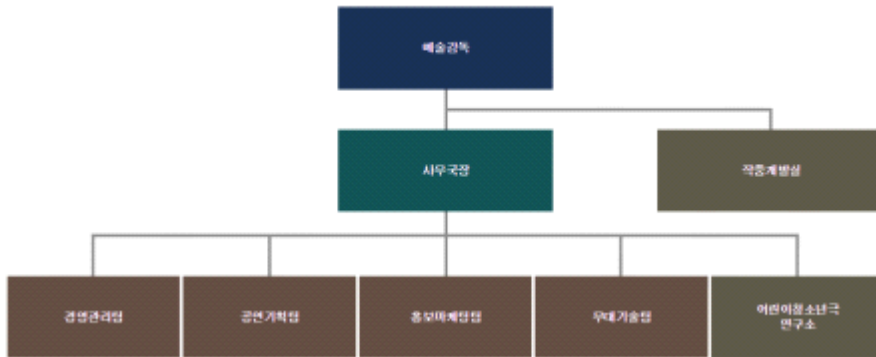
- 예술활동증명 사업에서 예술분야는 문학, 사진, 건축, 미술(미술 일반,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국악, 무용, 연극, 음악(음악 일반, 대중음악), 영화, 만화, 연예(방송, 공연) 등으로 나뉨.
- 또 예술 활동 유형은 크게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으로 나뉨. 위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에게는 나머지 사업(예술인패스,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등)에 신청 자격을 획득함.

〈표 107〉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학		문학	
시각예술		미술	미술일반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사진	
		건축	
공연예술	연극	연극	
	무용	무용	
	음악	음악	음악일반
대중음악			
전통예술		국악	
다원예술			
예술일반			
		영화	
		만화	
		연예(방송, 공연)	

러. 국립극단

- 국립극단은 우수연극 제작, 창작콘텐츠 개발 및 관객 창출, 국내외 예술가와의 협력 증진을 목표로 창작 공연, 국내외 초청 공연, 지방 공연을 진행하는 기관<sup>13)</sup>임.

□ 조직도<sup>114)</sup>

〈그림 76〉 국립극단 조직도

## □ 주요사업

- 주로 다양한 연극 공연 및 창작 공연을 펼치고 있으며, 어린이청소년극을 레퍼토리 제작 공연을 선보이고 연구와 작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연극 관련 인재를 양성하고, 관객들의 효과적인 연극 관람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고 있음. 연극인 대상으로는 워크숍, 마스터클래스, 강좌를 운영 중이며, 관객 대상으로는 공연읽기, 학술, 체험, 공연감상으로 세분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공연예술 제작 과정을 기록하고 현장과 연결된 예술 이론 및 담론을 구축하고자 리허설북, 극작수업, 단행본과 같은 다양한 출판물을 발간하는 출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 장르체계 비교

- 국립극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장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장르 구분에 포함됨.

113)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8.12.31 일부개정

114) 국립극단 웹사이트 캡처(<http://www.ntck.or.kr/ko/ntck/organization>, 2019년 2월 기준)

〈표 108〉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과 국립극단의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극단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연극	연극
		어린이청소년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 며. 국립오페라단

□ 국립오페라단은 예술성과 대중성을 갖춘 오페라를 제작하고 이를 레퍼토리화해 공연하는 재단법인<sup>115)</sup>임.

□ 조직도 <sup>116)</sup>



〈그림 77〉 국립오페라단 조직도

115)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8.12.31 일부개정

116) 국립오페라단 웹사이트 캡처(<http://www.nationalopera.org/Pages/Introduction/Organization.aspx>, 2019년 2월 기준)



## □ 주요사업

- 오페라 공연과 교육 사업을 주요하게 진행하고 있음. 교육사업의 경우 오페라가 자주 개최되기 힘든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지역순회오페라’를 진행했으며, 미래 오페라 무대의 주인공을 발굴하는 ‘성악콩쿠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인 ‘학교오페라’를 진행했음.

## □ 장르체계 비교

- 국립오페라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장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장르 구분에 포함됨.

〈표 109〉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과 국립오페라단의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현대무용단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연극	오페라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버. 서울예술단

- 서울예술단은 가무극 중심의 정기공연을 비롯해 창작공연을 제작하면서 전통의 가치를 보존 및 발전시키고 있는 재단법인<sup>117)</sup>임.

117)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8.12.31 일부개정

□ 조직도<sup>118)</sup>

〈그림 78〉 서울예술단 조직도

## □ 주요사업

- 정기공연을 통해 신작 개발 및 레퍼토리 공연을 주요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순회공연 및 교육사업과 다양한 창작사업을 통한 공연예술 인력양성에 기여하고 있음.
- 특히 한국적 음악극이라 할 수 있는 ‘가무극’이라는 공연양식을 통해 한국적 소재와 양식을 기반으로 한 창작 공연을 주로 제작하고 있음.

## □ 장르체계 비교

- 서울예술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장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장르 구분에 포함됨.

<sup>118)</sup> 서울예술단 웹사이트 캡처([http://www.spac.or.kr/info/spac\\_organ.php](http://www.spac.or.kr/info/spac_organ.php), 2019년 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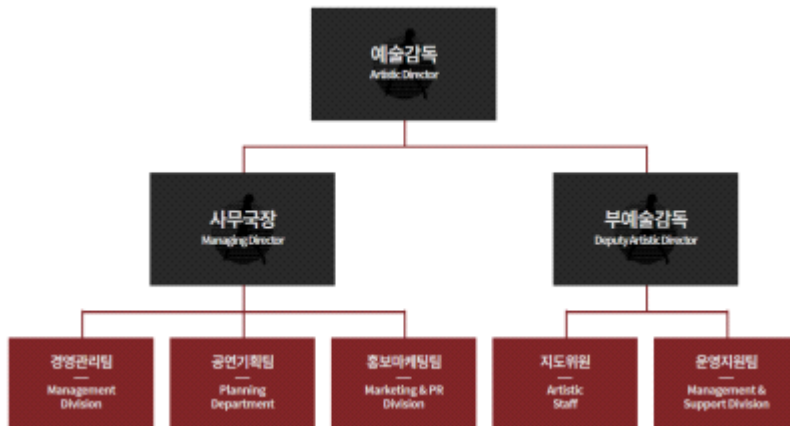
〈표 1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과 서울예술단의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예술단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가무곡
다원예술		
예술일반		

#### 서. 국립발레단

□ 국립발레단은 발레공연을 통해 공연예술을 발전시키고, 1999년 12월 30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재단법인<sup>119)</sup>임.

□ 조직도<sup>120)</sup>



〈그림 79〉 국립발레단 조직도

11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8.12.31 일부개정

120) 국립발레단 웹사이트 캡처([http://www.korean-national-ballet.kr/ko/staff/org\\_chart](http://www.korean-national-ballet.kr/ko/staff/org_chart), 2019년 2월 기준)

#### □ 주요사업

- 고전 발레를 주축으로 현대 발레와 한국 창작 발레 공연을 진행하고 있으며, 발레단 산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음.

#### □ 장르체계 비교

- 국립발레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장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장르 구분에 포함됨.

〈표 1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과 국립발레단의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발레단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연극	
	무용	발레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 어. 국립합창단

- 국립합창단은 합창의 대중화와 합창음악의 예술적 수준을 향상시키며 한국 음악, 특히 한국 성악계의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창단된 재단법인<sup>121)</sup>임.

<sup>121)</sup>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8.12.31 일부개정

□ 조직도<sup>122)</sup>

〈그림 80〉 국립합창단 조직도

## □ 주요사업

- 정기연주회 및 창작 작품 공연을 주요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기획공연, 지방공연, 해외공연 등 각종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음. 합창음악의 국내외 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 장르체계 비교

- 국립합창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장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장르 구분에 포함됨.

〈표 1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과 국립합창단의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합창단
문학	
시각예술	

122) 국립합창단 웹사이트 캡처(<http://nationalchorus.or.kr/>, 2019년 2월 기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합창단
공연예술	연극	
	무용	
	음악	합창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 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다양한 문화산업 교류를 통하여 각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민간교류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간 문화교류 및 협력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2003년에 창립된 재단법인임. 2018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교류사업 전담기관<sup>123)</sup>으로 지정됨.
- 조직도<sup>124)</sup>



〈그림 81〉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조직도

12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 7항(해외시장 진출 등의 사업 대행·위탁) 2018.7.5 일부개정

124)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웹사이트 캡처([http://kofice.or.kr/g100\\_introduction/g100\\_introduction\\_03\\_1.asp](http://kofice.or.kr/g100_introduction/g100_introduction_03_1.asp), 2019년 2월 기준)

## □ 주요사업

- 조사연구, 콘텐츠NEWS, 해외통신원 자료, 국제문화교류, 학술행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학술행사는 아시아드라마컨퍼런스와 포럼/세미나로 진행되고 있음. 국제문화행사는 한류팬클럽활동지원, 해외오피니언리더초청, 세계영상물교류, 문화기반구축 등의 내용을 지원하고 있음.

## □ 장르체계 비교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장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장르 구분과 유사함. 주로 연극, 무용, 음악을 공연예술 장르로 묶어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음.
- 콘텐츠NEWS 사업의 경우 한류스토리, 문화&이슈, 문화산업소식 전반에 관한 콘텐츠를 아카이빙하고 있음. 문화&이슈 카테고리에서는 음악, 영화, 방송, 문화 등으로 나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음.

〈표 1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연극	공연예술	연극
	무용		무용
	음악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영화	
		방송	
		문화	

처. 국립현대무용단

□ 국립현대무용단은 2010년에 창단한 국립현대무용단체<sup>125)</sup>로, 창작역량을 지닌 예술가들과

함께 춤, 현대무용 공연 및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단체임.

□ 조직도<sup>126)</sup>

- 국립현대무용단은 예술감독, 사무국장 산하에 경영팀, 기획팀, 홍보마케팅팀, 작품제작진으로 구성돼 있음.

□ 주요사업

- 현대무용 중심의 공연 창작 및 제작하고 있으며, 외국 무용단, 축제, 극장, 예술가들과 공동제작을 벌이는 등의 국제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지역 커뮤니티와 상호 교류를 위해 친숙한 작품을 유통하고 있으며, 전문 안무가가 진행해 체험 프로그램 '무용학교', 관객 중심의 현대무용 프로그램 '오픈-업 프로젝트', 그리고 '춤추는 강의실'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장르체계 비교

〈표 114〉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과 국립현대무용단의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현대무용단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연극	
	무용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문예회관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됨. 1996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단법인 전국문예회관연합회로 설립하고, 2012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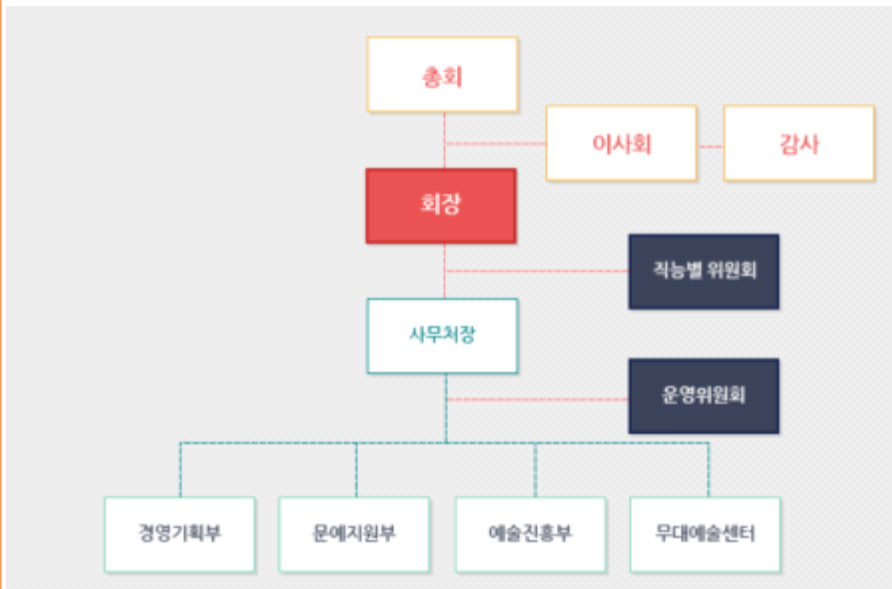
125)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8.12.31 일부개정

126) 국립현대무용단 웹사이트 참고([http://kncdc.kr/ko/about/executive\\_office](http://kncdc.kr/ko/about/executive_office), 2019년 2월 기준)



법정법인화된 특수법인<sup>127)</sup>임.

#### □ 조직도<sup>128)</sup>



〈그림 82〉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조직도

#### □ 주요사업

- 공연·전시 사업은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문화공간, 문화가 있는 날, 공연예술유통활성화 사업,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구성됨.
- 아카데미·교육·연수 사업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 문예회관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지원, 문예회관 아카데미, 문화예술회관 종사자 해외연수로 구성됨.
- 연구·조사·컨설팅 사업은 문예회관 종합컨설팅 지원, 문예회관 운영현황조사, 문예회관 건립지원 사업적정성 검토 등으로 구성됨.

127) 「문화예술진흥법」제38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018.6.12 일부개정

128)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웹사이트 캡처(<http://www.kocaca.or.kr/Pages/Introduction/Organization.aspx> , 2019년 2월 기준)

- 문화가 있는 날 사업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오페라, 합창, 무용 장르를 기본으로 미디어아트, 미술, 해설, 인문학, 신기술 등을 가미한 대규모 프로그램을 개최함.
- 문화예술회관종사자해외연수 사업에서는 문화예술회관종사자(문화예술회관 운영·행정, 공연·전시, 교육, 홍보·마케팅, 무대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 □ 장르체계 비교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장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장르 구분인 공연예술과 전통예술 부문과 유사함.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부문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음.

〈표 1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sup>129)</sup>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연극	연극	연극
			아동극
			마당극
			인형극
			마임
			음악극
		뮤지컬	어린이/가족뮤지컬
	무용	무용	현대무용
			한국창작무용
			한국전통무용
		발레	
	음악	양악	클래식
			기악
			성악
		오페라	

<sup>129)</sup>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017 문예회관 운영현황 조사(20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sup>129)</sup>		
전통예술	국악기악	국악관현악	
		국악실내악	
		국악타악	
	국악성악	판소리	
		민요	
		가곡	
		가사	
		시조	
		잡가	
다원예술			
예술일반			
	복합장르(퓨전장르나 2개 이상 혼합)		
	대중음악(순수예술 장르 제외)		

터.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한국장애인문화원은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창작, 발표, 교류 거점 공간 확보 및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기구 역할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sup>130)</sup>임.

□ 조직도



〈그림 83〉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sup>130)</sup>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8.12.31 일부개정

## □ 주요사업

- 장애인의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문화예술 지원사업 뿐 아니라 창작 공연, 전시, 공간대관 사업 등을 벌이고 있음.
- 특히 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의 경우 창작(창작 활성화 지원/유망예술 프로젝트 지원), 향유(문화예술향유 지원/동호회 활동지원), 교육(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국제(국제교류활동지원) 부문으로 구분해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음.

## □ 장르체계 비교

- 한국문화장애인예술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장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장르 구분과 유사하지만, 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에서는 주로 시각예술과 공연예술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공연예술 내 전통예술과 다원예술을 포함하고 있음.
- 해당 지원사업 내 유망예술프로젝트지원의 경우 융·복합합적 실험 지원을 사업 내용으로 융·복합 부문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해당 융·복합은 예술 장르 간 융·복합이 아닌 인력(장애/비장애인 예술가) 간 협업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

〈표 116〉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sup>131)</sup> (창작활성화지원 사업 대상 중심)	
문학		문학	시/시조/소설/수필/희곡/ 아동문학(동시, 동화), 평론
시각예술		시각예술	동양화/서양화/서예/조각/사진
공연예술	연극	공연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예술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131)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19 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설명회 자료집 <http://www.i-eum.or.kr/u2/index.busan?contentId=29> (2019년 2월 기준)

#### 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전통예술 분야의 전통예술 보급 및 저변 확대, 전통문화콘텐츠 개발 및 전통예술의 대중화, 신진인력 양성을 위해 2009년에 설립됨. 국악문화재단에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으로 명칭 변경됨.
- 조직도<sup>132)</sup>



〈그림 84〉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조직도

#### □ 주요사업

- 주요사업은 지원사업, 공연사업, 교육사업, 문화학교로 크게 구성됨.
- 지원사업은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신진국악실험 무대, 창작 연희 작품공모, 전국풍물 상설공연지원, 해외전통문화예술단, 전통예술 해외 진출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됨.
- 공연사업은 축제/공연으로 구성되며, 교육사업은 전통예술기획자 사업, 지역 전통예술공생균형성장 사업으로 구성됨.

#### □ 장르체계 비교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장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장르 구분인 전통예술에 포함됨.

<sup>132)</sup>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웹사이트 캡처(<http://kotpa.org/newhome/kotpa/organization.asp>, 2019년 2월 기준)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전통공연예술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을 위해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크게 기악 부문(가야금 등), 성악 부문(판소리 등), 무용 부문(살풀이 등), 타악 부문(판굿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표 1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교육사업)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기악	가야금, 거문고 등
		성악	판소리, 경기민요 등
		무용	살풀이, 승무 등
		타악	판굿 등
다원예술			
예술일반			

### 3. 공공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

#### 가. 강원문화재단

- 강원문화재단은 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며 문화유산을 발굴, 보존하여 강원도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강원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지난 1999년에 설립된 재단법인임.
- 조직도<sup>133)</sup>



〈그림 85〉 강원문화재단 조직도

<sup>133)</sup> 강원문화재단 웹사이트 캡처(<http://www.gwcf.or.kr>, 2019년 2월 기준)

## □ 주요사업

- “문화로 꿈꾸는 행복 강원 실현” 이란 비전과 “사람과 문화가 만나는 행복문화권 형성”이란 기본방향으로 문화예술생태계 만들기, 생활문화 만들기, 매력적인 강원도만들기 전략 등을 수행하고 있음. 주요 전략과제로는 “현장 중심의 문화예술진흥”, “생활권문화 활성화”를 통한 창조시민 육성, “문화인력 육성 지원을 통한 문화생태계 기반마련”, “사람 중심의 문화복지 실현”, “강원도형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등이 있음.
- 주요사업은 문화예술진흥지원, 강원문화재연구소, 문화나눔 활성화, 강원영상산업 활성화, 평창대관령음악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춘천공연예술연습공간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이 중 문화예술진흥지원 사업은 전문예술창작지원, 전문예술육성지원, 생활예술활성화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감자콘서트, 신진예술가창작활동지원, 생애최초지원프로젝트, 원로예술인지원, 강원문화예술아카데미 등을 수행함.
- 전문예술창작지원 사업은 문학(시, 소설, 희곡, 수필, 아동·청소년문학, 평론, 동인지 등), 시각예술(회화, 조각, 공예, 서예, 사진, 영상 등), 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연극(연극, 마임, 인형극, 뮤지컬), 음악(오페라, 성악, 기악, 관현악, 실내악, 합창 등), 전통예술(풍물·사물놀이, 국악공연 등) 총 6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함.
- 전문예술육성지원과 생활예술활성화지원 사업은 문학(시, 소설, 희곡, 수필, 아동·청소년문학, 평론, 동인지 등), 시각예술(회화, 조각, 공예, 서예, 사진, 영상 등), 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연극(연극, 마임, 인형극, 뮤지컬), 음악(오페라, 성악, 기악, 관현악, 실내악, 합창 등), 전통예술(풍물·사물놀이, 국악공연, 국악 전승캠프 등), 예술일반(연예, 지역축제) 총 7개 분야를 지원함.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은 연극(아동청소년극, 뮤지컬 포함), 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음악(실내악단, 교향악단, 합창단, 중창단, 오페라단 등), 전통예술(음악, 무용, 연희 등) 단체를 지원함.



## □ 장르체계 비교

〈표 1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과 강원문화재단 지원사업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강원문화재단					
		대분류	소분류				
문학		문학	시	소설	희곡	수필	
			아동・청소년문학	평론	동인지 등		
시각예술		시각예술	회화	조각	공예		
			서예	사진	영상 등		
공연예술	연극	연극	연극	마임	인형극		
			뮤지컬		아동청소년극 등		
	무용	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오페라	성악	기악	관현악	
	음악	음악	실내악	합창	교향악	중창	
전통예술		전통예술	풍물・사물놀이	국악공연		국악전승캠프	
다원예술							
예술일반		예술일반	연예			지역축제	

## 나. 경기문화재단

- 경기문화재단은 “문화로 가꾸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민의 문화행복을 위한 문화 플랫폼 구현”을 추진하고자 지난 1997년에 설립된 재단법인임.

□ 조직도<sup>134)</sup>



〈그림 86〉 경기문화재단 조직도

□ 주요사업

- 경기문화재단은 문화 생태계 조성, 문화 역량 강화, 문화 참여 증진, 문화서비스 강화, 지속가능경영 실현이라는 전략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음. 특히 문화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 속 전략과제 중 하나로 문화예술 지원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8년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지원 강화 사업은 네트워크 확산, 계기성 사업, 이슈발

<sup>134)</sup> 경기문화재단 웹사이트 캡처(<https://www.ggcf.kr/>, 2019년 2월 기준)

굴 기획협력, 경기북부 문화예술 활성화, 경기북부 전통문화 활성화 사업, 스튜디오 레지던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문화예술지원 사업(문예진흥공모지원)은 “기초예술 진흥과 전문예술 역량강화를 목표로 신진창작과 지역예술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중장기적인 경기도 예술진흥과 예술가의 자생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주요 프로젝트로는 문학 장르에서는 신진작가와 기성작가 작품집 시리즈인 ‘경기문학’, 시각예술 분야는 유망작가 전시인 ‘생생화화’, 공연 분야에서는 경기공연예술 창작 쇼케이스, 경기공연예술 페스타 등이 있음. 또한 문화예술기획사업 뉴컬렉티브&뉴체인지, 공공하는 예술, 예술로가오지르기, 신화강좌 등을 통해 새로운 경향의 예술과 실험적인 예술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예술 생태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다양성 확장에 기여하고자 함.
- 『2019년 경기도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 - 신청안내』에서는 경기예술창작지원의 분야를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연구/번역·평론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 외에도 장르를 구분하지 않는 경기예술활동지원과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음.

#### □ 장르체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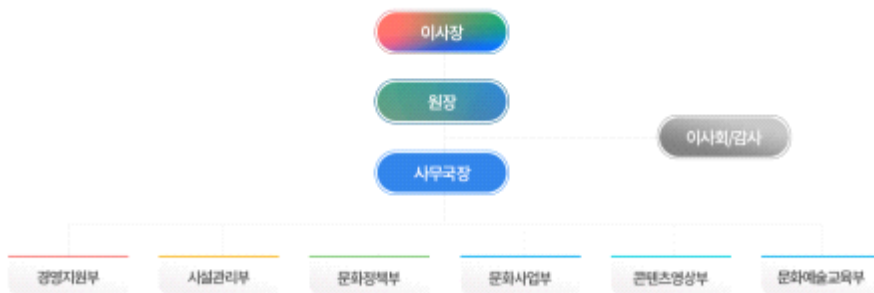
〈표 1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과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창작지원		경기예술활동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문학			문학		예술단체 및 예술가	
시각예술			시각예술	평론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예술평론집 출간 지원)		
공연예술	연극	공연예술				예술단체 및 공연장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연구/번역 (예술이론, 예술사, 미학 등 연구/번역 서적 출간 지원)			

#### 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도민과 문화예술인에게 이바지하고, 지역문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난 2010년에 재단법인으로 설립됐으며, 2013년 경남문화재단과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이 통합된 기관임.

□ 조직도<sup>135)</sup>



〈그림 87〉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조직도

#### □ 주요사업

-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만드는 행복한 문화경남”이란 비전과 함께 예술인 복지 지원 및 경남예술 창조성 제고, 자생적 예술창작 활동 활성화, 함께 누리는 문화향유 기반 확대, 지역 문화산업 육성, 도민의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실현, 소통과 참여의 문화정책 추진기반 정착 등의 정책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사업은 창작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역문화, 문화산업, 예술교육, 정책교류 등이 추진되고 있음.
- 창작지원 사업은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레지던스프로 그램지원, 시·도 문화예술 기획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차세대 유망예술인 양성, 뉴-아트창작공연지원, 경남예술창작센터 운영 등의 사업이 있음.

<sup>135)</sup>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웹사이트 캡처([http://gcaf.or.kr/bbs/content.php?co\\_id=sub6\\_6&me\\_code=9060](http://gcaf.or.kr/bbs/content.php?co_id=sub6_6&me_code=9060), 2019년 2월 기준)

-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공연분야 중 연극(아동극, 연극, 뮤지컬 등), 무용(현대 무용, 한국무용 등), 음악(관현악, 실내악 등), 전통예술(민속예술발표, 타악공연, 관현악, 실내악 등)을, 시각·문학 분야는 문학, 미술·서예, 사진 등을 지원하고 있음.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은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를 지원함.
- 문화산업은 음악, 웹툰, e스포츠, 영화 등의 분야를 지원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의 하나로 실시하고 있는 무지개다리 지원사업 (2018년)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음. 나이, 사회계층, 직업, 이주민, 소수자, 장애, 농산어촌 등 다양한 분류로 구분되는 문화예술 활동 주체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2개 단체를 심의 결정했고, 팻캐스트, 문화다양성 기획사업, 영호남 교류 지원사업을 진행함.

#### □ 장르체계 비교

〈표 12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과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지원사업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문학	문학	시	
		시조	
		소설(단/장편)	
		평론	
		희곡	
		동시	
		동화	
시각예술	시각예술	미술	회화
			서예
			판화
			입체
			설치
		공예	
		사진	
		건축	
		영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공연예술	연극	연극	아동극
			연극
			뮤지컬 등
	무용	무용	현대무용
			한국무용 등
	음악	음악	관현악
실내악 등			
전통예술		전통예술	민속예술발표
			타악공연
			관현악
			실내악 등
다원예술		다원(탈장르, 실험적 복합예술)/무지개다리사업	
예술일반		예술서적 발간	
		뉴-아트(융복합 기술 활용 예술 창작)	
		웹툰	
		e스포츠	
		영화 등	

#### 라. 광주문화재단

- 광주문화재단은 시민의 창조적 문화활동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진흥정책을 개발함으로써 문화예술 창조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2011년에 설립된 재단법인임. 재단운영의 기본방향은 지역문화의 보전·발전 등의 “광주의 문화재단”, 광주의 미래를 문화로 경영하는 등의 “광주를 위한 문화재단”,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재단 등의 “광주에 의한 문화재단”이란 세 가지로 설정되어 있음.

□ 조직도136)



〈그림 88〉 광주문화재단 조직도

□ 주요사업

- 광주문화재단은 “문화로 풍요로운 광주, 예술로 아름다운 시민”이란 미션과 “광주 문화를 바꾸는 협력 플랫폼”이란 비전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지역예술인 창작활성화와 시민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목표로 예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방향은 생활 근거리 문화예술활성화, 일상 영역 생활문화 확산, 광주문화도시 브랜드 강화, 예술인 창작기회 확대로 정하고 있음.

136) 광주문화재단 웹사이트 캡처(<http://www.gjcf.or.kr/cf/intro/department.do>, 2019년 2월 기준)

- 부문별 상세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생활문화예술활동단체 지원, 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사업 중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과 지역특화문화거점지원사업은 문학, 미술, 사진, 음악, 연극, 무용, 국악, 다원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은 문학, 공연, 시각, 전통, 다원예술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은 미술, 음악, 문학, 전통, 다원, 무용, 연극, 사진 분야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음.
- 생활문화예술활동단체 지원사업은 국악, 음악, 연극, 무용, 미술, 사진, 영화(영상), 문학 및 기타 문화예술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지원 중 생활문화예술동아리지원 사업은 문학, 음악, 미술, 연극, 무용, 국악, 영화, 사진, 미디어 및 기타 문화예술 분야를 지원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지개다리지원사업(2018년)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음. 연령, 사회계층, 직업, 이주민, 소수자, 장애, 농산어촌 등 다양한 분류로 구분되는 문화예술 활동 주체에게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난민영화제, 문화다양성 확산 페스티벌, 사진공모전 지원사업 등 다원예술 장르 사업을 진행함.

#### □ 장르체계 비교

〈표 1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과 광주문화재단 지원사업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주문화재단	
문학		문학	
시각예술		시각	
		미술	
		사진	
		미디어	
		영상	
공연예술	연극	공연	연극
	무용		무용
	음악		음악
전통예술		전통·국악	
다원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영화	



### 마. 대구문화재단

□ 대구문화재단은 “문화예술로 웃는 대구”라는 슬로건 아래 “예술은 시민 속으로, 시민은 예술 속으로”라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자립기반을 위한 재정 건정성 확보”, “예술지원강화 및 문화 네트워크 구축”, “시민문화활성화 및 문화예술 향유확대”, “문화예술로 웃는 대구를 위한 조직혁신”이란 목표로 지난 2009년에 설립된 재단법인임.

□ 조직도<sup>137)</sup>



〈그림 89〉 대구문화재단 조직도

### □ 주요사업

- 2019년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대구형 예술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자립형 창작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 지원은 단체와 개인예술가를 나누어 지원하고 있으며, 단체는 활동과 학술·발간, 국제화를 지원하는 일반지원과, 기초기획, 우수기획, 집중기획 등 지역특성화

<sup>137)</sup> 대구문화재단 웹사이트 캡처([http://www.dgfc.or.kr/sub9\\_1\\_s4.asp](http://www.dgfc.or.kr/sub9_1_s4.asp), 2019년 2월 기준)

지원으로 나누어 지원함. 개인예술가는 스타트업, 청년예술가육성, 개인예술가창작, 완속기발표 등 활동주기별 지원과 해외활동, 다베네트워크 등 국제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세부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연예술분야로 연극·무용·음악·전통·다원예술 분야의 작품에 대한 예술단체의 창작 공연 등을 지원하고, 시각예술분야에서 미술·사진·건축·영상·기타(영화, 웹툰) 등 다수의 작가가 참여하는 창작 전시회 및 회원전을, 마지막으로 문학분야를 지원할 예정임.

#### □ 장르체계 비교

〈표 12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과 대구문화재단 지원사업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구문화재단		
문학		문학		
시각예술		미술		
		사진		
		건축		
공연예술	연극	공연예술	연극	
	무용		무용	
	음악		음악	
전통예술			전통	
다원예술			다원	
예술일반				
		기타	영화	
			웹툰	

#### 바. 대전문화재단

- 대전문화재단은 “누구나 문화를 즐기는 대전”이란 비전과 “시민문화예술의 허브”라는 미션을 갖고 지난 2009년에 설립된 재단법인임.

□ 조직도<sup>138)</sup>



〈그림 90〉 대전문화재단 조직도

## □ 주요사업

- 대전문화재단은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 생태문화 플랫폼 조성, 지역 기반 문화예술 정책 개발, 대전 문화 브랜드 가치 창출 등의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문화예술지원 사업은 문화예술지원, 시민문화지원, 정책연구·경영, 예술교육지원센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문화예술지원 사업 중 예술창작지원, 아티언스 대전 사업은 문학, 시각, 음악, 전통, 무용, 연극, 예술일반, 다원예술 등의 분야를, 레지던시 지원과

138) 대전문화재단 웹사이트 캡처 (<http://www.dcaf.or.kr/web/index.do>, 2019년 2월 기준)

차세대 artiStar 지원 사업은 문학예술, 시각예술, 공연예술(음악, 전통(국악), 무용, 연극), 다원예술 분야를 지원하고 있음.

-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문화예술연구및평론지원 사업은 문학예술, 시각예술, 공연예술(음악, 전통(국악), 무용, 연극, 예술일반), 다원예술 분야, 국악야외상설공연지원 사업은 전통예술(국악) 분야,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은 공연예술(음악, 전통(국악), 무용, 연극) 분야, 역 오페라단 공연 활동 지원은 그랜드오페라 분야를 지원하고 있음.

#### □ 장르체계 비교

〈표 1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과 대전문화재단 지원사업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전문화재단	
문학		문학	
시각예술		시각	
공연예술	연극	공연예술	연극
	무용		무용
	음악		음악
그랜드오페라			
전통예술			전통(국악)
다원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예술일반	

#### 사. 부산문화재단

- 부산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을 통해 부산의 창의와 품격을 갖춘 문화도시로 변화시킨다는 미션과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및 창작기반 조성, 그리고 시민을 위한 문화서비스 확대 등을 목표로 지난 2009년에 설립된 재단법인임.

□ 조직도<sup>139)</sup>

〈그림 91〉 부산문화재단 조직도

## □ 주요사업

- 예술지원팀(부산예술인복지센터)의 경우 직접적인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기초단계로 연극, 무용, 음악, 미술, 문학, 전통·국악, 사진, 영상 관련 지원사업을, 특화단계로 다원예술, 거리예술, 소규모예술공간, 레지던시활성화 사업을, 심화단계로 브랜드콘텐츠 분야, 우리가락우리마당, 국제예술교류 분야 등을 지원하고 있음.

<sup>139)</sup> 부산문화재단 웹사이트 캡처(<http://www.bscf.or.kr/06/05.php>, 2019년 2월 기준)

## □ 장르체계 비교

〈표 12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과 부산문화재단 지원사업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문화재단
문학		문학
시각예술		미술
		사진
		영상
공연예술	연극	연극
	무용	무용
	음악	음악
전통예술		전통·국악
		우리가락우리마당
다원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브랜드콘텐츠
		소규모문화예술공간
		레지던시활성화
		국제예술교류
		거리예술

## 아. 서울문화재단

□ 서울문화재단은 ‘더 즐겁고 더 행복한 문화도시 서울을 만든다’는 목표를 갖고, 문화예술 창작 및 보급, 예술교육,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재단법인임.

□ 조직도 140)



〈그림 92〉 서울문화재단 조직도

□ 주요사업

- 2019년 예술지원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은 연극, 무용, 음악, 전통, 시각, 다원, 문학, 기타로 분류해 지원하고 있음. 주요 예술가 지원사업은 문학 첫 책 발간지원, 문학 창작집 발간지원, 시각예술 중견작가작품집 발간지원, 예술연구서적 발간지원 등 주로 저작물

140) 서울문화재단 웹사이트 캡처(<https://www.sfac.or.kr/findstaff/findstaff/findstaffMain.do>, 2019년 2월 기준)

발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장르와 대부분 유사함.

-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살펴보면,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에 대한 지원은 예술작품지원, 공연장상주 단체육성지원,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 최초예술지원, 서울청년예술단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연극은 창작극, 번역극, 마임·넌버벌, 인형극, 아동극, 뮤지컬, 기타로 구분해 지원하고, 무용은 한국무용(창작), 현대무용, 발레, 기타로 구분, 음악은 기악, 성악, 작곡발표, 기타로, 전통예술은 국악기악(계승/창작), 국악성악(계승/창작), 연희(계승/창작), 전통무용(계승), 작곡발표 등으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음.
- 시각예술의 경우 예술작품지원, 유망예술지원, 시각예술 중견작가작품집,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지원, 최초예술지원, 서울청년예술단 등으로 분류해 지원을 진행 중임. 예술작품 지원은 개인전과 기획전/단체전으로 1차 분류 후 지원하고 세부 장르는 평면/입체, 미디어, 기타 등으로 2차 분류함. 이후 평면/입체는 동양화, 서양화, 판화, 조각, 설치 등으로, 미디어는 사진, 영상 등으로, 기타는 도예, 금속, 섬유, 서예 등으로 3차 분류 후 지원함.
- 다원예술은 예술작품지원, 유망예술지원,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 최초예술지원, 서울청년예술단으로 1차 분류 후 지원사업 진행. 예술작품지원은 공연, 전시, 퍼포먼스 등 창작 및 표현 활동,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실험적 성향의 예술, 여러 장르의 특성이 융합된 복합장르 예술 등을 지원함.
- 문학은 문학 첫 책/창작집 발간지원,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지원, 최초예술지원, 서울청년예술단 등으로 1차 분류 후 지원함. 그 중 문학 첫 책/창작집 발간지원은 E-Book은 제외한 출간물 형태로 한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시, 시조, 동시, 소설, 동화, 희곡, 평론 등으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음.

#### □ 장르체계 비교

〈표 12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과 서울문화재단 지원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문학		문학	시	시조	동시	소설	동화	희곡	평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시각예술		시각	평면/입체	동양화	
				서양화	
				판화	
				조각	
				설치	
			미디어	사진	영상
공연예술		연극	기타	도예	섬유
				금속	서예
			창작극		
			번역극		
			마임・넌버벌		
			인형극		
			아동극		
			뮤지컬		
			기타		
무용		무용	한국무용(창작)		현대무용
			발레		기타
			기악		성악
			작곡발표		기타
전통예술		전통	국악기악(계승/창작)		
			국악성악(계승/창작)		
			연희(계승/창작)		
			전통무용(계승)		
			작곡발표		
다원예술		다원	공연	전시	퍼포먼스
예술일반		기타			

#### 자. 세종시문화재단

- 세종시문화재단은 “삶과 지혜를 나누는 행정수도 문화재단”이라는 비전을 갖고, 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문화향유, 문화축제, 문화나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조직도<sup>141)</sup>

〈그림 93〉 세종시문화재단 조직도

## □ 주요사업

- 예술지원사업은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세종예술제 등을 지원하고 있음.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은 기초예술창작지원, 세종특화기획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기초예술창작지원 분야를 문학예술, 시각예술(미술, 사진, 서예, 공예, 디자인 등), 공연예술(연극, 음악, 무용), 전통예술(국악, 시조, 민속), 예술교류, 복합다원예술, 신진예술가 발굴 등으로 구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또 다른 지원사업 중 문화예술교육은 세종여민락아카데미, 학교예술강사지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고 있음. 이 중 세종여민락아카데미는 2018년 하반기에 인문, 지리, 국악, 서예, 클래식, 근현대미술, 문화예술교육기획 등으로 나누어 정기강좌를 진행함. 학교예술강사지원은 지원 수업유형을 국악(음악), 연극(국어),

141) 세종문화재단 웹사이트 캡처(<https://www.sjcf.or.kr/>, 2019년 2월 기준)

무용(체육, 즐거운 생활)으로 구분해 기본교과를 운영하였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지개다리지원사업(2018년)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음. 연령, 사회계층, 직업, 이주민, 소수자, 장애, 농산어촌 등 다양한 분류로 구분되는 문화예술 활동 주체에게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충청권 문화다양성 정책포럼'과 문화다양성주간페스티벌 사업 등 다원예술 사업을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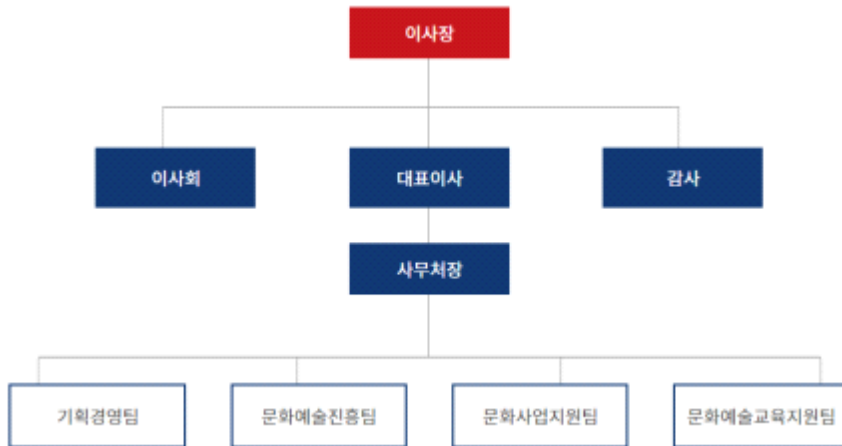
#### □ 장르체계 비교

〈표 12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과 세종시문화재단 지원사업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세종시문화재단	
문학		문학예술	
시각예술		시각예술	미술
			사진
			서예
			공예
			디자인 등
공연예술	연극	공연예술	연극
	무용		무용
	음악		음악
전통예술		전통예술	국악
			시조
			민속
다원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 차. 울산문화재단

- 울산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진흥 기반 구축, 예술 창작·발표 활동 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 축제운영 등을 통해 “예술로 새롭고 문화로 행복한 더 큰 울산”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6년에 설립된 재단법인임.

□ 조직도<sup>142)</sup>

〈그림 94〉 울산문화재단 조직도

## □ 주요사업

- 울산문화재단의 2019년 사업은 창조적 문화생태계 구축, 일상속 문화복지 확산, 울산형 문화예술콘텐츠 발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사업을 살펴보면, 문화생태계 구축은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울산 메세나 지원, 국제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지원, 아르크공연연습센터@울산, 소공연장 예울 운영, 울산청년문화기반 구축 등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 일상속 문화복지 확산 사업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생활문화활성화 기반조성, 울산시민문화예술아카데미, 문화가 있는 날, 문화가 있는 날 가족맞춤형,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 구축,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마지막으로 울산형 문화예술콘텐츠 발굴은 처용문화제, 아시아퍼시픽뮤직미팅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 이 중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은 공연예술분야(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를,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은 음악, 무용, 전통예술(국악), 대중예술, 연극, 다원예술

142) 울산문화재단 웹사이트 캡처(<http://uacf.or.kr/content/3.mo>, 2019년 2월 기준)

분야 등으로 장르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음.

#### □ 장르체계 비교

〈표 12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과 울산문화재단 지원사업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울산문화재단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연극	공연예술	연극
	무용		무용
	음악		음악
전통예술		전통예술(국악)	
다원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대중예술	

#### 카. 인천문화재단

□ 인천문화재단은 “예술이 생동하고 문화로 행복한 인천”이라는 미션과 “문화인천을 디자인하는 협력플랫폼”이라는 비전을 갖고, 지난 2004년에 설립된 재단법인임.

#### □ 조직도<sup>143)</sup>

- 조직도 내 문화사업본부의 경우 공모, 기획, 발굴지원, 공간지원 등 예술표현활동지원사업 관련 업무, 시민참여 중심의 예술프로그램, 시민문화활동 지원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음.

<sup>143)</sup> 인천문화재단 웹사이트 캡처(<http://www.ifac.or.kr/>, 2019년 2월 기준)



〈그림 95〉 인천문화재단 조직도

## □ 주요사업

- 생활 속 문화가치 확산, 지역 문화가치의 창의적 발굴, 예술로 공존하는 플랫폼 조성, 문화 경영체계 구축 등의 전략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인력 양성 및 지원, 현장 맞춤형 예술창작지원, 인천형 문화정책 개발 등의 사업수행을 통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2019년도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예술지원팀에서 예술표현활동이란 사업명으로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국제교류, 역량강화, 작은예술공간, 인천문화예술 연구를 지원하고,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을 통해 공연 지원, 인천예술인 생애주기맞춤형 지원을 통해 문학, 시각, 공연, 기타 분야의 청년예술인 생애처음지원, 시각, 공연 분야의 유망예술가 활동지원, 시각, 공연 분야의 중진예술가 활동지원, 문학, 시각, 공연 분야의 원로예술인지

원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임.

- 또한 문학교육팀은 예술동아리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분야를 지원할 예정임.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지개다리지원사업(2018년)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음. 연령, 사회계층, 직업, 이주민, 소수자, 장애, 농산어촌 등 다양한 분류로 구분되는 문화예술 활동 주체에게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한 다원예술 사업을 지원함. 다문화여성과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연극을 배우는 '엄마는 문화예술선생님' 프로그램을 지원 및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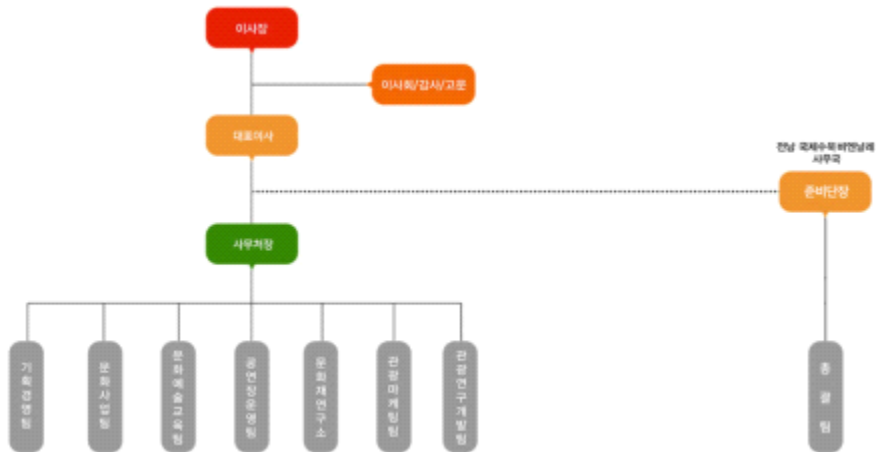
〈표 12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과 인천문화재단 지원사업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천문화재단	
문학		문학	
		출판	
시각예술		시각	
		미술(응용미술)	
		사진	
		건축	
공연예술	연극	공연	연극
	무용		무용
	음악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영화	
		연예	
		어문	
		만화	

#### 타.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은 “전남도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이란 미션과 “문화관광 진흥과 일상을 통한 도민행복 실현”이란 비전으로 지난 2009년에 설립된 재단법인임.

□ 조직도<sup>144)</sup>



〈그림 96〉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조직도

#### □ 주요사업

-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은 “오감만족 문화관광 및 지속가능 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도민 만족도 향상, 공직사회 사회적 가치 실현,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구축 등의 전략목표 수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주요 문화사업은 시각예술활성화사업, 전남도립국악단, 남도소리울림터, 문화나눔, 문화예술교육, 문화재연구소, 문화가 있는 날 등이 있음.
- 시각예술활성화사업은 남도예술은행, G&J광주·전남갤러리, 남도갤러리, 남도사이버갤러리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시각예술 분야의 한국화, 서예, 문인화, 서양화, 조각, 공예 등의 분야를 지원하고 있음. 전남도립국악단 사업은 창악부, 기악부, 무용부, 사물부 등을

<sup>144)</sup>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웹사이트 캡처([http://jact.or.kr/rain/content.php?co\\_id=7\\_1\\_4](http://jact.or.kr/rain/content.php?co_id=7_1_4), 2019년 2월 기준)



지원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의 하나로 실시하고 있는 무지개다리 지원사업 (2018년)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음. 나이, 사회계층, 직업, 이주민, 소수자, 장애, 농산어촌 등 다양한 분류로 구분되는 문화예술 활동 주체에게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한 교육사업을 지원함. '전남 문화다양성 전문 인력 양성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등 다원예술 사업을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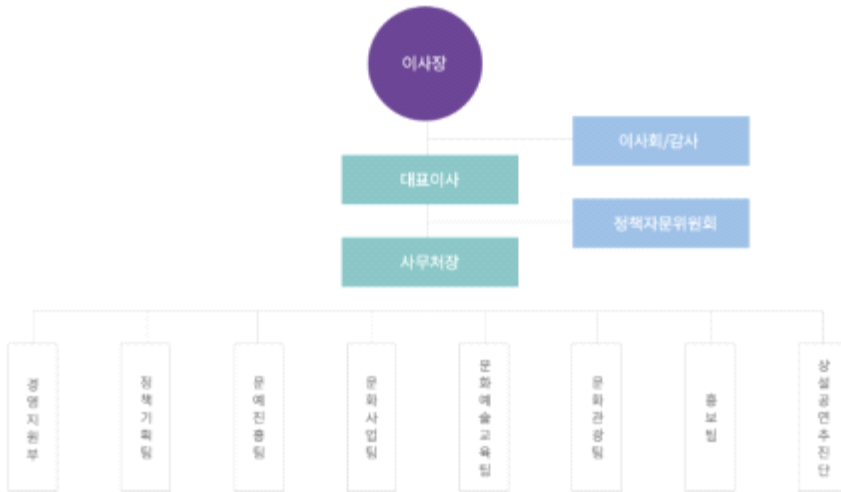
#### □ 장르체계 비교

〈표 12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과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지원사업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문학		문학			
시각예술		시각예술	미술		
			서예		
			사진		
			영상		
			조각		
			설치 등		
공연예술	연극	공연예술	연극	연극	
	아동·청소년극				
	무용		뮤지컬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음악		음악 등	실내악	
				교향악	
				합창	
중창					
오페라					
전통예술		전통예술	국악	음악	
				무용	
				연희	
				민속놀이	
			세시풍속 등		
다원예술		다원예술	무지개다리사업		
예술일반		문화예술연구	문화예술 콘텐츠 정보화		
			전통문화예술 보존, 전승사업 관련 연구조사		
			문화예술 비평, 포럼, 세미나, 심포지엄 등		

#### 파.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은 “가장 한국적인 문화예술관광 실현”이란 미션으로 지난 2015년에 설립된 재단법인임.
- 조직도<sup>145)</sup>



〈그림 97〉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 □ 주요사업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은 함께 성장하고 더불어 발전하는 예술생태계 조성,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중산층 육성 사업, 지역기반 문화콘텐츠 발굴을 통한 관광 활성화 등의 목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주요 예술지원 사업은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사업, 창작공간 활성화(레지던스) 지원사업, 소극장(소공연장) 지원사업, 해외전시 지원사업,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사업, 민간문화시설(문화가 있는 날) 운영 지원사업, 전북나우페스티벌 개최

<sup>145)</sup>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웹사이트 캡처(<http://www.jbct.or.kr/about/organization>, 2019년 2월 기준)

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국제문화교류 지원사업, 순수 예술작가 아트상품 개발 지원, 전북문화상생(메세나)사업, 문화가 있는 날(청춘마이크) 사업 등이 있음.

- 이 중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사업은 국악(전통예술), 음악, 연극, 무용, 다원예술 등 분야, 창작공간 활성화(레지던스) 지원사업은 문학, 시각예술, 다원 및 복합예술 분야, 소극장(소공연장) 지원사업은 연극 등 분야, 해외전시 지원사업은 시각예술(입체, 평면) 분야,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은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등 공연예술 분야, 순수 예술작가 아트상품 개발지원은 시각예술 분야 등을 지원하고 있음.

#### □ 장르체계 비교

〈표 13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과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지원사업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문학		문학예술		시		시조		소설		희곡		아동문학		
				수필		평론		스토리텔링		드라마·시나리오				
시각예술		시각예술		회화(판화)		조소		공예		디자인				
				서예		사진		건축		설치·영상매체				
공연예술	연극	공연예술	음악		오페라		관현악		실내악		성악		작곡	
			무용		한국무용(전통, 창작)				현대무용				발레	
			음악		연극 일반		마임		뮤지컬		인형극		아동극	
전통예술		전통예술		정악(시조·가사·가곡)		판소리		창극		풍물·사물놀이		민속·의례		
다원예술		다원예술		장르복합·탈장르예술				독립·실험예술				공공예술프로젝트		
				영상·미디어예술				영화·애니메이션				비주류예술 등		
예술일반														

하. 제주문화예술재단

- 제주문화예술재단은 “문화로 풍요롭고 예술로 행복한 제주 만들기”라는 비전으로 지난 2001년에 설립된 재단법인임.

□ 조직도<sup>146)</sup>

〈그림 98〉 제주문화재단 조직도

## □ 주요사업

-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예술창작활성화, 생활문화활성화, 청년문화활성화,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사회적문화예술활동활성화, 지역문화 재생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함.
- 주요사업은 문화예술지원, 생활나눔, 문화예술교육, 문화재생, 문화공간, 문화유산, 청년 문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문화예술지원 중 특정 장르별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창작공간프로그램 지원이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복합장르) 등으로 구분해 단체를 지원하고 있고, 일반예술활동지원은 문학예술,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으로 구분해 개인 또는 단체를 지원함.

146) 제주문화재단 웹사이트 캡처(<https://www.jfac.kr/contents/index.php?mid=010304>, 2019년 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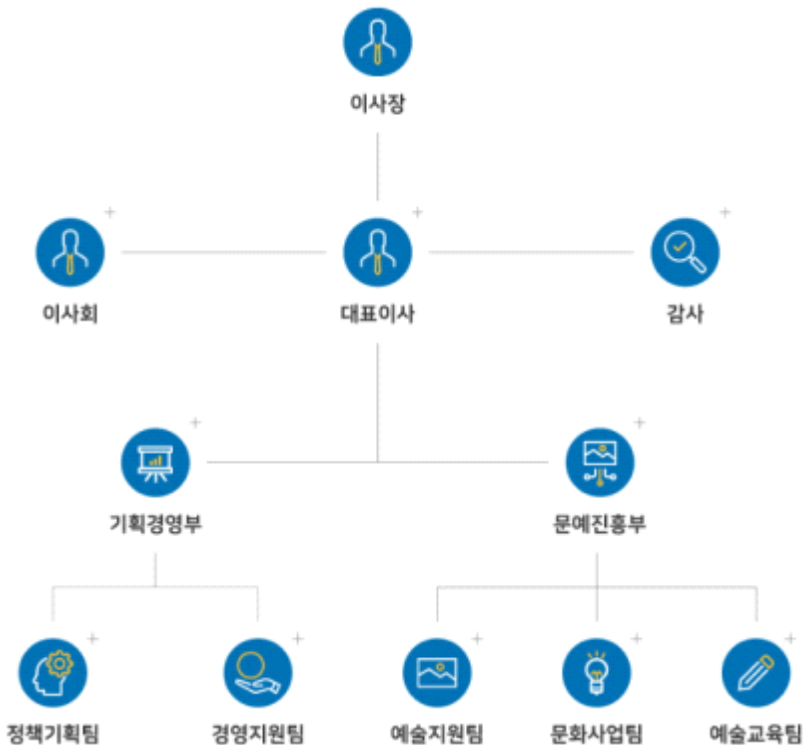
## □ 장르체계 비교

〈표 13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장르와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 분야 비교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학		문학		시	시조	동시	희곡	수필	
				소설(단편, 중편, 장편)	동화(단편, 중편, 장편)	평론	기타		
시각예술		시각		한국 화	서양화	서예	판화	설치	
				사진	공예	건축	기획		
				디자인	조소	도예	기타		
공연 예술	연극	공연 예술	연극	창작극	번역극	뮤지컬	년버벌		
				마임	아동극	인형극	기타		
	무용		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창작무용극		기타			
	음악		음악	성악	합창	오페라	관현악	실내악	
				기악	작곡	대중음악	기타		
전통예술		전통예술		전통연희	국악	전통무용			
				창작국악		기타			
다원예술		다원예술(탈장르·복합 장르·비주류 및 독립예술)		융복 합형	실험	복합	대중	기타	
예술일반		조사연구(비평활동)							

거. 충남문화재단

- 충남문화재단은 도민의 선순환 예술 창작과 문화향유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13년에 설립된 재단법인임.

□ 조직도<sup>147)</sup>

〈그림 99〉 충남문화재단 조직도

## □ 주요사업

- 충남문화재단은 “예술로 꽃피우는 행복한 문화 충남”이란 슬로건과 “도민 행복의 동반자, 생활 속 문화친구 Cul-friend”라는 비전을 갖고, 선순환 예술창작, 누구나 문화 향유, 다함께 문예협력, 창의적 재단운영 등의 목표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지역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 신진예술창작지원사업 START, 충남향토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사업,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지역특화문화브랜드

<sup>147)</sup> 충남문화재단 웹사이트 캡처([http://cacf.or.kr/\\_kor/designer/skin/06/sub06\\_05.php](http://cacf.or.kr/_kor/designer/skin/06/sub06_05.php), 2019년 2월 기준)

기획지원, 생활문화활성화지원사업 등의 예술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이 중 지역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은 문학, 시각, 전통, 음악, 무용, 연극, 사진, 다원, 예술교류, 신생예술 분야, 신진예술창작지원사업 START는 문학, 시각, 공연예술 등 분야, 충남 향토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은 문학(향토사연구, 향토예술사 편찬 등), 시각(그룹전, 공모전 등), 공연(지역예술 축제, 연극 등) 분야,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사업 역시 문학, 시각, 공연 분야,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은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를 지원하고 있음.

#### □ 장르체계 비교

〈표 13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과 충남문화재단 지원사업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충남문화재단	
문학		문학예술	시
			시조
			소설
			희곡
			향토사 연구
시각예술		시각예술	순수미술
			공예
			서예
			사진
			영상
공연예술	연극	연극	
	무용	무용	
	음악	음악	
전통예술		전통(국악)	
다원예술		다원	
		신생예술	
예술일반		예술교류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 너. 충북문화재단

- 충북문화재단은 도민의 다양한 예술창작 활동과 보편적인 문화복지가 실현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에 설립된 재단법인임.
- 조직도<sup>148)</sup>



〈그림 100〉 충북문화재단 조직도

#### □ 주요사업

- 충북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 발전 기반 확산, 문화공간 활성화 및 문화예술 전문성 향상, 지역문화예술 창작 지원 강화, 지역문화 향유 확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등 5개의 전략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주요사업은 모두가 누리는 문화예술기반 강화, 창작활동 및 생활문화예술 지원,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로 새로운 가치창출 등을 수행하고 있음.
- 모두가 누리는 문화예술기반 강화 사업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충북 좋은공연 종합관람권(사랑티켓) 지원사업, 지역문화진흥기금 확대·조성 사업, 충북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 충북문화관 운영, 충북문화예술인화관 운

<sup>148)</sup> 충북문화재단 웹사이트 캡처



영 등이 있음.

- 이 중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과 지역문화진흥기금 확대·조성 사업은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5개 공연분야, 충북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은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영상, 국제교류, 다원예술 총 9개 분야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창작활동 및 생활문화예술 지원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청년예술가 창작환경 지원사업, 창작거점공간 지원사업(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충북미술가 서울전시회 운영비 지원사업, 충청권 인생나눔교실 운영(공모), 생활문화예술 플랫폼 사업, 무지개다리 사업(공모), 시군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사업, 충북기획 지원사업, 청춘 마이크 사업 등의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이 중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은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단체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로 새로운 가치창출 사업은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이 중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지원교과 과정이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사진, 공예, 디자인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의 하나로 실시하고 있는 무지개다리 지원사업(2018년)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음. 나이, 사회계층, 직업, 이주민, 소수자, 장애, 농산어촌 등 다양한 분류로 구분되는 문화예술 활동 주체에게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한 사업을 지원함. 그 중 ‘함께하는 유학 생활’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여가를 즐기고, 음악을 듣고, 체험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등 다원예술 사업을 진행함.

#### □ 장르체계 비교

〈표 13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과 충북문화재단 지원사업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강원문화재단			
문학	문학	시	시조	소설	수필
		희곡	아동문학		평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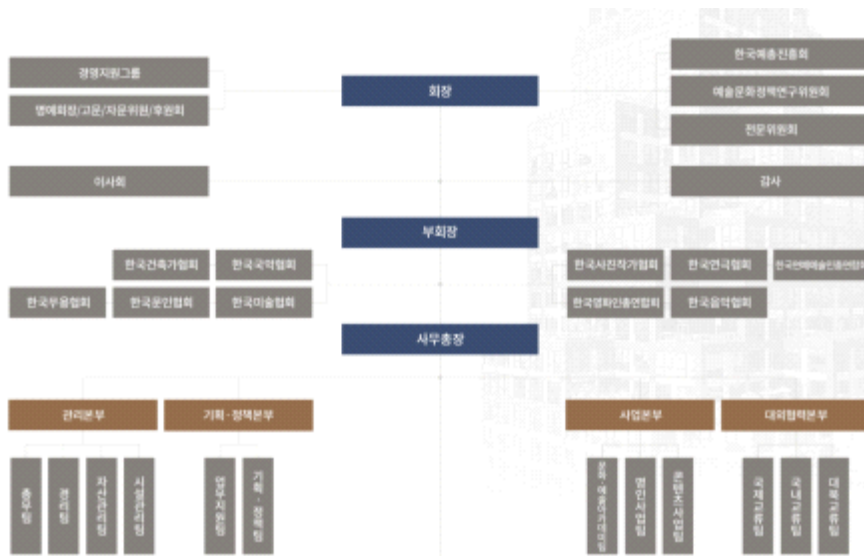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강원문화재단				
시각예술		미술	한국화		서양화	공예
			조소		디자인	서예 등
		영상				
		사진				
		공예				
공연예술		공연	디자인			
			연극	연극	아동·청소년극	뮤지컬
			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음악	실내악	교향악	합창
				중창		오페라 등
전통예술		전통예술 • 국악	전통음악		전통무용	
다원예술			전통연희		창작 및 퓨전 국악	
예술일반		다원예술				
		국제교류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 4. 민간기관

##### 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는 10개 회원협회(건축,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영화, 음악, 미술)와 전국광역시·도와 시·군에 156개 연합회/지회로 구성되었으며, 한국 예술문화의 창달과 국제교류 및 예술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 예술인의 권익 신장을 목적으로 1961년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sup>149)</sup>임.

- 조직도<sup>150)</sup>



〈그림 101〉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조직도

##### □ 주요사업

- 예술가지원사업, 교육사업, 문화사업, 출판·연구사업, 문화나눔·기부사업 등으로 나뉨.

149)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2017.10.31 일부개정

150)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웹사이트 캡처(<http://www.yechong.or.kr/01/organization.php>, 2019년 2월 기준)

예술가지원사업은 한국예술문화명인, 예총예술문화인상 등으로 구성됨. 한국예술문화명인 인증이 총 30개 부문으로 구성됨.

- 교육사업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교육프로그램이 부문별로 실시되고 있음.

#### □ 장르체계 비교

- 한국예술인총연합회 사업의 장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장르 구분인 전통예술과 시각예술, 공연예술 부문 장르에 해당함.
- 예술가지원사업 중 한국예술문화명인 인증부문<sup>151)</sup>은 전통회화, 현대회화, 판화, 공예, 도예, 서예, 조각, 전통복원, 디자인, 전통음악, 서양음악, 전통무용, 전통건축, 전통놀이, 전통무예, 전통음식, 전통복식, 전통연극, 전통제조, 불교문화, 화예, 무속, 전통굿, 전통직조, 전통염직, 전통재배, 전통철학, 사진, 문학, 기타 등 총 30개 부문으로 구성됨.
- 교육사업 중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총 3개 부문으로 나뉘어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음. 1) 미술·공예부문: 구슬공예, 가족공예, 도예, 민화, 수채화, 서양화, 동양화, 한국화, 사진 등 세부 부문으로 구성됨. 2) 협력종합예술활동 부문: 창작무용, 연극, 뮤지컬, 연극연출, 밴드지도, 기타, 사물놀이 등 세부 부문으로 구성됨. 3) 공연 부문: 찾아가는 음악회, 찾아가는 갤러리로 구성됨.

〈표 134〉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과 한국예술인총연합회의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한국예술인총연합회						
	한국예술문화명인			교육사업			
문학	문학						
시각예술	전통회화	현대회화	판화	미술· 공예	구슬공예	가족공예	도예
	공예	도예	서예				
	조각	디자인	전통건축		민화	수채화	서양화
	화예	전통직조	전통염직		동양화	한국화	사진
	사진						

<sup>151)</sup> <http://www.yechong.or.kr/03/artInfo.php>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한국예술인총연합회					
		한국예술문화명인			교육사업		
공연 예술	연극						
	무용						
	음악	서양음악					
전통예술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놀이			
		전통연극	무속	전통굿			
다원예술							
예술일반					협력예 술헌동 부문	창작무용	연극
						연극연출	뮤지컬
						밴드자도	기타
					사물놀이		
		전통복원	전통무예	전통음식			
		전통복식	전통제조	불교문화			
		전통재배	전통철학	기타			

#### 나. 한국국악협회

- 한국국악협회는 국악예술 보존, 전통예술의 보급과 발전 및 국악예술인의 친목 도모를 위해 창립된 사단법인임.

□ 조직도<sup>152)</sup>

〈그림 102〉 한국국악협회 조직도

## □ 주요사업

- 국악경연대회, 국악대전, 민요경창대회와 같은 경연대회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악제와 같은 공연도 벌이고 있음.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음.

## □ 장르체계 비교

- 한국국악협회의 장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장르 구분인 전통예술과 전통예술 부문 장르에 해당함.

〈표 135〉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과 한국국악협회의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국악협회	
	국악대전 <sup>153)</sup>	국악경연대회 <sup>154)</sup>
문학		
시각예술		

<sup>152)</sup> 한국국악협회 웹사이트 캡처(<http://www.kukakhyuphoe.or.kr>, 2019년 2월 기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국악협회	
		국악대전 <sup>153)</sup>	국악경연대회 <sup>154)</sup>
공연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가야금병창,판소리	가야금병창,판소리
		고법	기악
		기악	농악
		농악	민요
		전통무용	시조
전통무용			
다원예술			
예술일반			

#### 다. 한국무용협회

□ 한국무용협회는 무용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적인 무용예술문화교류를 통하여 무용가의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창립된 사단법인임.

□ 조직도<sup>155)</sup>



〈그림 103〉 한국무용협회 조직도

153) 한국국악협회 웹사이트 기준, 2018 국악대전(<http://www.kukakhyuphoe.or.kr>, 2019년 2월 기준)

154) 한국국악협회 웹사이트 기준(<http://www.kukakhyuphoe.or.kr>, 2019년 2월 기준)

155) 한국무용협회 웹사이트 캡처 ([http://koreadanceassociation.org/es\\_bh2a1n1/?r=home&c=125/136](http://koreadanceassociation.org/es_bh2a1n1/?r=home&c=125/136), 2019년 2월 기준)

## □ 주요사업

- 대한민국무용대상, 서울무용제, 전국무용제, 젊은 창작자 공연, 무용콩쿠르, 신인무용경연 대회 등 경영대회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 장르체계 비교

- 한국무용협회의 장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장르 구분인 전통예술과 공연예술 부문 장르에 해당함.

〈표 136〉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과 한국무용협회의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무용협회		
		젊은안무자창작공연 <sup>156)</sup>		무용콩쿠르 <sup>157)</sup>
문학				
시각예술				
공연 예술	연극			
	무용	순수 무용	한국무용	한국전통무용 한국전통명작무
			현대무용	한국창작무용 발레창작
			발레	발레클래식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 라. 한국문인협회

- 한국문인협회는 문학의 발전을 위해 18개 지회와 180개 지부로 구성된 사단법인임.

- 조직도: 없음

156) 젊은안무자창작공연 웹사이트 기준 ([http://ycp.koreadanceassociation.org/es\\_bh2a1n1/?r=ycp&c=210/215](http://ycp.koreadanceassociation.org/es_bh2a1n1/?r=ycp&c=210/215), 2019년 2월 기준)

157) 제50회 초중고무용콩쿠르 웹사이트 기준 ([http://koreadanceassociation.org/es\\_bh2a1n1/?r=home&c=128/140&where=subject%7Ctag&keyword=49&uid=10733](http://koreadanceassociation.org/es_bh2a1n1/?r=home&c=128/140&where=subject%7Ctag&keyword=49&uid=10733), 2019년 2월 기준)



□ 주요사업<sup>158)</sup>

- 정례행사로는 한국문학심포지엄, 청소년백일장, 서울문학축전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문학 관련한 문학상, 문학인상 선정 및 〈월간문학〉, 〈한국문학인〉, 〈문협회보〉 등을 발간하고 있음.

## □ 장르체계 비교

- 한국문인협회의 장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장르 구분인 전통예술과 공연예술 부문 장르에 해당함.

〈표 137〉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과 한국문인협회의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인협회
문학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 마. 한국미술협회

- 한국미술협회는 미술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창작환경 개선, 복지정책 실시 등 미술인이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신진작가들도 발굴 및 지원을 목적으로 창립된 사단법인임.

<sup>158)</sup> 한국문인협회 웹사이트 기준(<http://www.ikwa.org/category/?cid=21092200>, 2019년 2월 기준)

□ 조직도<sup>159)</sup>

〈그림 104〉 한국미술협회 조직도

## □ 주요사업

- 부문별 미술대전, 초대전과 같은 전시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술아카데미와 같은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 장르체계 비교

- 한국미술협회의 장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장르 구분인 전통예술과 시각예술 부문 장르에 해당함.

<sup>159)</sup> 한국미술협회 웹사이트 캡처([http://www.kfaa.or.kr/newbie/csr/c\\_05.asp](http://www.kfaa.or.kr/newbie/csr/c_05.asp), 2019년 2월 캡처, 2017년부터 유지된 조직도임)

〈표 138〉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과 한국미술협회의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미술협회	
		미술대전 <sup>160)</sup>	전시 부문 <sup>161)</sup>
문학			
시각예술	미술	구상, 비구상	서예
		공예	문인화
		전통공예	전통미술/공예
		디자인	디자인/현대공예
		서예 문인화	
공연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 바. 한국연극협회

□ 한국연극협회는 연극 예술의 발전과 연극인들의 친목 도모,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창립된 사단법인임.

□ 조직도<sup>162)</sup>



〈그림 105〉 한국연극협회 조직도

160) 한국미술협회 웹사이트 기준([http://www.kfaa.or.kr/\\_newbie/convention/conv\\_hist.asp](http://www.kfaa.or.kr/_newbie/convention/conv_hist.asp), 2019년 2월 기준)

161) 한국미술협회 웹사이트 기준([http://www.kfaa.or.kr/\\_newbie/sch/sch\\_kfaa.asp](http://www.kfaa.or.kr/_newbie/sch/sch_kfaa.asp), 2019년 2월 기준)

162) 한국연극협회 웹사이트 캡처([http://ktheater.bravod.co.kr/sub1\\_5.html](http://ktheater.bravod.co.kr/sub1_5.html), 2019년 2월 기준)

#### □ 주요사업

- 대한민국연극제, 전국청소년연극제, 대한민국연극인의 밤 등의 공연 위주의 사업을 비롯해 월간 한국연극 잡지를 발행하고 있음.

#### □ 장르체계 비교

- 한국연극협회의 장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장르 구분인 전통예술과 공연예술 부문 장르에 해당함.

〈표 139〉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과 한국연극협회의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연극협회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연극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 사. 한국음악협회

- 민족음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적인 음악문화 교류를 통한 음악가의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하고, 1961년에 창설된 사단법인임.

□ 조직도<sup>163)</sup>

〈그림 106〉 한국음악협회 조직도

## □ 주요사업

- 매년 서울창작음악제, 해외파견콩쿠르, 대한민국국제음악제, 대한민국작곡상, 학생음악콩쿠르, 국제합창제 등의 음악경연대회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 장르체계 비교

- 한국음악협회의 장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장르 구분인 전통예술과 공

<sup>163)</sup> 한국음악협회 웹사이트 캡처(<http://www.mak.or.kr/main.php>, 2019년 2월 기준)

연예술 부문 장르에 해당함.

〈표 140〉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과 한국음악협회의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음악협회 <sup>164)</sup>			
		학생음협콩쿠르		해외파견콩쿠르	서울창작음악제 대한민국작곡상
문학					
시각예술					
공연 예술	연극				
	무용				
	음악	서양 음악	피아노	피아노	대편성
			작곡	성악	
			성악	현악	실내악
			현악	목관	
			관악	금관	독주/독창
			생활음악	작곡	
			실내악		
전통예술	한국 음악	현악			
		관악			
		성악			
		타악			
다원예술					
예술일반					

<sup>164)</sup>한국음악협회 웹사이트 기준 ([http://www.mak.or.kr/bbs/board.php?bo\\_table=board1\\_1](http://www.mak.or.kr/bbs/board.php?bo_table=board1_1), 2019년 2월 기준)

## 5. 기관별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현황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문화예술 지원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정책방송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원사무국 등 총 18개의 소속기관이 있음.
- 이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장르별 지원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곳은 학교와 박물관, 극장 등을 제외한, 국립국어원, 해외문화홍보원, 국립국악원, 한국정책방송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한민국)예술원사무국 등 총 6곳임.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 비교조사를 통해 사업의 유사성, 중복지원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1)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 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체계적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기구”임.
- 국립국어원의 주요사업은 “국민의 표준 언어생활 지원과 한국어 자료 집대성 및 국어 정보 서비스 강화”, “미래를 향한 국어 정책의 기초 국어 실태 조사·연구”, “국민의 언어생활과 직결된 공공 언어 지원 체계 구축”,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국어문화학교 운영”, “국내외 한국어 보급 한국어 교재 개발 및 전문가 양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과 특별한 유사성 또는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음.

#### 2) 해외문화홍보원

-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문화의 해외 홍보를 위해 “한국 문화가치를 세계인과 공유해 품격 있는 국가이미지 제고”라는 비전과 “문화예술의 해외 활동 소개 및 지원을 통한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림”, “정부 주요 정책 성과, 정상외교 및 국제 업무 등 홍보·지원”이란 미션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해외문화홍보원은 2019년, 재외문화원 운영 활성화, 해외 유력 언론의 우호적 보도 확대, 한국에 대한 온라인 홍보 강화 등을 목표로 사업을 수행하는 등 일반 문화예술 지원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음.

### 3) 국립국악원

- 국립국악원은 “국악으로 만드는 국민의 행복”이란 비전을 갖고 “순수예술의 가치와 감동을 전하는 국악 공연”, “생활 속에 국민행복을 주는 국악문화 보급”, “전통예술의 기반을 견고히 하는 국악학술 연구” 등의 중점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2018년 공지사항 등을 통해 살펴본 결과, 국립국악원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총 11개이며, 작품 및 공연자 모집 6개, 경연대회 등 3개, 대관 1개, 연구 1개 등이 수행되었음.
- 이는 2019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중 창작실험활동지원, 공연예술 비평연구활성화지원, 대한민국예술제지원, 공연장대관료지원,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
- 공모 사업 등의 경우 대부분 유사 또는 동일사업으로 이미 국고지원사업 지원금이나 기금을 받는 사업의 지원 자체를 제한하고 있어, 중복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표 141〉 국립국악원 2018년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주요 내용
2018 국립국악원 금요공감 공연작품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예술과 타 장르와의 협업 및 전통의 재해석을 통한 현대적 재창작 작품 모집</li> <li>- 국고지원사업 지원금 및 기금 받는 작품 제외</li> <li>- 1회 공연출연료 최소 500만원 최대 700만원</li> </ul>
2018년도 국립국악원 공연시설 수시대관(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예술의 전승·발전 등에 이바지할 국악공연 등에 시설 대관</li> <li>- 700석 예약당 대관비 공연1회 약 150만원</li> </ul>
2018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기획공연 〈수요출전〉 공연작품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춤 및 전통춤에 기반한 공연작품 모집</li> <li>- 1회 공연료 500만원~700만원</li> </ul>



사업명	주요 내용
제13회 온 나라 전통춤 경연대회	- 궁중춤, 민속춤 분야 - 예인부와 신인부로 나누어 경연 - 예인부 금상 700만원, 신인부 금상 500만원
제38회 온 나라 국악경연대회	- 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해금, 아쟁, 판소리, 민요·가야금병창, 정가, 작곡 분야 - 대상 상금 1,000만원
2018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기획공연 〈목요풍류〉 하반기 공연 출연자 모집	- 국고지원사업 등으로 확정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 1회 공연 출연사례 200만원~300만원
제32회 창작국악동요 작품 공모전	- 유아, 초등부문 진행 - 대상 상금 300만원
제7회 국립국악원 학술상 원고 모집 (학술, 평론 : 전통예술 및 인접학문)	- 학술분야, 청론분야 - 최우수학술상 상금 500만원
제7회 국악동요 부르기 대회	- 전 국민 누구나 참여 - 대상 상금 200만원
국악 활성화를 위한 대중음악 작곡 공모전	- 장르 구분 없음 - 국악기 활용한 음악 작곡 - 작품료 200만원 지급
2019 신진 지휘자 발굴을 위한 객원 지휘자 공모	- 2019 〈청춘, 청어람〉 신진 지휘자 발굴 - 지휘 사례금 100만원

#### 4) 한국정책방송원(KTV 국민방송)

- 한국정책방송원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정부정책 확산과 체계적인 영상자료 보존 관리”란 미션과 “대한민국 최고의 정책 알림이 KTV 국민방송”이란 비전을 갖고 정책소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본 결과, 정책 홍보 등을 위한 방송 기획과 제작, 뉴미디어 소통 확대, 영상기록물 아카이브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함. 이는 문화예술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과는 무관함.

#### 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자원과 동시대 예술을 기반으로 융·복합 교육콘텐츠 개발

을 통한 문화예술 향유·창제작·체험의 장과 융합형 문화·예술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국립아시아문화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연 일정, 전시 일정, 행사 일정 등을 안내하고 직접 예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프로그램, 전문인력프로그램, 청소년프로그램, 어린이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이 중 전문인력프로그램 중 2018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전시 테크니션”, “축제기획자”, “시노그래퍼”, “융복합문화기획자”, “음향 디자이너”, “문화기술 현장실무”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했음.
- 이 중 특정 장르와 연관이 있는 것은 공연예술과 관련된 시노그래퍼와 융복합 장르와 관련된 융복합문화기획자 교육 프로그램 사업임. 시노그래퍼 교육 프로그램은 “공연예술 공간을 구성하고 창조하는, 무대 미술의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기초, 심화, 실무 과정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고 기초과정은 6만원, 심화와 실무는 무료로 진행됐음. 융복합문화기획자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특정 문화예술 장르 종사자에 국한하지 않았고 특정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었고, 참가비 역시 무료임.
-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 중 예술인력육성과 유사할 수 있지만 특정 문화예술 장르 종사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았고, 타 기관의 지원사업과 같이 중복지원 여부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참여 제한도 두지 않았음.

#### 6) 대한민국예술원(예술원 사무국)

- 대한민국예술원은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행함으로써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게 한다”는 목적을 갖고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국내외 예술의 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주요 사업으로는 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 문화예술활동 지원, 국제예술교류, 회원예술활동창작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함.
- 대한민국예술원은 국내 문화예술계 종사자 중 예술 관련 우수 연구, 작품제작 또는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시상해,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55년부터 시행한 사업임. 문학, 미술, 음악, 연극·영화·무용 등 총 4개 부문을 시상하고 상금

각 5천만원임. 문화예술활동 지원 역시 문학, 미술, 음악, 연극·영화·무용 4개 부문에 걸쳐 수행되며, 회원들과 함께 낭송회, 자체 전시회와 음악회 등을 개최하고 있음.

- 국제예술교류는 예술원 회원을 중심으로 해외 공연 및 전시 관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제예술교류 사업 등과 유사하나 대한민국예술원의 경우 명확한 지원내용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없었음.

#### 나. 공공기관 문화예술 지원 현황

- 2019년도 공공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총 339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음. 시장형 공기업 16개, 준시장형 공기업 20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4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9개, 기타 공공기관이 210개임.
- 이 중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개, 기타 공공기관 17개로 총 19개임.
- 이 중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자체수입비율 상승, 정원 증가, 자율성·독립성 강화 요구 등 여건 변화가 발생”하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 지정되었음(기획재정부, 2019: 2).

〈표 142〉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개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2
기타 공공기관	(재)국악방송,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예술의전당, (재)한국문화정보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화재단	17

자료: 기획재정부, 2019

-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 비교조사를 통해 사업의 유사성, 중복지원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1) 영화진흥위원회

-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립됨.
- 영화진흥위원회는 기획, 투자, 제작, 배급/상영, 해외진출, 연구조사, 교육, 인프라, 단체지원, 기타 등의 분야로 나누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8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기획 분야는 한국영화기획개발지원사업, 제작 분야는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사업, 배급/상영 분야는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 해외진출 분야는 중국 필름 비즈니스센터 장기 입주지원, 연구조사 분야는 2018년 국제 영상기술 교류지원, 교육 분야는 현장영화인 직업훈련 지원사업, 인프라 분야는 영화현장 응급의료지원사업, 단체지원은 2018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영상제 지원사업, 기타로 2018년 영상나눔버스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시각예술과 관련하여 2019년 기준 전시지원과 전시사전연구지원, 공간지원-비영리전시공간, 공간지원-사립미술관, 비평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 분야에 시각예술이 포함되어 있지만, 영화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실제 지원사업 역시 두 위원회 간 동일한 지원 분야와 사업 등이 없음.

## 2) 한국콘텐츠진흥원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공정과 상생, 소통과 공감의 사람중심 콘텐츠산업 구현”이란 미션과 “누구나 콘텐츠로 일상을 풍요롭게”라는 비전을 갖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7개의 장르(기능)와 3개의 지원단계로 분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3개의 분류는 기업육성, 인재양성, 연구/백서/실태조사, 창작지원 등의 “기획/인큐베이팅”과 제작지원, R&D, 금융, 취업, 제작인프라구축 등의 “제작”, 해외진출지원(전시/마켓), 유통플랫폼, 공모전/시상식, 네트워킹, 포럼/컨퍼런스 등의 “유통”으로 나누어져 있음.
- 장르는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악, 패션, 융복합, 대중문화, 방송, 연구, 금융, 기업육성, 지역, 인재양성, 스토리, R&D, 기타 등으로 분류되어 있음.

〈표 143〉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연극	
	무용	
	음악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융복합
예술일반		
		게임
		만화
		애니
		캐릭터
		대중문화
		방송
		연구
		금융
		기업육성
		지역
		인재양성
		스토리
		R&D

- 음악 장르는 기획/인큐베이팅 단계에서 “음악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 “음악영상물 자율심의 가이드 및 후속조치 연구”, “K-루키즈 발굴·육성 지원”, “음악산업백서 발간 및 포럼 개최”,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유통 단계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음악 사업 성과홍보”, “K-POP 해외 쇼케이스 개최 지원”, “대중음악 공연 지원”, “서울국제뮤직페어(MU:CON) 개최”, “해외음악페스티벌 참가 및 해외음악공연 개최지원” 등을, 제작 단계에서는 “대중음악 앨범 제작·프로모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제 지원,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 등과 일부 유사성이 있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K-POP, 대중음악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 있어 세부 지원 대상은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음.
- 융복합 장르는 기획/인큐베이팅 단계에서 “VR콘텐츠 종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유통

단계에서 “가상현실(VR) 콘텐츠 사업화 지원”, 제작 단계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지원”, “가상현실 콘텐츠 프론티어 프로젝트”, “지역활용형 VR·AR 콘텐츠 제작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융복합 역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경우 가상현실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원예술 지원 등과는 차이를 보임.

### 3) 아시아문화원

- 아시아문화원은 “아시아 문화예술 연구를 통한 콘텐츠 창제작 및 유통”이란 미션과 “세계 중심의 아시아 문화 콘텐츠 창제작 PARTNER - P(Production) A(Archive) R(Research) T(Technology) N(Network) E(Education) R(Re-creation)”이라는 비전을 갖고 조사·연구, 콘텐츠 창제작·운영, 교류·유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주요 지원사업은 민주평화교류센터에서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이사이 권역별 문화장관회의, 아시아 스토리 커뮤니티 구축, 아시아 무용 커뮤니티 구축, 아시아 전통음악 커뮤니티 구축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콘텐츠사업본부의 경우 ACT기획팀, 공연기획팀, 전시기획팀, 무대기술팀 등으로 나뉘어, ACT기획팀에서는 융복합콘텐츠 기획개발, 창제작 활성화-유통·협력기관 구축을, 공연기획팀은 창제작 공연사업, 공연 관련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기획공연, 초청공연을, 전시기획팀은 전시기획 및 콘텐츠 제작, 전시, 프로젝트 연계 학술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전시공간 디자인 및 전시장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음.
- 교육사업본부에서는 교육콘텐츠개발팀에서 교육 콘텐츠 연구·개발, 시민(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아카데미 운영, 전문인력 해외인턴 지원 사업 운영을 수행하고, 교육사업팀에서는 어린이교육콘텐츠 연구 및 개발, 어린이문화원 콘텐츠 보강 및 운영,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어린이도서관 운영, 콘텐츠 협력·교류 유통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아시아문화원의 경우 발레, 연극, 음악회 등을 기획·제작하고 있지만, 특정 장르 육성을 위한 직접 지원 사업 등은 수행하고 있지 않음.

4) (재)국악방송<sup>165)</sup>

- (재)국악방송의 경우 라디오와 TV 프로그램 등을 기획 및 제작하고 있고, 별도 특정 장르의 문화예술을 위한 직접 지원사업은 수행하지 않음.

## 5)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유통 활성화와 예술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으로 예술현장의 자생력 제고”란 미션과 “경쟁력 있는 예술단체 세계로 진출하는 한국예술!”이란 비전을 갖고 한국예술 유통 활성화, 예술단체와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2019년 공모사업 안내 게시판을 통해 살펴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 공연예술분야 지원 사업, 시각예술분야 지원 사업 등 총 3 분류로 나누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이 중 시각예술 분야의 미술품 대여사업 지원 중 미술품 대여·전시 지원 사업은 문예진흥기금의 전시지원 사업과 한국미술담론활성화 중 시각예술 비평가-매체 매칭 지원 사업은 문예진흥기금 비평지원 사업과 유사함. 마지막으로 공연예술 분야에서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사업은 문예진흥기금의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 사업과 유사함.

〈표 144〉 2019년도 문예진흥기금과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공모사업 비교

구분	문예진흥기금 사업명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사업명
시각예술	전시지원	미술품 대여·전시 지원
	비평지원	한국미술담론활성화 (시각예술 비평가-매체 매칭 지원)
공연예술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	서울국제공연예술제

6) (재)예술의전당<sup>166)</sup>

- (재)예술의전당은 공연, 전시 등에 대한 안내와 티켓 예매 서비스, 대관서비스 등을 수행하지만

<sup>165)</sup> [http://www.gugakfm.co.kr/gugak\\_web/main](http://www.gugakfm.co.kr/gugak_web/main)

<sup>166)</sup> <http://www.sacticket.co.kr>

### 직접적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수행하지 않음

#### 7) (재)한국문화정보원<sup>167)</sup>

- (재)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 관련 연구보고서 간행물을 발간하고, 세미나 및 포럼을 개최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지만, 직접적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수행하지 않음.

#### 8) 국립박물관문화재단<sup>168)</sup>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국립박물관 문화상품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연 및 전시 등에 대한 안내와 예매 서비스를 제공하나, 직접적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수행하지 않음.

#### 9)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공예·디자인 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이란 미션과 “공예·디자인 문화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를 선도하는 기관”이란 비전을 갖고 공예·디자인 문화향유 확산,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전통문화의 대중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2019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사업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공예 분야의 경우 공예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등을 통해 대학-산업 연계 인재양성을 지원할 예정이고, 공예디자인 상품개발 지원을 통해 신진 디자이너 및 창작자에게 개발 지원금 700만원 이내, 전년도 후속지원에 2500만원 내외의 지원금을 직접 지원할 예정임.

<sup>167)</sup> <https://www.kcisa.kr>

<sup>168)</sup> <https://www.cfnmk.or.kr>



〈표 145〉 2019년도 문예진흥기금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모사업 비교

구분	문예진흥기금 사업명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사업명
시각예술	전시지원	공예유통망 구축 및 공공부문 수요창출
		KCDF갤러리 및 숍 운영
		공예트렌드 페어
		국제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공예주간 개최
		자체기획 전시
국제예술교류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국제교류 및 전시
		밀라노 한국공예전

자료: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8

- 공예유통망 구축 및 공공부문 수요창출 사업을 통해 지역 전시판매장을 지원할 예정이고, KCDF갤러리 및 숍 운영 사업을 통해 작가 대관전시를 진행할 예정임. 또한 공예트렌드 페어를 개최하고, 국제교류 및 전시, 밀라노 한국공예전 개최, 공예주간 개최, 자체기획 전시 등을 수행할 예정임.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경우 공예 분야 종사자 등을 위해 지원금 지급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과 차이가 있음. 하지만 전시지원, 국제교류지원 사업 등에 있어 일부 중복된 사업이 존재함.

#### 10) 한국문학번역원

- 한국문학번역원은 “체계적인 한국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 및 홍보·교류를 통한 한국문학 및 간행물의 발전 및 세계화”란 미션과 “문학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문학번역 지원·교육 전문기관”이란 비전을 갖고, 한국문학 번역출판 기반강화, 한국문학 향유 저변확대, 차세대 원어민 번역가 양성 등의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세부적 번역지원, 출판지원, 해외교류, 국내교류, 교육, 해외소개정기간행물, 한국문학해외소개자료, 정보화 사업 등을 상시 수행함.
- 번역지원 사업은 “문학, 인문사회, 아동·청소년 소설, 장르문학, 그래픽 노블 등 다양한 한국

도서의 번역을 분기별로 지원"하며, 500만원 내외의 번역지원금을 지급함. 별도 지원자격 제한 등은 없음. 이외 영상·공연 번역지원사업을 통해 한국의 수준 높은 영상 및 공연 대본의 외국어 자막번역을지원함.

- 출판지원 사업은 번역지원공모 선정작품 출판지원, 해외출판사 번역출판 지원 등으로 나누어져 있음. 두 사업 모두 해외 출판사를 지원하는 사업임.
- 해외교류 사업은 국·내외 문화행사 및 활동을 지원하고, 해외출판사, 해외 한국학대학, 해외 문화축제 기획위원회 등 행사 주관 단체 및 개인을 지원함. 별도 중복지원을 제한은 없음. 기획행사는 문예지 발간 지원, 문학행사, 문학축제 지원, 국제도서전 참가, 학술행사 지원, 인사초청 등을 수행하고, 해외독자 대상 한국문학 독후감 대회를 개최하고도 함.
- 국내교류 사업에서는 서울국제작가축제, 번역출판 국제 심포지움, 한국문학번역상/신인상/공로상, 국내독자대상 낭독회를 개최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과 비교했을 때, 한국문학번역원의 해외교류, 국내교류 사업 중 일부가 문학 분야의 문학행사 및 연구지원 사업과 유사함. 주요 사업인 번역지원, 출판지원은 지원대상 등이 상이함.

#### 11) 한국문화관광연구원<sup>169)</sup>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경우 연구보고서, 학술지 발행,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직접적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추진하지 않음.
- 문화예술 분야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수행하는 문예기금 및 기관 운영 관련 연구사업보다 광범위한 주제와 국가 수준의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1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과 국가의 문화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미션과 “더 가까이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예술교육”이란 비전을 갖고

<sup>169)</sup> <https://www.kcti.re.kr>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확산, 전문 인력 및 단체의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주요사업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연구, 국제교류 및 대외홍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이 중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사업 중 아르떼아카데미 등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핵심 전문인력 연수를 기획 및 운영하여 문화예술교육 창의적 리더와 인재를 양성하고 있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전반적으로 교육에 초점을 맞춰 주제별,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특별 장르별 교육 지원 및 종사자 직접 지원 사업은 추진하고 있지 않음.

#### 13) 한국문화진흥(주)<sup>170)</sup>

- 한국문화진흥(주)는 문화상품권 발행, 컬처랜드 등 사업을 운영하며 문화생활 저변을 확대하는 사업을 수행하지만, 직접적인 지원사업은 수행하지 않음.

#### 13) 한국영상자료원<sup>171)</sup>

- 한국영상자료원은 시네마테크KOFA 상영일정 등을 안내하고 영상도서관, 한국영화박물관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직접적인 지원사업 등은 수행하지 않음.

#### 1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자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사회보장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 제8조 등에 근거해 설립됨. 국가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직접 기부금품 등을 모집 및 사용할 수 있음.
- 2018년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사업에 약 275억원을 집행했고 해당 금액은 전액 국고보조금

<sup>170)</sup> <http://www.kcpi.co.kr>

<sup>171)</sup> <https://www.koreafilm.or.kr>

으로 조달했음, 예술인의료비지원사업에 1억 5천만원, 전문인력역량강화에 1억원을 집행했음.

- 주요 사업은 예술활동증명, 예술인패스,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 산재보험,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함. 대표적인 직접지원 사업 중 하나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창작준비금 지원, 원료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으로 구분됨. 연 2회 분할신청할 수 있고, 총 5,500명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고, 과거에 지원을 받은 사람도 중복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음. 참여제한은 재단 사업 참여제한 대상 예술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중 문학 분야의 아르크문학창작기금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볼 수 있음.

〈표 146〉 2019년도 문예진흥기금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비교

구분	문예진흥기금 사업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명
문학	아르크문학창작기금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 15)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출판문화산업이 토대가 되는 문화강국 실현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출판문화산업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주요 사업으로 출판 제작 및 수출 강화, 전자출판 육성 지원, 출판문화산업 성장 기반 조성, 출판수요 창출 기반 조성 및 문화 확산 등의 사업을 수행함.
- 2018년 주요 사업으로 출판제작활성화 사업으로 우수출판콘텐츠 창작 지원사업을 추진함. 인문교양, 사회과학, 과학, 문학, 아동 등 5개 분야 총 137편을 선정하여 편당 1,000만원을 지원함. 또한 국제도서전 개최 및 참가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국제도서전 등을 개최하였음.
- 이 같은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중 문학 분야의 아르크문학창작기금 사업과 국제예술교류 사업의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사업 등과 유사함.

〈표 147〉 2019년도 문예진흥기금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업 비교

구분	문예진흥기금 사업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업명
문학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우수출판콘텐츠 창작 지원
국제예술교류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서울국제도서전

## 16) 한국문화재단

- 한국문화재단은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법에 따라 공연·전시 등 무형문화재 활동 지원 및 진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문화재의 보존·보급·활용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이란 미션과 “문화유산의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전문기관”으로서 비전을 갖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한국문화의집과 한국의집을 운영하며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상시 개최하고 있음.
- 2018년 문화유산진흥사업을 추진하며, 무형문화재 상설전시 등 다양한 공연을 지원함. 또는 무형문화재 전승자 주관 전승활동을 지원하고, 전승장비 구입 및 수리지원 사업도 추진함. 특히 2018년에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무형문화재 실내공연, 기획공연 등을 지원함.
-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공동 분야의 창작실험활동지원과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등과 유사할 수 있음.

〈표 148〉 2019년도 문예진흥기금과 한국문화재단 사업 비교

구분	문예진흥기금 사업명	한국문화재단 사업명
공연 예술 공동	창작실험활동지원	문화유산진흥사업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	
	공연특성화극장운영	한국의집 운영

## 다. 기타 민간재단

## 1)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전통예술의 진흥과 문화향수기회 확대를 통한 국민의 문화품격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재단설립허가를 받아 (재)국악문화재단으로 출발하여 2009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
- 주요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신진국악실험무대, 창작연희 작품공모, 전국풍물상설공연지원, 노인요양시설 전통예술 프로그램, 전통예술해외진출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사업은 전통예술의 미래가치 발굴을 위해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연구·시연과제 지원에 과제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지정과제 지원에 2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신진국악실험무대 사업은 젊은 전통예술가들 발굴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창작연희작품공모 사업은 현대 감각을 입은 전통연희 발굴을 목적으로 함.
- 전국풍물상설공연지원 사업은 풍물 상설공연 확대, 전통예술해외진출지원 사업은 음악, 무용, 연희 분야의 해외진출을 지원함.
- 이와 같은 사업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 분야의 창작실험활동지원, 전통예술 분야의 올해의 신작 지원, 국제예술교류 분야의 한국예술국제교류지지원 사업 등과 유사함.

〈표 149〉 2019년도 문예진흥기금과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사업 비교

구분	문예진흥기금 사업명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사업명
공연예술공동	창작실험활동지원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전통예술	올해의 신작	신진국악실험무대
국제예술교류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전통예술해외진출지원

## 제5절 타 분류체계 분석

## 1. 국가승인통계 분류

## 가. 예술인 실태조사(2015년 기준)

## □ 조사모집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한 예술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수혜 예술인
- 문화예술 관련 협회·단체 회원으로 가입된 예술인으로 한정하여 총 14개 예술분야 131,332명으로 한정함.

## □ 구축방법

- 예술활동증명 신청 예술인 모집단 정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경력 증명 시스템』DB정보를 통해 구축하였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수혜 예술인의 모집단 정보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구축하였음.
- 문화예술 관련 협회·단체 회원 가입 예술인의 모집단 정보는 34개 예술 관련 협회·단체의 회원 정보를 수집하여 구축하였음.

## □ 모집단 분류

-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만화, 기타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과 비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과 예술인실태조사의 장르 중 문학, 연극, 무용은 동일하게 분류하였으며, 예술위원회의 시각예술에 해당하는 장르는 미술, 공예, 건축, 사진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음악은 음악과 대중음악으로 구분하였음. 전통예술의 경우 국악만 별도로 분류하고 있음. 그 외에도 예술인실태조사에는 건축, 방송, 기타 등의 장르가 있음.

〈표 15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과 예술인실태조사의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실태조사
문학		문학
시각예술		미술
		공예
		건축
		사진
공연예술	연극	연극
	무용	무용
	음악	음악
전통예술		국악
다원예술		
예술일반		
		대중음악
		영화
		만화
		방송
		기타

나. 경제총조사(2015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2016년 기준)

□ 예술 관련 분야 산업서세분류

- 공연단체: 연극단체, 무용 및 음악단체, 기타 공연단체
- 자영예술가: 공연예술가, 비공연예술가
-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공연기획업,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업,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과 비교

- 경제총조사와 전국사업체조사의 경우 단체를 기준으로 연극, 음악·무용, 기타로 구분하고 있으며, 개인(자영예술가)을 기준으로 공연예술가와 비공연예술가로 구분하고 있음.



〈표 15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과 경제총조사·전국사업체조사의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제총조사·전국사업체조사	
		단체 기준	개인 기준
문학		기타 단체	비공연예술가
시각예술			
공연예술	연극	연극단체	공연예술가
	무용	음악 및 무용단체	
	음악		
전통예술		기타 단체	
다원예술			
예술일반			

## 다.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2015년 기준)

## □ 작성대상

- 문화체육관광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문화체육관광산업은 문화체육관광 관련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함.
- 문화체육관광산업은 크게 문화산업, 예술산업, 스포츠산업, 관광산업으로 구성되며, 4개의 대분류는 19개의 중분류로 나누어짐.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에서 산업별 결과는 19개 중분류를 기준으로 함.

〈표 152〉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 분류체계

활용 산업분류	대분류	중분류
저작권산업특수분류 콘텐츠산업특수분류	문화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판산업</li> <li>- 영화, 방송산업</li> <li>- 게임산업</li> <li>- 음악산업</li> <li>- 광고산업</li> <li>- 시각그래픽 및 캐릭터</li> </ul>
문화예술산업분류	예술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유산 및 문화시설</li> <li>- 공연</li> <li>- 공예</li> <li>- 문학 및 출판</li> <li>- 시각예술</li> </ul>
스포츠산업특수분류	스포츠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포츠시설업</li> <li>- 스포츠서비스업</li> <li>- 스포츠용품업</li> </ul>
관광산업특수분류	관광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숙박업 및 식당업</li> <li>- 문화오락 및 레저산업</li> <li>- 국제회의 및 전시업</li> <li>- 여행사 및 관광운수업</li> <li>- 관광쇼핑업</li> </ul>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과 비교

- 문화산업과 예술산업의 관점에서 출판산업과 문학 및 출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학 장르에 해당하며, 시각예술에는 시각그래픽 및 캐릭터, 시각예술, 공예가 해당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장르 중 연극, 무용, 음악을 포괄하는 공연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통예술에는 문화유산 및 문화시설, 공연이 해당함.

〈표 15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과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의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	
		저작권산업 · 콘텐츠산업	문화예술산업
문학		출판산업	문학 및 출판
시각예술		시각그래픽 및 캐릭터	시각예술
			공예
공연예술	연극		공연
	무용		
	음악	음악산업	
전통예술			문화유산 및 문화시설
다원예술			
예술일반			
		영화	
		방송산업	
		게임산업	

라. 국민여가활동조사(2016년 조사)

#### □ 여가활동유형

- 문화예술관람활동: 교양 함양을 위해 문화예술 공연 등을 관람하는 행동
  - 전시회 관람: 각종 전시회(미술, 사진, 건축, 디자인전시회 등) 관람활동
  - 박물관 관람: 각종 박물관(종합박물관, 어린이, 민속박물관 등) 관람활동
  - 음악연주회 관람: 클래식 공연, 오페라 등 음악연주회 관람활동

- 전통예술공연 관람: 국악, 민속놀이 등 전통예술공연 관람활동
- 연극공연 관람: 연극, 뮤지컬 등 공연 관람활동
- 무용공연 관람: 발레, 댄스, 한국무용, 현대무용 등 무용공연 관람활동
- 영화보기: 극장에서 영화감상하기(상영시간 기다리기 포함)
- 연예공연 관람: 연예 쇼, 라이브 콘서트, 마술 쇼, 거리 공연 등 기타 공연 관람활동
- 문화예술참여활동: 문화예술 공연, 창작활동, 미술, 연주 등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
  - 문학행사참여: 시 낭송회 등 문학행사 참여활동
  - 글짓기/독서토론: 시, 산문 등의 글짓기 활동, 독서토론 등
  - 미술활동: 그림(만화)그리기, 조각, 디자인, 도예, 서예 등 미술활동
  - 악기연주/노래교실: 개인 취미로 하는 각종 악기연주활동과 여성문화회관, 평생교육회관 등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 등에 참여하는 활동
  - 전통예술 배우기: 판소리, 사물놀이, 줄타기 등 전통예술 학습활동
  - 사진촬영: 디지털카메라, 필름카메라, DSLR 등을 이용하여 취미로 사진을 촬영하는 활동
  - 춤/무용: 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등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과 비교

- 국민여가활동조사 중 문화예술 관람활동의 측면에서 시각예술을 전시회(미술, 사진, 건축, 디자인전시회 등)와 영화 관람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무용은 무용(발레, 댄스, 한국무용, 현대무용 등)관람으로 조사하고 있음. 음악은 음악연주회(클래식 공연, 오페라 등) 관람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전통예술은 전통공연예술(국악, 민속놀이 등) 관람으로 조사하고 있음.
- 문화예술 참여활동의 측면에서 문학은 문학행사(시 낭송회 등)와 글짓기(시, 산문 등)/독서토론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시각예술은 미술활동(그림(만화) 그리기, 조각, 디자인, 도예, 서예 등)과 사진촬영으로 조사하고 있음. 무용은 춤/무용(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음악은 악기연주/노래교실로 조사하고 있음. 전통예술은 전통예술(판소리, 사물놀이, 줄타기 등) 배우기로 조사하고 있음.

〈표 15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과 국민여가활동조사의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예술 관람활동		문화예술 참여활동			
문학				문학행사(시 낭송회 등)			
				글짓기(시, 산문 등)			
				독서토론			
시각예술		전시회	미술전시회	미술활동	그림(만화)그리기		
					조각		
					디자인		
					도예		
			건축전시회		서예 등		
		디자인전시회 등		사진촬영			
공연예술	연극						
	무용	무용	발레	춤/무용	발레		
			댄스		한국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현대무용 등		현대무용		
	음악	음악연주회	클래식 공연	악기연주/노래교실			
오페라 등							
전통예술		전통공연예술	국악	전통예술 배우기	판소리		
			민속놀이 등		사물놀이		
다원예술					줄타기 등		
예술일반							
		연예공연 관람	연예쇼				
			라이브콘서트				
			마술쇼				
			거리공연 등				
		영화					

마. 문화향수실태조사(2016년 기준)

#### □ 문화예술활동

- 문학행사(시화전, 도서전시회, 작가와의 대화)
  - 시화전, 도서전시회, 작가와의 대화와 같은 문학 작품과 관련된 행사
- 역사, 철학 관련 강의 및 역사탐방
  - 역사 또는 철학을 주제로 하는 강의 및 역사문화 유적지 등을 찾아가는 프로그램

- 미술(사진·서예·건축·디자인 포함) 전시회
  - 그림, 조각, 공예품, 사진, 붓글씨, 건축, 디자인 등을 전시하여 보여주는 행사
- 서양음악(클래식, 서양악기 관련)
  - 서양의 전통적 작곡기법이나 연주법에 의한 음악을 연주하여 들려주는 행사 또는 오페라
- 전통예술(국악, 풍물, 민속극)
  - 판소리, 시조, 민요, 사물놀이 등과 같은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을 들려주는 행사 또는 민속놀이, 민속극(가면극, 인형극) 등을 시연하는 행사
- 연극
  - 연기자에 의해 관객 앞에서 실연하는 형태로 제시되는 공연 예술행사로, 배우가 각본에 따라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말과 동작으로 관객에게 보여주는 무대행사
- 뮤지컬
  - 연기자에 의해 관객 앞에서 실연하는 형태로 제시되는 공연 예술행사로, 음악극과 같이 음악·노래·무용을 결합하여 관객에게 보여주는 무대행사
- 무용(서양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 사람의 몸을 소재로 하여 육체의 내적·외적 행동을 통해 감정·정경·상황 등을 표현하는 예술 행사(예: 발레, 춤)
- 영화
  - 연결된 필름을 연속적으로 영사해 재현시킨 움직이는 영상
- 대중음악(가요콘서트), 연예(방송 프로그램 등)
  - 대중을 대상으로 하고, 대중 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음악(유행가)을 공연하는 행사

#### □ 문화예술교육 및 동호회

- 문학
  -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로 시, 소설, 수필, 희곡, 평론 등이 있음
- 서양음악
  - 서양 고전음악을 의미함(서양 악기는 서양 고전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를 의미함)

- 역사문화유산

- 역사문화유적, 유물 등을 답사, 탐방, 수집하는 행위를 의미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과 비교

-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 문학장르는 문학행사(시화전, 도서전시회, 작가와의 대화)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각예술은 미술(그림, 조각, 공예품, 사진, 서예, 건축, 디자인 등) 전시회와 영화로 구분하고 있음. 연극은 연극과 뮤지컬로 구분하고 있으며, 무용은 서양무용과 한국무용, 현대무용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음. 음악은 서양음악(클래식, 서양악기 관련 또는 오페라)과 대중음악(가요콘서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통예술은 국악(판소리, 시조, 민요), 풍물(사물놀이), 민속극(가면극, 인형극)으로 구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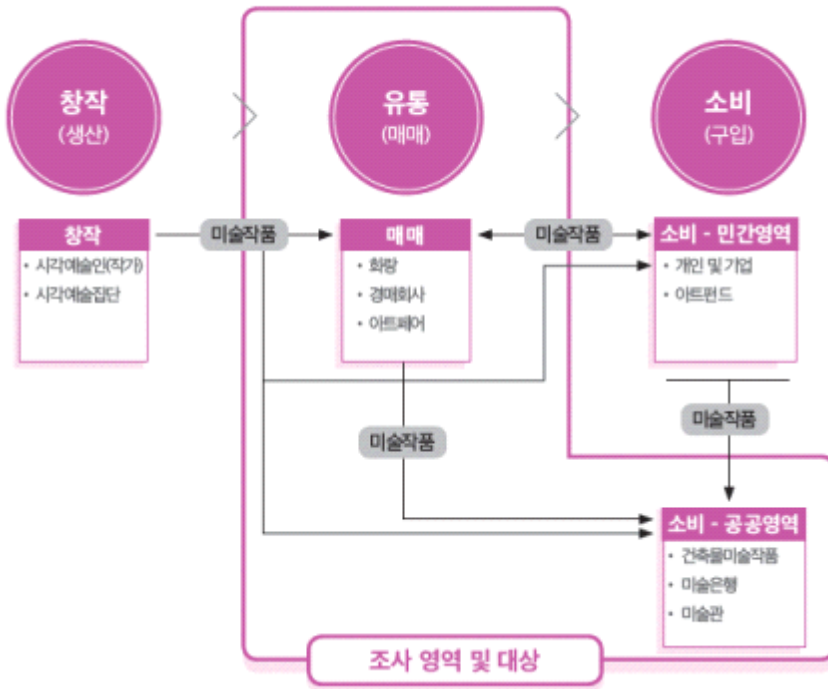
〈표 15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과 문화향수실태조사의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학		문학행사	시화전
			도서전시회
			작가와의 대화
시각예술		미술전시회	그림
			조각
			공예품
			사진
			서예
			건축
			디자인 등
			공연예술
뮤지컬			
무용	서양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음악	서양음악	클래식	
		서양악기 관련	
		오페라	
전통예술		국악	판소리
			시조
			민요
		풍물	사물놀이
		민속극	가면극
			인형극
다원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향수실태조사	
예술일반		
	영화	
	대중음악	가요콘서트
	연예	방송 프로그램 등

바. 2017 미술시장실태조사(2016년 기준)

#### □ 미술시장의 구조



〈그림 107〉 미술시장실태조사 설계에 따른 미술시장 구조

## □ 미술 장르 구분

- 회화(한국화, 서양화), 조각·설치, 미디어 아트, 사진, 판화, 현대공예, 골동품·목기, 전통회화, 기타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과 비교

- 다음의 표와 같이 미술시장실태조사에서 미술의 장르를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음. 특히 회화와 전통회화를 구분하고 있으며, 회화에는 한국화와 서양화가 있음. 다른 조사에서 많이 제시하지 않는 미디어 아트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음.

〈표 15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과 미술시장실태조사의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술시장실태조사
문학		
시각예술		회화(한국화, 서양화)
		조각·설치
		미디어 아트
		사진
		판화
		현대공예
		골동품·목기
		전통회화
		기타
공연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사. 2017 전문예술법인·단체백서

□ 전문예술법인·단체 사업유형 분류기준

〈표 157〉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사업유형 분류기준

사업유형		주요 사업내용
공연예술 분야	무용	동서양의 고전무용 및 발레, 모던댄스 등 무용 기반 창작, 기획·제작 및 보존
	연극	연극, 뮤지컬, 마임 등 극예술 기반 창작, 기획·제작 및 보존
	음악	오페라, 합창, 오케스트라 등 서양 클래식음악 기반 창작, 기획·제작 및 보존
	전통	전래 또는 전통 공연양식 기반 창작, 기획·제작 및 보존
	공연장 운영	대관 등 공연장 운영 사업
	기획사	공연상품 기획·제작 및 유통·판매
	축제	예술축제, 엑스포, 문화관광 지역축제 등
	협회	공연예술분야 협회
	복합·다원	복합예술, 다원예술 기반 창작, 기획·제작 및 보존
	기타	공연예술분야 교육 등
시각예술 분야	전시행사	전시 등 시각예술분야 관련 사업
	전시장 운영	대관 등 전시장 운영 사업
	협회	시각예술분야 협회
기타	지원기관	시·도 출연 문화재단 및 문화예술 지원기관
	협회	기타분야 협회
	기타	영상, 예술교육 등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과 비교

- 전문예술법인·단체백서는 문학장르를 별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연극은 극예술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며, 무용은 동서양의 고전무용과 발레, 모던댄스를 포함하는 것임. 음악은 서양의 클래식 음악만을 지칭하는 것이며, 전통예술은 전래 또는 전통 공연양식에 기반한 것으로 공연만을 말함.

〈표 15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과 2017 전문예술법인·단체백서의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 전문예술법인·단체백서			
문학					
시각예술		시각예술	전시		
			영상		
공연예술	연극	공연예술	연극 (극예술)	연극	
				뮤지컬	
				마임 등	
	무용		무용	동서양의 고전무용 및 발레	
				모던댄스 등	
음악	음악		서양 클래식음악(오페라, 합창, 오케스트라)		
전통예술			전통	전래 또는 전통 공연	
다원예술				복합·다원	복합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예술교육		
			기타		

#### 아. 2017년 문예회관 운영현황 조사

#### □ 주요 용어

공연 프로그램	'공연프로그램'은 공연시설에서 기획/대관하여 공연을 올린 프로그램 중 '연극(연극, 뮤지컬), 무용(무용, 발레), 양악(양악, 오페라), 국악, 복합장르'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공연작품의 공연을 의미
전시 프로그램	'전시프로그램'은 전시장에서 기획/대관하여 전시를 진행한 프로그램 중 '회화, 공예, 조소, 미디어, 디자인, 기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전시작품을 의미

#### □ 공연 장르별 정의

연극	뮤지컬을 제외한 연극, 아동극, 마당극, 인형극, 마임, 음악극(음악이 반주로 들어가는 연극으로, 음악과 연기는 별개로 작용) 등 제반 극장르는 모두 포함
뮤지컬	음악 반주 뿐 아니라 배우들이 직접 노래하며 음악과 연기가 융합됨. 어린이/가족 뮤지컬을 포함
무용	발레를 제외한 무용 전체, 현대 무용(자유롭고 개성적인 표현의 무용), 한국창작무용, 한국전통무용(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부터 해 오던 고전무용) 등을 포함
발레	유럽에서 발생·발달해온 무용형식으로 연극의 대사 대신 춤에 의해 진행되는 무용극

양악	오페라를 제외한 양악 전체(클래식, 기악, 성악 등)
오페라	모든 대사를 성악으로 표현하며 무대에서 극으로 이루어지는 종합무대예술
국악	국악기악(국악관현악, 국악실내악, 국악타악 등), 국악성악(판소리, 민요, 가곡, 가사, 시조, 잡가 등)을 모두 포함
복합장르	위의 장르에 들지 아니한 퓨전 장르나 2개 이상의 장르를 하나의 공연으로 다루고 있는 공연작품
대중음악	순수예술 장르가 아닌 대중음악 콘서트 등이 해당
기타	영화상영, 일반행사, 학생발표회, 대중음악 및 연예 등이 해당

#### □ 전시 작품별 정의

회화	한국화, 서양화, 판화 등
공예	금속, 도예, 목조, 섬유 등
조소	설치, 조각 등의 입체 전시
미디어	사진, 영상 등
디자인	시각, 산업, 광고, 패션 등
기타	위의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예: 건축, 체험전시, 서예 등)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과 비교

- 문예회관 운영현황에서 시각예술은 회화, 공예, 조소, 미디어, 디자인 등을 포함하며, 뮤지컬을 제외한 극장르를 연극으로 구분하고 뮤지컬은 별도의 장르로 구분함. 무용은 발레와 무용을 포함하며, 음악은 양악, 오페라를 포함함. 전통예술은 국악기악과 국악성악을 포함하는 국악을 말하며, 다원예술은 복합장르로 앞서 제시한 장르에 들지 않는 퓨전 장르나 2개 이상의 장르를 하나의 공연으로 다루고 있는 공연작품을 포함함.

〈표 15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과 2017년 문예회관 운영현황의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년 문예회관 운영현황				
문학						
시각예술		회화	한국화	서양화	판화 등	
		공예	금속	도예	목조	섬유 등
		조소	설치, 조각 등의 입체 전시			
		미디어	사진		영상 등	
		디자인	시각	산업	광고	패션 등
		기타	그 외 분야(예: 건축, 체험전시, 서예 등)			
공연예술	연극	연극	연극	아동극	마당극	
		인형극	마임		음악극 등	
	무용	뮤지컬	뮤지컬		어린이/가족 뮤지컬	
		무용	현대 무용	한국창작무용		한국전통무용 등
		발레				
		음악	양악	클래식	기악	성악 등
전통예술	국악	기악	국악관현악	국악실내악	국악타악 등	
		성악	판소리	민요	가곡	
			가사	시조	잡가 등	
다원예술						
예술일반						
		복합				
		대중음악				
		기타	영화상영	일반행사	학생발표회	대중음악 및 연예 등

자. 2016년 전통공연예술실태조사

#### □ 전통공연예술의 정의

- 전통공연예술은 '전통에 기반을 둔 공연예술'로서, 다양한 현대화 작업과 융합된 형태도 포함함.
- 전통공연예술은 "전국의 전문, 비전문인에 의해 전승된 공연예술분야인 음악, 무용, 연극, 놀이, 의식의 원형 및 이를 기반으로 새롭게 개발, 창작된 공연예술 분야"로 정의할 수 있음.
- 개념상으로는 크게 '전통문화'와 '공연예술'의 개념이 있으며 또한 '전통문화' 내부에는 '무형문화재'와 '민속'이 포함될 수 있음.

- 또한 '정악' 및 '아악'을 포함하여, '민속'에서 출발한 사물놀이, 풍물, 판소리, 굿 등도 들 수 있음.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과 비교

- 2016년 전통공연예술실태조사에서 전통공연예술을 원형과 창작의 형태로 구분하고, 음악, 무용, 연극, 놀이, 의식 등을 포괄하고 있음.
- 전통공연예술에는 정악과 아악을 포함하며, 전통문화의 범주에서 민속에 해당하는 사물놀이, 풍물, 판소리, 굿 등도 포괄하고 있음.

〈표 16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과 2016년 전통공연예술실태조사의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6년 전통공연예술실태조사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음악
		무용
		연극
		놀이
		의식
다원예술		
예술일반		

차. 2017 음악산업백서

#### □ 장르구분 기준

- 콘서트, 뮤지컬, 연극, 클래식/오페라, 무용/전통예술

#### □ 음악공연 유형

- 국내 대중가요 콘서트, 해외 팝음악 콘서트, 뮤지컬 공연, 클래식 공연, 오페라 공연, 음악 관련 페스티벌, 국악 공연, 클럽 공연, 버스킹/거리공연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과 비교

- 2017 음악산업백서에서 장르구분은 연극과 무용, 전통예술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동일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음악은 콘서트,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로 세분하여 구분함.

〈표 16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과 2017 음악산업백서와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 음악산업백서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연극	연극
	무용	무용
	음악	콘서트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전통예술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 카. 2017 공연예술실태조사

#### □ 목표모집단

- 전국의 모든 전문공연단체(공연기획사 포함)임.

#### □ 조사모집단

- 2016년도 조사모집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료 등 공식 문헌조사와 사전 전화조사 등을 통하여 최초 모집단 2,535개를 구축하였으며, 모집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현황조사를 진행하였음. 실사를 통해 2,364개를 최종 모집단으로 선정함.

#### □ 공연단체 장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함

- 대장르는 연극, 무용, 양악, 국악, 복합으로 구분함.
- 이를 세분화하여 연극, 뮤지컬, 무용, 발레, 양악, 오페라, 국악, 복합으로 구분함.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과 비교

- 2017 공연예술실태조사의 장르는 연극의 대분류를 연극과 뮤지컬로 구분하고 있으며, 무용의 대분류를 무용과 발레로 구분하고 있음. 음악에 해당하는 분류는 양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세분류로 양악과 오페라로 분류하고 있음. 전통예술에 해당하는 분류는 국악으로 제시하고, 복합을 별도 분류로 제시함.

〈표 16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과 2017 공연예술실태조사와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 공연예술실태조사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연극	연극	연극
			뮤지컬
	무용	무용	무용
			발레
	음악	양악	양악
			오페라
전통예술		국악	
다원예술			
예술일반			
		복합	

## 2. 산업분류 및 특수분류, 일반분류

## 가. 한국표준직업분류

□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문화예술 관련 직업군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음.

- 문화예술 관련 직업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대분류 아래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중분류에 해당함.

〈표 163〉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업군 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작가	방송 및 시나리오 작가
		문학작가
		그 외 작가
	출판물 전문가	출판물 기획자
		출판물 편집자
	기자 및 언론 관련 전문가	평론가
연극영화 및 영상 전문가	감독 및 기술 감독	번역가
		통역가
		통역가
	배우 및 모델	감독 및 연출가
		기술 감독
		그 외 감독 및 연출가
		배우
		개그맨 및 코미디언
		성우
	촬영기사	모델
		그 외 배우 및 모델
		촬영기사
	음향 및 녹음 기사	촬영기사
	영상녹화 및 편집 기사	음향 및 녹음 기사
	조명기사 및 영상기사	영상녹화 및 편집 기사
		조명기사
	기타 연극영화 및 영상 관련 종사원	영상기사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스크립터
		무대의상 관리원
		소품 관리원
		방송 및 영화연출 보조원
		보조 연기자
		그 외 연극영화 및 영상 관련 종사원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시각 및 공연 예술가	화가 및 조각가	화가
		조각가
		서예가
	사진기자 및 사진가	사진작가
		사진기자
		사진가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	만화가
		만화영화 작가
	국악 및 전통 예능인	국악인
		국악 연주가
		국악 작곡 및 편곡가
		전통 예능인
	지휘자·작곡가 및 연주가	지휘자
		작곡가 및 편곡가
		연주가
	가수 및 성악가	가수
		성악가
	무용가 및 안무가	무용가
		안무가
	기타 시각 및 공연 예술가	그 외 시각 및 공연 예술가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과 비교

-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문학 장르에 해당하는 직업 소분류로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를 제시하고 있으며, 세세분류로 문학작가와 그 외 작가, 번역가를 포함함. 시각예술에 해당하는 세세분류는 화가, 조각가, 서예가, 사진작가, 사진가를 포함함. 연극 관련 세세분류에는 감독 및 연출가, 기술 감독, 그 외 감독 및 연출가, 배우, 성우, 그 외 배우 및 모델을 포함함. 무용에는 무용가와 안무가를 포함하며, 음악에는 지휘자, 작곡가 및 편곡가, 연주가, 가수, 성악가를 포함함. 전통예술 관련 세세분류는 국악인, 국악 연주가, 국악 작곡 및 편곡가, 전통 예능인을 포함하며, 예술일반에는 평론가를 포함함.

〈표 16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과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표준직업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문학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작가	문학작가 그 외 작가	
			번역가 및 통역가	번역가	
시각예술		시각 및 공연 예술가	화가 및 조각가	화가	
				조각가	
				서예가	
		사진기자 및 사진가	사진작가		
			사진가		
공연예술	연극	연극·영화 및 영상 전문가	감독 및 기술 감독	감독 및 연출가	
				기술 감독	
				그 외 감독 및 연출가	
			배우 및 모델	배우	
				성우	
				그 외 배우 및 모델	
	무용	시각 및 공연 예술가	무용가 및 안무가	무용가	
				안무가	
	지휘자 작곡가 및 연주가		지휘자		
			작곡가 및 편곡가		
			연주가		
	가수 및 성악가		가수		
			성악가		
	전통예술		국악 및 전통 예능인	국악인	
				국악 연주가	
국악 작곡 및 편곡가					
전통 예능인					
다원예술					
예술일반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기자 및 언론 관련 전문가	평론가	
		시각 및 공연 예술가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	만화가	
				만화영화 작가	

### 나. 한국고용직업분류

□ 한국고용직업분류에서는 문화예술 관련 직업군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음.

- 문화예술 관련 직업은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대분류 아래 '예술·디자인·방송직' 중분류에 해당함.

〈표 165〉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직업군 분류

소분류	세분류
작가·통번역가	작가
	번역가 및 통역가
	출판물 전문가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화가 및 조각가
	사진작가 및 사진사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
	국악인 및 전통 예능인
	지휘자, 작곡가 및 연주가
	가수 및 성악가
	무용가 및 안무가
	기타 시각 및 공연 예술가
디자이너	제품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실내장식 디자이너
	시각 디자이너
	미디어 콘텐츠 디자이너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감독 및 기술감독
	배우 및 모델
	아나운서 및 리포터
	촬영 기사
	음향·녹음 기사
	영상·녹화·편집 기사
	조명·영상 기사
	기타 연극·영화·방송 종사원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공연·영화 및 음반 기획자
	연예인매니저 및 스포츠매니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과 비교

- 한국고용직업분류는 문학 관련 소분류로 작가·통번역가를 제시하고 그 하위 분류로

작가와 번역가 및 통역가를 제시함. 시각예술에는 창작·공연 전문가의 하위 분류로 화가 및 조각가, 사진작가 및 사진사를 제시함. 연극에는 연극·영화·방송 전문가의 하위 분류로 감독 및 기술감독과 배우 및 모델을 제시함. 무용 관련 분류에는 무용가 및 안무가를 포함하고, 음악 관련 장르에는 지휘자, 작곡가 및 연주가, 가수 및 성악가를 제시함. 전통예술에는 국악인 및 전통 예능인을 제시함.

〈표 16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과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	세분류
문학		작가·통번역가	작가
			번역가 및 통역가
시각예술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화가 및 조각가
			사진작가 및 사진사
공연예술	연극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감독 및 기술감독
			배우 및 모델
	무용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무용가 및 안무가
			지휘자, 작곡가 및 연주가
음악	가수 및 성악가		
	국악인 및 전통 예능인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

#### 다. 전문·기술인적자원분류

□ 전문·기술인적자원 직업분류에서는 문화예술분야 직업군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음.

- 문화예술 관련 직업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대분류 아래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중분류에 해당함.

〈표 167〉 전문·기술인적자원분류의 직업군 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대학교수 및 강사	대학교	예술 및 인문학 교수
		대학 시간강사	예술 및 인문학 시간강사
	학교 교사	중·고등학교 교사	예체능 교사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예능 강사	음악 강사
			미술 강사
			무용 강사
			그 외 예능 강사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작가	방송 및 시나리오 작가
			문학작가
			그 외 작가
		출판물 전문가	출판물 기획자
			출판물 편집자
		기자 및 언론 관련 전문가	기자
			평론가
			그 외 언론 관련 전문가
		번역가 및 통역가	번역가
			통역가
	연극·영화 및 영상 전문가	감독 및 기술 감독	감독 및 연출가
			기술 감독
			그 외 감독 및 연출가
		배우 및 모델	배우
			개그맨 및 코미디언
			성우
			모델
			그 외 배우 및 모델
		아나운서 및 리포터	아나운서
			리포터
			쇼핑호스트
		촬영기사	그 외 아나운서 및 리포터
			촬영기사
		음향 및 녹음기사	음향 및 녹음기사
		영상·녹화 및 편집기사	영상·녹화 및 편집 기사
		조명기사 및 영상기사	조명기사
			영상기사
		기타 연극·영화 및 영상 관련 종사원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스크립터
			무대의상 관리원
			소품 관리원
			방송 및 영화연출 보조원
			보조 연기자
			그 외 연극·영화 및 영상 관련 종사원
	시각 및 공연 예술가	화가 및 조각가	화가
			조각가
			서예가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시각 및 공연 예술가	사진기자 및 사진가	사진작가
			사진기자
			사진가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	만화가
			만화영화 작가
		국악 및 전통 예능인	국악인
			국악 연주가
			국악 작곡 및 편곡가
			전통 예능인
		지휘자·작곡가 및 연주가	지휘자
			작곡가 및 편곡가
			연주가
		가수 및 성악가	가수
			성악가
		무용가 및 안무가	무용가
			안무가
		기타 시각 및 공연 예술가	기타 시각 및 공연 예술가
	디자이너	제품 디자이너	자동차 디자이너
			가구 디자이너
			그 외 제품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직물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
			액세서리 디자이너
			가방 및 신발 디자이너
		실내장식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디스플레이 디자이너
			무대 및 세트 디자이너
		시각 디자이너	광고 디자이너
			포장 디자이너
			책 디자이너
			삽화가
			색채 전문가
			활자 디자이너
			그 외 시각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
		미디어 콘텐츠 디자이너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
			사용자 경험 없는 인터페이스 디자이너
			그 외 미디어 콘텐츠 디자이너
	문화·예술 관련 기획자 및 매니저	공연·영화 및 음반 기획자	공연·영화 및 음반 기획자
		연예인 및 스포츠 매니저	연예인 매니저
			스포츠 매니저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과 비교

- 전문·기술인적자원분류에서 문학 장르에 해당하는 세세분류로 문학작가, 그 외 작가, 번역가를 제시하고 있으며, 시각예술 장르에 대해서는 화가, 조각가, 서예가, 사진작가를 제시함. 연극 장르에 대해서는 감독 및 연출가, 기술감독, 그 외 감독 및 연출가, 배우, 성우, 그 외 배우 및 모델을 포함함. 무용 장르에는 무용가와 안무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음악 장르에는 지휘자, 작곡가 및 편곡가, 연주가, 가수, 성악가를 제시함. 전통예술 장르에는 국악인, 국악 연주가, 국악 작곡 및 편곡가, 전통 예능인을 제시하고, 예술일반으로 평론가를 제시함.

〈표 16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과 전문·기술인적자원분류의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문·기술인적자원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문학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작가	문학작가 그 외 작가		
			번역가 및 통역가	번역가		
시각예술		시각 및 공연 예술가	화가 및 조각가	화가 조각가 서예가		
			사진기자 및 사진가	사진작가		
			공연예술	연극	연극·영화 및 영상 전문가	감독 및 기술 감독
배우 및 모델	배우 성우 그 외 배우 및 모델					
	무용	무용가 및 안무가				무용가 안무가
				음악	시각 및 공연 예술가	지휘자·작곡가 및 연주가
가수 및 성악가						가수 성악가
	전통예술	국악 및 전통 예능인				국악인 국악 연주가 국악 작곡 및 편곡가 전통 예능인
다원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문·기술인적자원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예술일반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기자 및 언론 관련 전문가	평론가
	시각 및 공연 예술가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	만화가 만화영화 작가

#### 라. 한국표준교육분류

□ 한국표준교육분류에는 문화예술 관련 장르를 소분류 차원에서 시청각 기술 및 미디어 제작, 패션 디자인, 인테리어 및 산업 디자인, 미술, 공예, 음악 및 공연예술로 구분함.

〈표 169〉 한국표준교육분류의 문화예술 장르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의	포함
예술 및 인문학	예술	시청각 기술 및 미디어 제작	시청각 기술 및 미디어 제작은 책이나 신문, 라디오, TV, 영화, 비디오, 음반, 그래픽 제작의 기법과 기술을 다루는 학문임. 색채 재현, 사진과 컴퓨터 그래픽에 관한 방법, 책, 잡지, 포스터, 광고 등의 제작에 들어가는 사진, 글, 장식 등의 구성과 조합에 대한 학습도 포함함.	영화 및 영상제작 라디오및TV제작 음반제작 음향기법 미디어기법 멀티미디어제작 쌍방향미디어설계 컴퓨터게임제작 그래픽디자인 그래픽재현 일러스트레이션 애니메이션 사진술 카메라작동 합성(인쇄) 조판 컴퓨터조판(원고상의지정 이나조판규칙에따라판의틀 을만드는것) 제본 출판디자인 인쇄 시험인쇄 인쇄마무리및바인딩
		패션 디자인	패션 디자인은 패션의상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데 있어서 선, 형태, 직물을 창의적으로 조합하고 구성하는 것에 관한 학문임.	의상 디자인 패션디자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의	포함
예술 및 인문학	예술	인테리어 및 산업 디자인	인테리어 및 산업 디자인은 산업제품과 실내 공간을 제작하고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선, 형태, 재료의 특성을 창의적 조합하고 구성하는 것에 관한 학문임.	실내 건축 인테리어디자인 산업상품디자인 무대디자인 쇼윈도장식
		미술	미술은 시각적 형태의 창의적 표현을 학습하는 분야로 미술의 이론, 역사, 기법, 퍼포먼스, 제작 등을 망라함.	미학 미술사 예술철학 회화 조소 서예(캘리그래피(멋글씨예술)) 판화 미술판화제작
		공예	공예는 보석, 도자기, 직조, 목공예 등 특정 공예와 관련된 기법과 기술을 학습하는 분야임.	도예(세라믹) 유리공예 보석세공 금세공 은세공 금속장식공예 목각 석각(공예) 약기(제조(비산업용)) 약기수선및조물 꽃공예 자수와직조(공예) 전통공예 민속예술및장인
		음악 및 공연예술	음악 및 공연예술은 음악, 연설, 운동미학, 무연극(마임), 악인화, 즉흥공연, 연극연출 등 공연 관련 원리와 기법에 대해 학습하는 분야임.	음악사 음악 음악학 작곡(음악) 지휘(음악) 영화및연극의역사 연극 연극학 연기와연출 무용 발레 안무 서커스 창조, 행위예술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과 비교

- 한국표준교육분류에서 시각예술로 영화 및 영상제작, 음반제작, 사진술, 회화, 조소, 서예, 판화, 미술판화제작, 도예, 유리공예, 금속장식공예, 목각, 석각, 자수와 직조를 제시하고 있으며, 연극에는 연극과 연기와 연출을 포함함. 무용에는 무용과 발레를 포함하며, 음악에는 음악과 작곡, 지휘를 포함함. 전통예술에는 전통공예와 민속예술 및 장인을 포함함. 그 외에 기존 분류에 포함하기 어려운 창조, 행위예술이 있음.

〈표 17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과 한국표준교육분류의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표준교육분류	
		소분류	포함
문학			
시각예술		시청각 기술 및 미디어 제작	영화 및 영상제작
			음반제작
			사진술
		미술	회화
			조소
			서예[캘리그래피(멋글씨예술)]
			판화
			미술판화제작
		공예	도예(세라믹)
			유리공예
			금속장식공예
			목각
			석각(공예)
			자수와직조(공예)
공연예술	연극	음악 및 공연예술	연극
			연기와연출
			무용
	무용		발레
			안무
			음악
	음악		작곡(음악)
			지휘(음악)
전통예술		공예	전통공예
		민속예술 및 장인	
다원예술			
예술일반			
		음악 및 공연예술	창조, 행위예술

마. 한국재화 및 서비스 분류

- 한국 재화 및 서비스 분류에서 문화예술 관련 세분류로 공연 홍보 및 기획서비스, 무대예술공연 및 제작서비스, 공연시설 운영서비스업, 그 외 기타 무대예술 및 기타 라이브 오락 공연 서비스, 공연예술가 서비스, 작가, 작곡가, 조각가 및 기타 비공연예술가 서비스, 작가, 작곡가, 조각가 및 기타 비공연예술가의 작품 원본을 제시함.

〈표 171〉 한국재화 및 서비스 분류의 문화예술 관련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예시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	오락,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무대예술 및 기타 라이브 오락 공연 및 홍보서비 스	공연 홍보 및 기획서비스	공연 홍보 및 기획서비스	아래에 대한 홍보 및 기획서비스 -연극,오페라,발레,뮤지컬,콘서트 -"소리와빛"을이용한공연 -꼭두각시놀음 -불꽃놀이 -서커스
			무대예술 공연 및 제작 서비스	무대예술 공연 및 제작 서비스	아래에 대한 제작 상영서비스 -연극,오페라,발레,뮤지컬,콘서트 -꼭두각시놀음 -서커스
			공연시설 운영 서비스	공연시설 운영 서비스	
			그 외 기타 무대예술 및 기타 라이브 오락 공연 서비스	그 외 기타 무대예술 및 기타 라이브 오락 공연 서비스	
		공연예술 가 및 기타 예술가 서비스	공연예술가 서비스	공연예술가 서비스	- 배우, 아나운서, 음악가, 댄서, 스 턴트 맨, TV 진행자 및 기타 예능인 관련 서비스 -프리랜서모델관련서비스
			작가, 작곡가, 조각가 및 기타 비공연 예술가 서비스	작가, 작곡가, 조각가 및 기타 비공연 예술가 서비스	- 작가, 작곡가, 조각가 관련 서비스 -무대디자이너,조명디자이너,의상 디자이너관련서비스 -예술작품복원서비스
			작가, 작곡가, 조각가 및 기타 비공연 예술가의 작품 원본	작가, 작곡가, 조각가 및 기타 비공연 예술가의 작품 원본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과 비교

- 한국 재화 및 서비스분류는 장르구분보다는 큰 범주에서 재화 관련 서비스활동을 중심으로 무대 예술 및 기타 라이브 오락 공연 및 홍보서비스와 공연예술가 및 기타 예술가 서비스로 구분하고 있음.

〈표 17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과 한국재화 및 서비스분류의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재화 및 서비스분류	
문학			
시각예술		작가, 작곡가, 조각가 및 기타 비공연 예술가 서비스 작가, 작곡가, 조각가 및 기타 비공연 예술가의 작품 원본	
공연예술	연극	공연 홍보 및 기획서비스 무대예술공연 및 제작서비스	
	무용	공연시설운영 서비스	
	음악	그 외 기타 무대예술 및 기타 라이브 오락 공연 서비스 공연예술가 서비스	
전통예술		작가, 작곡가, 조각가 및 기타 비공연 예술가 서비스 작가, 작곡가, 조각가 및 기타 비공연 예술가의 작품 원본	
다원예술			
예술일반			

## 바. 문화예술산업분류

- 문화예술 관련 산업 통계생산을 위해 한국문화정보원에서 만든 분류체계로 국가승인 분류체계는 아님. 중분류에서 문학, 연극, 무용, 기타 공연, 공연 관련 산업, 미술, 디자인, 사진, 공예, 전시서비스업, 문화유산 및 문화시설로 구분하고 있음.

〈표 173〉 문화예술산업분류의 문화예술 관련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정의
문학 및 출판	문학	번역 서비스업	번역 서비스업	문학분야에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문학 제공업	문학인	독립적으로 문학분야에 종사하는 예술가를 말함.
			문학단체	문학분야에 종사하는 회원의 이익 향상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정의
공연 공연	연극	연극 제공업	연극인	독립적으로 연극분야에 종사하는 예술가를 말함.
			연극 단체	연극분야에 종사하는 회원의 이익 향상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함.
			연극 학원	연극분야에 관한 학습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무용	무용 제공업	무용인	독립적으로 무용분야에 종사하는 예술가를 말함.
			무용 단체	무용분야에 종사하는 회원의 이익 향상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함.
			무용 학원	무용분야에 관한 학습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음악	음악 제작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소리를 기록한 레코드, 테이프 및 기타 오디오기록물을 기획, 제작하거나 제작한 것을 직접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녹음시설 운영업	계약에 의하여 음반, 테이프 및 기타 오디오 기록물 에 소리를 녹음하여 오디오기록물 원판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음악 제공업	음악인	독립적으로 음악분야에 종사하는 예술가를 말함.
			음악 단체	음악분야에 종사하는 회원의 이익 향상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함.
			음악 학원	음악분야에 관한 학습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기타 공연	기타 공연 제공업	기타 공연 제공업	기타 공연예술단체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공연 관련 산업	공연 기획 및 제작업	공연 기획업	공연예술 행사를 기획, 조직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영화, 텔레비전, 연극제작을 위하여 제작자의 주문에 따라 연기자를 공급하는 배역 서비스와 영화제작, 연극제작, 스포츠 또는 기타 공연물 제작에 관련하여 제작자를 대리하여 장소 및 예약 등을 대리하는 산업 활동을 말함.
			그외 기타 공연관련 서비스업	공연기획,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를 제외한 기타 공연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정의
시각예술	미술	미술 제공업	미술인	독립적으로 미술분야에 종사하는 예술가를 말함.
			미술 단체	미술분야에 종사하는 회원의 이익 향상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함.
			미술 학원	미술분야에 관한 학습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디자인	디자인업	환경 및 건축 디자인업	설계, 건설공정, 건축법규 및 건설자재 등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각종 건물 또는 구축물의 기획 및 설계를 수행하거나 공원 및 기타 휴양지역, 공항, 고속도로, 병원, 학교, 분양토지, 거주지역 등의 개발 을 계획 및 설계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인테리어 디자인업	건축법규, 안전성, 기계 및 전기적 특성, 내부 부차물 및 가구 등을 고려하여 사용상의 안전성, 편의성 및 미적 요소 등을 충족시키는 실내공간구성을 기획, 설계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제품 디자인업	제품의 기능, 사용, 가치 및 외관 등을 최적화 하도록 사양을 기획 및 디자인하는 산업디자인 서비스 활동 을 말함.
			시각 디자인업	특정 메시지, 이미지 또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전달하 거나 가상현상 등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전달 또는 표현하기 위한 시각전달매체를 기획, 디자인 및 관리 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기타 디자인업	기타 전문디자인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디자인 제공업	디자인 단체	디자인분야에 종사하는 회원의 이익 향상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함.
			디자인 학원	디자인분야에 관한 학습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사진	사진 제공업	사진 작가	독립적으로 사진분야에 종사하는 예술가를 말함.
			사진 단체	사진분야에 종사하는 회원의 이익 향상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함.
			사진 학원	사진분야에 관한 학습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정의
시각예술	공예	공예품 제조업	도자 공예 제조업	도자 공예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유리/석 공예 제조업	유리/석 공예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금속 공예 제조업	금속 공예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목/죽세 공예 제조업	목/죽세 공예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종이 공예 제조업	종이 공예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섬유 공예 제조업	섬유 공예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가족 공예 제조업	가족 공예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기타 공예 제조업	기타 공예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공예 제공업	공예가	독립적으로 공예분야에 종사하는 예술가를 말함.
			공예 단체	공예분야에 종사하는 회원의 이익 향상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함.
			공예 학원	공예분야에 관한 학습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전시 서비스업	전시 서비스업	전시 서비스업	각종 전시회를 기획조직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문화유산 및 문화시설	문화유산 및 문화시설	문예시설 운영업	문예시설 운영업	문예시설(문학관, 문예회관 등 포함)을 운영하는 산 업활동을 말함.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전시시설 운영업	박물관 운영업	박물관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함.(문예시설 제 외)
			미술관 운영업	미술관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과 비교

- 문화예술산업분류에서 문학과 연극, 무용, 음악은 동일하게 장르를 구분하고 있으며, 시각 예술은 미술과 사진, 공예로 세분하고 있음.

〈표 17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과 문화예술산업분류와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산업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문학		문학 및 출판	문학	번역 서비스업	번역 서비스업
				문학 제공업	문학인
시각예술		시각예술	미술	미술제공업	미술인
			사진	사진제공업	사진작가
			공예	공예제공업	공예가
공연예술	연극	공연	연극	연극제공업	연극인
	무용		무용	무용제공업	무용인
	음악		음악제공업	음악인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사. 한국표준산업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활동을 중심으로 분류를 제시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관련 소분류로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을 제시하고 있음.

〈표 17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문화예술 관련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연극단체
				무용 및 음악단체
				기타 공연단체
			자영 예술가	공연 예술가
				비공연 예술가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공연 기획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과 비교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예술가를 산업활동 여부에 따라 자영업예술가로 분류하고, 자영업예술가에 대한 세세분류로 공연예술가와 비공연예술가를 제시함.

〈표 17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표준산업분류
문학		비공연 예술가
시각예술		
공연예술	연극	공연 예술가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 아.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 대분류는 핵심저작권, 상호의존저작권, 부분저작권, 저작권지원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핵심저작권에 예술 관련 분류가 있음.

〈표 177〉 저작권산업 특수분류의 문화예술 관련 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정의
출판 및 문학	작가 및 번역활동(1인 산업활동 포함)	비공연 예술가(출판 및 문학 분야)	독립적으로 출판 및 문학분야에서 비공연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예술가를 의미함(1인 산업활동)
		번역서비스업(출판 및 문학 분야)	출판 및 문학분야에서 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정의
음악, 연극, 오페라 음악, 연극, 오페라	음악, 연극, 오페라 예술단체 및 관련시설 운영업(1인 산업활동 포함)	연극단체	실황극을 공연하는 공연단체를 운영하는 산업활동. 이 사업체는 극장시설을 소유할 수 있음
		무용 및 음악단체	무용 및 음악단체를 운영하는 산업활동
		기타 공연단체	기타 공연예술단체를 운영하는 산업활동
		공연 예술가(음악, 연극, 오페라 분야)	가수, 성악가, 무용수 등 공연에 직접 참가하여 자신의 신체를 이용한 예술행위를 하는 독립된 공연 예술가를 의미함(1인 산업활동)
		비공연 예술가(음악, 연극, 오페라 분야)	독립적으로 음악, 연극, 오페라 분야 등에서 비공연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예술가를 의미함(1인 산업활동 등)
		매니저업	예술가, 연예인, 스포츠인 등 일반적으로 공인을 대리하고 관리하는 산업활동. 이사업체는고객을위하여계약협상,금전문제관리,경력홍보등을수행
		무도장 운영업	주류 및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무도장, 댄스홀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노래연습장 운영업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레크레이션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으로 음반 및 영상제작물 유통을 포함함
		기타 분류 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레크레이션용 궤도시설 및 유사 오락설비(독립된), 전망탑 등 기타 분류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예술과 문학의 창작 서비스업	창작 및 예술 지원 서비스업	공연기획,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를 제외한 창작 및 예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공연 관련 대행업(티켓 예약 및 대행사)	공연시설 운영업(음악, 연극, 오페라 분야)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공연 기획업(음악, 연극, 오페라 분야)	공연예술 행사를 기획, 조직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 이 사업체는 공연시설을 소유할 수 있음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뮤지컬, 연극제작을 위하여 제작자의 주문에 따라 연기자를 공급하는 배역 서비스와 연극제작, 공연물 제작에 관련하여 제작자를 대리하여 장소 및 예약 등을 대리하는 산업활동
		그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공연기획,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 직접적인 예술지원 서비스를 제외한 기타 관련 서비스산업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정의
영화, 비디오	영화, 비디오 예술단체(1인 산업활동 포함)	공연 예술가(영화, 비디오 영상)	배우, 스탠트맨 등 영화 및 비디오 영상촬영(드라마 등)에 직접 참가하여 자신의 신체를 이용한 예술행위를 하는 독립된 공연 예술가를 의미함(1인 산업활동)
		비공연 예술가(영화, 비디오 영상)	독립적으로 영화, 비디오 영상 분야 에서 비공연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예술가를 의미함(1인 산업활동)
사진	스튜디오 운영 및 사진 촬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	사진관 또는 고객의 사무실 및 가정과 같은 장소에서 인물을 촬영하는 산업활동. 사진은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 영화용 이외의 행사사진 및 비디오촬영도 포함
		상업용 사진 촬영업	광고회사, 출판업자 및 기타 산업사용자를 대상으로 촬영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사진 처리업	사진 및 비디오의 현상처리, 인화 및 확대를 해주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슬라이드 제작, 오래된 사진 복원 및 투영도 수정 등도 여기에 포함
		비공연 예술가(사진 분야)	독립적으로 비공연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예술가를 의미함(1인 산업활동)
시각과 그래픽 아트	예술가(미술, 공예, 시각 그래픽분야)	비공연 예술가(미술, 공예, 시각 그래픽분야)	독립적으로 미술 및 조형, 시각 그래픽분야에서 비 공연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예술가를 의미함(1인 산업활동)
	예술작품 유통업	예술품(미술품, 공예품) 및 골동품 유통업	미술품, 공예품, 골동품 등 각종 창작예술품을 유통하는 산업활동
		시각예술 서비스업(갤러리 분야)	아트 갤러리 관련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과 비교

- 저작권산업 특수분류에서 문학 장르는 비공연예술가(출판 및 문학 분야)와 번역서비스업(출판 및 문학 분야)으로 구분함. 시각예술 장르는 영화, 비디오에 대해서 공연 예술가와 비공연 예술가로 구분하고, 사진과 시각과 그래픽 아트에 대해서 비공연 예술가를 제시함. 연극, 무용, 음악은 하나의 분류로 제시하며, 세부적으로 공연 예술가와 비공연 예술가로 제시함.

〈표 17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과 저작권산업 특수분류와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문학	출판 및 문학	작가 및 번역활동(1인 산업활동 포함)	비공연 예술가(출판 및 문학 분야)	
			번역서비스업(출판 및 문학 분야)	
시각예술	사진	스튜디오 운영 및 사진 촬영업	비공연 예술가(사진 분야)	
	시각과 그래픽 아트	예술가(미술, 공예, 시각 그래픽분야)	비공연 예술가(미술, 공예, 시 각 그래픽분야)	
공연예술	연극	음악, 연극, 오페라 예술단체 및 관련시설 운영업(1인 산업활동 포함)	공연 예술가(음악, 연극, 오페 라 분야)	
	무용		비공연 예술가(음악, 연극, 오 페라 분야)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영화, 비디오	영화, 비디오 예술단체(1인 산업활동 포함)	공연 예술가(영화, 비디오 영 상)	
			비공연 예술가(영화, 비디오 영 상)	

### 3. 한국십진분류 6판(KDC 6)

□ 한국십진분류의 예술류(600)에 사용된 용어들이 5판까지 개정되는 과정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72)</sup>

- 초판부터 사용된 표목어 조각(620-629)을 5판에서 조각 및 조형예술로 범위를 넓힘.
- 공예 및 장식미술(630-639) 아래에 전개된 의장 및 장식(639)이 4판부터 장식예술로 변경되고 산업디자인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컴퓨터응용디자인과 그래픽디자인이 새로운 용어로 4판부터 658 도안, 포스터와 함께 표목어로 삽입 전개하였음.
- 서예(640-649)와 회화(650-659)에서는 용어의 변화가 없었음.
- 초판부터 사용된 사진술(660-669)을 5판에서 사진예술로 변경하였음. 사진술하면 예술적인 의미보다 기술이 강조됨으로 사진예술로 변경하였음. 소형영화를 영상물 및 비디오 촬영술로 용어를 변경하여 관련분야를 세분 전개하였음.
- 5판에서 음악(670-679) 아래에 사용된 용어는 4판까지 변화가 없었으며, 5판에서 피리 악기류를 목관악기로, 국악을 한국음악 및 동양전통음악으로 용어를 변경한 것은 주제의 범위에 맞는 적절한 용어로 조정한 것이며, 북한음악이란 용어를 채택 전개하였음.
- 4판까지 사용된 연극(680-689)을 5판에서 공연예술 및 매체예술로 변경하고, 그 아래에 전개된 라디오극(686)을 라디오 및 음성예술매체로, 텔레비전극(687)을 텔레비전 및 시청각매체 방송예술로 포괄적 의미를 가진 용어로 변경하였음.

□ 이후 6판으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이 반영되었음(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2013)

- 610에 배치되었던 건축술이 540 건축, 건축학으로 재배치되었으며, 이로써 주제적으로 밀접한 건축한 건축공학이 540에 통합되었음.
- 658 그래픽디자인, 도안, 포스터는 디자인으로 표목이 변경되면서 658.2 산업디자인과 658.33 컴퓨터그래픽 디자인 등 디자인 관련 주제들이 658 아래에 집중되었음.
- 571.5 음악형식(악식)은 클래식음악의 형식과 관련한 저작들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671.53 론도, 671.54 변주곡, 671.58 기타 악곡형식을 추가하였고 이들 항목과 관련이 적은 기존의 무용음악과 재즈 항목은 각각 674.9 기타 극음악, 673.53 서양대중음악에

<sup>172)</sup> <정옥경, 2010, KCD 예술류(600) 분류항목전개의 변천에 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3), 109-122>111p.

분류하도록 하였음.

- 673.6 단체음악이 단체 및 주제별 음악으로 확장되면서 673.61 가정 및 지역사회, 673.62 어린이 및 학생, 673.68 주제별 음악 등의 하위항목들이 신설되었음.
- 679.2 정악은 679.21 궁중음악, 679.22 풍류방음악 등의 하위항목들이 신설되면서 기존의 하위항목들도 재배치되었음.
- 688 영화 아래 688.023 영화 법, 제도, 688.028 영화인물, 688.078 영화제, 688.091~097 각국의 영화사 및 영화평론이 추가되면서 영화 관련주제들이 세분화되었음. 또한 688.86 디지털영화 항목을 신설하여 최신 영화의 흐름을 반영하였음.
- 그밖에 633 보석, 갑각, 패류 공예 표목에 알 공예가 추가되었고 693.6 리듬체조, 698.29 국선도 등의 항목이 신설되었음. 또한 항목을 신설하지는 않았지만 최신 주제 동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종합예술인 행위예술, 비디오아트를 680 예술 주기에 포함시켰고 음악 페스티벌과 오페라·뮤지컬 갈라콘서트를 각각 670.78 음악회와 독주회 프로그램, 674.2 가극, 오페라, 뮤지컬의 주기에 추가하였음.

□ 한국십진분류 6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표 179〉 한국표준십진분류 6판의 예술분야

600 예술	
620 조각, 조형미술	623 목조
	624 석조
	625 금동조
	626 점토조소, 소조
	627 기타 재료
	628 전각, 인장
	629 제상
630 공예	631 도자공예, 유리공예
	632 금속공예
	633 보석, 갑각, 패류, 알 공예
	634 목, 죽, 화훼, 왕골 공예
	635 칠공예
	636 염직물공예, 섬유공예
	637 고무, 플라스틱 공예
640 서예	641 한자서체
	642 한자서법
	643 한글서체
	644 기타 서법

650 회화, 도화, 디자인	654 주제별 회화 656 소묘, 도화 657 만화, 삽화 658 디자인 659 판화
660 사진예술	662 사진촬영기술 662.6 예술사진촬영법
670 음악	673 성악 674 국음악, 오페라 674.2 가극, 오페라, 뮤지컬 675 기악합주 679 한국음악 및 동양전통음악
680 공연예술, 매체예술	681 극장, 제작, 연출, 연기 682 연희 682.1 가면극 682.2 인형극 682.3 광대굿놀이 682.4 줄타기 682.7 마당놀이 684 각종 연극 685 무용, 발레 685.1 한국무용 685.5 발레 및 현대무용 688 영화

〈표 180〉 한국표준십진분류 6판의 문학분야

800 문학	
800 문학	809 문학사, 평론 809.9 특수문학사, 평론
810 한국문학	811 시 812 희곡 813 소설 814 수필, 소품 815 연설, 웅변 816 일기, 서간, 기행 817 풍자 및 유머 818 르포르타주 및 기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 구분과 비교

- 한국표준십진분류 6판에서 문학 장르는 문학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각예술 장르는 조각, 조형미술, 공예, 서예, 회화, 도화, 디자인, 사진예술을 포함함. 연극과 무용 장르는

공연예술로 구분하고 있으며, 음악은 음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가극, 뮤지컬, 오페라를 포함하고 있음. 전통예술은 공연예술로 구분하고 있으며, 연희를 포함함.

〈표 18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과 한국표준직업분류 6판과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표준직업분류 6판	
문학	문학	평론, 시, 희곡, 소설, 수필, 소품, 연설, 웅변, 일기, 서간, 기행, 풍자 및 유머, 르포르타주 및 기타	
시각예술	조각, 조형미술	목조, 석조, 금동조, 점토조소, 소조, 기타 재료, 전각, 인장, 제상	
	공예	도자공예, 유리공예, 금속공예, 보석공예, 갑각공예, 패류공예, 알 공예, 목공예, 죽공예, 화훼공예, 왕골공예, 칠공예, 염직물공예, 섬유공예, 고무공예, 플라스틱공예	
	서예	한자서체, 한자서법, 한글서체, 기타 서법	
	회화, 도화, 디자인	주제별 회화, 소묘, 도화, 삽화, 디자인, 판화	
	사진예술	예술사진촬영법	
공연예술	연극	공연예술, 매체예술	극장, 제작, 연출, 연기, 각종 연극, 무용, 발레 〈한국무용, 발레 및 현대무용〉
	무용		
	음악	음악	성악, 극음악, 오페라 〈가극, 오페라, 뮤지컬〉, 기악합주, 한국음악 및 동양전통음악
전통예술	공연예술, 매체예술		연희〈가면극, 인형극, 광대굿놀이, 줄타기, 마당놀이〉
다원예술			
예술일반			
	공연예술, 매체예술		영화
	회화, 도화, 디자인		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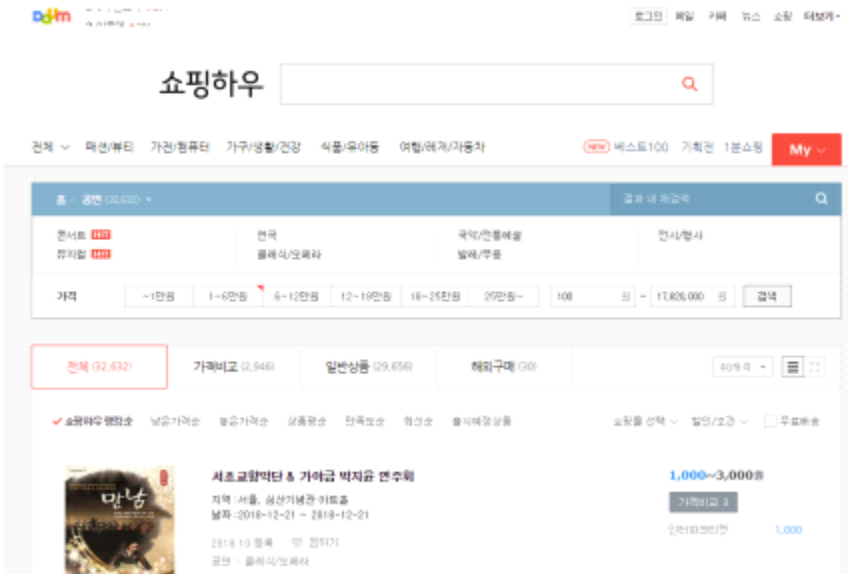


#### 4. 포털사이트 및 예매사이트

##### 가. 포털사이트

- 주식회사 카카오의 인터넷 사이트 다음(Daum)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검색, 소셜임팩트, 문화/엔터테인먼트, 게임, 쇼핑/생활, 지도, 사전/지식, 유용한 기능/도구, Kakao for Business, 고객센터 등 총 12개의 대분류 아래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 중 문화예술 분야에 해당하는 문화/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는 영화, 웹툰, 카카오TV로 2차 분류되어 있음. 또한 다음은 쇼핑/생활 대분류 아래에 다양한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 또는 예약할 수 있는 쇼핑하우(shopping.daum.net)를 운영하고 있음.

〈그림 108〉 다음 쇼핑하우 공연 카테고리 화면(2019년 3월 기준)



- 쇼핑하우 아래에 여행/레저/자동차로 1차 분류하고 그 아래에 공연이 포함되어 있음. 공연은 다시 콘서트, 연극, 국악/전통예술, 전시/행사,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발레/무용 등 총 7개 장르를 구분되어 정보 및 예매 등에 접근할 수 있음.

- 2017 문예연감에서 문화예술을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로 분류한 것을 기준으로 문학 분야는 해당 페이지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며, 별도의 페이지에 접속하여야 함.
- 네이버 주식회사의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NAVER)는 검색·참고, 뉴스·스포츠, 금융·생활, 엔터테인먼트·문화, 커뮤니티, 여학사전, 내서비스, 쇼핑, 주니어, 설치형, 기능도구, 인기 모바일앱 등 12개의 분류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림 109〉 네이버 N쇼핑 여행/문화 카테고리 화면(2019년 3월 기준)



- 문화예술과 관련된 엔터테인먼트·문화는 다시 PC게임, 웹툰/만화, 뮤직, 영화, 책, 네이버 TV, 웹소설, N스토어/내서재, 그라폴리오, 오디오클럽으로 구분되어 있음. 또한 네이버 역시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 또는 예약할 수 있는 N쇼핑(shopping.naver.com)을 운영 중임.
- N쇼핑 내 여행/문화 카테고리에는 공연/티켓, 모바일쿠폰/상품권, 지류/카드상품권, 여행/항공권, 레저이용권, e컨텐츠, 꽃/케이크배달, 장기관터가 등 8개 분야로 2차 분류되어 있음.
- 이 중 문화예술과 관련된 카테고리는 공연/티켓과 e컨텐츠 등 2개 카테고리임. 공연/티켓은

뮤지컬, 콘서트, 연극, 스포츠, 전시/행사, 클래식, 오페라, 발레/무용, 국악/전통예술 등 9개로, e컨텐츠는 VOD, 강좌, 전자도서, 만화, 오디오북, 기타e컨텐츠 등 6개로 분류되어 있음.

- 대표 포털사이트를 비교하면 주식회사 카카오의 다음은 문화예술 분야 중 문학 분야에 대한 구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두 사이트 모두 대중적인 영화 등에 대한 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제공하고, 문예연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대중적 접근이 용이한 분야에 대한 구매 및 예약 서비스가 구축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

#### 나. 예매사이트

- 티켓링크, 인터파크, 예스24 등 3곳이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주요 티켓 예매사이트로 언급되고 있음.<sup>173)</sup>
- 엔에이치엔티켓링크 주식회사의 티켓링크(<http://www.ticketlink.co.kr>)의 경우 스포츠, 공연, 전시, e스포츠, 랭킹, 지역, 공연장, 이벤트/쿠폰 등 총 8개 카테고리 분류되어 있음.
- 공연은 뮤지컬, 연극, 콘서트, 클래식/무용, 대학로, 아동/가족 등으로 장르와 장소, 연령 등으로 복합적으로 구분되어 있음. 전시는 전시/축제, 레저/체험, 아동/가족 등으로 구분되어 시각예술 분야와 다양한 체험이 혼합되어 분류되어 있음.
-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르별로 구분해놓은 랭킹은 공연, 뮤지컬, 연극, 콘서트, 클래식/무용, 전시 등 총 6개로 구분해놓음.

〈표 18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과 티켓링크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티켓링크
문학	
시각예술	

173)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016. 티켓 예매서비스, 취소수수료 관련 분쟁 가장 많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티켓링크			
공연예술	연극	공연	뮤지컬	오리지널 /내한공연	라이선스
				창작 뮤지컬	년버벌 퍼포먼스
	무용		연극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스릴러
	음악		콘서트	발라드	락/메탈
				랩/힙합	인디
				뉴에이지	재즈/블루스
				내한공연	페스티벌
				포크/트로트	
전통예술		클래식/무용	클래식	오페라	
			발레/무용	국악	
다원예술					
예술일반					
		기타	대학로, 아동/가족		

- (주)인터파크가 운영하는 인터파크(<http://www.interpark.com>)는 패션/뷰티, 디지털/가전, 식품/유아동, 가구/생활/자동차, 스포츠/레저/취미, 제휴/백화점/직구, 국내도서, 외국도서, 음반/DVD, 공연예매, 스포츠/레저티켓, 전시/영화, 항공권, 호텔/리조트, 패키지/자유여행 등으로 구분되어 문화예술 분야를 넘어 다양한 물품 등을 구매 및 예약할 수 있음.
- 메인 페이지에는 베스트, 썸네일, 펫, 베스트셀러, 레저입장권, 공연랭킹, 항공, 해외여행 등이 노출되어 있음.
- 국내도서는 소설, 경제/경영, 자기계발, 가정/생활/요리, 인문, 역사, 시/에세이, 예술/대중문화, 여행, 건강/뷰티, 사회과학, 자연/과학, 종교/역학, 만화, 유아, 아동, 청소년, 초등학습서, 중등학습서, 고등학습서, 국어/외국어, 자격서/수험서, 컴퓨터/인터넷, 대학교재, 잡지, 중고도서 등으로 구분되어 장르와 도서의 주제 등이 혼재되어 있음.
- 외국도서는 유아/어린이, ELT/사전, 문학/에세이, 경영/인문, 실용/예술, 컴퓨터, 대학교재/전문서적, 일본서적/기타, 해외잡지 등 주제 중심으로 분류되어 있음.
- 공연예매 역시 뮤지컬, 콘서트, 연극, 클래식/무용, 아동/가족 등 장르와 연령대 등이 혼합되어

분류되어 있고, 전시/영화 카테고리도 전시, 뮤지엄, 아동체험전, 행사/축제, 영화예매 등으로 장르에 기반하기 보다는 다양한 시민들의 편의에 맞춰 혼합 분류하고 있음.

〈표 18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과 인터파크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터파크			
문학	소설				
	시/에세이				
	인문				
시각예술					
연극	공연	뮤지컬	오리지널 /내한공연	라이선스	
			창작 뮤지컬	년버벌 퍼포먼스	
무용		콘서트	발라드	내한공연	
			락/메탈	페스티벌	
			랩/힙합	팬클럽	
			재즈/소울	인디	
			디너쇼	토크/강연	
			포크/트로트		
음악		연극	연극	대학로	
전통예술		클래식 /무용	클래식	오페라	
			발레/무용	국악	
다원예술					
예술일반					
	만화				
	영화				

□ 예스이십사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YES24(<http://www.yes24.com>)는 YES NOW, 국내도서, 외국도서, eBook, 웹소설/코믹, CD/LP, DVD/Blu-ray, 영화, 공연, 문구/GIFT, 중고샵, 패션 등 12개 대분류로 구분되어 있음.

□ 국내도서는 소설, 문학, 인문, 역사, 예술, 종교, 사회, 과학, 경제 경영, 자기계발, 만화, 라이트 노벨, 여행, 잡지, 어린이, 유아, 전집, 청소년, 요리, 육아, 가정 살림, 건강 취미, 대학교재,

국어와 외국어, IT 모바일, 수험서 자격증, 초등참고서, 중고등참고서로 구분되어 있음.

- 외국도서는 ELT 사전, 문학 소설, 경제 경영, 인문 사회, 예술 대중문화, 취미 라이프스타일, 컴퓨터, 자연과학, 대학교재 전문서, 해외잡지, 유아·어린이·청소년, 캐릭터북, 초등코스북, 학습서, 일본도서, 중국도서, 프랑스도서, Lexile®로 구분되어 주제와 국가별로 구분되어 있음.
- eBook은 장르소설과 단행본으로 2차 분류되어 있고, 장르소설은 로맨스, 판타지/무협, 19+ 등 3개로, 단행본은 소설/고전, 인문, 역사, 비즈니스, 자기관리, 종교, 만화, 잡지, 가정, 여행, 외국어, 해외원서 등 주제로 분류되어 있음.
- 웹소설/코믹은 기다방, 웹툰/만화, 웹소설, 라이트노벨, 자유연재 등으로 2차 분류 후, 웹툰/만화는 오늘방, 웹툰, 코믹, 성인으로, 웹소설은 오늘방, 신작, 성인으로, 라이트노벨은 오늘방, 신작, 성인으로 재구분되어 있음. 웹 기반 저작물 또는 서비스의 경우 시간과 연령대 구분 등이 혼합되어 있음.
- CD/LP는 가요, 클래식, POP, ROCK, 재즈, OST, 뮤직 DVD, 뮤직 블루레이, 유아/어린이/영상, 뉴에이지, 종교음악, 국악, 일본음악, 월드뮤직 등으로 분류되어 기존 분류에서 벗어나 대중적인 장르, 국가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 DVD/Blu-ray는 예약판매, 할인행사 등 소비자 구매패턴에 맞춘 분류와 블루레이, 애니메이션, 액션/SF, 드라마/코미디, 고전/영화, 3D 블루레이, 다큐/교육, 성인(19), 뮤직 DVD, 국내외 TV드라마, 닌텐도/게임, 비디오/VCD 등 구체적인 장르로 구분되어 있음.
- 영화는 영화와 다운로드로 1차 분류 후, 영화는 영화예매, 예매순위, 금주개봉 영화, 상영중인 영화, 영화제 영화, 시사화/이벤트, 리뷰기사 등 소비자들의 소비자들의 구매패턴, 시간적 구분 등을 활용하고 있음. 다운로드는 영화, TV/방송, 다운로드 순위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 공연은 콘서트, 뮤지컬, 연극, 클래식/무용/국악, 전시/행사, 가족/어린이 등으로 구분되어 시민 접근성이 용이한 구분을 타 사이트와 유사하게 운용하고 있었고, 장르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혼합해 활용함.

〈표 18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과 YES24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YES24			
문학	소설				
	문학				
	인문				
	라이트노벨				
시각예술					
연극	공연	콘서트	국내뮤지션		
			해외뮤지션		
			페스티벌		
무용		뮤지컬	라이선스		오리지널
			창작	번역 퍼포먼스	
음악		연극	대학로	기타지역	
전통예술		클래식	클래식		
			발레/무용		
			국악		
		어린이	뮤지컬	연극	
다원예술					
예술일반					
		만화			

다. 기타

1)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sup>174)</sup>은 공연정보, 박스오피스, 집계, 통계 정보 등을 집계하는 공연예술정보관리시스템임.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공연통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연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공연산업의 중장기적 발전기반 마련하고 있음.
-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은 2014년 13개 기관, 2015년 2개, 2016년 2개, 2017년 14개 기관 등 총 31개 기관의 공연정보 관련 데이터를 전송받고 있음. 데이터전송기관은 국립국악원,

<sup>174)</sup>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웹사이트 <http://www.kopis.or.kr>

국립극단, 국립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용, 두산아트센터, 마포아트센터,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공연예술센터, LG아트센터, 나눔티켓, 대학로티켓닷컴, 강동아트센터, 세종문화회관, 플레이티켓, 대구문화예술회관, NHN티켓링크, 예스24, 옥션, 인터파크, 클립서비스주식회사, 하나투어, 경기도문화의전당, 구로문화재단, 김해문화재단, 남산예술센터,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예술의전당, 유니버설문화재단, 창원문화재단 등임.

- 메인 데이터베이스(DB)와 장르별 통계를 살펴보면, 공연예술 장르가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무용, 발레, 국악, 복합으로 장르가 나누어져 있음. 박스오피스 역시 동일하고 아동이 추가되어 있음.

〈표 185〉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과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연극	연극	
		뮤지컬	
	무용	무용	
		발레	
	음악	오페라	
		클래식	
전통예술		국악	
다원예술			
예술일반			
		아동	
		복합	

## 2) 문화콘텐츠닷컴

-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문화콘텐츠닷컴<sup>175)</sup>은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 제공을 통해 다양한 창작활동 및 교육 등의 활용성을 높이는 한편 저작물의 법적 보호 기반을 마련하는 아카이빙 사이트임.

<sup>175)</sup> 문화콘텐츠닷컴 웹사이트 <http://www.culturecontent.com>



- 문화콘텐츠닷컴에서는 주제별, 시대별, 교과서별 등으로 문화콘텐츠를 축적하고 있음. 애니메이션, 만화, 음악, 공연 등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 사업을 주요하게 벌이고 있음. 아카이브의 경우 주제별, 시대별, 교과서별, 멀티미디어 문화원형 콘텐츠를 분류해 제공하고 있으며, 문화원형활용사례 정보를 축적해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자료로 제공하고 있음.
- 문화원형라이브러리에서는 정치·경제·생업, 종교/신앙, 문학, 의식주, 회화, 미술·공예, 음악, 군사·외교, 교통·통신·지리, 과학기술·의약, 천문·풍수, 의례·놀이·연희, 문화·기타로 나눠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표 186〉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과 문화콘텐츠닷컴의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콘텐츠닷컴(라이브러리 기준)
문학		문학
시각예술		회화
		미술·공예
공연예술	연극	
	무용	
	음악	음악
전통예술		의례·놀이·연희
다원예술		
예술일반		
		문화·기타

### 3) 공연예술디지털아카이브

- 국립극장이 운영하는 공연예술디지털아카이브<sup>176)</sup>는 국립국악원, 국립극장,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개 기관의 공연예술 아카이브 자료를 한 곳에서 검색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임.
- 해당 아카이브에서는 분류유형, 자료유형, 공연단체로 세 가지 분류를 통해 자료를 나눠 제공하고 있음. 공연예술 관련 분류유형은 크게 연극, 무용, 음악, 연희, 공연일반, 교육, 전시, 행사, 기타 등으로 나뉘고, 자료유형은 영상, 음향, 이미지, 복합, 디자인, 서지, 물품 등으로 나뉘어 제공되고 있음. 공연단체의 경우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교향악단, 국립현대무용단 등으로 자료가

<sup>176)</sup> 공연예술디지털아카이브 웹사이트 <http://archive.ntok.go.kr>

제공되고 있음

〈표 187〉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과 국립극장의 공연예술디지털아카이브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공연예술디지털아카이브							
		분류 유형	중분류	세분류					
문학									
시각예술									
공연 예술	연극	연극	일반연극						
			아동극						
			인형극						
			퍼포먼스						
			마임						
			대중쇼 (마술)						
			기타						
	무용	무용	한국무용	창작무용	전통무용		궁중무용		
			발레						
			현대무용						
			세계무용	민속무용	종교무용		사교무용		
			대중무용						
	기타	종합							
	음악	음악	음악극	오페라	창극	뮤지컬	기타		
			서양성악	합창		독창	중창		
			한국기악	국악관현악		농악	산조	시나위	
			서양기악	합주		독주		중주	
			한국성악	판소리	민요	가곡	한국 가곡	병창	시조
			한국종합	복합			종합		
			서양종합	복합			종합		
			대중음악	팝		가요		월드뮤직	
			한국 종교음악	불교음악			무속음악		
			서양 종교음악						
			세계 전통음악	종합			기악		
			기타	종합			기악		
			공연 일반	종합공연					
				복합장르	총체극				
				기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공연예술디지털아카이브		
	분류 유형	중분류	세분류
전통예술	연희	전통연희	탈춤 : 기타
		창작연희	마당극
		세계연희	경극 : 가부키 : 노
다원예술			
예술일반	교육	성인	
		어린이	
		연구자	
		외국인	
		대중	
		기타	
	행사	외부	
		내부	
	전시	기획	
		기타	
	기타	극장관련	
		영화	
		다큐	
		기타	

#### 4) 예술마루

- 예술경영지원센터가 관리·운영하는 예술마루<sup>177)</sup>(정부의 경연대회의 주요 분야)의 통계는 공연예술과 전통예술로 나뉨. 공연예술은 음악, 무용, 연극(뮤지컬)으로 장르를 구분해 경연대회 통계자료<sup>178)</sup>를 제공하고 있음.
- 예술경연대회 상세검색의 장르 분야는 공예, 무용, 문학, 시각예술, 음악, 연극·뮤지컬, 전통 예술 분야로 분류<sup>179)</sup>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공연예술대상으로는 연극, 무용, 음악, 다원/기타 장르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전/클래식, 전통 예술을 기반으로 한 작품을 기준으로 공모사업 진행 중임.
- 자막번역공모사업으로 창작 뮤지컬, 연극, 다원(복합) 장르 작품 중 해당 공연에 사용되는

177) 예술마루 웹사이트 <http://www.gokams.or.kr/artmaru>

178) 예술마루 경연대회 [http://www.gokams.or.kr/artmaru/03\\_stat/01\\_stat\\_9.asp](http://www.gokams.or.kr/artmaru/03_stat/01_stat_9.asp)

179) 예술경연대회 개최일정 [http://www.gokams.or.kr/artmaru/02\\_contest/01\\_schedule\\_list.asp](http://www.gokams.or.kr/artmaru/02_contest/01_schedule_list.asp)

공연 자막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표 188〉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과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마루		예술경영지원센터 상세검색
문학				문학
시각예술				시각예술
				공예
공연예술	연극	공연예술	연극	연극
	무용		뮤지컬	뮤지컬
	음악		무용	무용
전통예술		전통예술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 4)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 아르고예술기록원이 운영하는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sup>180)</sup>는 예술단체와 예술인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정보저장소로, 예술자료의 체계적인 아카이빙과 활발한 활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임. 예술단체와 예술인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범국가적인 공용 정보저장소 시스템임.
- 해당 아카이브에서는 공연예술, 시각예술, 창작음악, 구술채록, 컬렉션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공연예술에 다원을 하나의 장르로 포함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아래와 같이 장르 유형 외에도 자료유형(이미지, 동영상, 텍스트, 음원)과 주체유형(예술단체, 예술인), 자료분류(작곡가별, 작품별, 시대별,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sup>180)</sup>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웹사이트 <http://www.daarts.or.kr>

〈표 189〉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과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의 장르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문학				
시각예술		시각예술	회화	사진
			조각	설치
			공예	판화
공연예술	연극	공연예술	연극	전통
	무용		무용	뮤지컬
			음악	다원
			오페라	콘서트
	음악	창작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컬렉션	무대미술	근대회곡
		구술채록	공연예술	시각예술
			대중예술	문학



## 제4장

### 문화예술활동 및 산업, 향유자 분석

제1절 : 문예연감(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현황

1. 조사분야
2. 분야별 현황

제2절 : 문화예술산업 및 종사자

1. 예술인 실태조사
2. 경제총조사
3.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
4. 전국사업체조사
5. 미술시장실태조사
6. 전문예술법인·단체백서
7. 문예회관 운영현황 조사
8. 전통공연예술실태조사
9. 음악산업백서
10. 공연예술실태조사

제3절 : 문화예술 향유자

1. 국민여가활동조사
2. 문화향수실태조사

## 제1절 문예연감(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현황

## 1. 조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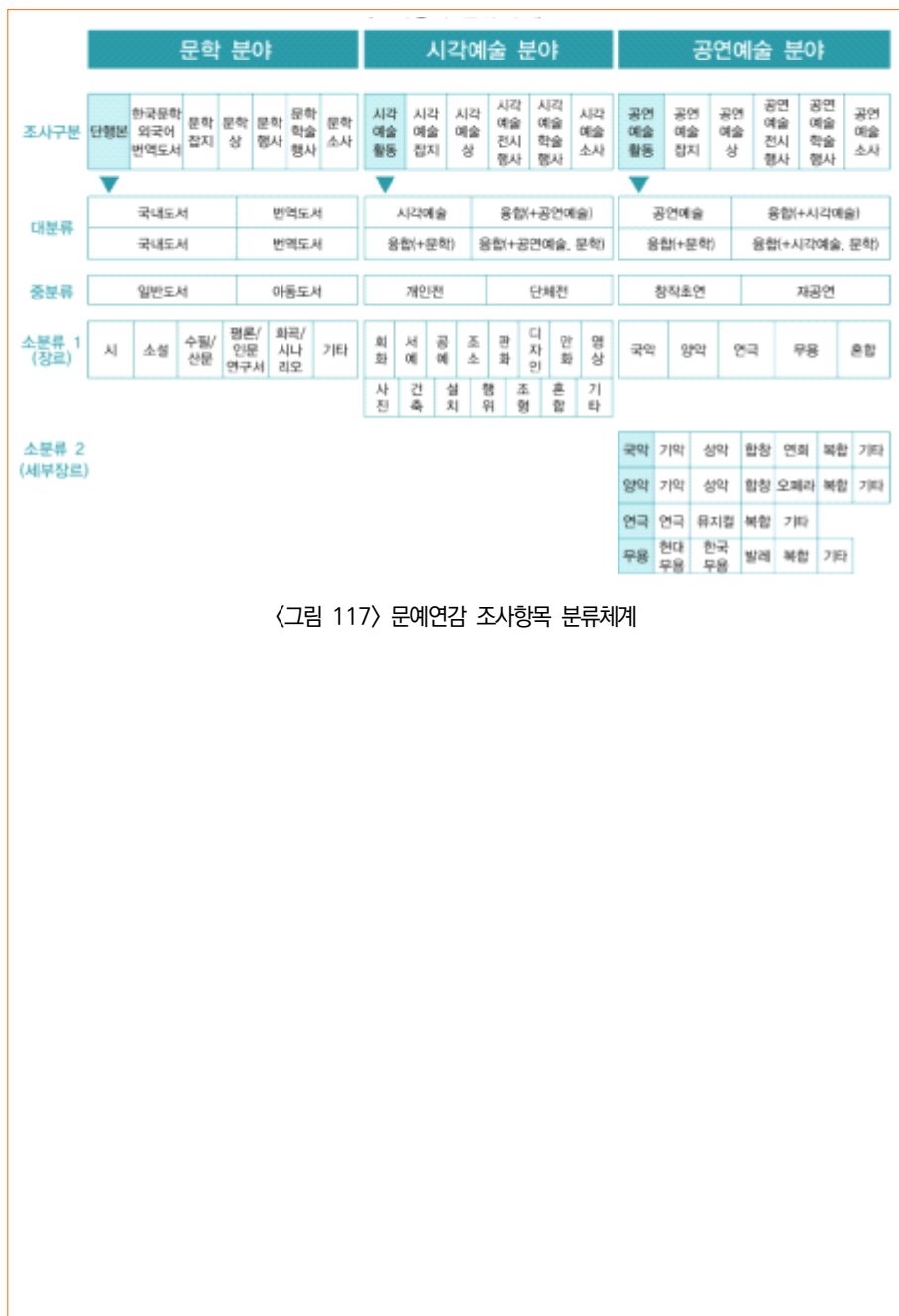
## □ 문화예술 분야

- 문화예술 분야를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로 구분하고 있음.
  - 시각예술은 회화, 서예, 공예, 조소, 판화, 디자인, 만화, 영상, 사진, 건축, 설치, 행위, 조형, 혼합 장르를 포함.
  - 공연예술은 국악, 양악, 연극, 무용, 혼합 장르를 포함.

## □ 조사항목 분류체계

- 구체적인 조사항목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문학분야는 대분류에서 국내도서와 번역도서로 구분하고, 중분류에서 일반도서와 아동도서로 구분한 후, 소분류(장르)는 시, 소설, 수필/산문, 평론/인문연구서, 희곡/시나리오로 분류하고 있음.
- 시각예술분야는 대분류에서 시각예술과 융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중분류에서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구분한 후, 소분류(장르)는 회화, 서예, 공예, 조소, 판화, 디자인, 만화, 영상, 사진, 건축, 설치, 행위, 조형, 혼합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 공연예술분야는 대분류에서 공연예술과 융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중분류에서 창작초연과 재공연으로 구분한 후 소분류(장르)는 국악, 양악, 연극, 무용, 혼합으로 분류하고 있음. 이를 세부 장르 기준으로 국악은 기악, 성악, 합창, 연희, 복합, 기타로 분류하고, 양악은 기악, 성악, 합창, 오페라, 복합, 기타로 분류하고, 연극은 연극, 뮤지컬, 복합, 기타로 분류하고, 무용은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복합,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그림 117〉 문예연감 조사항목 분류체계

## 2. 분야별 현황

### □ 분야별 현황

- 2016년 기준 전체 문화예술활동에서 문학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25.6%로 전년 대비 2.6%p 증가하였으며, 시각예술은 28.8%로 전년 대비 1.9%p 감소하였음. 공연예술은 45.7%로 0.6%p 감소하였음.

〈표 190〉 분야별 문화예술활동 현황

구분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계
2016년	예술 활동 건수	11,785	13,260	21,056	46,101
	비율(%)	25.6	28.8	45.7	100.0
2015년	예술 활동 건수	9,865	13,207	19,896	42,968
	비율(%)	23.0	30.7	46.3	100.0

### □ 문학: 국내도서 장르별 출판 현황

- 2016년 기준 국내도서 장르별 출판 현황을 살펴보면, 소설이 41.4%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시 34.9%, 수필/산문 2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소설의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시와 수필/산문의 비율은 감소하였음.

〈표 191〉 국내도서 장르별 출판 현황

구분		시	소설	수필/산문	평론/인문연구서	희곡/시나리오	기타	계
2016년	발간 수	2,903	3,440	1,748	140	64	22	8,317
	비율(%)	34.9	41.4	21.0	1.7	0.8	0.3	100.0
2015년	발간 수	2,324	3,171	1,223	346	32	61	7,157
	비율(%)	32.5	44.3	17.1	4.8	0.4	0.9	100.0

### □ 시각예술: 전시 건수 및 평균 전시 기간(시각/융합)

- 2016년 기준 시각예술 중 융합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1% 미만으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5년의 12건 대비 99건 증가한 111건의 융합<sup>181)</sup> 장르의 문화예술활동이 있었음.

181) 여기서 융합은 다른 대분류 간의 결합을 말함.

〈표 192〉 시각예술 전시 건수 및 평균 전시 기간

구분		시각예술	융합				계
			융합 (+공연예술)	융합 (+문학)	융합 (+공연예술, 문학)	소계	
2016년	전시 건수	13,149	29	78	4	111	13,260
	평균 전시 기간(일)	24.4	24.1	27.4	100.5	29.2	24.5
2015년	전시 건수	13,195	12	-	-	12	13,207
	평균 전시 기간(일)	21.9	40.8	-	-	40.8	22.0

## □ 장르별 전시 건수

- 2016년 기준 시각예술 장르 중 회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45.9%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혼합이 21.0%로 나타났다.

〈표 193〉 시각예술 장르별 전시건수

구분	2015년		2016년	
	전시건수	비율(%)	전시건수	비율(%)
회화	5,586	42.3	6,087	45.9
서예	450	3.4	453	3.4
공예	962	7.3	947	7.1
조소	281	2.1	238	1.8
판화	80	0.6	71	0.5
디자인	309	2.3	300	2.3
만화	48	0.4	29	0.2
영상	114	0.9	68	0.5
사진	1,614	12.2	1,452	11.0
건축	103	0.8	59	0.4
설치	148	1.1	184	1.4
행위	21	0.2	16	0.1
조형	245	1.9	330	2.5
혼합 <sup>182)</sup>	3,007	22.8	2,786	21.0
기타	239	1.8	240	1.8
계	13,207	100.0	13,260	100.0

182) 혼합은 소분류1 간의 결합을 말함.

## □ 혼합 장르 전시 건수 분포(세부 장르 기준)

- 만화와 영상, 건축을 제외한 대부분의 세부 장르는 회화와 혼합한 비율이 가장 많았음. 회화의 경우 조형, 공예, 설치, 조소 등과 결합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만화는 영상과 결합한 비율이 높았으며, 영상은 설치와 결합한 비율이 높았음. 건축은 공예와 결합한 비율이 높았음.

〈표 194〉 시각예술 혼합 장르 전시 건수 분포

구분		회화	서예	공예	조소	판화	디자인	만화	영상	사진	건축	설치	행위	조형	기타	계
회화	빈도	-	330	477	443	69	179	13	261	345	37	471	28	533	250	3,436
	%	-	9.6	13.9	12.9	2.0	5.2	0.4	7.6	10.0	1.1	13.7	0.8	15.5	7.3	100.0
서예	빈도	330	-	117	66	4	27	1	6	43	5	11	1	21	48	680
	%	48.5	-	17.2	9.7	0.6	4.0	0.1	0.9	6.3	0.7	1.6	0.1	3.1	7.1	100.0
공예	빈도	477	117	-	162	19	117	1	43	89	50	94	4	148	127	1,448
	%	32.9	8.1	-	11.2	1.3	8.1	0.1	3.0	6.1	3.5	6.5	0.3	10.2	8.8	100.0
조소	빈도	443	66	162	-	29	49	3	80	84	11	147	8	150	73	1,305
	%	33.9	5.1	12.4	-	2.2	3.8	0.2	6.1	6.4	0.8	11.3	0.6	11.5	5.6	100.0
판화	빈도	69	4	19	29	-	10	2	10	16	2	14	2	16	15	208
	%	33.2	1.9	9.1	13.9	-	4.8	1.0	4.8	7.7	1.0	6.7	1.0	7.7	7.2	100.0
디자인	빈도	179	27	117	49	10	-	5	72	95	36	86	6	104	68	854
	%	21.0	3.2	13.7	5.7	1.2	-	0.6	8.4	11.1	4.2	10.1	0.7	12.2	8.0	100.0
만화	빈도	13	1	1	3	2	5	-	20	8	0	7	0	9	9	78
	%	16.7	1.3	1.3	3.8	2.6	6.4	-	25.6	10.3	0.0	9.0	0.0	11.5	11.5	100.0
영상	빈도	261	6	43	80	10	72	20	-	195	15	295	26	142	104	1,269
	%	20.9	0.5	3.4	6.3	0.8	5.7	1.6	-	15.4	1.2	23.2	2.0	11.2	8.2	100.0
사진	빈도	345	43	89	84	16	95	8	195	-	25	178	16	148	127	1,369
	%	25.2	3.1	6.5	6.1	1.2	6.9	0.6	14.2	-	1.8	13.0	1.2	10.8	9.3	100.0
건축	빈도	37	5	50	11	2	36	0	15	25	-	22	2	19	29	253
	%	14.6	2.0	19.8	4.3	0.8	14.2	0.0	5.9	9.9	-	8.7	0.8	7.5	11.5	100.0
설치	빈도	471	11	94	147	14	86	7	295	178	22	-	26	308	100	1,759
	%	26.8	0.6	5.3	8.4	0.8	4.9	0.4	16.8	10.1	1.3	-	1.5	17.5	5.7	100.0
행위	빈도	28	1	4	8	2	6	0	26	16	2	26	-	18	12	149
	%	18.8	0.7	2.7	5.4	1.3	4.0	0.0	17.4	10.7	1.3	17.4	-	12.1	8.1	100.0
조형	빈도	533	21	148	150	16	104	9	142	148	19	308	18	-	113	1,729
	%	30.8	1.2	8.6	8.7	0.9	6.0	0.5	8.2	8.6	1.1	17.8	1.0	-	6.5	100.0
기타	빈도	250	48	127	73	15	68	9	104	127	29	100	12	113	-	1,075
	%	23.3	4.5	11.8	6.8	1.4	6.3	0.8	9.7	11.8	2.7	9.3	1.1	10.5	-	100.0

\* 합계는 행과 열의 각 장르가 1:1 또는 1:다(多)로 결합한 모든 혼합 발생 건수를 나타낸 것으로 장르별 전시 건수와는 차이가 있음. 각 빈도에 대한 비율은 해당 장르의 혼합 발생 건수의 총합에 대한 각 장르의 결합 비율을 의미함

## □ 공연예술: 장르별 공연 건수 및 횟수

- 2016년 기준 공연 건수는 양악이 9,9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혼합이 1,973건(9.4%)으로 나타났음. 또한 혼합은 전년 대비 865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195〉 공연예술 장르별 공연 건수 및 횟수

구분		국악	양악	연극	무용	혼합	계
2016년	공연 건수	1,507	9,907	6,271	1,398	1,973	21,056
	공연 횟수	4,310	11,817	112,287	3,491	6,630	138,535
2015년	공연 건수	1,547	10,190	5,721	1,330	1,108	19,896
	공연 횟수	2,788	11,583	99,473	2,611	7,141	123,596

## □ 공연예술: 공연 건수 및 횟수

- 2016년 기준 공연예술의 융합공연 건수는 250건으로 전체 공연예술 건수의 1.2%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8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196〉 공연예술 공연 건수 및 횟수(융합)

구분		공연예술	융합				계
			(+시각예술)	(+문학)	(+시각예술, 문학)	소계	
2016년	공연 건수	20,806	181	65	4	250	21,056
	공연 횟수	137,795	670	65	4	740	138,535
2015년	공연 건수	19,738	158	-	-	158	19,896
	공연 횟수	122,628	968	-	-	968	123,596

## □ 공연예술: 혼합 장르별 공연 건수 및 비율

- 공연예술의 혼합 장르별 공연 건수를 살펴보면, 국악과 결합한 경우가 1,7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양악 1,458건, 무용 1,23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197〉 공연예술 혼합 장르별 공연 건수 및 비율

구분		국악	양악	연극	무용	계
국악	빈도	-	783	332	647	1,762
	비율(%)	-	44.4	18.8	36.7	100.0
양악	빈도	783	-	284	391	1,458
	비율(%)	53.7	-	19.5	26.8	100.0
연극	빈도	332	284	-	198	814
	비율(%)	40.8	34.9	-	24.3	100.0
무용	빈도	647	391	198	-	1,236
	비율(%)	52.3	31.6	16.0	-	100.0

\* 합계는 행과 열의 각 장르가 1:1 또는 1:다(多)로 결합한 모든 혼합 발생 건수를 나타낸 것으로 장르별 전시 건수와는 차이가 있음. 각 빈도에 대한 비율은 해당 장르의 혼합 발생 건수의 총합에 대한 각 장르의 결합 비율을 의미함

#### □ 국악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 및 횟수

- 2016년 기준 국악의 세부 장르별 복합 공연 건수는 1,238건으로 41.5%를 차지하고 있음. 전년의 551건(23.2%) 대비 687건(18.3%p) 증가하였음.

〈표 198〉 국악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 및 횟수

구분			기악	성악	합창	연희	복합 <sup>183)</sup>	기타	계
2016년	공연 건수	빈도	1,186	261	19	167	1,238	113	2,984
		%	39.7	8.7	0.6	5.6	41.5	3.8	100.0
	공연 횟수	빈도	3,565	401	21	1,073	3,291	498	8,849
		%	40.3	4.5	0.2	12.1	37.2	5.6	100.0
2015년	공연 건수	빈도	1,019	4449	48	312	551	1	2,380
		%	42.8	18.9	2.0	13.1	23.2	0.0	100.0
	공연 횟수	빈도	2,154	590	244	995	1,465	1	5,449
		%	39.5	10.8	4.5	18.3	26.9	0.0	100.0

#### □ 양악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 및 횟수

- 2016년 기준 양악의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를 살펴보면, 기악이 59.1%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복합이 23.1%로 나타났다. 복합의 경우 전년 대비 14.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9〉 양악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 및 횟수

구분			기악	성악	합창	오페라	복합	기타	계
2016년	공연 건수	빈도	6,558	918	635	366	2,565	56	11,098
		%	59.1	8.3	5.7	3.3	23.1	0.5	100.0
	공연 횟수	빈도	7,583	1,153	659	635	3,672	851	14,553
		%	52.1	7.9	4.5	4.4	25.2	5.8	100.0
2015년	공연 건수	빈도	7,340	780	1,206	520	955	39	10,840
		%	67.7	7.2	11.1	4.8	8.8	0.4	100.0
	공연 횟수	빈도	9,176	822	1,447	919	1,272	666	14,302
		%	64.2	5.7	10.1	6.4	8.9	4.7	100.0

<sup>183)</sup> 복합은 소분류2 간의 결합을 말함.

#### □ 연극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 및 횟수

- 2016년 기준 연극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를 살펴보면, 뮤지컬이 40.2%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연극이 39.2%, 기타가 18.4%, 복합이 2.3%(158건)로 나타났다. 복합의 경우 전년의 1.0%(60건) 대비 1.3%p(98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0〉 연극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 및 횟수

구분			연극	뮤지컬	복합	기타	계
2016년	공연 건수	빈도	2,706	2,772	158	1,267	6,903
		%	39.2	40.2	2.3	18.4	100.0
	공연 횟수	빈도	57,668	39,669	2,156	16,580	116,073
		%	49.7	34.2	1.9	14.3	100.0
2015년	공연 건수	빈도	2,583	2,592	60	806	6,041
		%	42.8	42.9	1.0	13.3	100.0
	공연 횟수	빈도	52,904	36,193	308	15,134	104,539
		%	50.6	34.6	0.3	14.5	100.0

#### □ 무용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 및 횟수

- 2016년 기준 무용의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를 살펴보면, 한국무용이 40.7%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현대무용이 22.0%, 기타 15.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복합은 7.5%(177건)로 나타났다. 복합의 경우 전년 대비 0.3%p(39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1〉 무용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 및 횟수

구분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복합	기타	계
2016년	공연 건수	빈도	517	959	327	177	375	2,355
		%	22.0	40.7	13.9	7.5	15.9	100.0
	공연 횟수	빈도	1,205	2,801	605	564	2,341	7,516
		%	16.0	37.3	8.0	7.5	31.1	100.0
2015년	공연 건수	빈도	436	806	322	138	222	1,924
		%	22.7	41.9	16.7	7.2	11.5	100.0
	공연 횟수	빈도	1,169	2,220	818	1,205	3,038	8,450
		%	13.8	26.3	9.7	14.3	36.0	100.0

#### □ 국악 복합 장르별 공연 건수 및 비율

- 2016년 기준 국악의 복합 장르별 공연 건수를 살펴보면, 성악이 1,45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기악이 1,446건으로 나타났다.

〈표 202〉 국악 복합 장르별 공연 건수 및 비율

구분		기악	성악	합창	연희	기타	계
기악	빈도	-	998	75	79	294	1,446
	비율(%)	-	69.0	5.2	5.5	20.3	100.0
성악	빈도	998	-	83	58	314	1,453
	비율(%)	68.7	-	5.7	4.0	21.6	100.0
합창	빈도	75	83	-	5	5	168
	비율(%)	44.6	49.4	-	3.0	3.0	100.0
연희	빈도	79	58	5	-	25	167
	비율(%)	47.3	34.7	3.0	-	15.0	100.0
기타	빈도	294	314	5	25	-	638
	비율(%)	46.1	49.2	0.8	3.9	-	100.0

\* 합계는 행과 열의 각 장르가 1:1 또는 1:다(多)로 결합한 모든 혼합 발생 건수를 나타낸 것으로 장르별 전시 건수와는 차이가 있음. 각 빈도에 대한 비율은 해당 장르의 혼합 발생 건수의 총합에 대한 각 장르의 결합 비율을 의미함

#### □ 양악 복합 장르별 공연 건수 및 비율

- 2016년 기준 양악의 복합 장르별 공연 건수를 살펴보면 기악이 2,7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성악이 2,530건 등으로 나타났다.

〈표 203〉 양악 복합 장르별 공연 건수 및 비율

구분		기악	성악	합창	오페라	기타	계
기악	빈도	-	2,033	455	38	237	2,763
	비율(%)	-	73.6	16.5	1.4	8.6	100.0
성악	빈도	2,033	-	373	25	99	2,530
	비율(%)	80.4	-	14.7	1.0	3.9	100.0
합창	빈도	455	373	-	18	20	866
	비율(%)	52.5	43.1	-	2.1	2.3	100.0
오페라	빈도	38	25	18	-	15	96
	비율(%)	39.6	26.0	18.8	-	15.6	100.0
기타	빈도	237	99	20	15	-	371
	비율(%)	63.9	26.7	5.4	4.0	-	100.0

\* 합계는 행과 열의 각 장르가 1:1 또는 1:다(多)로 결합한 모든 혼합 발생 건수를 나타낸 것으로 장르별 전시 건수와는 차이가 있음. 각 빈도에 대한 비율은 해당 장르의 혼합 발생 건수의 총합에 대한 각 장르의 결합 비율을 의미함



#### □ 연극 복합 장르별 공연 건수 및 비율

- 2016년 기준 연극의 복합 장르별 공연 건수를 살펴보면, 기타가 1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연극 108건, 뮤지컬 100건으로 나타났다.

〈표 204〉 연극 복합 장르별 공연 건수 및 비율

구분		연극	뮤지컬	기타	계
연극	빈도	-	42	66	108
	비율(%)	-	38.9	61.1	100.0
뮤지컬	빈도	42	-	58	100
	비율(%)	42.0	-	58.0	100.0
기타	빈도	66	58	-	124
	비율(%)	53.2	46.8	-	100.0

\* 합계는 행과 열의 각 장르가 1:1 또는 1:다(多)로 결합한 모든 혼합 발생 건수를 나타낸 것으로 장르별 전시 건수와는 차이가 있음. 각 빈도에 대한 비율은 해당 장르의 혼합 발생 건수의 총합에 대한 각 장르의 결합 비율을 의미함

#### □ 무용 복합 장르별 공연 건수 및 비율

- 2016년 기준 무용의 복합 장르별 공연 건수를 살펴보면, 한국무용이 2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현대무용이 204건, 발레가 163건 등으로 나타났다.

〈표 205〉 무용 복합 장르별 공연 건수 및 비율

구분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기타	계
현대무용	빈도	-	88	69	47	204
	비율(%)	-	43.1	33.8	23.0	100.0
한국무용	빈도	88	-	56	72	216
	비율(%)	40.7	-	25.9	33.3	100.0
발레	빈도	69	56	-	38	163
	비율(%)	42.3	34.4	-	23.3	100.0
기타	빈도	47	72	38	-	157
	비율(%)	29.9	45.9	24.2	-	100.0

\* 합계는 행과 열의 각 장르가 1:1 또는 1:다(多)로 결합한 모든 혼합 발생 건수를 나타낸 것으로 장르별 전시 건수와는 차이가 있음. 각 빈도에 대한 비율은 해당 장르의 혼합 발생 건수의 총합에 대한 각 장르의 결합 비율을 의미함

## 제2절 문화예술산업 및 종사자

## 1. 예술인 실태조사

## □ 모집단 분포

- 2015년 기준 예술인 실태조사의 모집단 분포를 살펴보면 미술이 30.0%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문학이 14.8%, 연극이 12.0%, 대중음악이 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06〉 예술인실태조사 모집단 분포  
(단위: 명, %)

분야	모집단 수	비율
문학	19,381	14.8%
미술	39,393	30.0%
공예	1,582	1.2%
사진	1,200	0.9%
건축	2,853	2.2%
음악	5,970	4.5%
대중음악	11,578	8.8%
국악	5,870	4.5%
무용	6,364	4.8%
연극	15,744	12.0%
영화	3,548	2.7%
방송	5,840	4.4%
만화	1,488	1.1%
기타	10,521	8.0%
합계	131,332	100.0%

□ 현재 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분야

- 현재 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분야는 미술이 23.2%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문학이 10.3%, 음악이 8.9%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207〉 현재 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분야

(단위: %)

구분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대중 음악	
전체		10.3	23.2	4.9	3.8	4.7	8.9	6.8	
예술 활동 분야	문학	96.5	1.8	0.0	0.0	0.0	0.2	0.0	
	미술	0.3	91.8	4.4	0.2	0.3	0.0	0.0	
	공예	0.7	8.2	89.7	0.0	0.0	0.0	0.0	
	사진	0.0	1.3	0.0	96.5	0.3	0.4	0.0	
	건축	0.0	0.0	0.3	0.6	98.8	0.0	0.0	
	음악	0.5	0.3	0.4	0.0	0.0	87.8	6.1	
	대중음악	0.6	0.0	0.0	0.0	0.3	11.7	84.4	
	국악	0.0	0.2	0.0	0.3	0.0	0.5	0.3	
	무용	0.0	0.0	0.0	0.0	0.0	1.7	0.0	
	연극	0.8	0.7	0.0	0.0	0.0	0.9	0.6	
	영화	0.5	0.7	0.0	0.2	0.0	0.9	0.0	
	방송	1.1	0.0	0.0	0.0	0.0	1.6	1.5	
	만화	0.3	3.3	0.0	0.3	0.0	0.0	0.0	
기타	4.1	46.1	4.9	3.5	0.5	7.9	2.0		
구분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만화	기타	계
전체		8.8	6.7	9.7	3.8	3.6	2.5	2.2	100.0
예술 활동 분야	문학	0.0	0.0	0.2	0.0	0.4	0.0	0.8	100.0
	미술	0.1	0.0	0.0	0.0	0.0	0.8	2.1	100.0
	공예	0.0	0.0	0.0	0.0	0.0	0.7	0.8	100.0
	사진	0.0	0.0	0.0	0.3	0.4	0.3	0.5	100.0
	건축	0.0	0.0	0.0	0.0	0.0	0.0	0.2	100.0
	음악	1.9	0.0	0.5	0.3	0.5	0.0	1.7	100.0
	대중음악	2.7	0.0	0.0	0.0	0.0	0.0	0.3	100.0
	국악	92.3	4.3	0.5	0.0	0.0	0.0	1.7	100.0
	무용	1.6	93.4	0.8	0.4	0.3	0.0	1.8	100.0
	연극	3.5	0.7	87.0	1.6	1.4	0.0	2.9	100.0
	영화	0.0	0.0	0.5	91.4	4.3	0.7	0.9	100.0
	방송	0.1	0.0	5.7	1.8	86.7	0.2	1.1	100.0
	만화	0.0	0.0	0.3	0.0	0.0	92.2	3.6	100.0
기타	11.2	4.5	4.5	2.3	0.6	0.2	7.5	100.0	

## □ 현재 예술분야의 주 활동 직업

- 현재 예술분야의 주 활동 직업은 화가 및 조각가가 19.2%, 작가 12.0%, 배우 8.3%, 연주가 5.9%, 무용가 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08〉 현재 예술분야의 주 활동 직업(1)

(단위: %)

구분		건축가	공예가	국악 작곡 및 편곡가	국악 연주가	국악인	가수	성악가
전체		4.8	4.6	0.2	2.6	4.9	3.6	1.0
예술 활동 분야	문학	0.2	0.0	0.0	0.0	0.0	0.0	0.0
	미술	0.3	4.6	0.0	0.1	0.0	0.0	0.0
	공예	0.0	82.0	0.0	0.0	0.0	0.0	0.0
	사진	0.3	0.0	0.0	0.0	0.0	0.0	0.0
	건축	98.7	0.3	0.0	0.0	0.0	0.0	0.0
	음악	0.0	0.2	0.2	0.8	0.3	5.0	11.3
	대중음악	0.3	0.4	0.0	0.0	2.7	42.6	0.0
	국악	0.0	0.0	1.8	26.2	53.0	0.3	0.0
	무용	0.0	0.0	0.0	0.8	0.5	0.3	0.0
	연극	0.0	0.0	0.0	1.1	1.8	0.4	0.4
	영화	0.0	0.0	0.0	0.0	0.0	0.0	0.0
	방송	0.5	0.0	0.0	0.1	0.0	1.1	0.0
	만화	0.0	0.0	0.0	0.0	0.0	0.0	0.0
	기타	0.5	4.5	0.3	3.6	5.4	0.8	0.5
구분		연주가	작곡가 및 편곡가	지휘자	만화가	애니메 이터	작가	화가 및 조각가
전체		5.9	3.2	0.7	2.3	0.1	12.0	19.2
예술 활동 분야	문학	0.0	0.0	0.0	0.0	0.0	91.1	1.2
	미술	0.0	0.1	0.0	0.7	0.0	1.3	77.1
	공예	0.0	0.0	0.0	0.7	0.4	1.4	6.8
	사진	0.4	0.0	0.0	0.0	0.0	1.4	0.8
	건축	0.0	0.0	0.0	0.0	0.0	0.0	0.0
	음악	44.7	13.3	7.5	0.0	0.0	0.5	0.5
	대중음악	24.0	26.1	0.0	0.0	0.0	0.0	0.0
	국악	3.4	0.4	0.0	0.0	0.0	0.0	0.2
	무용	0.4	1.0	0.0	0.6	0.0	0.5	0.0
	연극	0.0	0.5	0.0	0.0	0.0	3.9	0.5
	영화	0.0	0.9	0.0	0.0	0.7	15.3	0.7
	방송	1.5	0.2	0.0	0.0	0.0	29.4	0.0
	만화	0.0	0.0	0.0	84.2	2.1	2.3	0.9
	기타	3.1	1.1	0.8	0.0	0.0	5.3	36.5

〈표 209〉 현재 예술분야의 주 활동 직업(2)

(단위: %)

구분	사진작가	감독 및 연출가	평론가	배우	성우	무용가	안무가	디자이너
전체	3.6	4.5	0.3	8.3	0.7	5.3	0.8	0.8
예술 활동 분야	문학	0.0	0.1	0.5	0.2	0.0	0.0	0.0
	미술	0.2	0.1	0.1	0.0	0.0	0.0	2.6
	공예	0.0	0.0	0.0	0.0	0.0	0.0	2.5
	사진	91.9	0.3	0.0	0.0	0.0	0.0	0.2
	건축	0.6	0.0	0.0	0.0	0.0	0.0	0.0
	음악	0.0	4.0	0.0	0.2	0.0	0.0	0.0
	대중음악	0.0	0.8	0.0	0.0	0.0	0.0	0.0
	국악	0.0	2.7	0.0	0.4	0.0	3.8	0.3
	무용	0.0	1.7	0.5	0.7	0.0	75.1	11.0
	연극	0.0	17.6	0.7	59.2	0.4	0.4	0.0
	영화	0.2	37.1	0.0	17.4	0.0	0.0	0.0
	방송	0.0	4.2	0.3	32.2	18.5	0.1	0.0
	만화	0.3	0.0	0.0	4.0	0.0	0.0	0.0
	기타	3.2	4.5	0.8	2.1	0.0	3.2	0.8
구분	모델	기술감독	기술스태프	마술사	전통예능인	문화 및 예술 관련 관리자	기타	계
전체	0.0	0.5	1.3	0.0	0.5	4.0	4.5	100.0
예술 활동 분야	문학	0.0	0.0	0.0	0.0	2.5	4.1	100.0
	미술	0.0	0.0	0.0	0.0	1.0	11.3	100.0
	공예	0.0	0.0	0.0	0.0	1.2	0.8	100.0
	사진	0.0	0.0	0.0	0.0	1.7	2.8	100.0
	건축	0.0	0.0	0.4	0.0	0.0	0.0	100.0
	음악	0.0	0.8	0.5	0.0	0.4	7.2	100.0
	대중음악	0.0	0.3	0.2	0.0	0.0	1.1	100.0
	국악	0.0	0.0	0.0	0.0	1.8	3.7	100.0
	무용	0.5	0.0	0.3	0.0	0.5	3.0	100.0
	연극	0.0	0.4	4.4	0.2	0.3	7.5	100.0
	영화	0.0	8.3	16.7	0.0	0.0	2.7	100.0
	방송	0.3	0.0	2.4	0.0	0.0	7.7	100.0
	만화	0.0	0.0	0.0	0.0	0.0	1.1	100.0
	기타	0.0	0.3	1.1	0.1	1.1	11.2	100.0

## 2. 경제총조사

### □ 예술 관련 분야 산업세세분류별 현황

-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예술 관련 분야 사업체 수는 공연기획업이 1,134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무용 및 음악단체 904개,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이 763개, 연극단체 637개 등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는 무용 및 음악단체가 5,77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공연기획업이 4,870명, 연극단체가 3,299명,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이 3,22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공연기획업이 777,224백만원,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이 449,779백만원, 무용 및 음악단체가 204,857백만원, 연극단체가 168,693백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0〉 경제총조사 산업세세분류별 현황

(단위: 개, 명, 백만원)

산업세세분류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공연시설운영업		511	9,618	973,335
공연단체	소계	1,621	9,649	392,732
	연극단체	637	3,299	168,693
	무용 및 음악단체	904	5,770	204,857
	기타 공연단체	80	580	19,182
자영예술가	소계	630	1,095	42,132
	공연예술가	57	82	2,940
	비공연예술가	573	1,013	39,192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소계	1,980	8,384	1,270,659
	공연기획업	1,134	4,870	777,224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업	83	290	43,657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763	3,224	449,778

#### □ 예술 관련 서비스업 이용 인원 수

- 2015년 기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이용 인원 수는 61,426천명으로 나타났다.

〈표 211〉 경제총조사 서비스업 이용 인원 수

(단위: 천개, 천명)

산업분류			사업체 수	이용인원 있는 사업체 수	연간 이용인원 수	사업체당 연간 이용인원 수	이용인원 없는 사업체 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01	95	1,471,668	15	6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소계		13	12	442,707	37	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4	3	61,426	19	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9	9	381,281	44	0

#### □ 예술 관련 분야 산업세세분류별 이용인원(고객)수 현황

- 예술 관련 분야 산업세세분류별 이용인원을 살펴보면, 공연시설 운영업이 66,5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기타 공연단체가 55,989명,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36,986명, 공연 기획업이 10,993명 등으로 나타났다.

〈표 212〉 산업세세분류별 이용인원(고객)수 현황

(단위: 개, 명)

산업세세분류별		사업체 수	이용인원(고객) 있음		이용인원(고객) 없는 사업체 수
			이용인원(고객) 있는 사업체 수	사업체당 평균 이용인원 수(연간)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3,442	11,954	36,986	1,488
공연시설 운영업		511	511	66,598	-
공연단체	소계	1,621	1,618	9,268	3
	연극단체	637	636	9,392	1
	무용 및 음악단체	904	902	5,037	2
	기타 공연단체	80	80	55,989	-
자영 예술가	소계	630	-	-	630
	공연 예술가	57	-	-	57
	비공연 예술가	573	-	-	573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소계	1,980	1,128	10,993	852
	공연 기획업	1,134	1,128	10,993	6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업	83	-	-	83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763	-	-	763



## 3.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

## □ 2015년 기준 경영활동 현황

- 2015년 기준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의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공연이 46,047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시각예술이 44,377개, 문화 및 출판이 38,485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는 공예가 260,59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문학 및 출판이 180,441명, 시각예술이 153,634명 등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공예가 54,528,009백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영화산업 및 방송산업이 35,296,691백만원, 문학 및 출판이 28,349,670백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3〉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 2015년 기준 경영활동 현황

(단위: 개, 명, 백만원)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문화 산업	출판산업	29,640	32,319	144,064	154,038	22,455,968	25,418,075
	음악산업	35,433	34,676	44,163	42,4489	3,558,699	3,822,719
	영화산업 및 방송산업	4,703	5,482	99,292	104,835	34,796,263	35,296,691
	광고산업	18,563	18,562	92,552	96,169	18,242,404	20,622,149
	게임산업	17,055	15,989	71,550	73,579	12,298,013	16,194,049
	시각그래픽 및 캐릭터	29,624	31,231	85,951	90,817	11,505,098	13,164,092
예술 산업	문화유산 및 문화시설	3,444	3,673	37,783	41,425	2,152,329	2,693,210
	문학 및 출판	36,186	38,485	170,412	180,441	25,192,204	28,349,670
	공연	46,047	44,432	94,565	84,229	18,486,927	15,437,370
	시각예술	42,813	44,377	145,063	153,634	16,503,874	20,076,299
	공예	101,177	98,995	262,089	260,593	47,693,351	54,528,009

## 4. 전국사업체조사

## □ 예술 관련 분야 산업세세분류별 현황

- 2016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의 예술 관련 분야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공연기획업이 1,080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무용 및 음악단체가 871개,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이 816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종사자 수는 무용 및 음악단체가 5,3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공연기획업이 4,983명,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이 3,44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214〉 전국사업체조사 산업세세분류별 현황

(단위: 개, 명)

산업세세분류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공연시설운영업		524	9,759
공연단체	소계	1,549	9,037
	연극단체	595	3,091
	무용 및 음악단체	871	5,378
	기타 공연단체	83	568
자영업예술가	소계	662	1,067
	공연예술가	53	60
	비공연예술가	609	1,007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소계	1,987	8,775
	공연기획업	1,080	4,983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업	91	350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816	3,442

## 5. 미술시장실태조사

## □ 미술 장르별 거래현황

- 2016년 기준 미술시장실태조사의 미술 장르별 거래현황을 살펴보면, 건축물 미술작품을 제외한 나머지 유통매체에서 회화의 거래금액 및 작품 수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미술작품은 대부분 조각 설치로 나타났다.

〈표 215〉 미술시장실태조사 미술 장르별 거래현황

장르	화랑		경매회사		아트페어	
	금액(%) 215,825백 만원	작품 수(%) 12,524점	금액(%) 127,798백 만원	작품 수(%) 15,411점	금액(%) 73,593백만 원*	작품 수(%) 11,805점
회화	85.2	77.0	71.5	48.2	86.6	-
조각·설치	8.9	5.8	1.0	2.5	51.7	-
미디어아트	2.7	0.6	4.9	2.1	-	-
사진	1.5	5.2	0.4	0.4	11.5	-
판화	0.7	3.8	1.5	6.5	33.8	-
현대공예	0.6	5.1	1.7	5.8	39.3	-
골동품·목기	0.2	1.8	7.6	10.5	-	-
전통회화	0.2	0.7	9.9	20.6	26.3	-
기타	0.0	0.0	1.5	3.4	-	-
장르	건축물 미술작품		미술은행		미술관	
	금액(%) 36,805백만 원	작품 수(%) 319점	금액(%) 2,746백만 원	작품 수(%) 367점	금액(%) 20,122백만 원	작품 수(%) 2,662점
회화	서양화 한국화	3.3	11.0	56.6	55.9	46.3
				17.2		
조각·설치		94.3	88.5	7.3**	11.7	6.0
미디어아트		0.7	0.6	3.7	6.9	4.2
사진		0.0	0.3	10.4	11.6	23.0
판화		-	-	1.3	4.0	5.7
현대공예		-	-	2.7***	1.9	4.4
골동품·목기		-	-	-	0.2	0.5
전통회화		-	-	-	7.6	6.1
기타		1.7	1.6	0.7	0.1	3.7

\* 1+2+3순위 복수응답

\*\* 조각

\*\*\* 공예

## 6. 전문예술법인·단체백서

### □ 전문예술법인·단체 사업유형 전체현황

- 2016년 기준 전문예술법인·단체백서 중 사업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공연예술이 830개로 전체의 80.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기타가 137개로 13.2%를 차지하고 있음.

〈표 216〉 전문예술법인·단체 사업유형 현황

합계		공연예술	시각예술	기타
합계(개)	1,035	830	68	137
비율(%)	100.0	80.2	6.6	13.2

### □ 전문예술법인·단체 사업유형 세부현황

- 사업유형별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음악이 26.2%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연극이 18.4%, 전통이 17.5%, 무용이 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7〉 전문예술법인·단체 사업유형 세부현황

구분			개	비율(%)
합계			1,035	100.0
공연예술분야	830개 /80.2%	음악	270	26.2
		연극	191	18.4
		전통	181	17.5
		무용	71	6.9
		협회	48	4.6
		공연장 운영	30	2.9
		축제	18	1.7
		기획사	15	1.4
		복합 다원	4	0.4
		기타	2	0.2
시각예술분야	68개 /6.6%	전시행사	29	2.8
		전시장 운영	16	1.5
		협회	23	2.2
기타	137개 /13.2%	지원기관	52	5.0
		협회	57	5.5
		기타	28	2.7

## 7. 문예회관 운영현황 조사

### □ 장르별 대관공연 현황(응답 공연장 기준)

- 2016년 기준 문예회관 운영현황 중 장르별 대관공연 현황을 살펴보면, 공연건수를 기준으로 양악이 45.5%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뮤지컬이 17.8%, 복합이 11.7% 등으로 나타났음. 공연일수 기준으로는 양악이 37.6%, 뮤지컬이 25.3%, 연극이 13.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연횟수를 기준으로 뮤지컬이 32.1%, 양악이 31.3%, 연극이 14.8%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관객 수를 기준으로 양악이 36.9%, 뮤지컬이 31.5%, 복합이 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218〉 문예회관 운영현황 조사의 장르별 대관공연 현황

구분	공연 장 수(개)	공연건수(건)		공연일수(일)		공연횟수(회)		관객 수(명)	
		합계	비율	합계	비율	합계	비율	합계	비율
전체	355	10,630	100.0	13,152	100.0	16,287	100.0	6,409,394	100.0
연극	205	1,124	10.6	1,756	13.4	2,413	14.8	660,549	10.3
뮤지컬	235	1,897	17.8	3,329	25.3	5,222	32.1	2,020,827	31.5
무용	153	527	5.0	596	4.5	659	4.0	230,037	3.6
발레	43	92	0.9	102	0.8	109	0.7	47,320	0.7
양악	225	4,842	45.5	4,940	37.6	5,100	31.3	2,366,672	36.9
오페라	66	157	1.5	209	1.6	313	1.9	118,693	1.9
국악	175	743	7.0	777	5.9	819	5.0	273,769	4.3
복합	152	1,249	11.7	1,444	11.0	1,655	10.2	691,527	10.8

### □ 공연 프로그램 장르별 공연 실적(대장르별)

- 공연 프로그램 장르별 공연 실적을 살펴보면, 공연건수는 양악이 6,7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연극이 4,116건, 복합이 1,806건으로 나타났음. 공연일수는 연극이 8,355일, 양악이 7,038일, 복합이 2,121일 등으로 나타났으며, 공연횟수는 연극이 12,102회, 양악이 7,519회, 복합이 2,440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관객 수는 연극이 4,139,25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양악이 3,433,578명, 복합이 1,017,574명 등으로 나타났음.

〈표 219〉 공연 프로그램 장르별 공연 실적(대장르별)

구분	공연장 수(개)	공연건수(건)	공연일수(일)	공연횟수(회)	관객 수(명)
전체	385	14,852	19,984	24,703	9,572,019
연극	385	4,116	8,355	12,102	4,139,258
무용	385	937	1,127	1,228	502,914
양악	385	6,712	7,038	7,519	3,433,578
국악	385	1,281	1,344	1,414	478,696
복합	385	1,806	2,121	2,440	1,017,574

## □ 공연 프로그램 장르별 공연 실적(세부장르별)

- 세부장르별 공연 실적을 살펴보면, 공연건수를 기준으로 양악이 6,4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뮤지컬 2,373건, 복합 1,806건 등으로 나타났음. 공연일수를 기준으로 양악이 6,600일, 뮤지컬이 5,411일, 연극이 2,944일 등으로 나타났으며, 공연횟수는 뮤지컬이 8,134회, 양악 6,963회, 연극 3,968회 등으로 나타났음. 관객 수는 양악이 3,162,716명, 뮤지컬이 3,089,570명, 연극이 1,049,68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220〉 공연 프로그램 장르별 공연 실적(세부장르별)

구분	공연장 수(개)	공연건수(건)	공연일수(일)	공연횟수(회)	관객 수(명)
전체	385	14,852	19,984	24,703	9,572,019
연극	385	1,743	2,944	3,968	1,049,688
뮤지컬	385	2,373	5,411	8,134	3,089,570
무용	385	735	867	947	348,898
발레	385	202	259	281	154,016
양악	385	6,412	6,600	6,963	3,162,716
오페라	385	299	438	555	270,862
국악	385	1,281	1,344	1,414	478,696
복합	385	1,806	2,121	2,440	1,017,574

#### □ 전시장 운영실적

- 전시장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전시건수는 회화(대관)가 1,5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회화(기획)가 350건, 미디어(대관)가 306건 등으로 나타났음. 전시일수는 회화(대관)가 9,144일, 기타 전시(대관)가 6,521일, 회화(기획)가 6,372일 등으로 나타났음. 총 관람개 수는 회화(대관)가 11,818,20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기타 전시(대관)가 10,546,570명, 회화(기획)가 685,130명 등으로 나타났음.

〈표 221〉 전시장 운영실적

구분	전시장수(개)	전시건수	전시일수(일)	총 관람객 수(명)	유료관람객 비율(%)
회화(기획)	263	350	6,372	685,130	18.4
회화(대관)	263	1,585	9,144	11,818,207	-
공예(기획)	263	56	585	45,469	2.8
공예(대관)	263	258	1,190	109,830	0.7
조소(기획)	263	16	491	75,591	-
조소(대관)	263	100	616	69,091	17.4
미디어(기획)	263	36	756	128,422	10.9
미디어(대관)	263	306	2,089	604,972	5.1
디자인 전시(기획)	263	18	227	251,794	2.9
디자인 전시(대관)	263	108	580	47,133	10.9
기타 전시(기획)	263	264	5,504	672,311	35.4
기타 전시(대관)	263	1,353	6,521	10,546,570	0.6

## 8. 전통공연예술실태조사

## □ 직접 관람 전통공연예술

- 2015~2016년 기준 전통공연예술 직접 관람 비율은 전통 무용, 연희가 71.5%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전통 음악이 40.2%, 창작 음악이 3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2〉 전통공연예술실태조사의 직접 관람 전통공연예술 비율

구분	비율(%)
전통 무용, 연희 (탈춤, 농악, 사물놀이, 태평무, 학춤 등)	71.5
전통 음악 (판소리, 정가, 산조, 종묘제례악 등)	40.2
창작 음악 (국악관현악, 퓨전음악 등 / 예: 퓨전국악 슬기둥, 잠비나이 및 양방언 음악)	32.8
창작 무용, 연희 (창극, 마당극 등)	27.8

\* 전통공연예술 직접 관람자(전체의 15.4%), 중복응답

## □ 관람 의향 전통공연예술 장르

- 전통공연예술 관람 의향은 전통 무용, 연희가 46.7%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창작 음악이 44.8%, 전통 음악이 36.7% 등으로 나타났다.

〈표 223〉 관람 의향 전통공연예술 장르 비율

구분	비율(%)
전통 무용, 연희 (탈춤, 농악, 사물놀이, 태평무, 학춤 등)	46.7
창작 음악 (국악관현악, 퓨전음악 등 / 예: 퓨전국악 슬기둥, 잠비나이 및 양방언 음악)	44.8
전통 음악 (판소리, 정가, 산조, 종묘제례악 등)	36.7
창작 무용, 연희 (창극, 마당극 등)	33.3

\* 전통공연예술 관람 의향자(전체의 62.2%), 중복응답



## 9. 음악산업백서

## □ 최근 5년간 공연 장르별 판매금액 비교

- 2016년 기준 장르별 판매금액을 살펴보면, 뮤지컬이 199,300백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콘서트가 180,900백만원, 연극이 26,200백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4〉 음악산업백서의 최근 5년간 공연 장르별 판매금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콘서트	131,200	171,700	164,300	179,300	180,900
뮤지컬	166,100	181,100	196,000	191,500	199,300
연극	24,400	21,700	24,300	25,300	26,200
클래식/오페라	13,600	16,800	15,160	16,200	14,600
무용/전통예술	6,100	5,600	6,001	6,500	6,100
합계	341,400	396,900	405,761	418,800	427,100

\* 집계대상: 인터파크 판매 공연(뮤지컬에는 년버벌, 가족 어린 뮤지컬 포함)

\* 인터파크 웹, 전화, 모바일, 현장, 제휴처 등을 통합한 판매 금액, 판매 매수를 집계함

\* 공연 수 집계는 지역과 공연장이 다르면 별개의 공연으로 집계함

## □ 최근 5년간 공연 장르별 공연 편수 비교

- 2016년 기준 장르별 공연 편수를 살펴보면 클래식/오페라가 3,727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콘서트가 2,726편, 뮤지컬이 2,330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5〉 최근 5년간 공연 장르별 공연 편수

(단위: 편)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콘서트	2,117	2,366	2,403	2,726	2,928
뮤지컬	2,495	2,556	2,560	2,330	2,406
연극	1,560	1,620	1,821	1,815	2,000
클래식/오페라	3,052	3,243	3,490	3,487	3,727
무용/전통예술	540	582	600	674	694
합계	9,764	10,367	10,874	11,032	11,755

\* 집계대상: 인터파크 판매 공연(뮤지컬에는 년버벌, 가족 어린 뮤지컬 포함)

\* 인터파크 웹, 전화, 모바일, 현장, 제휴처 등을 통합한 판매 금액, 판매 매수를 집계함

\* 공연 수 집계는 지역과 공연장이 다르면 별개의 공연으로 집계함

#### □ 즐겨듣는 음악(장르별) Top10(2017)

- 2017년 기준 즐겨듣는 음악 장르는 발라드가 77.8%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댄스가 45.8%, OST가 4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6〉 장르별 즐겨듣는 음악 TOP10(2017)

구분	발라드	댄스	OST (영화, 드라마 등)	랩/힙합	R&B/Soul
비율(%)	77.8	45.8	41.5	39.9	38.9
구분	인디음악	트로트	재즈/퓨전재즈	클래식	록/메탈
비율(%)	20.5	15.2	14.6	13.2	11.6

\* 사례수: 1,200명

#### □ 음악공연 유형별 관람 횟수

- 2017년 기준 음악공연 유형별 관람 횟수를 살펴보면, 버스킹/거리공연이 2.3회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클럽 공연이 1.8회, 뮤지컬 공연이 1.5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7〉 음악공연 유형별 관람 횟수

구분	2015년(n=570)		2016년(n=395)		2017년(n=396)	
	사례 수(명)	관람횟수	사례 수(명)	관람횟수	사례 수(명)	관람횟수
국내 대중가요 콘서트	326	2.0	229	1.3	190	1.4
해외 팝음악 콘서트	57	2.1	14	1.7	16	1.4
뮤지컬 공연	222	2.2	111	1.5	197	1.5
클래식 공연	75	2.4	30	1.6	60	1.3
오페라 공연	36	2.1	11	1.4	15	1.1
음악 관련 페스티벌	136	1.7	106	1.3	35	1.1
국악 공연	17	2.6	11	1.5	20	1.0
클럽 공연	22	6.6	22	2.0	15	1.8
버스킹/거리공연	-	-	-	-	91	2.3

## 10. 공연예술실태조사

## □ 공연단체 최종 모집단

- 2016년 기준 공연예술실태조사의 모집단 분포를 살펴보면, 양악이 33.6%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연극이 27.2%, 국악이 2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8〉 공연예술실태조사의 모집단 분포

구분	연극	무용	양악	국악	복합	합계
단체 수	644	320	794	477	129	2,364
비율(%)	27.2	13.5	33.6	20.2	5.5	100.0

## □ 공연프로그램 장르별 공연 실적

- 세부장르별 공연건수를 살펴보면, 양악이 12,2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연극이 6,359건, 뮤지컬이 5,205건, 복합이 3,92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연일수는 연극이 55,310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뮤지컬이 30,152일, 양악이 13,111일, 복합이 10,876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연횟수는 연극이 84,970회, 뮤지컬이 47,074회, 복합이 18,360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객수는 뮤지컬이 12,472,1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연극이 6,838,119명, 양악이 4,944,540명, 복합이 3,444,89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9〉 공연프로그램 장르별 공연 실적

구분		공연건수(건)	공연일수(일)	공연횟수(회)	관객수(명)
전체		34,051	118,397	174,191	30,637,448
대장르	연극	11,563	85,462	132,044	19,310,269
	무용	2,448	4,016	4,669	1,467,419
	양악	12,874	14,053	14,948	5,364,205
	국악	3,239	3,990	4,169	1,050,661
	복합	3,927	10,876	18,360	3,444,894
세부장르	연극	6,359	55,310	84,970	6,838,119
	뮤지컬	5,205	30,152	47,074	12,472,150
	무용	2,037	3,401	4,009	1,108,973
	발레	410	615	661	358,447
	양악	12,237	13,111	13,853	4,944,540
	오페라	637	942	1,095	419,664
	국악	3,239	3,990	4,169	1,050,661
	복합	3,927	10,876	18,360	3,444,894

\* 공연장 수: 1,268개

#### □ 공연단체 주요활동 장르별 분포

- 공연단체의 주요활동 장르별 분포를 살펴보면, 양악이 33.6%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연극이 27.2%, 국악이 20.2%, 무용이 13.5%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230〉 공연단체 주요활동 장르별 분포

구분	연극	무용	양악	국악	복합	합계
단체 수	27.2	13.5	33.6	20.2	5.5	100.0
비율(%)	644	320	794	477	129	2,364

#### □ 공연단체 주요활동 장르별 공연 실적

- 공연단체의 주요활동 장르별 공연실적을 살펴보면, 공연건수는 양악이 13,7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연일수와 공연횟수, 관객수는 연극이 각각 39,297일, 56,453회, 10,360,073명으로 가장 많았음.

〈표 231〉 공연단체 주요활동 장르별 공연 실적

구분	공연건수(건)	공연일수(일)	공연횟수(회)	관객수(명)
전체	39,994	84,035	104,208	28,097,083
연극	6,440	39,297	56,453	10,360,073
무용	4,475	5,593	6,330	2,280,831
양악	13,760	17,337	17,586	7,220,846
국악	11,982	16,372	17,274	5,820,125
복합	3,337	5,436	6,565	2,415,208

\* 공연단체 수: 2,364개

#### □ 공연단체 연간 인력 현황

- 공연단체의 연간 인력은 양악이 24,5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국악이 10,429명, 연극이 8,73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232〉 공연단체 연간 인력 현황

구분	연극	무용	양악	국악	복합	계
단체 수(개)	644	320	794	477	129	2,364
전체 인력 수(명)	8,738	5,827	24,533	10,429	1,667	51,194

\* 공연단체 수: 2,364개

## 제3절 문화예술 향유자

- 국가 발전의 목표가 경제성장에서 삶의 질로 전환되면서 문화예술의 공급에 대한 강조에서 문화예술향유의 효과에 주목하게 됨. 전반적인 향유수준에 더해 어떤 집단이, 어떤 장르의 문화예술을 얼마나 향유하는지와 같이 다양한 문화예술의 귀착(incidence) 정도에 관심이 높아짐. 문화예술향유에 있어서 수요측면에 대한 관심이 이를 반영함.
- 가치재(merit goods) 소비로서 문화향유에 대한 기대가 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 개인의 인성과 감성 차원에서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향유의 대상이 일부 특정 장르에 한정되어 있거나, 그러한 장르가 대부분 영화 관람 같은 수동적 향유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향유의 질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 향유 차원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강조되는 다양성과 관용의 결핍을, 공급 차원에서는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 집중에 따른 문화생태계의 불균형을 의미하기 때문임.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유지·전승이나 예술성 등 상업가치가 아닌 순수가치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예술 분야는 쉽게 도태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향유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음(김두아·금현섭, 2018: 116).

## 1. 국민여가활동조사

□ 지난 1년 동안 한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 유형(복수응답): 문화예술관람활동

- 2015~2016년 기준 문화예술관람활동은 영화관람이 61.6%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박물관 관람 10.2%, 연극공연 관람 9.9%, 전시회 관람 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3〉 국민여가활동조사의 문화예술관람활동

구분	영화 관람	박물관 관람	연극 공연 관람	전시회 관람	연예 공연 관람	전통 예술 공연 관람	음악 연주회 관람	무용 공연 관람
비율 (%)	61.6	10.2	9.9	9.3	8.3	3.7	3.6	1.7

□ 지난 1년 동안 한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 유형(복수응답): 문화예술참여활동

- 문화예술참여활동은 사진촬영이 16.3%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악기연주/노래교실이 6.6%, 미술활동이 3.3%, 문학행사참여가 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4〉 문화예술참여활동

구분	사진촬영	악기연주/ 노래교실	미술활동	문학행사 참여	글짓기/ 독서토론	전통예술 배우기	춤/무용
비율 (%)	16.3	6.6	3.3	3.1	2.4	1.2	0.8

## 2. 문화향수실태조사

### □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변화 추이

- 2015~2016년 기준 분야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영화가 73.3%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대중음악/연예가 14.6%, 연극이 13.0%, 미술전시회가 1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5〉 문화향수실태조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추이

(단위: %)

문화예술행사(%)	2003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전체	62.4	65.8	67.3	67.2	69.6	71.3	78.3 79.3**
문학행사	4.0	4.4	4.0	3.8	6.1	6.2	5.8
역사, 철학 강의 및 역사탐방	-	-	-	-	-	-	11.4
미술전시회	10.4	6.8	8.4	9.5	10.2	10.6	12.8
서양음악	6.3	3.6	4.9	4.8	4.8	4.9	4.5
전통예술	5.2	4.4	4.4	5.7	6.5	5.7	7.6
연극*	11.1	8.1	11.0	11.2	11.8	12.6	13.0
뮤지컬*					11.5	11.5	10.2
무용	1.1	0.7	0.9	1.4	2.0	2.4	1.3
영화	53.3	58.9	61.5	60.3	64.4	65.8	73.3
대중음악/연예	10.0	10.0	8.2	7.6	13.5	14.4	14.6

\* 2012년 조사부터는 연극과 뮤지컬을 세분화하여 구성함

\*\* 2016년 조사부터 '역사, 철학 관련 강의 및 역사탐방'이 추가됨

### □ 문화예술행사 연평균 관람횟수

- 전체 응답자 대상 분야별 문화예술행사 연평균 관람횟수는 영화가 3.7회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대중음악/연예가 0.5회, 미술전시회가 0.3회 등으로 나타났다.
- 관람자 대상 관람횟수는 영화가 5.05회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대중음악/연예가 3.66회, 무용이 2.75회 등으로 나타났다.

〈표 236〉 문화예술행사 연평균 관람횟수

(단위: 회)

문화예술행사(%)	전체		관람자 대상	
	2014년	2016년	2014년	2016년
문학행사	0.1	0.1	1.77	2.27
역사, 철학 강의 및 역사탐방	-	0.2	-	2.45
미술전시회	0.2	0.3	1.78	2.23
서양음악	0.1	0.1	1.43	1.74
전통예술	0.1	0.1	1.60	1.84
연극	0.2	0.2	1.74	1.79
뮤지컬	0.2	0.2	1.57	1.62
무용	0.05	0.04	2.08	2.75
영화	3.6	3.7	5.44	5.05
대중음악/연예	0.5	0.5	3.44	3.66

## □ 문화예술행사 관람 의향(복수응답)

- 분야별 문화예술행사 관람 의향은 영화가 78.5%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23.5%, 연극이 20.1%, 뮤지컬이 1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7〉 문화예술행사 관람 의향

구분	문학행사	역사, 철학강의/ 역사탐방	미술 전시회	서양음악	전통예술
비율(%)	6.9	10.9	16.1	6.7	10.8
구분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연예
비율(%)	20.1	19.7	3.2	78.5	23.5

## □ 매체를 통한 문화예술행사 관람 경험률

- 매체를 통한 문화예술행사 관람 경험률은 대중음악/연예가 79.6%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영화가 79.2%, 전통예술이 10.3%, 뮤지컬이 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8〉 매체를 통한 문화예술행사 관람 경험률

구분	문학행사	역사, 철학강의/ 역사탐방	미술 전시회	서양음악	전통예술
비율(%)	3.5	-	3.4	4.6	10.3
구분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연예
비율(%)	4.5	5.0	3.1	79.2	79.6



## 제5장

### 장르 분류체계 재설정(안)

제1절 : 장르 분류체계 재설정(안)

1. 장르 분류체계의 기본 방향
2. 장르 분류체계(안)
3. 기타 사업 분류체계

제2절 : 정책 제언

1. 시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2. 후속 연구

## 제1절 장르 분류체계 재설정(안)

## 1. 장르 분류체계의 기본 방향

- 장르 분류체계는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기능적 분류임.
- 창작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모두 포괄하는 문학예술,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비평으로 구성되며, 전통예술에 대한 관점에 따라 2가지 안을 제시함.
- 전통예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음.
  - 전통공연예술의 경우 국악 또는 전통예술이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시각예술의 경우 동양화(한국화) 또는 전통미술, 전통공예, 서예와 같이 세분화된 분류별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음. 문학예술의 경우 시조를 전통문학으로 볼 수 있으나, 문학예술에서 차지하는 비중(지원사업 신청자 기준)이 매우 작음.
  -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전통시각예술이나 전통문학예술과 같은 분류에 대해 정리된 관점이나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음.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전통에 대한 구분 없이 시각예술과 문학예술에서 관련 장르에 대한 지원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음. 공연예술의 경우에는 국악원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지원사업과 중복지원과 전통과 현대의 구분점에 대한 일부 논란은 있지만, 관련 장르를 검토할 수 있는 규모의 창작활동과 지원사업이 존재하며, 전통공연예술에 속하는 다양한 창작활동들에 대한 정의가 형성되어 있음. 현재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은 공연예술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전통과 현대를 구분하는 장르 설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 본 연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존 지원사업의 분류체계를 재설정하고,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장르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음. 전통예술과 관련하여 문학예술과 시각예술, 공연예술 장르에 대해서 모두 전통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안과 별도로 구분하는 안을 검토하였음.
  - 해외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몇몇 나라에서 전통예술을 지원하는 경우는 원주민 예술에 관한 것이 가장 보편적인 사례이지만, 우리나라의 상황과 상이함.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전통과 비전통을 구분하는 것과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전통예술에 대한 정의와 관련 장르 설정은 별도의 연구가 필요함.

- 대부분의 장르에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예술창작의 융·복합 추세를 반영하였으며, 장르 별 비평을 통합하여 하나의 비평 장르로 설정하고, 그 하위 분류에 대해 검토함.
- 그 외 창작의 산물에 대한 향유와 창작과 향유를 위한 기반구축에 해당하는 사업은 기타 사업 분류체계에서 분류방안을 제시함.
- 다른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확인하고, 중복지원 여부를 검토함.
  - 일부 분야의 경우 분류는 제시하되, 타 기관과 중복 지원사업이 있는 경우 특정 분야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지원사업 분류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함.
  - 복수의 지원기관이 존재할 수 있는 융·복합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함.
  - 지원사업 중복 현황을 통해 추후 지원사업 조정 및 정리를 추진할 수 있음.
- 기금지원은 창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전승과 계승은 별도의 정책 대상으로 검토함.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민족전통문화의 보전·계승 및 발전'과 상충하지만, 전통문화의 보전, 계승, 발전에 관한 별도의 기관이 복수로 존재하므로, 중복지원의 문제가 발생함.
  - 또한 해당 법의 제정 시기 및 취지를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문화예술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법 조문이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에는 관련 기관의 전문화와 분화에 따라 지원 대상도 법 조문에서 제시하는 것에 비해 축소되었음.
- 포괄범위는 시간의 흐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빠르게 변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지원사업에는 각 장르의 소분류만 활용할 것을 권장함.
  - 포괄범위에 제시한 것은 해당 소분류의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실제 지원사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포괄범위는 현장의 상황과 요구를 반영하여 결정해야 함.
  - 추가 설명이 필요한 일부 소분류에 대해서는 예시 또는 포함사항 등을 비교에 제시하였음.

## 2. 장르 분류체계(안)

### 가. 장르 분류체계의 구성

- 전통예술향 모든 장르에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1안과 전통예술향 별도의 장르로 정의하는 2안을 제시함.
- 1안의 경우 비전통예술향과 구분이 모호한 전통예술향을 각 장르에 포함함으로써 각 장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반면, 전통과 비전통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음.
  - 전통공연예술향의 경우 기존의 분류체계에서 큰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자 및 행정업무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통과 비전통의 구분이 모호함
- 2안의 경우 전통예술향을 별도의 장르로 구분함으로써 전통예술향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으며,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지원사업 신청자 및 행정업무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음.
  - 다만 문학예술향과 시각예술향 장르에서 전통예술향을 별도로 분리함에 따라 일부 지원사업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
  - 기존의 공연예술향 각 장르와 구분(경계)이 모호하기 때문에 다른 장르의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통공연예술향을 전담하여 지원하는 기관과 지원업무가 중복됨.

〈표 239〉 장르 재설정(안) 특징 비교

구분	1안	2안
특징	모든 장르가 전통예술향을 포함한 것으로 설정	전통예술향을 별도의 장르로 제시하며, 기존 분류체계와 유사
장점	구분과 경계가 모호한 전통예술향의 창작을 포괄하며, 각 장르의 특성 반영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지원사업 신청자 및 행정업무 혼선 방지하고, 전통예술향의 독립성 강화
단점	분류체계 변경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자와 행정업무의 혼선이 발생하며, 전통과 비전통의 구분 모호	전통과 비전통 간의 경계가 모호하여 중복 신청 가능하며, 전통예술향 전담 지원기관과 지원사업 중복

□ 각 장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음.

- 문학예술
  - 언어로 된 예술로 시, 소설, 수필, 희곡 등을 포함하는 장르
- 시각예술
  - 시각적 감각에 기반한 예술로 미술, 설치, 서예, 사진, 건축, 미디어 아트 등을 포함하는 장르
- 공연예술
  - 무대에서 공연되는 형태의 예술로 연극, 무용, 음악 등을 포함하는 장르
- 전통예술
  - 전통예술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문학예술, 전통시각예술, 전통공연예술을 포함하는 장르
- 다원예술
  - 사회적 가치와 다양성을 추구하는 예술로 융·복합예술을 포함하는 장르
- 예술비평
  - 예술작품에 대한 비판적 논의이며, 예술의 각 장르에 대한 비평을 포함하는 장르

〈표 240〉 전통예술 분류(안) 비교

1안		2안	
장르	소분류	장르	소분류
문학예술	시	문학예술	시
	소설		소설
	수필		수필
	희곡		희곡
시각예술	미술	시각예술	미술
	설치		설치
	서예		서예
	사진		사진
	건축		건축
	미디어 아트		미디어 아트
공연예술	연극	공연예술	연극
	무용		무용
	음악		음악
※ 전통예술을 각 장르에 포함		전통예술	전통문학예술
			전통시각예술
			전통공연예술
다원예술	융·복합예술	다원예술	융·복합예술
	다양성예술		다양성예술
예술비평	문학예술 비평	예술비평	문학예술 비평
	시각예술 비평		시각예술 비평
	공연예술 비평		공연예술 비평
	다원예술 비평		다원예술 비평

## 나. 문학예술

□ 문학예술 분야 중 타기관에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대한민국예술원: 창작 지원(문학 분과)
- 한국문학번역원: 번역 지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문학(창작준비금 지원사업)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창작 지원(문학)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 지원
- 지역 문화재단
  - 강원문화재단: 전문예술창작지원, 신진예술가창작활동지원, 원로예술인지원
  - 경기문화재단: 창작 지원(유망작가, 우수작가 지원, 경기작가문학창작집)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신진 창작 활동지원, 예술서적 발간지원, 예술일반활동지원, 원로예술인활동지원
  - 광주문화재단: 기초창작지원, 전문창작지원, 개인예술가지원, 청년예술인창작지원(문학, 출판)
  - 대구문화재단: 창작지원(창작 형태의 문학 작품집 및 동인지 발간, 창작 기획 사업, 창작 문학행사), 활동지원(연례)
  - 대전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문학)
  -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문학), 기획특화지원영역지원(올해의 문학, 다원예술, 공공예술기획, 창작공간활성화지원, 국제예술교류, 브랜드콘텐츠제작, 청년연출가작품제작지원, 거리예술), 부산원로예술인창작지원(문학)
  - 서울문화재단: 문학첫책발간지원, 문학창작집 발간지원
  - 세종시문화재단: 기초예술창작지원(문학예술)
  - 인천문화재단: 예술표현활동지원(문학·출판)
  -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문학)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창작(문학)
  - 제주문화예술재단: 전문예술창작지원(문학: 시, 시조, 소설, 희곡, 수필, 동시, 동화,

평론, 기타), 원로예술가회고사업 지원

- 충남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창작지원(문학), 신진예술창작지원(시, 시조, 희곡, 소설)
- 충북문화재단: 충북문화예술육성지원(문학: 시, 시조, 아동문학, 소설, 수필, 희곡, 평론)

□ 문학예술은 전통예술의 포함여부에 따라 1안과 2안으로 나뉘며, 각 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소분류 및 포괄범위를 가짐.

(1) 1안: 전통예술 포함

〈표 241〉 전통예술의 소분류 및 포괄범위: 1안(전통예술 포함)

장르	소분류	포괄범위	비고
문학예술	시	시	
		시조	
		동시	
	소설	소설	
		아동·청소년소설	아동소설(동화 포함), 청소년소설 등
	수필	수필	
	희곡	희곡	

(2) 2안: 전통예술 분리

〈표 242〉 전통예술의 소분류 및 포괄범위: 2안(전통예술 분리)

장르	소분류	포괄범위	비고
문학예술	시	시	
		동시	
	소설	소설	
		아동·청소년소설	아동소설(동화 포함), 청소년소설 등
	수필	수필	
	희곡	희곡	



### 다. 시각예술

□ 시각예술 분야 중 타기관에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대한민국예술원: 창작 지원(미술 분과)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
-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예술(작가미술장터 개설 지원, 미술품 대여사업 지원, 예비전속작가제 지원, 아트페어 활성화 지원,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지원, 시각예술 매개인력양성, 미술품 감정기반 구축, 한국미술 해외출판지원, 한국미술담론활성화, 미술주간)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 디자인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창작 지원(시각)
- 한국콘텐츠진흥원: 만화, 방송
- 지역 문화재단
  - 강원문화재단: 전문예술창작지원, 신진예술가창작활동지원
  - 경기문화재단: 창작 지원(유망작가, 우수작가 창작지원, 작품집 출간)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신진 창작 활동, 예술서적 발간, 예술일반활동, 원로예술인활동
  - 광주문화재단: 기초창작지원, 전문창작지원, 개인예술가지원(공통: 미술, 사진), 청년 예술인창작지원(미술, 사진, 영상, 서예, 공예, 영화, 만화)
  - 대구문화재단: 창작지원(미술·사진·건축·영상·기타(영화, 웹툰) 창작 전시회, 창작 기획사업, 비상업적 작품 발표 활동), 활동지원(연례), 기초기획지원(회화, 서예, 입체, 설치, 영상, 사진, 건축 등 시각예술 전 분야의 기획전시사업, 시각예술을 활용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지역미술의 역사성과 전통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 우수기획지원, 집중기획지원
  - 대전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시각)
  -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미술, 사진, 영상)
  -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지원, 시각예술중견작가작품집 발간지원, 유망예술지원
  - 세종시문화재단: 기초예술창작지원(미술, 사진, 서예, 공예, 디자인)
  - 인천문화재단: 예술표현활동지원(시각예술)

-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시각예술)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창작지원(미술, 공예, 사진, 서예)
- 제주문화예술재단: 전문예술창작지원(시각: 한국화, 서양화, 서예, 판화, 설치, 사진, 공예, 건축, 기획, 디자인, 조소, 도예, 기타), 원로예술가회고사업지원
- 충남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창작지원(시각, 사진), 신진예술창작지원(순수미술, 서예, 사진, 영상)
- 충북문화재단: 충북문화예술육성지원(미술: 한국화, 서양화, 공예, 조소, 디자인, 서예, 영상)

□ 시각예술은 전통예술의 포함여부에 따라 1안과 2안으로 나뉘며, 각 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소분류 및 포괄범위를 가짐.

(1) 1안: 전통예술 포함

〈표 243〉 시각예술의 소분류 및 포괄범위: 1안(전통예술 포함)

장르	소분류	포괄범위	비고
시각예술	미술	회화	한국화(민속화 포함), 서양화(드로잉 포함) 등
		조각	조각, 소조 등
		판화	
	설치	설치	공간과 관계 포함
	서예	서예	
	사진	사진	상업 사진 제외
	건축	건축	건물, 주택 개념 제외
	미디어 아트	오디오	
		비디오	
		복합	

## (2) 2안: 전통예술 분리

〈표 244〉 시각예술의 소분류 및 포괄범위: 2안(전통예술 분리)

장르	소분류	포괄범위	비고
시각예술	미술	회화	서양화(드로잉 포함) 등
		조각	조각, 소조 등
		판화	
	설치	설치	공간과 관계 포함
	사진	사진	상업 사진 제외
	건축	건축	건물, 주택 개념 제외
	미디어 아트	오디오	
		비디오	
		복합	

## 라. 공연예술

□ 공연예술 분야 중 타기관에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대한민국예술원: 창작 지원(음악 분과, 연극·영화·무용 분과)
- 아시아문화전당: 창작 지원(젊은 공연예술 창작자 인큐베이팅, 2017기준)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공연예술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창작 지원(공연)
-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
- 지역 문화재단
  - 강원문화재단: 전문예술창작지원(무용, 연극, 음악), 신진예술가창작활동지원(공연예술)
  - 경기문화재단: 창작 지원(공연창작, 제작초연, 우수공연)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신진 창작 활동지원, 예술서적 발간지원, 예술일반활동, 원로예술인활동지원
  - 광주문화재단: 기초창작지원, 전문창작지원, 개인예술가지원(공통: 음악, 연극, 무용),

청년예술인창작지원(음악, 무용, 연극, 전통, 다원(복합장르))

- 대구문화재단: 창작지원(연극·무용·음악·전통·다원예술 분야의 작품에 대한 예술단체의 창작 공연(발표 및 연주회, 행사 등), 창작 공연행사, 창작 경연대회, 복합장르에 걸친 창작 예술활동), 활동지원(연례), 기초기획지원(연극: 창작극, 번역극, 뮤지컬 / 무용: 한국무용(전통/창작), 현대무용, 발레 / 음악: 합창, 소오페라(음악극), 교성곡, 관현악, 실내악 / 국악: 국악 관현악, 국악 실내악, 창극(창작창극 포함) / 우수기획지원, 집중기획지원
- 대전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음악, 무용, 연극),
-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음악, 연극, 무용)
-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지원, 최초예술지원, 서울청년예술단(연극, 무용, 음악), 유망예술지원(연극, 무용, 음악)
- 세종시문화재단: 기초예술창작지원(연극, 무용, 음악)
- 인천문화재단: 예술표현활동지원(연극, 음악, 무용)
-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공연예술)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창작지원(음악, 무용, 연극)
- 제주문화예술재단: 전문예술창작지원(공연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원로예술가회고사업지원
- 충남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창작지원(음악, 무용, 연극), 신진예술창작지원(공연예술: 음악, 전통, 국악, 무용, 연극)
- 충북문화재단: 충북문화예술육성지원(음악, 무용, 연극)

□ 공연예술은 전통예술의 포함여부에 따라 1안과 2안으로 나뉘며, 각 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소분류 및 포괄범위를 가짐.

## (1) 1안: 전통예술 포함

〈표 245〉 공연예술의 소분류 및 포괄범위: 1안(전통예술 포함)

장르	소분류	포괄범위	비고
공연예술	연극	연극	연극(거리극 포함), 마임, 넌버벌, 인형극, 아동극(어린이극) 등
		뮤지컬	
		음악극	
		전통연희	전통연희, 무속, 창작연희, 창극 등
	무용	한국무용	한국창작무용
		현대무용	
		발레	
		전통무용	궁중무용, 신무용, 민속무용 등
	음악	오페라	
		기악	관현악, 실내악, 독주 등
		성악	합창, 중창, 독창 등
		전통음악	정악, 민속악, 창작음악, 판소리, 농악, 사물놀이 등

## (2) 2안: 전통예술 분리

〈표 246〉 공연예술의 소분류 및 포괄범위: 2안(전통예술 분리)

장르	소분류	포괄범위	비고
공연예술	연극	연극	연극(거리극 포함), 마임, 넌버벌, 인형극, 아동극(어린이극) 등
		뮤지컬	
		음악극	
	무용	한국무용	한국창작무용
		현대무용	
		발레	
	음악	오페라	
		기악	관현악, 실내악, 독주 등
		성악	합창, 중창, 독창 등

### 마. 전통예술

□ 공연예술 분야 중 타기관에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국립국악원: 국악
-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통예술(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신진국악실험무대, 창작연희 작품공모, 전국품물상설지원 등)
- 한국문화재단: 무형문화재, 문화유산
- 지역 문화재단
  - 강원문화재단: 전문예술창작지원(전통예술)
  - 광주문화재단: 기초창작지원, 전문창작지원, 개인예술가지원
  - 대전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 국악야외상설공연지원
  -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전통, 국악)
  -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지원, 유망예술지원
  - 세종시문화재단: 기초예술창작지원(국악, 시조, 민속)
  - 인천문화재단: 예술표현활동지원(전통예술)
  -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전통예술)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창작지원(전통예술)
  - 충남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창작지원(전통예술)
  - 충북문화재단: 충북문화예술육성지원(전통예술)

□ 전통예술은 다음과 같은 소분류 및 포괄범위를 가짐.

〈표 247〉 전통예술의 소분류 및 포괄범위

장르	소분류	포괄범위	비고
전통예술	전통문학 예술	시조	
	전통시각 예술	전통미술	
		서예	
	전통공연 예술	전통음악	정악, 민속악, 창작음악 등
		전통무용	궁중무용, 신무용, 민속무용 등
		전통연희	전통연희, 무속, 창작연희 등
		혼합	사물놀이, 창극, 판소리, 농악 등

#### 바. 융·복합예술

□ 융·복합예술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일부 기관은 주된 사업과 관련된 융·복합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 다만, 프로젝트성 전시 사업으로 융·복합 예술을 지원하는 다음의 기관이 있음.

- 국립현대미술관: 다원예술(융·복합 예술 전시)
- 아시아문화원: 융·복합 예술(인력 양성)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유망예술 프로젝트 지원(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협업을 통한 융복합적 실험 프로그램)
-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 융복합예술
- 지역 문화재단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뉴-아트창작공연지원(4차산업시대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예술 창작 활성화)
  - 대구문화재단: 창작지원(복합장르에 걸친 창작 예술활동)
  - 세종시문화재단: 기초예술창작지원(복합다원예술)
  - 제주문화예술재단: 전문예술창작지원(다원예술: 융복합형, 실험, 복합, 대중)

□ 융·복합예술은 다음과 같은 소분류 및 포괄범위를 가짐.

〈표 248〉 융·복합예술의 소분류 및 포괄범위

장르	소분류	포괄범위	비고
융·복합예술	예술장르 간 융·복합	타 장르 간 융·복합예술	문학예술과 공연예술의 융·복합,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의 융·복합 등
		미제시 장르 간 융·복합예술	영화와 융·복합, 만화와 융·복합, 대중예술과 융·복합 등
	비예술과 융·복합	기술과 융·복합예술	하이퍼텍스트 문학, 홀로그램 공연, 가상현실(VR) 공연 및 전시 등
		사회와 융·복합예술	
		정치와 융·복합예술	

□ 융·복합예술의 장르간 융합은 본 분류체계에서 제시하지 않은 분류와 융·복합도 포함함. 예를 들면, 영화, 만화, 방송, 디자인 등이 해당될 수 있음.

#### 사. 예술비평

□ 예술비평을 전 분야에 걸쳐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은 찾아보기 어려움. 일부 장르와 관련하여 비평을 지원하는 기관은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예술 분야 지원 사업 중 한국미술 담론화(시각예술 비평가-매체 매칭 지원 사업)
- 지역 문화재단
  - 강원문화재단: 연구·평론
  - 대전문화재단: 문화예술연구 및 평론지원(문학예술, 시각예술, 공연예술[음악, 전통(국악), 무용, 연극, 예술일반], 다원예술)
  -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연구 및 평론지원

□ 예술비평은 다음과 같은 소분류 및 포괄범위를 가짐



〈표 249〉 예술비평의 소분류 및 포괄범위

장르	소분류	포괄범위	비고
예술비평	문학예술 비평	시, 소설, 수필, 희곡 등에 대한 비평	
	시각예술 비평	미술, 설치, 서예, 사진, 건축, 미디어 아트 등에 대한 비평	
	공연예술 비평	연극, 무용, 음악 등에 대 한 비평	
	전통예술 비평	전통문학예술, 전통시각 예술, 전통공연예술 등에 대한 비평	※ 1안의 경우 전통예술비평을 각 장르별 비평에 통합 함
	다원예술 비평	융·복합예술, 다양성 예 술 등에 대한 비평	

### 3. 기타 사업 분류체계

#### 가. 예술향유 관련 사업의 분류체계

□ 예술향유 관련 사업 중 타기관에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문예회관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역민 향유 확대 차원)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 지원(공연, 시각예술, 문학), 동호회 활동 지원(장애인 예술 체험 프로그램 지원)
- 지역 문화재단
  - 대전문화재단: 지역오페라단공연활동지원(그랜드오페라 향유차원), 장애인창작 및 문화예술 활동지원, 대전마을합창단 운영, 지역예술가공연 및 프리마켓
  - 세종시문화재단: 찾아가는문화활동지원(문화소외계층)
  - 울산문화재단: 통합문화이용권사업(소외계층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음악, 무용, 전통예술(국악), 대중예술, 연극, 다원예술), 울산시민문화예술아카데미
  - 인천문화재단: 장애인문화활동지원, 찾아가는문화활동지원(문화소외계층)
  - 충북문화재단: 찾아가는문화활동지원(문화소외계층)

□ 예술향유는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를 말하는 것으로 예술체험, 예술관람, 예술교육 및 학습, 그리고 이들의 복합을 포함하는 분류로 정의함. 예술향유는 다음과 같은 소분류 및 포괄범위를 가짐.

〈표 250〉 예술향유의 사업 및 소분류, 포괄범위

사업	소분류	포괄범위	비고
예술향유	예술체험	각 장르에 대한 체험 지원사업	
	예술관람	각 장르에 대한 관람 지원사업	
	예술교육 및 학습	각 장르에 대한 교육 및 학습 지원사업	
	복합	각 장르에 대한 예술향유의 복합 지원사업	체험, 관람, 교육 및 학습 중 2개 이상이 복합적으로 포함되는 지원사업

#### 나. 기반구축 관련 사업의 분류체계

□ 기반구축 관련 사업 중 타기관에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스 지원(미술)
- 대한민국예술원: 국제교류(예술인 국제행사 지원)
- 아시아문화원: 아시아 국제교류, 문화 ODA, 창작단체 지원(어린이공연)
-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제교류(음악, 무용, 연희 등 민간예술단체의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국제교류 및 예술인력 육성, 단체지원
- 한국국악협회: 예술강사 지원사업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국가 간 문화산업 교류 및 협력기반 조성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정책연구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교육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지역 문예회관 활성화 지원, 문화예술회관 종사자 해외 연수, 문예회관 운영현황 조사 연구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지원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장애인 예술가 육성), 국제교류 지원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국제교류(예술교류, 국제도서전)
- 지역 문화재단
  - 강원문화재단: 문화예술공간지원
  - 경기문화재단: 지역 거점공간 조성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문학, 시각예술)
  - 광주문화재단: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문학, 미술, 사진, 음악, 연극, 무용, 국악, 다원), 지역특화문화거점 지원(문학, 미술, 사진, 음악, 연극, 무용, 국악, 다원)
  - 대구문화재단: 가창창작스튜디오 지원(시각예술)
  - 대전문화재단: 레지던스 지원(문학예술, 시각예술, 공연예술[음악, 전통(국악), 무용, 연극, 다원예술])
  - 부산문화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운영 지원
  - 서울문화재단: 창작작업실 및 연습실지원(연극, 무용, 음악, 전통, 시각, 다원, 문학), 장애예술인활성화지원(연극, 무용, 음악, 전통, 시각, 다원, 문학)
  - 세종시문화재단: 레지던스 육성지원
  -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공간연계형창작지원사업(레지던스프로그램)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레지던스프로그램(문학, 시각예술(다원 및 복합예술 포함)), 소극장(소공연장) 지원, 민간문화시설(문화가있는날)운영지원
  - 제주문화예술재단: 창작공간프로그램지원(문학, 시각, 공연, 다원예술), 대안문화공간 지원(소규모행사 및 발표 지원)
  - 충남문화재단: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문학, 시각, 공연)
  - 충북문화재단: 창작거점공간지원(문학, 시각, 다원예술의 단체), 예술인창작활동준비금지원
  - 강원문화재단: 전문예술인육성지원(문학, 시각, 무용, 연극, 음악, 전통, 예술일반)<sup>184)</sup>, 생애최초지원(시각, 문학, 공연예술),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문화예술교류지원(문학, 시각예술, 무용, 연극, 음악, 전통예술), 강원문화예술아카데미

<sup>184)</sup> 예술일반의 경우 장르혼합형 예술제, 축제에 한해 지원

- 경기문화재단: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경기예술활동지원(예술인 공모, 기초문화재단 대상 공모지원), 경기북부 문화예술 공모지원(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시·도문화예술기획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 차세대유망예술인 양성(시각예술, 공연예술)
- 광주문화재단: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문화예술교류지원(문학, 공연, 시각, 전통, 다원예술)
- 대구문화재단: 학술평간지원, 국제화지원(해외진출활동, 국제회의, 축제 등), 스타트업 지원(문학, 공연예술, 시각예술), 청년예술가지원, 개인예술가창작지원(문학-평론 포함, 공연예술, 시각예술), 해외활동지원(문화예술 전 분야), 다비네트워크사업(시각, 무용),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운영활성화 지원(공연예술), 제작역량지원(공연예술)
- 대전문화재단: 차세대artistar 지원,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문학예술, 시각예술, 공연 예술[음악, 전통(국악), 무용, 연극, 예술일반, 다원예술],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첫술프로젝트, 청년예술인창작 및 공연장 지원, 원도심문화예술활동거점공간지원, 원도심활성화사업, 청춘마이크, 우리마을문화공동체사업, 대전마을합창축제, 대통령 상전국합창경연대회, 대전국제기타페스티벌
- 부산문화재단: 메세나활성화지원, 청년문화집중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문화 예술분야연구창작활동지원, 문화포럼개최지원
- 서울문화재단: 예술축제지원, 예술연구서적발간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연극, 무용, 음악, 전통), 청년예술지원(최초예술지원, 서울청년예술단, 청년예술공간지원)
- 세종시문화재단: 기초예술창작지원(예술교류), 신진예술가발굴, 문화예술연구지원, 문화예술자원특성화기획,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세종예술제
- 울산문화재단: 공연장상주단체지원(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울산메세나지원, 국제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지원, 울산청년문화기반 구축, 울산형문화예술콘텐츠발굴(처용문화제, 아시아퍼시픽뮤직미팅),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구축,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예술교육사인턴십
- 인천문화재단: 신진예술가발굴지원-바로 그 지원(모든 장르), 청년예술인생애처음지원(문학, 시각, 공연, 기타), 인천꿈다락토요문화학교, 지역문화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 예술동아리교육지원,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시설문화예술교육사지원
-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문화예술연구), 문화예술해외교류지원

사업, 공연예술작품제작지원사업, 남도문예르네상스기획사업(전남만의 특화된 브랜드 개발), 청년예술가 활동 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문화예술교육지원(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 꿈다락토요문화학교, 풀뿌리문화예술교육지원,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예술교육사인턴십지원, 서시풍속마을문화지원사)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국악, 음악, 연극, 무용, 다원예술 관련 단체), 해외전시지원사업[시각예술(입체+평면포함)], 전북나우페스티벌개최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국제문화교류지원, 전북문화상생(메세나)지원, 문화가있는날(청춘마이크)지원
- 제주문화예술재단: 최초예술지원(문학, 시각, 공연, 다원예술 전 장르 기능), 예술활력 프로젝트(연구, 조사, 제작 등), 국제예술교류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충남문화재단: 충남향토문화예술육성지원[향토사, 향토예술사 연구/시각(그룹전, 공모)/공연(지역예술, 축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지역특화문화브랜드기획지원(지역문화자원 연계기획 기획사업 및 공공프로젝트)
- 충북문화재단: 신생예술단체지원, 충북대표문화공연제작지원, 충북문화예술육성지원(단체 지원), 충북자유기획지원사업, 충북문화예술육성지원(국제교류), 충북공동창작작품지원(홍보, 마케팅),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청년예술가창작환경지원(문학, 시각, 공연), 충북미술가서울전시회운영비지원

□ 기반구축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향유를 지원하고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예술인력 육성과 단체 및 기관 지원, 국제교류 등을 포함하는 장르로 정의함. 기반구축은 다음과 같은 소분류 및 포괄범위를 가짐

〈표 251〉 기반구축의 사업 및 소분류, 포괄범위

사업	소분류	포괄범위	비고
예술인력육 성	차세대(청 년)	개인	
	예술인력	단체	
	기성 창작 및 현장예술 인력	개인	레지던스 프로그램 포함
		단체	
단체·기관 지원	민간단체	민간단체	공연장 지원 포함
	공공기관	전국	
		지역	
국제교류	예술교류	국가간 교류	학술교류, 인적교류, 행사교류 등 포함
		단체간 교류	학술교류, 인적교류, 행사교류 등 포함
	예술지원	예술지원	ODA 포함

## 제2절 정책 제언

## 1. 시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여 다원예술을 구체화하고 비평 장르를 중분류로 설정하였으며, 전통예술을 포함한 각 장르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한 분류체계를 검토하였음.
-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현 단계에 적용가능한 수준으로 제시한 2개의 장르분류체계(안)은 예술지원 사업의 분류체계로 완전한 대안이 될 수 없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지원 사업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 이해관계자 및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의견수렴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함.
-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이해관계자는 다음과 같음.
  - 예술가(각 장르별 및 장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 창작자 및 비평가 포함)
  - 예술 관련 현장인력(기획자 포함)
  - 예술 관련 민간단체 종사자
  - 예술 관련 공공기관 및 위원회 종사자
  - 예술 관련 학계 종사자
  - 향유자(시민)
- 각 장르별 분류체계 총위의 적합성과 지원의 적절성 논의에 앞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와 지원의 방향성을 검토해 합의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예술지원사업의 가치와 방향성에 대한 토론은 연구진이 제안한 안의 쟁점 사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음.
- 특히 여러 기관의 장르별 중복지원 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포함하여 장르별 갈등상황에 대한 해결 및 대안도출까지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차원의 예술지원 사업 구조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음.
-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워크숍, FGI, 심층면접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가. 워크숍

- 시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워크숍은 크게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워크숍과 아무런 제약 없이 예술지원사업의 미래를 상상해보는 워크숍을 진행해 그 대안을 살펴볼 수 있음.
- 다양한 공공재원을 복수의 기관이 동일한 분야에 지원하고 있는 현행 지원사업체계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해 볼 수 있음.
- 또한 국가 단위의 지원체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단위의 재단 및 지원기관과 차별성을 검토할 수 있는 의견수렴도 필요함.
  - 창작과 향유의 주체는 시민(예술가 또한 시민)이며,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가 및 지역차원의 예술지원사업들의 우선순위와 연계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다음과 같이 시민들과 진행한 워크숍 운영사례를 참조해 향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장르 분류체계에 적합한 이해관계자 및 시민의견수렴의 장 설계를 제안함.

## 〈표 252〉 워크숍 사례1: '사회적 가치'의 의견 수렴을 위한 워크숍(노란테이블)

- 노란테이블은 희망제작소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해 우리 사회의 안전과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고안한 토론 톨킷으로, 이를 가지고 300인 원탁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워크숍이 진행됨.
- 300인 원탁회의 개요<sup>185)</sup>
  - 1) 일시: 2014년 7월 18일(금) 오후 6:30 ~ 10:00 / 장소: 수운회관
  - 2) 참가자: 10대 청소년 ~ 시니어까지, 300명
  - 3) 형식: 시민참여형 원탁회의(희망제작소 제작 '시민토론 톨킷' 활용)
  - 4) 주제: 세월호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 시민토론은 이슈와 문제를 발견하고, 변화를 상상하는 단계로 구성됨.
- 이슈발견과 문제발견은 참여한 시민들이 사례를 바탕으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임.



- '변화상상' 단계는 지금까지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대안을 나누는 시간으로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및 키워드를 바탕으로 자신이 상상하는 미래를 토론함.
- 각각의 이야기는 키워드를 연결해가며 진행되며,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한 후에는 함께 상상한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행동에 어떤 것이 있는지 직접 적어봄.



<sup>185)</sup> 관련 스케치: <https://www.makehope.org/?p=19951>

〈표 253〉 워크숍 사례2: 제약조건을 넘어 미래를 상상해 보는 워크숍(광복 100년)

- ‘광복100년, 대한민국의 상상’은 희망제작소가 2015년 광복70년을 맞아 30년 후인 2045년 대한민국의 모습을 상상해본 것으로 20대 청년들이 그려본 ‘소셜픽션 컨퍼런스’와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상상테이블’, 이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눈 ‘토크콘서트’로 구성됨.<sup>186)</sup>
- 개요
  - 소셜픽션 컨퍼런스
    - 대상: 우리나라의 미래를 함께 상상하고픈 20대 누구나(주제별 14명씩 총 70명)
    - 주제: 2045 대한민국의 5대 미래 과제
  - 상상테이블
    - 개최 및 대상: 우리나라의 미래를 함께 상상하고픈 누구나 자유롭게 테이블 개설 및 참여
    - 주제: 2045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
- 소셜픽션은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제약요소를 걷어내고, 바라는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현재 필요한 대안을 찾아보는 워크숍으로 크게 상상을 위한 준비단계와 상상단계, 공유단계로 나눌 수 있음.
- 준비단계에서는 ① 현실(상상을 막는)적 제약요소들(제도적, 문화적, 개인적, 윤리적, 기타)을 날리고, ② 관련 주제(노동·일자리, 교육, 복지, 환경, 민주주의·소통, 통일)에 관한 상상을 확장하고, ③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상상을 깊이 있게 함. 이후 ④ 함께 논의할 키워드를 정의함.
- 상상단계에서는 정의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30년 후 ⑤ 미래를 상상해 그림을 그려봄. 이후 ⑥ 상상이 현실이 되었을 때 변화를 상상하고, ⑦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찾아봄. 마지막으로 기준을 바탕으로 ⑧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봄.
- 공유단계에서는 주제별로 나누었던 위 과정의 내용들을 공유하였으며, 이후 세대별로 변화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봄으로써 미래의 상을 더욱 구체화 함. 그 결과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각 분야별로 제시됨.



#### 나. FGI 및 심층면접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워크숍을 통해 진행하기에 앞서 전문가 및 비평가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수행해야 함.
- 문화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수렴뿐만 아니라 장르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FGI( Focus Group Interview, 표적집단면접)와 심층면접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서 문화예술 전반에 관한 전문가(비평가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면접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며, 세분화한 장르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FGI)이 포함되도록 설계해야 함. 특히 각 장르별 전문가의 경우 해당 장르의 이익 수호의 관점에서 벗어나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목적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적합한 자료의 제공이 필수적임.
- 이 과정을 통해 제시되고 정리한 내용을 워크숍 설계 과정에 반영하여 이해당사자 및 시민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86)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SERIES/661/681719.html>

## 2. 후속 연구

- 본 과제는 2020년 적용을 목표로 현행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장르를 재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이에 현행 사업 지원체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예술지원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돌하는 현상이며, 국가의 문화예술 지원체계와 맞물려 있는 거시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합의를 만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정책 분야임.
- 추후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함.
  - 문예진흥기금의 사용 목적에 대한 합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장기적 조직운영 목적(비전)에 대한 논의
  - 국내의 공공 및 민간을 포괄하는 예술지원사업에 대한 현황 및 관계 분석
  - 각 장르에서 전통예술의 포함 또는 분리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
  - 기능적 분류뿐만 아니라 공공예술, 참여예술, 다양성 예술 등 다원예술과 이를 포괄하는 가치에 따른 분류체계 추가 연구
  - 아마추어 예술, 생활예술과 같이 새로운 지원대상에 대한 적절성 검토
  - 해외 사례에 대해 통시적 관점의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한국 현실에 반영할 수 있는 유의미한 내용 도출
  - 예술지원사업 전체뿐만 아니라 각 장르별 의견 수렴을 통한 합의 형성(앞서 제시한 워크숍, FGI, 심층면접 등의 방법 활용)
  - 지속해서 변화하고 생성되는 문화예술 장르를 반영할 수 있는 주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절차 마련
- 본 연구에서는 전통예술에 대한 중복지원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전통예술에 대한 지원은 국가 수준의 예술지원정책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전통예술을 포함한 각 장르별 지원체계(제도, 기관을 포괄)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혼재하고 있는 지원체계를 정리해야 함.

## 참고문헌

### 논문 및 단행본, 연구보고서 등

- 강순애(2011), KDC 제5판 '한국음악(전 국악) 및 동양 전통음악의 항목 전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49: 107-142
- 경기문화재단(2018), 2019년 경기도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신청안내
- 고종환(2014), 한 권으로 읽는 연극의 역사, 지앤유
- 공현희(2008), 만화의 미술작품 응용에 대한 연구, 디자인지식저널 8: 195-202
- 구본철(2014), 시드니의 『시를 위한 변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통합적 비전, 신영어영문학 57, 23-41
- 국립현대미술관(1999), 근대를 보는 눈, 삶과 꿈
- 권순왕(2013), 판화란 무엇인가?, 예술과 미디어 12(3): 91-111
- 김경식·신철호(2018), 미술과 영상을 활용한 융복합 공연연구- 실험극 〈걱정마, 행복아〉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2(1): 81-92
- 김경원·박영원(2017), 미디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커뮤니케이션디자인의 개념과 범주에 관한 연구 - 그래픽스 기초사각형을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53 : 7-30
- 김경은(2016), '전통의 현대화'에 대한 개념화 - 한국 전통가문의 집에 대한 해석, 정신문화연구 39(4): 7-36
- 김동규(2015), 새장르 공공예술과 공공철학, 사회와 철학 (29): 211-242
- 김두이·금현섭(2018), 문화예술향유의 다양성 측면에 대한 분석, 문화정책논총, 32(2), 115-143
- 김미기(2006), 니체의 실험미학과 현대예술: 현대무용에 나타난 니체 무용미학의 영향에 대한 분석 - 던컨과 커닝엄을 중심으로, 니체연구 10: 143-173.
- 김미도(2008), 한국연극사 서술의 반성과 과제: 시대구분과 장르구분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44, 215-237
- 김민경(2014), 현대건축의 발생학적 도구로서의 '퍼포먼스(performance)'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0(9): 25-34
- 김민수(1997), 21세기 디자인 문화 탐사, 솔
- 김민주(2015), 문화정책의 이론적 논거와 유형, 사회과학연구, 31(3): 133-157
- 김백균(2006), 매체의 관점으로 본 “시서화일률(詩書畫一律)”론: 동양 ‘예술’과 ‘예술작품’ 관계에 대한 시론, 한국미학회지 제48집.
- 김백균(2010), 한국화, 추상 담론의 가능성 탐색, 미술사학보 35: 115-138
- 김백균(2015), 근대 예술개념 안에서 서예의 이해, 미술교육연구논총 40: 191-206
- 김상욱(2009), 아동문학의 장르와 용어, 아동청소년문학연구 (4): 7-29
- 김선미·김익한(2011), 만화기록 관리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28): 35-81
- 김선미(2011), 만화기록 관리 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진(2011), 청소년 소설의 장르적 특징과 문학교육, 비평문학 (39), 60-83
- 김세연 (2005), 문화상품으로서 전통예술공연의 발전 가능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용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세훈(2013, 문화예술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 김수남(1997), 영화예술의 이해, 청주대학교 출판부
- 김승연·김화진(2016), 21세기(21世紀) 현대판화(現代版畫)의 동향연구(動向研究) -국제판화전(國際版畫展)을 중심(中心)으로-, 기초조형학연구 17(1) : 89-99

29. 김시범(2018), 문화산업의 법률적 정의 및 개념 고찰, 인문콘텐츠, (48): 33-59
30. 김영철(2016), 건축과 아키텍처 개념의 정의와 비교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77-386
31. 김영철(2018), '건축(建築)'과 '아키텍처(Architecture)'에서 아키텍토니케(Architektonike)개념의 수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34(9) : 87-96
32. 김의석 (2017), 예술인 중심의 문화예술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3. 김아순(2011), 한국근현대미술에서 "조각" 개념과 그 전개,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22집 : 36-53
34. 김장용(2011), 조형예술에서의 상상력, 교양논총 5 : 81-99
35. 김종선(2015), 공예, 디자인, 예술의 개념 융합을 통한 산업 유형의 특징,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1(3): 219-229
36. 김종희 외(2007), 문학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37. 김주현(2012), 공예의 유용성과 미적 쾌 -리자티의 "순수 공예"를 중심으로, 미학 69: 49-83
38. 김준선 외(2012), 문학과 삶의 지평, 소명출판
39. 김춘희(2001), 비평의 본질로서 예술성과 비평의 제문제, 인문언어, 2: 141-158.
40. 김학제(1995), Installation의 개념과 미술사적 기원, 조형연구 Vol.-No.1
41. 김한상 (2011), 한국 동시대 다원예술의 현황과 전망: '창작 주체'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석사학위논문
42. 김현숙(2008), 1980년대 한국 동양화의 탈동양화, 현대미술사연구 24: 203-224
43. 김현우(2015), 20세기 이후 미술에 나타난 시각예술작품과 행위의 교차성 연구 : 사례 작가 고찰과 본인 작품 해석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환경조각학과 미술학석사학위논문
44. 김혜진(2002), 미디어시대의 시각예술,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11: 179-204
45. 김호곤(2015), 디자인 개념의 진화 과정에서의 리더십 재조명 - 거시적 차원의 이슈 리더십을 중심으로 -, 한국디자인포럼 46: 329-338
46. 김희양·하영준(2018), 디자인이 가미된 미술평생교육 조소부문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논문집 53 : 27-35
47. 김희정 (2015), 예술에 대한 클러스터 설명의 불완전성, 미학 (81): 111-136
48. 나정조(2013), 디지털화에서 상호작용적 표현에 관한 연구: 37-53
49. 나희선(2003), 현대 실내디자인에 있어 설치미술(Installation)적 경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실내환경디자인전공 석사학위논문
50. 노민욱·김아연(2012), 제2분과: 조경설계 및 이론 : 조경가의 설치예술과 설계작품의 상호연관성에 관한 연구 -마이크로 반 발켄버그와 캐서린 구스타프슨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 47-51
51. 도정일(2007), 비평의 위기와 비평의 활력, 오늘의 문예비평 67: 28-48
52. 류정아(2015),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진단과 방향 정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53. 랜델 P. 해리슨(하종원 역)(2008), 만화와 커뮤니케이션, 한나래
54. 목수현(2012), 한국근현대미술사에서 제도에 관한 연구의 검토,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4 : 93-124
55. 문영진(2007), 비평 분류 방식의 변모와 서사교육적 가능성: 에이브러햄 비평 분류도식의 교육적 활용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19: 361-396.
56. 문화재청(2009), 주요 무형문화재
57. 문화체육관광부(2006), 전통예술 활성화 방안 비전
58.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0 전통공연예술통계조사,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59.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 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60. 미학대계간행회 편(2007a), 미학대계 제1권 - 미학의 역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61. 미학대계간행회 편(2007b), 미학대계 제2권 - 미학의 문제와 방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62. 미학대계간행회 편(2007c), 미학대계 제3권 - 현대의 예술과 미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63. 민경원(2014), 영화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64. 민주식(2014), 예술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미학 (78): 413-462
65. 박갑용(2006), 공연예술(Performing Arts)의 본질에 대한 고찰: 정의와 속성을 중심으로, 연극교육연구 12: 69-98
66. 박서형(2018), 플라톤 음악교육사상의 재조명,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67. 박신의(2001), 미디어 아트, "열린 미술"의 기원, 현대미술연구소 논문집 3: 159-170
68. 박영택(2004), 회화의 위기, 회화의 대안, 미술 이론과 현장, 한국미술이론학회 2: 7-26
69. 박유선(2016), 그래픽 디자인 표현에서의 예술성에 관한 연구 -타이포그래피 표현 사례를 중심으로-, 조형미디어학 19(1): 139-147
70. 박정자(2005), 『빈센트의 구두』, 기파랑
71. 박현승·허식 (2013), 전통예술 참여동기 요인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문화경제연구 16(1): 73-102
72. 박효주·원유미·민성희(2018), 동북아시아 전통무용의 의미 및 무형문화유산정책 고찰, 한국체육과학회지 27(2): 903-911
73. 브로케트, 오스카 G(김윤철 역)(2014), 연극개론, 연극과 인간
74. 빅터 파파넥(현용순 등 역)(2009), 인간을 위한 디자인, 미진사
75. 서명애·이상복(2007), 예술작품의 수치화와 다변량분석에 의한 새로운 분류 제안: 전문가를 중심으로, 품질경영학회지 35(4): 67-77
76. 서연호(2009), 한국연희연구의 현실과 미래, 한국사 시민강좌 45, 일조각
77. 서연호(2015), 한국 공연예술 개론 1, 연극과 인간
78. 서영식(2012), 융복합 교육을 위한 철학적 고찰, 철학논총 67: 145-163
79. 서정미(2016), 뮤지컬의 재탄생: 미디어믹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80. 성기숙(2005), 전통담론과 전통무용의 현대적 계승방안. 공연과 리뷰, 제51권 : 63-77
81. 세광음악출판사 편(1996), 音樂大事典, 세광음악출판사
82. 손태도(2012), 전통 연희의 공연 미학 탐색, 고전문학과 교육 (23): 331-366
83. 송방송(1984), 한국음악통사, 일조각
84. 송준영 외(1999), 무용의 이해, 조선대학교 출판부
85. 수잔 레이시 편(이영옥·이인규 역)(2010),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 지형 그리기(Mapping the Terrain: New Genre Public Art), 문화과학사
86. 스콧 매클루드(고재경·이무열 역)(1999), 만화의 이해, 아람드리
87. 심정민(1999), 근대 예술비평의 형성 조건과 그 초기 흐름에 관한 연구: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중엽까지, 무용예술학연구 4: 101-122
88. 심희정(2013), 정보 기술 이미지의 기원과 새로운 모델 -판화와 프린트 인스톨레이션, 홍익대학교
89. 아서 단토(이성훈, 김광우 역)(2004), 예술의 종말 이후, 미술문화
90. 안주경(2017), 융복합 공연예술의 경험적 가치와 소통인식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1) : 364-370
91. 안진주 (2010), 다원예술의 예술지형에 대한 파급효과와 전망,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2. 양건열(2003), 주요 국가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93. 오지희(2001), 서양 예술음악의 이해, 충남대학교 출판부
94. 우주희(2007), 다원예술의 조류와 지원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95. 원종원(2003), 뮤지컬, 커뮤니케이션북스



96. 웰렉, 르네 · 워렌, 오스틴(이경숙 역)(2002), 문학의 이론, 문예출판사
97. 유성호(2009), 청소년문학의 미학과 교육, 오늘의 문예비평 72: 46-62.
98. 유연식(2011), 디자인 언어개념 정립을 통한 인더스트리얼디자인 언어 교육콘텐츠 연구, 한국디자인포럼 32: 433-444
99. 윤모춘(1989), 수필문학의 이해, 미리내
100. 윤병로 외(2002), 문학개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01. 윤정연(2012), 《포기와 베스》 장르의 이중적 수용사, 서양음악학 30: 101-132
102. 윤지현(2008), 다원예술과 한국의 무용공연 - "창작 춤 집단 가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무용기록학회지 15: 61-92
103. 윤지현(2013), 다원예술의 탈경계성에 관한 연구- 복합적 실험적 무용공연을 중심으로, 대한무용학회 논문집 71(2): 155-176
104. 윤필상(2018), 오페라, 음악과 극의 만남, 푸른사상
105. 이동수 · 김현수 · 서윤아 · 윤니나 (2017),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 분류체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문화산업연구 17(3): 75-84
106. 이상섭(2001), 문학비평 용어사전, 민음사
107. 이상현(2008), 아돌프 로스의 건축론에서 "예술과 실용품의 분리"에 대한 비판적 소고,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4(3): 133-140
108. 이수진 · 조용신(2009), 『자칼 이야기: 흥미진진한 브로드웨이 뮤지컬 100년사, 숲
109. 이숙경(2014), 현대공연예술의 연극성 및 수행성: 피나 바우쉬의 탄츠테아터와 자비에 르 르와의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카프카연구 31: 159-177
110. 이숙영 · 박현우(2007), 현대무용에서 사상의 흐름, 한국체육철학회지 15(3): 283-300
111. 이승현(2013), 한국 근현대미술의 새 역사, 어떻게 쓸 것인가?, 미술사학보 40: 35-62, 미술사학연구회
112. 이영미(2008), 전통예술의 대중적·현대적 계승 - 신민요와 사물놀이예의 예를 중심으로, 대중음악, 한국대중음악학회: 179-197
113. 이웅식(2007), 전통공연예술 활성화 정책의 전망과 과제, 문화정책논총 19: 41-67
114. 이인범(2004), 예술용어와 예술현장: 한국 근·현대 예술의 기원과 성격, 미학·예술학연구 (20): 5-23
115. 이인범(2013), 공예의 종말 이후의 공예, 미학 예술학 연구 39: 243-268
116. 이종한(2012), 예술매체로서 만화에 대한 연구, 예술과 미디어 11(1): 189-201
117. 이주은(2003), 행위미술방법의 미술교육적 가치에 대한 연구-청소년기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118. 아필(2015), 예술사진과 현대미술의 지형도 변형: 갤러리스트로부터 수집가, 그리고 미술관으로,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42): 255-279
119. 이현선 (2011),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20. 인성기(2002),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건축예술에 대한 비교문화적 연구, 독일언어문학 17: 431-450
121. 임범재(1993), 21세기 건축에 있어서의 기술과 예술: 폐허 사이 저 너머 - 비트루비우스, 알베르티, 부르크 하르트(Jenseits der Ruine), 건축 37(5): 17-22
122. 임산(2012), 기획심포지엄: 예술과 더불어 살기; 현대예술 이론의 실천들: 융합 시대의 예술담론을 위한 이론적 범례 - W.J.T. 미첼과 에르빈 파노프스키, 미학 예술학 연구 36: 47-69
123. 임영순 · 맹해양 · 배기형(2016), 전통공연예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확보를 위한 전략적 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4): 88-99
124. 임현식(2014), 연주자의, 연주자에 의한, 연주자를 위한 음악의 정의, 한국학술정보
125. 장 킵 다발(박주석 역)(1999), 사진예술의 역사, 미진사

126. 전경욱(2011), 전통연희의 현대적 의의, 한국어문교육 (9): 249-288
127. 전영백(2006), 미술사의 사진에 관한 화두, 미술사연구 (20): 311-342
128.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2016년 전통공연예술 실태조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한국문화관광연구원
129. 정공주·박주석 (2014), 시각예술 작가 기록물 수집전략 및 기록정보 관리 연구, 기록학연구 (40): 61-93
130. 정낙림 (2016), '예술의 종말'과 종말이후의 예술 - 헤겔, 니체, 단토의 '예술의 종말'론 비교연구, 니체연구 (30): 67-117
131. 정성모(2018), 디자인팀 사고과정과 디자인 결과물 간의 영향관계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9(5): 643-656
132. 정소영(1998), 무용개론, 금강
133. 정영권(2018), 영화이론 입문: 포스트제니론에서 디지털 이론까지, 한울아카데미.
134. 정옥경 (2010), KCD 예술류(600) 분류항목전개의 변천에 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3): 109-122
135. 정용도(2008), 비주얼 퍼포먼스 Visual Performance: 새로운 예술 형식을 지향하며, 예술과 미디어 7(1): 162-167
136. 정윤선(2001), 행위미술의 특성에 관한 연구-1960년대를 중심으로-, 동아대학원 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137. 정진수 편저(2009), 브로드웨이 뮤지컬 - 그 역사와 이론, 연극과인간
138. 정현(2013a), 영화 기술 역사, 커뮤니케이션북스
139. 정현(2013b), 영화 역사와 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140. 정훈(2008), 공연예술 활성화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1. 조만호(2001) 한국 전통연희의 미학 -한국연극학 방법론을 향하여-, 미래예술연구 2001: 1-14
142. 조민현(2017), 서예란 무엇인가?, 미술세계 387: 70-75
143. 조화연(2008), 문화예술진흥체계 역할모형 연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4. 주강원(2011), 예술의 법적 정의에 관한 고찰, 홍익법학 12(1): 559-579
145. 주창범·염영배(2013), 우리나라 전통공연예술정책의 정책지향성 분석, 한국행정논집 25(4): 1075-1094
146. 줄리언 벨(원형준 역)(2002), 회화란 무엇인가, 한길 아트
147. 진경아(2015), 통섭의 관점에서 본 디지털 매체예술의 의미와 특성-아방가르드 예술과 디지털 매체예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기초조형학연구 16(5): 677-686
148. 최보연(2016), 주요국 문화예술정책 최근 동향과 행정체계 분석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49. 최재혁(2017), 영상과 물질 -1970년대 일본의 판화, 월간 미술세계
150. 최혜실(2012), 디지털 시대의 문화읽기, 소명출판
151. 태혜신·박명숙(2012), 무용학의 융복합적 접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2): 607-608
152. 통계청 (2017),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보고서 제Ⅲ권 특성편』, 통계청
153. 통계청 (2017), 『2016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보고서』, 통계청
154. 한경신(2012), 한국십진분류법 한국음악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4): 297-316
155.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2014), 2013 공예백서
156.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2018), 2019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사업설명회 자료

157. 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편저(2013), 한국십진분류법 제6판 제1권 본표, 한국도서관협회
158. 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편저(2013), 한국십진분류법 제6판 제3권 해설서, 한국도서관협회
159.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2006a), 문학비평 용어사전 상, 국학자료원
160.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2006b), 문학비평 용어사전 하, 국학자료원
161.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6), 2016년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162.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6), 2016년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163.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 2015년 기준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6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획조정부(2018), 문예연감 20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65.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06), 제 1기 (2005/2006) 소위원회 활동보고서
166. 한국문화예술진흥원(2003), 문예진흥기금 사업운영 중점기조연구.
167. 한국정책학회(2011), 주요선진국의 문화예술 지원방식.
168. 한국연극교육학회 편(2003), 연극, 연극과인간
169.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본부(2018), 2017 음악산업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170. 한국콘텐츠진흥원(2017), 2016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문화체육관광부
171. 하난영(2016), 공연예술콘텐츠의 가치와 융합적 구조: 공연예술실태영상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 241-255
172. 허버트 리드(이희숙 역)(2001), 조각이란 무엇인가, 열화당
173. 현지은(2009), 예술에 대한 공적지원의 이론적 배경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4. 홍진혁(2015), 장르로서의 예술영화, 영상문화콘텐츠연구, 8: 121-142.
175. 황진현·임진희(2012), 시각예술기록정보 관리를 위한 데이터 모델 설계: KS X ISO 23081 다중 엔티티 모델의 적용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33: 155-206
176.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2018), 2019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사업설명회 자료
177.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17), 2017 공연예술실태조사(2016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178.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17), 2017 미술시장실태조사(2016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179.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17), 2017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180. ACE(2013), GREAT ART AND CULTURE FOR EVERYONE: 10-YEAR STRATEGIC FRAMEWORK.
181. Art Council of Wales(2018), Arts Grants for Organisations Getting Started.
182. CFPDC(2008), Cultural Policies in France.
183. Creative Scotland(2015), The Guide to Open Project Funding.
184. DCMS(2018), Annual report and accounts for the year ended 31 March 2018.
185. Florida Division of Cultural Affairs(2018), General Program Support Grant Guidelines for 2019-2020.
186. Ministère de la Culture(2012), Catalogue Des Subventions.
187. Missouri Arts Council(2018), FY2020 Guide to Grants.
188. NAO(2017), A Short Guide to the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189. NASAA(2015), National Standard for Arts Information Exchange Reference Guide.
190. NASAA(2017), NASAA Strategic Plan.
191. NASAA(2018), FY2018 FDR Instructions to States and Regions.

192. NEA(1995), Grants to Organizations: Application Guidelines.
193. NEA(1996), 1996 Annual Report.
194. NEA(1997), 1997 Annual Report.
195. NEA(2000), 2000 Annual Report.
196. NEA(2005), 2005 Annual Report.
197. NEA(2012), 2012 Annual Report.
198. NEA(2014), Strategic Plan FY 2014-2018.
199. NEA(2018),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2018 Guide.

#### 웹사이트

200. 강원문화재단 <http://www.gwcf.or.kr>
201. 경기문화재단 <https://www.ggcf.kr>
202. 경남문화예술진흥원 <http://gcac.or.kr>
203. 공연예술디지털아카이브 <http://archive.ntok.go.kr>
204. 공연예술통합전산망 <http://www.kopis.or.kr>
205. 광주문화재단 <http://www.gjcf.or.kr>
206. 국립국악원 <http://www.gugak.go.kr>
207.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
208. 국립극단 <http://www.ntok.or.kr>
209. 국립발레단 <https://www.korean-national-ballet.kr>
21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https://www.acc.go.kr>
211. 국립오페라단 <http://www.nationalopera.org>
212. 국립합창단 <http://nationalchorus.or.kr>
213. 국립현대무용단 <http://kncdc.kr/ko>
214. 국립현대미술관 <https://www.mmca.go.kr/main.do>
215. 네이버 <https://www.naver.com>
216.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3679&cid=40942&categoryId=32992>
217. 네이버지식백과-발레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74791&ref=y&cid=50341&categoryId=50341>
218. 네이버지식백과-세계무용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811966&cid=42687&categoryId=42687>
219. 네이버지식백과-영화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0580&cid=42617&categoryId=42617>
220. 네이버지식백과-파퐁러음악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22793&cid=60517&categoryId=60517>
221. 다음 <https://www.daum.net>
222. 대구문화재단 <http://www.dgfc.or.kr>
223. 대전문화재단 <http://www.dcaf.or.kr>
224. 대한민국예술원 <http://www.naa.go.kr>
225. 문화센터 <http://stat.mcst.go.kr>
226.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https://policydb.kcti.re.kr>

227.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
228. 문화콘텐츠닷컴 <http://www.culturecontent.com>
229. 부산문화재단 <http://www.bsfc.or.kr>
230. 서울문화재단 <https://www.sfac.or.kr>
231. 서울예술단 <http://www.spac.or.kr/>
232. 세계음악 장르용어사전 [http://ffr.krm.or.kr/base/td011/browse\\_jtype.html](http://ffr.krm.or.kr/base/td011/browse_jtype.html)
233. 세종문화재단 <https://www.sjcf.or.kr/>
234. 아시아문화원 <http://aci-k.kr>
235. 울산문화재단 <http://uacf.or.kr/>
236. 영화진흥위원회 <http://www.kofic.or.kr>
237. 예술마루 <http://www.gokams.or.kr/artmaru>
238. 예술의전당 <http://www.sacticket.co.kr>
239. 예스24 <http://www.yes24.com>
240. 인터파크 <http://www.interpark.com>
241. 인천문화재단 <http://www.ifac.or.kr>
242.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http://jact.or.kr/>
243.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http://www.jbct.or.kr/>
244. 제주문화예술재단 <https://www.jfac.kr/>
245. 지역문화진흥원 [www.rcda.or.kr](http://www.rcda.or.kr)
246. 충남문화재단 <http://cacf.or.kr/>
247. 충북문화재단 <http://www.cbfc.or.kr/>
248. 통계분류포털 <https://kssc.kostat.go.kr>
249. 통계포털 <http://kostat.go.kr>
250. 티켓링크 <http://www.ticketlink.co.kr>
251.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252. 해외문화홍보원 <http://www.kocis.go.kr>
253. 한국국악협회 <http://www.kukakhyuphoe.or.kr>
254. 한국국제교류문화진흥원 <http://kofice.or.kr>
255.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https://www.kcdf.kr>
256. 한국무용협회 <http://koreadanceassociation.org>
257. 한국문인협회 <http://www.ikwa.org>
258. 한국문학번역원 <https://www.litkorea.or.kr>
25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https://www.kcti.re.kr>
26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https://www.arte.or.kr>
261.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http://www.kocaca.or.kr>
262. 한국문화재단 <https://www.chf.or.kr>
263. 한국미술협회 <http://www.kfaa.or.kr>
26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43022>
265. 한국방송정책원 <http://www.ktv.go.kr>
266.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http://www.daarts.or.kr>
267.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http://www.yechong.or.kr>
26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http://www.kawf.kr>

269. 한국음악협회 <http://www.mak.or.kr>
270. 한국연극협회 <http://ktheater.bravod.co.kr/>
271. 한국영상자료원 <https://www.koreafilm.or.kr>
272.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http://www.i-eum.or.kr>
27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http://www.kpipa.or.kr>
274.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www.kocca.kr>
275. (재)예술경영지원센터 <http://www.gokams.or.kr>
276.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http://kotpa.org>
277. (재)정동극장 <https://www.jeongdong.or.kr>
278. ACE (Arts Council England) <https://www.artscouncil.org.uk/>
279. Arts Council of Northern Ireland <http://artscouncil-ni.org/>
280. Art Councils of Wales <http://www.arts.wales/>
281. Creative Ground <https://www.creativeground.org/>
282. Creative Scotland <http://creativescotland.com/>
283. Connecticut Office of the Arts <https://portal.ct.gov/DECD/Services/Arts-and-Culture>
284. DATA.GOV.UK <https://data.gov.uk/>
285. GOV.UK <https://www.gov.uk/>
286. Guam Council on the Arts and Humanities Agency  
[https://docs.wixstatic.com/ugd/850b83\\_5526961ea3fb44018114f878b80c0857.pdf](https://docs.wixstatic.com/ugd/850b83_5526961ea3fb44018114f878b80c0857.pdf)
287. Indiana Arts Commision <https://www.in.gov/arts/>
288. Lousiana Office Of Cultural Development Division Of The Arts  
<https://www.crt.state.la.us/cultural-development/arts/>
289. Maine Arts Commission <https://mainearts.maine.gov/>
290. Maryland State Arts Council <https://www.msac.org/>
291. Mass Cultural Council <http://www.massculturalcouncil.org/>
292. Ministère de la Culture <http://www.culture.gouv.fr/>
293. Mississippi Arts Commission <https://arts.ms.gov/>
294. NEA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https://www.arts.gov/>
295. New Jersey State Council on the Arts <https://www.state.nj.us/state/njsca/>
296. North Carolina Arts Council <https://www.ncarts.org/>
297. North Dakota Council on the Arts <http://www.nd.gov/arts>
298. NYSCA (New York State Council on the Arts) <https://www.arts.ny.gov/>
299. Plate-forme des Achats de l'Etat <https://www.marches-publics.gouv.fr/>
300. Rhode Island State Council on the Arts <https://risca.online/>
301. SDAC (South Dakota Art Council) <https://sdac.gosmart.org/>
302. Tennessee Arts Commission <http://tnartscommission.org/>
303. Wisconsin Arts Board <https://artsboard.wisconsin.gov/>
304.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https://www.wipo.int/treaties/en/ip/berne> <2018.12.18. 검색>

#### 보도자료

305.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2019.1.30.)